

장학자료 2006-10  
고등학교용 논술 지도자료

# 사고의 실타래 풀어주기

<http://www.ken.go.kr>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논술 지도 자료를 발간하며

변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 조직하여 새로운 정보로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은 전통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교육도 기존의 교과 지식만을 가르치는 역할에 머물러 있어서는 현대 사회의 다각적인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논술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논술은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창의적인 글 쓰기입니다. 논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이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비판적 읽기 능력, 다각적인 태도로 독창적인 해결력을 끌어내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근거를 제대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해 내는 논리적 서술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논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고차원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논술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교육을 통해 선도적으로 논술교육을 책임져야겠다는 방침에 따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논술교

---

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논술 능력 평가 시행, 저소득층 자녀와 지도교사를 연계한 논술  
침삭지도,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논술 지도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서의 논술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자료집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논술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학교현장에서 논술 지도를 어떻게 해  
야 할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할지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사  
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 내 논술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논술의 기초에서부터 각 영역별 논술수업의 실제적 지도방안을 다루어 교  
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주어진 제재를 분석하여  
통합교과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사의 논술 지도능력 배양과 방법 제시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본 논술 지도  
자료집이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침서가 되고, 학교 현장마다 논술 지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논술 지도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은 물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자리매김하여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자료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자료집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 4월

경기도교육감 

# CONTENTS



## ■ 일러두기

### I. 논술 이해하기

- 1. 논술이란 무엇인가? ..... 10
- 2. 논술의 일반적 과정 ..... 15
- 3. 논술의 출제 형태별 유형 ..... 49

### II. 논술에서의 오류 수정하기

- 1. 오류 수정하기의 원칙 ..... 68
- 2. 오류의 유형 ..... 72

### III. 논술 지도 모형과 방법

- 1. 논술 지도 모형 ..... 98
- 2. 논술 지도 방법 ..... 106

### IV. 영역별 논술 지도의 실제

- 1. 인문영역 ..... 128
- 2. 사회영역 ..... 168
- 3. 수리영역 ..... 213
- 4. 과학영역 ..... 249
- 5. 예술영역 ..... 296

## ■ 부록

- 대학별 논술고사 기출 문제 및 해설 ..... 346
-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안(교육인적자원부) ... 424



# 일러두기

본 자료는 교사들의 논술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경향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지도 자료로 개발되었다.

자료의 체제는 I. 논술 이해하기, II. 논술에서의 오류 수정, III. 논술 지도 모형과 방법, IV. 영역별 논술 지도의 실제와 부록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I장 [논술 이해하기]**에서는 논술의 개념과 논술의 일반적인 과정, 논술의 출제 형태별 유형 등 논술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논술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으며 논술 지도의 처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II장 [논술에서의 오류 수정하기]**에서는 오류 수정하기의 원칙과 다양한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교사는 이 장을 통해 고쳐 쓰기 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I장 [논술 지도 모형과 방법]**에서는 논술 지도의 이론적 배경과 논술 지도 모형을 제시하고 논술의 일반적 지도 방법을 기술하였다. 논술 지도 모형은 현시적 교수 모형을 준거로 삼았으며 III장을 통하여 교사들은 9단계의 논술 수행 과정을 익혀 지도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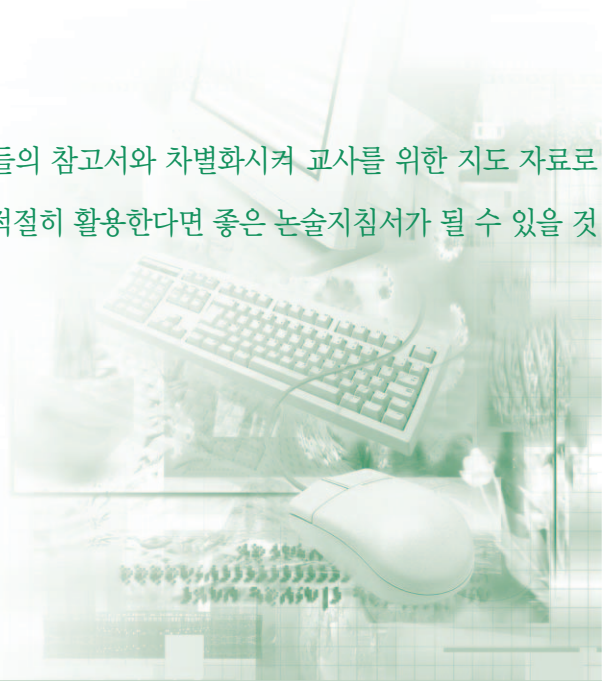
---

**IV장 [영역별 논술 지도의 실제]**에서는 인문영역, 사회영역, 수리영역, 과학영역, 예술영역 등으로 나누어 현시적 지도 모형에 입각하여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숙달시키기, 활동하기의 차례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기술하되 출제경향과 지도대책을 실었고, 지도의 실제에서는 문제의 발견, 문제의 해결, 실행, 검토의 순서로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로 예시문을 제시하되 <시범보이기>와 <숙달시키기> 단계에서는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논술 수행 과정을 익히도록 하였고, <활동하기>단계에서는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 창의적인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IV장을 참고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과목과 관련하여 논술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주요대학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다. 또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안도 수록하였다. 특히 기출문제에서 지문의 분석과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을 첨부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본 자료집은 기존의 읽기 자료나 학생들의 참고서와 차별화시켜 교사를 위한 지도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선 학교에서 유효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논술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



## I . 논술 이해하기

- ▶ | 1. 논술이란 무엇인가?
- | 2. 논술의 일반적 과정
- | 3. 논술의 출제 형태별 유형



# 1. 논술이란 무엇인가?

## 가. 논술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논술이란 용어가 생기게 된 것은 대학 입시에서 사용하게 된 후부터 생겨난 용어로서 학문적으로 독립된 장르는 아니다. 따라서 논술 장르를 학문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술’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술이란 무엇일까? 우선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해본다면,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sup>1)</sup> 또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적인 글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술이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립하고, 어떤 논제에 관한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주제나 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합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말이나 글로써 진술하여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언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단편적 개념 정의만으로는 논술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서울대 논술고사 성격 안내>를 살펴보자.

논술고사는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으

1)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8월 30일자 보도자료(학사지원 과장 박용수 외)



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제에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은 글 구성 능력, 논증 능력, 표현 능력 등을 포괄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비판적 읽기란 반성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태도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논리적 서술이란 근거를 제대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것을 말한다.<sup>2)</sup>

서울대학교의 <논술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위 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논술 평가 기준으로 이해·분석력(20점), 논증력(30점), 창의력(40점), 표현력(10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서울대 논술고사 성격 안내>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은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상응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창의력과 상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은 논증력과 표현력과 상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논술이란 “비판적 읽기를 기반으로 주어진 논제를 창의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적인 글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논술의 성격

### ▣ 논술은 작문과 구별된다.

작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관적이며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라 한다면, 논술은 필자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자기의 독창적 견해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문학적 글보다 그 표현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을 요구하게 된다. 즉, 작문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자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어법, 비문법, 비표준어, 속어, 은어 등 다양한

2) EBS교육방송, 「사고와 논술」 11쪽

표현이 용납될 수 있지만, 논술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수사적 표현을 삼가고 어문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사투리나 비속한 언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논증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은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 ▣ 논술은 신문 사설과 구별된다.

논술과 신문 사설은 논증적인 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 성격을 지녔지만, 설득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다. 논술은 감성적, 심리적 설득과 달리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라야 한다.

독자를 설득하는 논거 제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논증은 지적(知的)인 이해로서의 납득에 호소하며, 감정에 바탕을 둔 설득을 피한다. 그러나 지적인 이해의 단계에 앞서서 지적인 납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논증에 있어 감정이 표면화해서는 안 된다”<sup>3)</sup> 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논증하는 과정에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과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논증적인 글 모두가 이 둘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두 글을 비교해 보자.

### 1

작열하는 태양, 숨 막히는 이 무더위에, 만장폭포 비류직하의 장엄 청렬함을 실감케 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름하여 제1회 조국 순례 대행진!

- 중략 -

이에 우리는, 제1회 조국 순례 대행진이, 참가자 전원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 눈은 세계를 향하며, 가슴은 조국을 안아,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인격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몇 마디 충고의 말을 붙이고자 한다.

우리가 당부하고자 하는 바 첫째의 것은, 노방에 구르는 돌 한 덩이,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가볍게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민족사 5천 년이 어디서 이룩되었으며, 우리 자손 억만대의 행복이 또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돌 한 덩이 저 꽃 한 송이가 바로 우리 국

3) 김봉군(1980) 「문장 기술론」 삼영사

토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제 창천에 계시는 우리 조상은 이를 지키기에 신명을 도(賭)했으니, 이 돌을 가슴에 대보고 저 꽃에 뺨을 비벼 보라. 그러면, 그 돌과 꽃 속에 흐르는 피의 뜨거움을 느낄 것이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 2

전승은 역사성 속에서 가능하다.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 변혁에도 아랑곳없이 전승된 민속을 인류는 많이 가지고 있다. 정치적 사건, 사회 개혁이 민중의 소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역이 되는 영웅의 의지나 권력의 반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 주역의 의사보다는 민중들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한민족의 세시 풍속이나 원시 신앙이 농경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것은 농경민족으로서 그래야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경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도 굳어져서 제천이니 안택(安宅)이니 기우제니 산제(山祭)니 하는 민속 의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민속은 어느 한 사람의 선택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니와, 한 시대의 사람만이 그렇게 지내 온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지지나 선택 혹은 공명(共鳴)에 의해서 변함없이 전승된 것이다.

(임동권의 '민속학 서설'에서)

글 [1]과 [2]는 둘 다 설득을 목적으로 쓰여진 논증 형태의 글이다. [1]은 비교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쓴 신문 사설에 해당하는 글이고, [2]는 이성에 호소하면서 쓴 논술 형태의 글이다. 이 두 편의 글이 설득을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서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1]은 독자로 하여금 어떤 사실에 대해 감정과 태도, 신념의 변화를 주기 위한 글이므로, 내면적으로는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2]는 자기

나름의 주장 내용을 타당성이 있도록 하므로, 독자의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글의 최종 목표가 다르다. [1]은 필자의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독자의 동의와 공감’을 최종 목표로 삼는 데 반해서, [2]는 감정보다 이성애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리 추구’가 최종 목표가 된다.

셋째, 수사상의 차이가 있다. [1]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유적 수사나 과장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텍스트 수용자의 이성애 호소해야 하므로 과장된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1]과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글 [1]	글 [2]
서술 방식	내면적	논리적 체계	논리적 체계
	표면적	독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	독자의 이성애 호소하는 표현
최종목표		독자의 동의나 공감 유도, 설득	진리 추구, 설득
수사상 차이		설득을 위한 다양한 수사법 가능	과장법, 비유법 등 억제

### 글 [1]과 [2]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과 [2] 모두 논증적인 글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다. 위 표에서 글[1]은 신문 사설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라면, 글[2]는 논술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 이처럼 논술문은 다른 유형의 논증적 글들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술을 지도할 때 신문 사설을 무작정 이용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하다.



## 2. 논술의 일반적 과정<sup>4)</sup>

### 가. 주제와 주제문

#### ▣ 논술은 논제를 분석하여 주제를 설정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논술이란 어떤 주제나 제시된 과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한 다음,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논술은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를 설정하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잘못 파악하여 주제의 방향이 잘못되면 논술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학의 양면성을 설명하라'는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다음 문제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는 과제에 대하여 둘의 절충을 이야기하는 등의 논술은 문제 파악부터 잘못된 것이다.

#### ▣ 논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주제다.

논술 속에는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생각, 곧 주장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도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찾아낸 생각의 알갱이, 즉 '주장'이 없는 논술은 있을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주제이다. 그러므로 주제는 논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97-10, 「논술 지도의 이론과 실제」 일부 인용

## ▣ 논술의 주제는 이렇게 정하자.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주장들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이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정하면 된다.

첫째, 주제의 범위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이 좋다. 주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면, 글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 보다는 ‘상수원 오염의 실태’를 다루는 것이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둘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쓸거리가 충분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나도 잘 모르고 쓸거리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때로는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만 늘어놓다가 상식 수준의 결론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글의 목적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해 써야 하는데 ‘과학 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논술의 방향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

넷째, 보편적이면서도 참신한 주제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관심을 끌 수도 있다.

‘남녀 공학’을 예로 생각해 보자.

이 주제는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넓고 막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쓸 때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하자.

- 남녀 공학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남녀 공학의 문제점
- 남녀 공학에서의 이성 간의 관계
- 남녀 공학과 학생들의 생활 습관
- 남녀 공학과 학습 효과

물론 남녀 공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자신의 주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 공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주제를 ‘남녀 공학이 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바람직한 효과’로 정했다고 하자. 그것을 처음 주제인 ‘남녀 공학’과 비교해 보면, 이 주제가 훨씬 주장의 핵심도 명확하고 쓰기도 쉽다.

흔히 ‘남녀 공학’과 같이 범위가 넓고 막연한 주제를 ‘가주제’라 한다. 그리고 ‘남녀 공

학이 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바람직한 효과' 처럼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범위를 축소시킨 주제를 '참주제'라 한다. 이러한 가주제와 참주제와의 구별은 항상 상대적인데, 논술의 주제는 참주제로 정하는 것이 좋다.

### ▣ 논술의 제목은 이렇게 정하자.

제목은 글을 대신하는 얼굴이요, 글의 인상이다. 독자는 글의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과 성격을 암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의 과제 중에는 제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논술의 주제가 결정되었으면 제목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논술의 제목은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제를 대신해서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제목은 글의 요지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의 주제를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은 논술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남녀 공학'의 경우도, 참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면 된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남녀 공학이 주는 바람직한 효과' 정도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주제문은 논술의 방향을 예고하여 준다.

가주제를 바탕으로 참주제를 정했으면, 그것을 적절히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주제문은 제시된 주제에 글 쓰는 이의 의견을 드러내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령, '남녀 공학이 학생 생활에 미치는 바람직한 효과'라는 주제를 '남녀 공학은 학생들에게 미래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길러 준다.'와 같이 문장화하면 이것이 주제문이다.

주제문을 작성할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진술하되, 표현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잘 작성된 주제문은 앞으로 쓰게 될 글의 방향을 예고하여 줄 뿐 아니라, 글의 내용과 길이를 조절하여 주고, 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가사(家事)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보다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온 가사는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 '중동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인가' 보다는 '중동 지역은 인접 국가 간의 이해관

계 상층으로 항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가 글쓴이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물론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이 더 주제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 나. 소재 모으기

### ▣ 자료가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주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주제문을 작성했으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집을 짓는 일에 비교하여 말하면, 자료는 건축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데 꼭 소용되는 각종 건축 자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한 내용이 없다면 단 한 줄의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주제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는 주제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수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료를 모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주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수필이나 보고문 등을 쓸 경우는 자료를 먼저 모은다. 그러나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같은 논술문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료라 하면 흔히 특이한 경험이나 지식, 권위자의 견해 등과 같은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실도 그것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역시 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편적 진리
- 통계나 보도 자료
- 학설, 전래 속담, 격언
- 권위자의 견해
- 용어의 개념
- 대상의 분류, 본질이나 특성
- 체험담, 우화, 소설, 역사적인 사건
- 다른 것과의 공통점, 차이점



## ▣ 자료는 여러 방법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경험, 기억, 관찰, 대화, 독서, 상상 등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풍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평소부터 주의 깊은 관찰과 사색, 폭넓은 독서를 통해, 필요한 것을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시간과 분량에 맞게 해결해야 하는 수험 논술인 경우는 자료 수집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 ▣ 논술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자.

### ● 자유 연상하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약 10분 간 시간을 정하여 관련되는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적어 보는 방법이다.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생각의 흐름에 맡겨 두는 것이다. 쓰다가 막히면 숫자나 기호를 써도 좋고, 쓰는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써도 좋다. 다 쓴 다음에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에 밑줄을 긋고,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본다.

### ● 목록 작성하기

자유 연상하기와 마찬가지로,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생각나는 대로 쓰되, 메모식으로 쓰는 것이다. 죽 나열하다가 생각이 바닥이 났다고 느낄 때, 이제까지 쓴 자료들을 읽어보고,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운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부터 다시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내용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목록에 첨가해 나가는 방식이다.

### ● 질문하기

쓰려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표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제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주제와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일은?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은? 그밖에 무엇이 비슷한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른가?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물음들은 글의 명료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 연관 짓기

주제를 종이의 한가운데에 쓰고,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들을 포도송이처럼 연결 짓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생각의 흐름에 따르되, 쓰다가 막히면 써 놓은 생각들의 관계를 살핀다. 이들 관계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 때에, 내용전개에 알맞지 않은 내용들은 과감히 지워 나간다.

### ▣ 수집된 자료는 이렇게 선택하여 정리한다.

이런 방법으로 주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취사선택하여야 한다. 아무리 자료가 훌륭하고 참신하다 해도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들만 알맞은 분량만큼 골라야 한다. 자료를 선정하는 조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
- 둘째, 근거가 확실한 것
- 셋째,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 넷째, 글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선정된 자료는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 일이다. 그리고 구상이나 집필의 편의를 위해 대강의 순서를 정하고, 선정된 자료들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닌지를 살핀다. 이렇게 취사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면, 개요의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자료의 정리는 개요를 작성하거나, 실제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개의 경우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그 다음 단계인 구상이나 개요의 작성과 그렇게 명확한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글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풍부한 재료의 수집과 정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용이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 다. 구상하기

### ▣ 구상은 글의 논리적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주제와 주제문이 확정되고 재료가 선정되면, 그 재료, 곧 제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때 재료들을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배열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구상(構想)이라고 한다.

- 글의 ‘처음, 중간, 끝’ 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 글의 재료는 어떤 순서로 배열할까?

즉, 구상이란 글을 쓰기에 앞서 쓰고자 하는 내용과 글의 표현 방식, 글의 짜임 등을 머릿속에서 설계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며, 이 구상의 결과로 얻은 문장의 짜임새가 구성이다. 간단한 글은 머릿속에 그 내용을 엮어 두고 써 나갈 수 있지만, 다소 긴 글은 구상을 통해 미리 열개를 잡아 놓고 계획적으로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주제와 재료들을 이용하여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해 보자.

- 주제 : 세대 간 갈등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
- 재료
  - ① 세대 간 갈등의 예화
  - ② 주변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소외감
  - ③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
  - ④ 기성세대의 보수적 시각
  - ⑤ 세대 간 갈등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
  - ⑥ 공동의 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
  - ⑦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의 조절
  - ⑧ 세대 간 갈등의 심각성

≫ 서론 : 문제 제기 - ①, ⑧

본론 (1) 갈등의 원인 - ②, ④

(2) 극복 방안 - ③, ⑥, ⑦

결론 : 주장 - ⑤

## ▣ 단계성, 통일성, 연결성에 유의하여 구상하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구상을 할 때에 글의 전체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내용에 유기적인 맥락이 서도록 조절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음 몇 가지 원리에 유의해야 한다.

- 글의 단계성 : 한 편의 글의 처음, 중간,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는 글의 내용상의 전개에 일정한 단계를 정하여 질서 있게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 글의 통일성 : 글의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용상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종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논지의 통일성, 관점의 통일성, 목적의 통일성, 문제의 통일성 등을 들 수 있다.
- 글의 연결성 : 글의 각 부분이나 단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긴밀하게 결합되어 한 편의 글을 이루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를 달리 응집성이라고도 한다.

## ▣ 구상의 방법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구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각적인 순서나 공간적인 질서에 따르는 전개적 구상을 들 수 있다.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 나가는 것이므로, 자칫 글의 인상이나 호소력이 약해지기 쉽다. 기행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직접적인 경험이나 기억을 재생해 나가는 글에 적합한 구성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쓰고자 하는 바를 인위적으로 논리를 세워 서술하는 종합적 구상이 있다. 이 방식은 글 쓰는 이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는데 주로 논술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글에 많이 쓰인다. 단계식 구상, 포괄식 구상, 열거식 구상, 점층식 구상들이 여기에 속한다.

- 단계식 구상 : 글 쓰는 이의 의지와 논리에 따라 선택된 소재들을 단계적으로 배열하여 글의 짜임새를 구상하는 방식이다.
  - 3단 구상 : 서론 - 본론 - 결론
  - 4단 구상 : 도입 - 전개 - 발전 - 결론, 도입 - 발전 - 전환 - 정리
  - 5단 구상 : 주의 환기 - 과제 제시 - 과제 해명 - 해명의 구체화 - 결론
- 포괄식 구상 : 글의 주제문(또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이나 뒤, 또는 양쪽에 두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구상 방식이다.

개개의 단락을 구상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으로 구분한다.

- 열거식 구상 : 몇 개의 대등한 제재를 특별한 순서 없이 임의로 배열하는 구상 방식이다. 제재간의 관련성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글에 주로 사용한다.
- 점층식 구상 : 범위가 작거나 덜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범위가 크거나 더 중요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구상 방식이다. 반대로 중요하고 큰 것을 앞세우고 점차 작은 것으로 배열해 나가는 방법을 점강식이라 한다.
- 인과적 구상 : 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글의 짜임새를 결정하는 두상 방식이다.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고, 결과를 제시하고 나중에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다.

### ▣ 논술에는 단계적 구상이 가장 좋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글쓰기다. 따라서 논술에는 문제를 제기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여기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요약·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단계식 구상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단계식 구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3단 구상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서론 : 글을 쓰는 동기와 의도를 밝혀야 하며,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히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어야 한다.
- 본론 :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견해의 정당성을 논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 결론 :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는 부분이다. 독자의 결심과 실천을 촉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일 수도 있다.

## 라. 개요 작성하기

### ▣ 개요는 글의 설계도이다.

글의 구상은 머릿속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리된 자료들을 논리적 사고 과정에 따라 배열하고 줄거리를 엮어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에 집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도 글의 설계도, 즉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개요를 작성하게 되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혼란과 탈선을 막을 수 있다. 또,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도 막을 수 있다. 즉,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 상호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 ▣ 그러면,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개요를 작성할 때는 항목 간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제에 따라 몇 개의 주요 상위 항목을 설정하고, 그 밑에 하위 항목들을 둔다. 그리고 그 내용의 범위가 넓을 때에는 다시 하위 항목들을 설정하여 구체화한다.

### ▣ 다시 개요를 검토해 보고 수정하자.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 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한다.

- 항목의 내용이 명확한가?
- 항목 상호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가?
- 각 항목의 배열은 논리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 주제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가?

그러나 글을 쓰는 도중이라도 작성된 개요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데 무리가 있다면, 과감히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더 적절한 내용과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개요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여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개요를 작성해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개요 작성은 사고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 마. 서론쓰기<sup>5)</sup>

서론은 글의 처음 부분이다. 처음 부분이므로 ‘서두(序頭)’나 ‘들머리’라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서론부터 쓰거나 읽는다.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면, 글을 매개로 하여 만나는 작자와 독자 사이에는 서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서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1) 독자의 관심 끌기, 2) 논지(내용)의 소개, 3) 논의를 방향과 자신의 관점 제시, 4) 논의의 방법과 순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함으로써 서론의 기능을 가지게 한다.

### ▣ 독자의 관심 끌기

서로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것이 서론에서는 독자의 관심 끌기이다. 동일한 주제를 두고 여럿이 글을 쓸 때는 비슷한 내용이 되기 십상이다. 대부분이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일 경우에는 입수하는 정보나 사고방식마저 유사할 것이므로 개성이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서론 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논술교재 <일필휘지> 일부 인용

● 구체적 예 들기

예문 1

먼저 누구나 저지르는 작은 착오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이를테면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온다든가, 글을 쓰는 데도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글이 쓰여지는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책을 읽을 때에도 잘못하여 틀리게 읽는 수가 있고 남의 하는 말을 잘못 듣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감각 기관의 고장으로 생기는 것과는 물론 다르다. 또 그러한 잘못을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는 수도 있지만, 못 알아차리는 수도 많은 것이다.

다정한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마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기해하거나 화를 내지만 역시 망각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들 여러 현상은 모두 내면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법이다.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몹시 분개해서 반대할 것이 틀림없다.

프로이트, <착오 행위>

길잡이

이 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착오 행위의 예를 들어 서론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경험 가운데 예를 든 경우와 같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이 글의 본론과 결론을 읽고 싶어 할 것이다.

예문 2

북풍과 태양이 길가는 사람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풍이 이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외투 깃을 틀어잡고 단추를 단단히 잠그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외투자락 하나 흔들 만한 힘이 없지만, 그 빛의 열기는 그것을 저절로 벗겨지게 하는 것이다.

이 우화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동시에 태양의 승리를 의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태양보다도 북풍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로 북풍인 것이다.

이어령, <북풍식과 태양식>

### 길잡이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북풍과 태양의 힘겨루기' 우화를 예로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쓴 서론이다. 평범한 것으로만 여겼던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독자는 글 전체를 읽게 될 것이다.

### ● 특이한 체험 소개

#### 예문 1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서산군에선가 출토됐다는 금동불상들을 본 일이 있다. 2척이 못 되는 작고 날씬한 여래상 보살상들이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밝고 화사한 웃음을 띠고 있는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부영, <영원한 미소>

### 길잡이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달한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를 것이다. 이 글을 쓴 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사연을 서론으로 삼아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 예문 2

연구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낙엽이 떨어져 있다. 가을이 올 때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그리 큰 나무도 없거니와 그리 큰 산도 없고, 새파란 하늘 밑에는 그저 '평화'의 두 자만이 있다. 초가집의 지붕도 둥글고, 산의 능선도 둥글고, 눈에 거슬리는 직선은 신작로에서 있는 포플러뿐이다.

지붕에 널린 고추, 마당에 열린 감, 모두 원색이면서 동화वाद 같은 한국의 색채들이다. 아무렇게나 놓인 돌 위에 바가지가 얹어지고 울타리 수숫대 위에 잠자리가 멎어 있는 전원의 풍경, 한국인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한 구성분자처럼 생을 즐기고 있다.

자연환경을 정복하려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대자연의 혜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생물의 하나로서 조용하게 소리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결코 즐겁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연 속에 태어난 생명체의 숙명을 체질적으로 체념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존재케 하는 그 어떤 섭리가 생명을 가진 모든 물체를 아끼고 키워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정감과 향수, 자연의 주인이 아니고 그의 품안에 안기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 한국 민족의 근본을 흐르는 큰 특색이라 하겠다. 한국의 미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룡, <한국 예술미의 성격>

## 길잡이

이 글은 한국의 예술미가 가진 성격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국의 자연미가 가진 특징을 언급하고, 그것에서 연유하여 결정된 우리 민족의 근본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에서부터 생겨난 여러 예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연구실로 올라가는 계단-낙엽-가을-나무-산-하늘-지붕-산-포플러-고추-감-바가지-잠자리 등으로 이어지는, 체험 속에서 우리나라 상념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 ● 인용하기

### 예 문

자연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란 저절로 생겨나 스스로 이룩되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본질은 항상 살아 있는 상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정영호, <자연을 보호하자>

### 길잡이

‘자연 보호’라는 주제의 글을 쓰면서 글쓴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려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방면에 관하여 깊은 식견을 담은 말을 남겼으나, ‘자연’에 관한 언급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글쓴이도 이것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 ▣ 논지(내용)의 소개

논술에는 완성형, 조건 제시형, 단독 과제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이야 다르지만 이들은 어느 것이나 ‘무엇’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이다. 이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 곧 논술하고자 하는 대상이 논지, 또는 내용이다. 서론에서는 이것을 소개해야 한다. ‘무엇’을 풀어야 할 ‘문제’라 한다면, 논지의 소개란 문제의 제기라는 말과도 통한다.

논지를 단독 과제형에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해 주지만, 완성형이나 조건 제시형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스스로가 논지를 찾아 나서야 할 경우가 많다. 논술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특히 중요한, 논지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확보하는 일은 글 쓰는 이의 몫이다.

● 묻고 답하기

예문 1

교육은 현세대가 전세대에게 진 빛을 다음세대에게 갚아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교육은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세대에게 진 빛보다 더 큰 빛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길상, <고교평준화와 한국교육>

길잡이

이 글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논지를 ‘지금의 우리 교육은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세대에게 진 빛보다 더 큰 빛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 2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 역시 인간의 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라 볼 수도 있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한 형태는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그에게 최적(最適)의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그가 생활하는 지역은 하나의 상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그의 만족도[效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화를 선택하듯이, 여러 지역 중에서 그에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로써 투표(vote on foot)’ 하는 행위가 바로 지역의 선택과정으로 나타난 인구 이동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어떤 환경이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가? 지난 30년 간의 ‘개발 연대’ 동

안 농촌 지역으로부터 도시 지역으로의 엄청난 인구이동을 야기(惹起)시킨 농촌 지역의 환경은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열악한가? 농촌 지역이 살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이 그의 주민에게 베풀어 주는 '서비스'는 지역 속에서 그의 생활을 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기회(所得機會)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가 번 소득을 그의 생활을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기회(消費機會)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세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가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 농촌 지역이 과연 살 만한 '삶의 터'가 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농촌 지역, 살 만한가>

## 길잡이

이 글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생활환경의 문제에서 찾고, 과연 농촌이 살 만한 곳인지를 따지려는 글의 서론 부분이다. 이 글의 둘째 문단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하여 논지를 제시하고, 넷째 문단에서 요약하여 다시 제시하는 방법으로 짜여 있다. 이 질문이 곧 논지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론에서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 주제 제시하기

### 예 문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요즘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뉴스, 뉴스 라인, 헤드라인 뉴스, 뉴스 비전, 빅쇼, 그린패트롤, 퍼즐 특급열차, 가요 페스티벌 등 수없이 많다. 특히 43년 만에 귀대한 조창호 씨의 지난날을 극화해서 방영하면서 제목을 '드라마 스페셜'이라고 한 것을 보고 심한 거부감을 느꼈다.

## 길잡이

이 글의 필자는 외래어의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공영방송인 KBS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있다. 언뜻 보면 예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끌려는 수법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글 전체의 주제라 할 자신의 주장을 서론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용어의 개념 규정

#### 예문 1

‘발전’이라는 낱말은 이제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상용어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전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물어 본다면 그 대답은 아마 천차만별일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상적인 개념 규정 가운데는 발전이란 말이 지녀야 할 바른 뜻과 상당히 거리가 먼 관념도 들어 있을 것이다. 한 개념이 일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제 나름의 해석과 왜곡이 끼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김경동, 〈사회의 발전〉

## 길잡이

이 글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발전’이 가지는 다양한 개념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이란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 이 글에는 개념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해석과 왜곡”까지 생긴다는 우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발전’의 개념이 논지와 긴밀하게 관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예문 2

우리가 바라는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문화를 정확히 정의하는 일은 자리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여

기에서 간단히 가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여 행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와 그 결과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원하는 모습의 삶이란 우리 자신의 삶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모습이 되게 하는 외적인 수단과 요건을 갖춘 삶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주어진 그대로보다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적이란 형용사를 써서 말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그를 위한 내적 외적 보조 수단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수단에 드는 것들을 문화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우창, <사회 공간과 문화 공간의 창조>

## 길잡이

‘문화’라는 말은 개념의 규정조차 필요 없을 만큼 널리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 따로 규정하는 자리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이 글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문화’의 개념 규정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란 논지를 펼치기 위해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 가려는 의도를 살필 수 있다.

## ● 과제 해석하기

### 예문 1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함이 많고 말썽 많은 민족인 것처럼 자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엽전민족’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볼 때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이 별로 근거가 없는 자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단결을 못한다느니, 말이 많다느니, 서로 불신을 한다느니, 사리사욕만을 채울 줄 아는 부패한 민족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국민들은 설득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

이 없는 민족인 것처럼, 마치 남의 일같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왜 자기 민족의 민족성에 대한 시비가 남의 나라에 비해 이토록 많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송건호, <한국인, 과연 누구인가>

## 길잡이

이 글은 한국인의 특성을 밝히려는 의도로 집필된 글의 서론 부분이다. 한국인 사이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이 일반화하여 가는 사정에 대한 몇몇 유형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과제를 찾아내는 것을 이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2

우리의 문화 전통, 특히 유교적 정치 문화 전통 중에는 아마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문화 전통은 때로는 순기능적으로 때로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정확히 분별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는 경험적 자료도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 역사를 관통하는 직관 같은 것도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일단 1)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전통 요인과 그렇지 못한 요인을 추출해서 그 각각의 경우를 살펴본 후, 2) 여기서 정의한 정치 발전 개념에 따라 오늘 한국 정치의 실상을 검토하고, 3)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 문화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안병영, <한국의 문화 전통과 정치 발전>

## 길잡이

이 글은 정치 발전에 문화 전통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글의 서론에서 뽑았다. 이 글에는 다루려는 과제의 성격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고, 본문에서 검토할 내용까지 제시함으로써 서론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 ▣ 논의의 목적과 자신의 관점 제시

일정한 목적없이 쓰는 글은 논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논지가 아주 좋더라도 목적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되지 않는다. 논의의 목적은 그런 점에서 '왜 쓰느냐'라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라 해도 좋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유라 할 수도 있다.

글을 쓰는 목적을 제시할 때에는 자신의 관점에 충실하여야 한다. '자신의 견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등을 제시하라는 것은 곧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라는 의미이다.

### ● 반론 펼치기

#### 예문 1

28일자 12면에 실린 94 사회 통계「10명 중 6명 '나는 중간 계층」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이는 통계청이 전국의 3만2천5백 가구를 표본으로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94년도 사회 통계 조사」를 통해 국민의 사회 전반의 관심사를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0명 중 6명이 자신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객관적 타당도와 조사의 신뢰성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길잡이

이 글은 신문 기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기사 내용에 대해 긍정할 것과 부정할 것을 분명히 구분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런데'라는 접속어에서부터 기사 내용에 대한 필자의 반론이 제기됨을 알 수 있다.

#### 예문 2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드러나 보일 때가 많다. 망설이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러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서기를 서슴지 않으며,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숭상한다.

어려운 때를 당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귀중한 미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 동기가 순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높은 지식과 깊은 생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한때의 감정이나 얇은 지식, 좁은 관찰에 근거를 두고 경솔하게 결정한 태도를 옳은 신념인 양 밀고 나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김태길, <독선과 겸손>

## 길잡이

이 글은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펴려는 글의 서론이다. '그러나'를 기준으로 하여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 ● 동의하기

### 예문 1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학부모와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는 중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삼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입시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고교 교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조선일보 사설, 1995.3.4

## 길잡이

이 글은 서울대의 입시 제도에 따라 고교 교육이 좌지우지된다는 일반적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대의 입시 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문 2

민요의 수집과 관심은 <시경> 이래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학문의 대상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부터이다. 당시의 민요에 대한 고조된 관심은 세계적인 보편 현상으로 민족의식의 자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민중 다수가 창작하고 향유하며 민중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담고 오랜 시일 구전되는 동안 민족적인 사상, 정신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표적 문학 형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질적으로 우수한 민요를 풍부히 지니고 있다. 더구나 신라의 민요는 향가를 통해, 고려의 민요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를 통해, 조선의 민요는 국가적 채록, 개인의 관심에 따른 문집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모습을 남겨 한국 민족이 지닌 민요의 역사적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민요가 학문적 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한국 민요학은 풍부한 현존 자료와 민요에 대한 오래된 관심을 배경으로 상당한 연구가 이미 진척되어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민요의 일반적 성격을 밝히고 연구 목적에 따르는 여러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민요의 분류,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특히 문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민요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민요 연구의 실례를 제시하고 한국 민요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지은, <민요 연구의 학문적 방향과 성격>

## 길잡이

이 글은 ‘민요 연구의 학문적 방향과 성격’이란 제목으로 민요의 연구사를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의 서론 부분이다.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비판적 시각과 동조적 시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제시함으로써 후자의 쪽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 ▣ 논의의 방법과 순서

논의의 방법을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서론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뜻한다. 비판하거나 동조하고, 유추하거나 예시하며,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따르는 추보식,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 분석법 등이 그런 예이다.

이렇게 보면 논의의 방법이란 글의 구성 방법과도 맥이 닿는다. 글의 구성은 곧 글의 순서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논지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서론에서 밝혀야 한다.

## ▣ 서론 쓸 때의 주의 사항

서론은 ‘어떤 글의 본론을 펴기 위해 쓰는 글’, 또는 ‘어떤 글의 본론의 실마리로 쓰는 글’ 이므로 논술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서론을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서술 분량의 비례 균형을 깨뜨리지 말 것.

논술은 서술 분량이 주어진다. 적게는 300자에서 많게는 2,500자 정도로 제한되는 글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서술 분량을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서론-본론-결론에 적절히 분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술 분량은 서론 : 본론 : 결론 = 1 : 3 : 1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서론의 서술 분량이 300자의 경우에는 80~100자, 1,000자의 경우에는 150~200자 정도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서론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사적인 언급은 피할 것.

논술은 독자의 평가를 전제로 하는 글이다. 그렇다고 사적인 언급을 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변명하는 언급, 독자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언급 등은 피해야 한다.

- **논제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 것.**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어떤 단서도 붙여서는 안 된다. 과제의 타당성·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과제를 임의로 바꾸려 하는 행위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호언장담과 허장성세를 피할 것.**

성실하고 진실되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내려 하거나 현학적·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 **본론과 결론을 엮두에 두고 쓸 것.**

논술은 구성의 치밀성·체계성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 글이다. 서론은 서론다워야 하고 본론이나 결론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욕심을 부려 각 단계의 고유한 기능까지 침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바. 본론쓰기

### ▣ 본론은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서론 쓰기를 했더라도 이어지는 본론의 내용이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본론 쓰기가말로 글에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며, 좋은 글의 완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끌어 모은 읽는 이의 관심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용의 초점이 체계 있고 명확하게 본론 속에 드러나야 한다.

### ▣ 본론은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필요한 논의 절차를 갖추어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소주제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글 전체의 통일성에 유의해서 자체 내에 상호 모순되는 논리나 사실의 서술 없이 조리 있고 분명하게 전개하여야만 서론에서 불러일으킨 독자의 관심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다.

## ▣ 문제의 성격에 따라 본론의 전개 방법이 달라진다.

본론을 전개하는 데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닌지만, 논술의 질문 유형에 따라 본론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진다. 그 유형은 ① 영향 분석, ② 원인 분석, ③ 방안 제시, ④ 찬반의 논거 제시, ⑤ 대상의 비교, ⑥ 설명 또는 논평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험 논술에서는 ①이나 ②를 ③과 연계시켜 묻는 ‘원인 대책형’ 과, ④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찬반 선택형’ 등이 비교적 많이 출제된다.

## ▣ 본론을 쓸 때에는 이런 점에 유의하자.

글의 전개에 대해서는 ‘구상하기’에서 공부한 바 있지만, 글의 목적과 성격,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본론을 전개할 때에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여 문장을 기술해야 한다.

**첫째,** 논지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논술의 경우 본론은 대개 3 ~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문단이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논지의 발전과 전개, 전환과 보충, 강조와 요약 등을 변화 있게 하여, 모든 문단이 일정한 맥락을 이루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배열한다.

**둘째,** 논의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본론의 내용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생각과 느낌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자기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거나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글쓰기의 자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논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내용의 참신성을 살려야 한다.

글의 내용이 참신하거나, 창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담았다는 뜻이다. 글의 참신성은 새로운 자료와 논법, 새로운 관점과 해석 등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의 새로움에서 비롯된다. 어휘의 선택, 문장의 구성, 표현의 방식 등에서부터 개성적인 요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적절한 논거와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고 있는 중심 문장 하나로는 단락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어야만 독자가 중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심 내용을

적절하고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다.

**다섯째,** 줄거리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본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성된 개요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요의 각 항목들을 더욱 세밀한 항목들로 나누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써 나가도록 한다.

## 사. 결론쓰기

결론은 논술을 마지막 단계이다. 끝을 맺으니 ‘맺음말’이라고도 하고, 글을 마무리하니 ‘마무리’라고도 한다. 서론에서 제기한 과제를 본론에서 해결하고 결론에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이란 ‘어떤 글을 끝맺기 위해 쓰는 글’, 또는 ‘어떤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하여 써야 한다. 서론에서는 독자에게 기대감을 주고, 결론에서는 독자에게 성취감을 주어야 한다. 서론에서의 기대감이 결론에서 실망감으로 바뀐다면 큰일이다. 결론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독자는 본론을 새로이 읽으려 들 것이다.

결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구실은 본론에서 논의된 골자를 간추려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의 요약이다. 본론을 요약한 것은 결국 주제문이다. 주제문이 결론에 나타나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모든 글의 결론이 그런 것은 아니다. 결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요약 외에도 일반화, 전망 제시, 부탁과 당부, 주장 등을 더 들 수 있다. 이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둘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 ▣ 결론의 유형<sup>6)</sup>

### ● 본론의 요약

#### 예 문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발제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사회사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사상은 민주주의로 나타난다고 나는 보았다. 이러한 사회의 뿌리는 결코 계급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기라고 하는 특수한 국면에서, 우리가 민중을 어떻게 결합시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적인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나는 민중의 개념을 이론화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급 이론적인 시각에 너무 의존한 결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민중의 저력을 무의식적으로 삭감시킬 뿐만 아니라, 민중 개념의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피력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생각한다면, 계급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해결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민중의 문제가 이 시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한상진, <사회 사상의 전개와 전환기의 사회 문제>

#### 길잡이

이것은 사회 사상의 개념, 민주주의의 어원과 그것을 보는 시각,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뿌리, 민중 운동과 중산층의 문제, 민중 역량의 제고 방향, 사회 갈등과 민주화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다룬 본론을 요약한 글이다. 그런 사정을 첫째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보았다’, ‘피력했다’ 등의 서술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6)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논술교재 <일필휘지> 일부 인용



## ● 전망 제시

### 예 문

급격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한국 교육은 이제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의하여 교육 발전의 새로운 차원에 도전하는 일이다. 교육의 발전은 결코 양적 성장이나 외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기에, 우리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과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의 외형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외형적인 체제를 구비해야 할 허다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학급의 과밀 상태를 완화해야 할 일은 외형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학급당 인원을 가지고 교육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교육의 내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앞날을 생각해서이다. 그와 같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때,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교육이 자청해서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내재적인 과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교육이 발전을 위하여 지향할 바는 분명 진정한 인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피교육자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인간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 그러한 인간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교육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과제에 도전하는 자체 갱신의 필요에 직면해 있다. 그것이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내재적 과제이다.

정원식, <교육 발전의 시각>

### 길잡이

본론에서 교육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본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전망을 제시했다. ‘21세기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는 언급이 그런 사정을 잘 보여 준다.

## ● 일반화

### 예 문

근래에 와서 우리의 수출고는 자꾸 늘어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고속도로가 기운차게 뻗어가고, 공장이 서고 ………. 요컨대 모두들 잘 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들 잘 되어나가는 가운데 유독 그렇지 못한 꼴이 되어 뒤쳐진 측면은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 뒤쳐진 측면이 잘 되어나가는 보다 많은 측면보다도 때로는 더 소중한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천이두, <젊은이의 자살>

### 길잡이

한 젊은이의 자살 소식을 듣고 쓴 글의 결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 대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 주장

### 예 문

정책입안자들은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여야 한다. 성장의 고삐를 늦추면서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창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등에 업혀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렴한 선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권오철, <빠빠라기와 원시인>

**길잡이**

이것은 원시인의 눈에는 ‘문명인’이란 의미의 ‘빠빠라기’가 사는 세계가 편리하  
기보다는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한 글의 결론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  
기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도 높게 펼치고 있  
다. 당위의 뜻을 가진 ‘~하여야 한다’라는 어미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주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 요약 + 전망 제시

**예 문**

이 소론에서는 단지 곳의 연희·연극적 측면으로서 놀이가 드라마로 옮겨 앉은  
곳의 한 가능성이 지적되었지만 이 부분은 연극학의 과제로서 더 천착·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드라마로서 곳이 관찰되어야 할 경우 우리는 드라마의 기본적 명제인  
대립과 갈등, 미학적 구조, 희곡적 구성, 연출과 연기, 가면과 의상, 그리고 효과 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표현력의 법칙 혹은 그 법칙의 재발견, 현대적  
인 다양한 실험과 운동 등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상일, <곳의 놀이적 성격>

**길잡이**

본론에서 다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결과에 의해 해결될 전망을 제  
시하는 글이다.

## ● 요약 + 일반화

**예 문**

사랑은 본능적 행위라기보다 배워서 터득하는 학습된 능력이라고 한다. 그 사랑  
을 배우는 과정이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정신 건강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앞에서  
소개한 사고(또는 해석) 방식의 문제가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바로잡는 데 중

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능력의 터득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김중술, <사랑의 의미>

## 길잡이

셋째 문장의 앞 부분에서 사랑의 종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등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셋째 문장의 뒷부분과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있는 글이다.

### ● 요약 + 주장

## 예 문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분류, 성 정체감과 고정 관념, 성 차이, 양성성과 성 전형성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면 현대의 남녀 젊은이들이 이 사회적 성의 문제에 대해서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필자는 첫째, 남녀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녀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도 일치할 뿐더러 위에서 심리학자들의 성 차이에 관한 연구들의 개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남녀평등을 부인할 근거가 될 만한 남녀 간의 능력이나 성격 등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녀평등이 기본 원칙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인의 성향과 사회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 역할에 대한 입장은 흔히 이데올로기나 집단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곤 한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성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지나친 압력을 가하거나 사회 현실과 전혀 괴리된 성 역할 행동이나 관념을 강요한다면 부적응만을 산출할 따름이다. 셋째,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들을 비판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과 남녀평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성 역할의 개념을 추구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성 역할의 문제는 집단 이해의 맥락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이상적인 개인과 사회를 추구한다는 목표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 역할의 문제를 주위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경우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 역할에 관련된 사

회의 태도나 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일의 성격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배우자의 특성 등등의 적절한 성 역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신축성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과 이해의 두 원칙이 성 역할에 대한 다른 어떤 개인적 신념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경환, 〈남성과 여성〉

## 길잡이

심리학자인 필자가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문화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성 정체감과 성 역할 고정 관념의 형성, 남성과 여성의 차이, 양성성의 추구, 남성과 여성의 회복 등에 대하여 본문에서 언급하였음을 첫째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장황한 내용은 필자의 주장들이다. ‘필요하다’는 서술어가 많은 것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 ● 일반화 + 주장

### 예 문

대문자 S의 「사우스 코리아」로서의 자격 갖추,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고 규모가 아니라 품격이다. 격조 높은 삶이 질 높은 삶이다. 그 격조는 방임이 아니라 자제이고, 방일이 아니라 규칙이다. 내 요구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가 질의 원천이다. 한 이웃으로서의 봉사, 한 시민으로서의 적극 참여, 그것이 나의 의무이고, 그 의무 수행이 곧 삶의 질이다.

그것은 높은 소득, 편리의 향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온다. 그 마음가짐은 자제하는 마음가짐이고, 요구를 줄이는 마음가짐이다. 자제하고 요구를 줄이자. 그래서 대문자 S를 찾자.

송복 <「남쪽」 사람들>

## 길잡이

이것은 필자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가 'south Korea' 라고 표기한 의미를 찾는 글의 결론 부분이다. 서론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과 소문자 s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루어지고, 본론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헤친다. 그리고 결론은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일반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주장(또는 제언)을 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 ▣ 결론 쓸 때의 주의 사항

-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언급하지 말 것.**

결론은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니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과제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 **서론과 관련지어 통일시킬 것.**

서론과 결론은 처음과 끝으로 동떨어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맞붙어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둘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본론과 구별 지을 것.**

본론과 결론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본론과 결론을 한 자리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은 본론과 뚜렷이 구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적인 언급을 피할 것.**

잘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어서 고맙습니다니 하는 사적인 언급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 언급은 글에 대해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어 독자로 하여금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한다.



## 3. 논술의 출제 형태별 유형

### 가. 단독 과제형

#### ▣ 유형분석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문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제목, 특정한 주제, 주제만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 유형은 논술자에게 가장 자유로운 반응을 요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논제자체가 단일하고,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틀과 방향이 자유로워 사고의 깊이를 비롯한 내용의 영역을 심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술된 내용이 다양하므로 채점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94학년도 이후 점차 출제 빈도가 늘었으나 근래에는 줄어들고 있다. 출제된 내용은 사회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도덕성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 ▣ 지도상 유의점

이 유형의 문제는 주제 설정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범위가 넓은 만큼 논리전개가 막연하다. 또한 논점을 잘못 파악하면 글의 내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고 쓸 내용을 구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어진 논제의 가주제를 보고 그 범위를 한정하여 참주제를 잡은 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제한 사항에 유념하면서 논술하도록 한다. 특히 이 유형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지식과 정보를 조직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자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에서 지도해야 한다.

## ▣ 출제 형태

### ● 과제 주제 진술형

부과된 주제를 진술하도록 하는 이 유형은 '단순 문제 제시형' 과 '단순 지문 제시형'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환상과 현실'에 대하여 논술하라」와 같은 논제를 주고 논술자가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며, 후자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출제되는 것으로 논제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한 뒤 논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 ~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고 논술하라.
- ◆ ~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라.
- ◆ ~을 ~과 결부시켜 논술하라.
- ◆ ~이 안고 있는 문제(점)를 논술하라
- ◆ ~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술하라.
- ◆ ~의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 ◆ ~의 해결 방안(극복 방안)을 제시하라.
- ◆ ~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라.
- ◆ ~의 역할에 대하여 논술하라.

### ● 논쟁 유도형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는 출제 유형이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견해가 상반된 두 가지 글을 제시한 뒤, 이를 읽고 찬·반 혹은 제3의 견해를 선택하여 논술하라는 문제이다. 둘 이상의 과제를 가지고 분석 검토해야 하므로 과제 주제 진술형보다는 논술의 범위가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유형에서 선택 자체는 점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그 선택한 입장을 얼마나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썼느냐는 사실이 채점의 핵이 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문제는 논술자와 채점자가 서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채점의 기준이 애매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점차 논술 시험에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 ~과 ~의 관계를 논하라.
- ◆ ~과 ~을 비교 분석하라.
- ◆ ~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라.
- ◆ ~과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논술하라.
- ◆ ~의 입장(관점)에서 ~을 논(비판)하라.

### ● 학습의 주안점

-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가능한 한 주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좋다.
- 이 유형은 논리적 사고력과 그 표현력 측정이 중심이므로, 서론-본론-결론의 기본 구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개요의 작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글의 기술 방법을 정하되 제한된 자수에 유의하면서 구상해야 한다.
- 글을 쓸 때는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법과 그 변형들에 유의하고, 각 단락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 견해를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 독창적인 논술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 지도의 실제

### ● 단계별 접근 방법

- 처음에는 5명 내외로 논술 소모임(Team)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한다.
- 논술 과제를 부과하고, 개인별로 논제를 파악하게 한다.
- 개인별로 파악한 논제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지 조별 토론을 하게 한다.
- 논제 파악은 논술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조별 토론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 어떤 성격의 문제인가?
  - 물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 출제자가 물음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는가?
  - 단순한 대등 비교인가?
  - 한 쪽 입장에서의 비판 요구인가?
  - 절충하라는 것인가?
  - 양자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인가?
- 논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각자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기 알맞은 관점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찬성(옹호)·반대(비판)
  - 장점(순기능)·단점(역기능)
  - 제3의 시각과 절충적 시각
  - 양비론적 입장과 양시론적 입장
  -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역사적·통시적-사회적·공시적)
  -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

- 이 단계에서는, 논점이 분명한 글이 좋은 논술문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논점을 분명히 정하도록 지도한다.
  - 논제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논술의 범위와 방향을 고려하여 주제와 주제문 결정
  - 이 때, 교사는 개인이 선택한 논점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질문이 있을 때에만 지도·조언한다.
- 자신이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논거를 메모하게 한다.
  - 자신이 견해를 오류 없이 논증하기 위해 ‘왜’에 해당하는 자료
  - 논증에서 논리적 비약을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에 해당하는 근거
- 각자가 수집한 자료와 논거를 가지고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되도록 각자가 작성한 개요를 가지고 조별 토론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개요 수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 토론을 통해 각자 개요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입장이 같을 경우 공동 안을 도출하도록 지도한다.
- 논술문은 개인별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때로는 도출된 조별 공동 안을 가지고 쓰게 하거나, 구성단위 별로 이어 쓰게 할 수도 있다. 즉, 서론을 한 학생이 써서 다음 사람에게 주면, 그는 서론 내용의 논지에 맞게 본론을 쓰고, 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결론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학생들이 작성된 개요에 따라 논지 전개를 제대로 펼쳐 나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형’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
- 개인별로 퇴고가 끝난 논술문은 반드시 모임별로 돌려 읽도록 한다. 이 때 잘못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메모하여 읽기가 끝나면 서로 지적을 하도록 유도하고, 교사는 가급적 개인별로 지도하거나 첨삭 지도를 해야 한다.
- 수정·완성된 논술문 중 잘 된 것을 추려 발표하게 한다. 그러나 논술 지도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각 조별로 나누어 주고 읽어 보도록 지도한다.

## 나. 자료 제시형

### ▣ 유형 분석

자료 제시형은 최근 우리나라 논술 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논제와 함께 부과하고, 그에 따라 논술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예전에는 하나의 읽기 자료 글이 제시되었지만, 요즘은 복수의 글(많게는 5개의 글) 또는 통계 자료,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 자료 등을 제시하고, 그 자료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술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자신의 명확한 견해가 요구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논술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상황으로 발견·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논술하기 때문에 자칫 자료의 해석 자체에 머물게 되고 문제 해결의 심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유형은 자료 제시 형태에 따라 단독자료 제시형과 복수자료 제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 제시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기술(記述)자료 제시형, 통계자료 제시형, 시청각자료 제시형, 단어 제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記述) 자료의 제시 형태는 주로 주어진 자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라는 등의 논제가 주어진다. 반면에 통계자료 제시형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서 물음에 답하라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때 논제는 주로 자료 해독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전망하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시청각 자료 제시형은 최근 몇몇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선보인 문형으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지도상 유의점

자료 제시형은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지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논술자가 정확히 논점을 찾도록 하고, 그런 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거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하게 하되, 너무 자료에 얽매어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유형에 대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제시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이므

로, 학생들이 평소 글이나 사회 문제를 접할 때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항상 한 번 되짚어 보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유형은 도표에 대한 해석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과학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 ▣ 출제 형태

### ● 기술(記述) 자료 제시형

기술(記述) 자료 제시형은 대학 논술 고사에서 비교적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논설, 사설, 수필, 시 등 문자 언어로 기술된 자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제시해 주고, 그 자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게 하는 형태이다. 논제는 주로 이 자료에 대한 견해 진술을 요구하거나 제시된 내용을 반박 또는 옹호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절충과 제3의 견해를 묻는 경우도 논제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제시된 지문의 논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논술자의 견해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을 유도하는 논제가 주어지게 되면, 자칫 객관성을 잃고 '찬성을 위한 찬성'·'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우선 있는 사례 제시를 통해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 다음 글을 읽고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를 비판·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쓰시오.
- ◆ 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들을 절충하여 제 3의 견해를 밝히시오.

### ● 통계 자료 제시형

통계 자료 제시형은 조사·실험 결과의 도표 등 통계로 된 자료가 제시되며, 이들 자료를 분석한 후 자료 사이의 상호 관계나 일정한 경향성, 향후 추이 등을 논술하라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해결은 제시된 자료의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래프나 표의 형태로 자료가 제시될 것이므로 도표의 특성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통계 자료 제시 형태는 편의상 논제의 성격에 따라 자료 해독형과 전망과 추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언어화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비해서, 후자는 자료에 나타난 특정한 주제의 동향과 추세를 근거로 하여 향후의 전망을 세우거나, 이와 관련된 여타 주제들과 그 상위개념의 주제에 관하여 일반화할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 해독형 논제 형태〉

- ◆ 다음 도표를 분석하여 ~에 대하여 설명하라.
- ◆ 다음에 제시된 두 자료를 참조하여 ~에 대해 논하시오.

### ● 시청각 자료 제시형

사진, 그림,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가 제시되며, 비교적 다양하게 논제가 주어지는 논술 유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논술 형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논술 시험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 활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96학년도 한양대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앞으로 논술이 각 대학에서 일반화될 경우, 예·체능계 대학 등에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 다음 ~을 분석(설명)하고 ~와 관련지어 서술하라.
- ◆ 다음 ~을 보고 연상(생각)되는 것을 쓰라.

## ● 단어 제시형

지금까지 출제된 대표적인 논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 다음 단어를 전부 사용하여 ~에 대하여(~에 관련지어) 논술하라.

## 다. 내용 완성형

## ▣ 유형 분석

완성형은 치밀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논술 출제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문, 사회, 자연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일반적 관점의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고, 이것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완성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어떤 글의 서론-본론-결론 중 어느 한 부분이나 본론 중 일부를 비워 놓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완결된 형태의 글이 되도록 완성시키라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꽤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논술의 본래 기능을 테스트하기에는 부족한 출제 형식이기도 하다. 즉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시험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 ▣ 지도상 유의점

완성형 논술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글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주제나 방향만을 제시한 후 학생 자신의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롭게 서술하는 일반적 유형의 논술과 비교하여 볼 때, 완성형은 제시된

글이 학생들의 자율적 서술을 상당히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 ▣ 출제 형태

### ● 서론과 본론만을 제시하고 결론을 완성을 완성시키는 형태

이 형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본론에서 중점적으로 전개시킨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논술자는 필자가 어떤 관점에서 글을 써 내려 갔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때에 본론 내용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나 재론은 별 의미가 없다. 필자의 중심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술해야 한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주어진 글을 참조해 볼 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 ● 서론이나 본론에 구애됨이 없이 특정 부분의 내용을 채워 넣는 유형

주어진 글이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원인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써야 할 것이고, 주어진 글이 앞부분의 반론이라면 상반된 내용의 글을 써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필자의 관점을 잘 파악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진술해야 한다.

#### 〈논제의 출제 형태〉

◆ 이 글 앞에 있어야 할 내용을 쓰시오.

◆ 제시문(A)와 (B)를 읽고 다음과 같이 여성과 관련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주어진 단락에 이어질 알맞은 내용을 글로 써서 완성하되 반드시 다음의 단어들이 포함되도록 하시오.(400자-500자, 띄어쓰기 포함, 서강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예시문제)



## ▣ 학습의 주안점

- 이 유형은 작성해야 할 부분이 글의 전체 구성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독해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 대개 논지의 파악은 제시된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서론-본론-결론에 이르는 흐름을 파악하면 이들 중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대개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나 첫 문장을 읽어 보면, 논지의 흐름에 맞는 글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 일단 완성할 부분의 내용을 추리하였으면, 빠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관성 있게 논리가 제대로 쫓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 후에 주어진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에 맞게 빈자리의 내용을 완성해야 한다.
- 이 때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지도의 실제

### ● 서론과 본론만을 제시하고 결론을 완성시키는 형태

-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론을 읽고 글을 쓰는 목적이나 동기, 그리고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 또한 본론에서 다룬 문제의 내용 범위와 필자의 입장을 찾아 정리하게 한다.
-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된 내용이 본론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게 한다.
- 이 때, 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서론과 본론, 결론의 구실과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결론 작성의 실마리를 잘 찾아내지 못하거나, 서론과 본론에서 전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다.
- 서론과 본론을 통해 결론에서 쓸 내용이 마련되었으면, 일관성이 있게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그리고 각자 서론에서 제시된 목표, 문제점 그리고 본문에서 다룬 범위에 따라 결론 내용을 직접 쓰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쓴 글을 검토할 때는 서론, 본문의 논지를 결론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한다.
  - 결론은 본문에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면,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본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간추려 보인다.
  - 필요한 경우 본문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인다.
  -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론, 본문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서론과 결론만을 제시하고 본문의 내용을 추리하여 완성시키는 유형**

-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론을 읽고 글을 쓰는 목적이나 동기,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를 찾도록 한다.
- 또한 그 화제를 통해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내용 범위와 필자의 입장을 찾아 정리하게 한다.
- 이 때 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본문과 결론의 구실과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본문에서 쓸 내용이 마련되었으면, 일관성 있게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서론과 결론을 통해 본문에서 쓸 내용이 마련되었으면, 일관성이 있게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그리고 각자 서론에서 제시된 목표, 문제점 그리고 다룬 범위에 따라 본문 내용을 직접 쓰도록 한다.
- 학생들이 쓴 글을 검토할 때는 서론의 논지를 본문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의 적절하고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다양한 논거를 사용하였는가.
  - 다양한 논거를 적절하게 정리, 분류하여 체계성을 갖추어서 사용했는가.
  - 구체적인 논거를 종합하여 일반화시키었는가.
  - 주장과 논거가 체계를 갖추고, 설득력 있게 인과 관계를 이루었는가.

## 라. 요약형<sup>7)</sup>

### ▣ 유형 분석

요약형은 최근 들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요약’이란 긴 글을 같은 주제를 가지는 짧은 글로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주제를 찾고, 그 주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내용을 압축하는 일이 ‘요약’인 셈이다.

그러나 요약은 단순히 줄이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요약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재구성하는 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의 요점을 항목화하는 일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요점 정리는 내용을 파악하는 일까지를 목표로 삼지만, 요약은 ‘자신의 말’로 새로운 글을 쓰는 일까지를 과제로 삼는다.

요약은 독서 능력과 작문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작문을 통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은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다. 요약을 잘한다는 말은, 글을 읽고 난 뒤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줄 알고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요약의 의의가 있다.

### ▣ 지도상 유의점

요약형 논술은 어떤 형태의 문제이건 독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제시된 글을 차분하게 읽고 글쓴이의 입장과 주장,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시된 조건이나 유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요약을 할 때에는 본문에 있는 문장이나 용어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기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시문의 전개 방식을 따를 것.
- 단순히 중요 문장만을 열거하지 말 것.
- 자신의 문장으로 바꿀 것.
-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하지 말 것.

7)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논술교재 <일필휘지> 일부 인용

- 핵심어를 빠뜨리지 말 것.
- 글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룰 것.
- 주어진 서술 분량을 반드시 맞출 것.

## ▣ 출제의 형태

### 〈논제의 출제형태〉

- ◆ 제시문들을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20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경희대학교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 ◆ 제시문 (1), (2) 그리고 (4)의 내용을 요약하시오.(고려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언어논술)
- ◆ 제시문 (가)에 대해 (나)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비판의 가능성을 4줄(76-100자)분량으로 요약 서술하시오.(동국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학업적성 논술)
- ◆ 제시문 (가)와 (다)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답안지 7줄(151-175자)로 재구성하여 요약하시오. 단, 가능한 한 본문에 등장하는 어휘 및 표현을 그대로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중앙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학업적성 논술)

## ▣ 지도의 실제

- 삭제하기 : 덜 중요한 부분—단어, 문장, 문단 등—의 제거

### 예문 1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쓰면 자기 글에 대해 객관적인 시점을 유지하기가 편하다. 왜냐 하면 작성 도중에 화면에 보이는 원고가 언제나 유능한 비서에 의해서 정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화면에 고르게 보여지는 글자들을 보면서 객관적 시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해 본다면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자기 글에 대한 완벽한 교정에 크게 도

움이 된다. 아울러서 악필로 소문난 유명 작가들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병선, <국어와 컴퓨터>

### 모범 답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쓰면 자기 글에 대해 객관적인 시점을 유지하기가 편하다.

### 예문 2

민주 시민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그는 현실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되, 새로운 증거나 타인의 정당한 의견에 의해 자신의 판단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는 판단에 앞서 그것이 민주적 원리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지면(知面)과 인맥(人脈), 파벌이나 특정 집단에의 충성심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고등학교 「국민 윤리」 교과서

### 모범 답안

민주 시민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 ● 축약하기 : 핵심적 내용을 뽑아 줄이기

### 예문 1

최상병은 기관차를 향하여 철모를 힘껏 던졌다. 철모가 차체에 부딪혔다고 느껴지는 순간, 기관차 속에서 자동 화기의 연발 총성이 십여 발 엉뚱한 방향으로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엉겁결에 머리를 풀 속에 묻었다. 다시 벌떡 일어난 최상병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물어 뽑고 기관차 속으로 던져 넣었다. 잠시 후 엄청난 폭음이 울렸다.

홍성원, <기관차와 송아지>

## 모범 답안

최상병은 수류탄으로 기관차를 폭파하였다.

## 예문 2

황해의 수온은 같은 위도의 동해에 비하여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황해가 동해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이다. 황해는 염도의 계절적 변화도 동해보다 심한데, 여름에는 하천을 통하여 많은 담수가 유입됨에 따라 낮아지고, 겨울에는 담수의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높아진다.

고등학교 「한국 지리」 교과서

## 모범 답안

황해의 수온과 염도는 계절에 따라 동해와 차이가 있다.

- 일반화하기 :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바꾸기,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바꾸기, 전체 내용을 통괄하는 하나의 명제로 바꾸기

## 예문 1

세상에는 야릇한 버릇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괴상한 작자들이 없지도 않다. 얼마 전에 종로 네거리에서 갓 스물이나 될까 말까 한 젊은 친구가 흰 바지저고리를 깨끗하게 입고 한 손에는 신식 가방을 들고 활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 총각이라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려 함인지 머리를 길게 땅아 늘어뜨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죄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계룡산에서 서울을 다니러 왔는지는 모르나 그의 옷차림이 특이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멋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처럼 차리고 다니는 꼴이나 여자가 남자처럼 차리고 다니는 꼴이 다 내 눈에는 메스껍게만 보인다. 회중시계나 손목시계 대신에 커다란 사발시계를 품고 다니는 친구도 탐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김동길, <제대로 죽는 방법>

### 모범 답안

진정한 멋이란 자신의 처지와 시대적 감각에 맞게 차리는 것이다.

### 예문 2

향로봉,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의 고봉을 가지고 있는 태백 산맥의 주 분수령이 이 지역의 동쪽에 치우쳐 형성되어 있으며, 이 분수령을 경계로 동쪽 사면은 좁은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에 이른다. 또한 서쪽 사면은 태백산맥으로부터 광주, 차령, 소백산맥이 중국 방향으로 뻗어 있고, 고위 평탄면을 포함한 완사면이 넓게 형성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장되면서 전체적으로 경동성 지형을 이룬다.

고등학교 「한국 지리」 교과서

### 모범 답안

태백산 지역은 주로 산지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예문 3

단어는 군사요, 사상과 감정은 장수요, 제목은 적국이요, 옛말이나 옛이야기는 싸움터의 보루이다. 단어를 묶어 문장을 이루고 다시 문단을 이룸은 대열을 지어 군진을 시행하는 것과 같으며, 비유는 유격전에, 억양 반복은 백병전과 육박전에 해당하고, 제목이 그 내용의 뜻을 다하여 결속하는 것은 적진에 돌입하여 적을 생포함과 같고, 함축을 중시함은 적의 노폐병을 잡지 아니함과 같고, 여운을 담은 기세를 떨치며 개선하는 것과 같다.

박지원, <연암집>

### 모범 답안

글을 쓰는 일은 전쟁을 치루는 것과 같다.

# II



## II . 논술에서의 오류 수정하기

- ▶ | 1. 오류 수정하기의 원칙
- | 2. 오류의 유형





## 1. 오류 수정하기의 원칙

### 가. 글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술에서 일반적으로 집필 단계가 끝나면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검토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필자라도 한 편의 글을 한 번에 완성하기는 어렵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필자가 의도한 내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오류 수정하기, 또는 고쳐쓰기(퇴고)라고 한다. 집필 단계가 끝나고 글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과정은 글을 쓰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

### 나. 오류 수정하기의 기준은 정확성과 적절성이다.

논술에서의 오류 수정은 자기 글에 대한 자기 진단이요 자기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진단과 평가는 '정확성'과 '적절성'이라는 문장 평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 정확성

글은 정확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글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 글의 정확성은 내용과 표현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과 논리와 관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 ● 사실의 정확성

글에서 다른 내용은 언제나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 계획의 단계에서는 물론, 글을 다 쓴 다음도 불확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논리의 정확성

논리가 정확해야 필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글의 논리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정확성,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증거의 제시, 사실 간의 인과 관계의 정확성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 ● 관점의 정확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관점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립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보편성, 전체성, 객관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 ▣ 적절성

글을 쓰는 상황, 목적, 대상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르기 마련이다.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은 그 상황, 목적, 대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글이 그 자체로서의 표현도 적절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 동적 기준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 대상 등은 글을 쓸 때마다 달라진다. 이러한 것을 동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글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과 조직, 그리고 어휘들이 글의 목적에의 부합성 여부, 문제와 필자의 상황에서의 적절성 여부, 독자에 대한 고려 등을 점검해야 한다.

### ● 정적 기준

글은 그 자체로서 표현이 적절해야 하는데, 이 적절성은 ‘가치 있는 내용인가?’, ‘합리적인 조직인가?’ 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가치성, 글의 통일성, 긴밀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장 평가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쓴 글을 진단하고 평가한다. 만일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오류 수정하기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보완하거나 다시 써야 한다.

### ▣ 오류 수정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오류 수정하기의 기준을 알아보았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에서 어떻게 오류 수정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오류 수정하기의 실제 작업은 크게 글의 전체흐름에 대한 맥락을 다듬는 작업과 어휘나 단락 등의 세부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다듬는 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전체에서의 오류 수정하기

글 전체의 내용과 짜임새를 대상으로 전체의 구조를 살피는 작업으로 다음 사항을 살펴야 한다.

- 주제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글의 짜임새가 잘 이루어졌는가?
- 글이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술되었는가?
- 각 문단은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계가 적절한가?
- 문단의 소주제가 글 전체의 주제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만일 이러한 사항에 어긋난다면 수정하거나 다시 써야 한다.

#### ● 부분에서의 오류 수정하기

글 전체에 대한 오류 수정이 끝나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다듬기 작업을 해야 한다.

#### ● 문단의 오류 수정하기

문단이 통일성과 연결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 동일한 사항이나, 동일한 논점이 하나의 문단 내에 정리되었는가?
- 각 문장들의 내용이 문단의 소주제에 집중되는가?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 ● 문장의 오류 수정하기

문장의 의미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와 하나의 말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같은 의미의 말이 중복 사용되어 불필요하게 길어진 표현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 문장의 중심 줄기인 주어와 서술어가 적절히 호응하는가?
- 체언과 다른 성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의 쓰임이 적절한가?
- 접속어 '와/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명확한가?
- 서로 다른 말들이 같은 의미를 갖고 중복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 ● 어구의 오류 수정하기

문장 내에서 부적절한 어휘나 구절을 문맥에 어울리도록 수정하는 작업이다.

- 낱말이나 구절이 문맥에 꼭 들어맞는가?
- 낱말이나 구절이 문법에 맞는가?
- 낱말이나 구절이 자연스러운가?



## 2. 오류의 유형

### 가. 지시어의 오류

일상적인 통화에서는 높은 정도의 확실성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글의 명확성은 어느 정도 잃더라도 글의 표층 구조를 짚고 간결하게 만드는 문장이 사용되는 수가 많다. 이는 문장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발화체의 개념을 보다 잘 전달하고 기억장치 속에 명확히 저장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글의 결속기제가 바로 지시어이다. 이들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논술자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서도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그 의미 내용을 활동기억장치 안에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시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글의 결속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 (2) 한글 전용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그 사상은 어떤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 (3)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간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위 예시문의 (1), (2)는 ‘그’와 ‘어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의미 해석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에서는 ‘그러한’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나. 문 접속어의 오류

접속 결속은 전 후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는 결속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나 상황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기능을 하면서 논리적 관계를 주로 나타낸다. 문 접속으로써의 접속 결속은 이접적 접속을 제외하면, 반드시 접속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부가, 대립, 인과 관계 등을 복원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두점만 찍고 접속 표현들을 빼도 이해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접속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는 독자가 어떻게 이들 관계를 복원하고 설정할 것인가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화자들이 어떤 통사 형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법적 필수 규칙이 아니라 통화상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접속 표현들은 제시한다. 접속 표현은 논술문이 효율적으로 수용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친절의 표시일 수도 있다. 이들은 또한 논술문 내용을 구성하고 제시하는 동안에 필자를 돕기도 한다.<sup>8)</sup> 긴 문장을 이어가다 보면 접속 표현의 오류에 의해 문맥적으로 의미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글 전용론자의 의견처럼 한문 사용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 한글 전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2a)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며 밥을 먹으면, 보기에 상스럽지만,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 (2b)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에는 상스럽다. 그러나 때로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 (3a) 이제까지 말한 것을 요약해 보면, 바람직한 교우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3b) 이제까지 말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교우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8) 김태욱·이현호(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일반적으로 접속어의 역할은 글의 주제가 독자에게 생소할수록, 글에서 사용되는 언어 구조가 복잡할수록, 독자의 독해 능력이 낮을수록 보다 큰 역할을 한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접속 표현이 예시문 (1)과 같이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뒷받침할 수 없도록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2a)는 의미의 연결은 있으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어 다소 어색한 문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b2)처럼 문장구조를 나타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나 예문 (2a)를 (2b)처럼 반드시 고쳐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 언어학은 과거 전통문법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결정론적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론적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3a)도 (2a)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연결은 된다. 그러나 등위접속이 네 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 못하다. 이를 (3b)처럼 표현하면 더욱 자연스럽게 된다.

## 다. 필수 성분 생략의 오류

생략은 문장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문장구조의 한 장치이다. 문장의 일부 또는 어휘항목이 생략되었을 때 그 문장의 의미에 혼동이 일어나거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생략이 독자로 하여금 의미의 불연속을 갖게 한다면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한다.

생략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생략된 부분이 독해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략 작용에서도 간결성과 명료성 간의 상호 타협이 성립된다. 생략이라는 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쓴다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낭비하게 될 것이고, 생략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집중적인 검색 및 문제 해결을 요함으로써 독자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음 예시문을 보자

(1)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복종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9) 이은희(1993), “접속관계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논문

(2)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실체의 어딘가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을 텐데, 나는 언제나 잊고 지낸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든지 부자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실체의 어딘가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을 테지만, 나는 언제나 이것을 잊고 지낸다. 그것은 이것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든지 부자유하다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위 예시문 (1)의 심층 구조는 두 가지, 즉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살아왔다’와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면서 살아왔다’이다. 이 두 개의 심층 구조에서 똑같은 어휘 항목은 ‘인간은’과 ‘살아왔다’이다. 따라서 전후 문장에 ‘인간은’과 ‘살아왔다’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전후 절에 공유하는 문장 성분이 아닌 ‘자연에’를 생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2)에서도 ‘잊다’와 ‘불편하다’의 대상을 부당하게 생략하여 집중적인 검색 및 문제-해결을 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생략 문장구조는 하나의 구조와 그 의미 내용을 반복하되 표층 표현의 일부를 빼는 결속 방법이다. 이 생략 결속은 문장구조의 간결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황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생략 현상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별 언어로서의 특성을 지닌다.<sup>10)</sup> 문장에서의 무리한 생략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1) 행복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만다.

(2)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3a) 어린이의 텔레비전 시청률은 어른의 시청률보다 낮으므로 텔레비전은 어린이보다 어른에게 더 해롭다.

(3b) 어른의 텔레비전 시청률은 어린이의 시청률은 보다 높다. 그런데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은 시력을 저하시키므로 텔레비전은 어린이보다 어른에게 더 해롭다.

10) 원진숙(1995), 「논술 교육론」 박이정 출판사



- (4) 국한문 혼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단시일 내에 바꾸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예시문 (1)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됨으로써 ‘무엇이’ ‘어려운 일인가’, ‘무엇을’ ‘포기하는가’ 가 나타나 있지 않다. (2)에서는 ‘복종하다’ 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었고, (3a)에서는 ‘해롭다’ 에 대한 ‘무엇이 왜’ 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3b)처럼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4)는 타동사인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서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다.

## 라. 병행 구조의 오류

병행 구조는 구조를 반복하여 그 구조에 새 요소를 채우는 방법 즉, 패턴 반복이다. 병행 구조는 유사한 행위 등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의미들이 나타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병행 구조의 실현 범주는 가장 간단한 관사+명사의 형태에서부터 길고 복잡한 문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절/문 구성 요소의 병행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오류를 별로 저지르지 않으나 절/문 병행처럼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

- (1) 한글 전용이다. 한자 병용이 옳다. 라는 의견 대립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2) 한글만 쓰기, 한자 병용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3a) 입시 위주 학교 교육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자살을 한다.  
 (3b) 입시 위주 학교 교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부모님의 불화에 항거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자살을 한다.

하나의 문장 안에 의미 내용이 대응하거나 대조를 이룰 때 두 요소가 통사적으로 병행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1)-(3a)는 그렇지 못하다. (1)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병행이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즉, ‘한글 전용이 옳다, 한자 병용이 옳다’ 로, 예문 (2)

는 ‘한글 전용, 한자 병용’으로 각각 표현되어야 병행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예문 (3a)에서는 자살의 동기가 세 가지로 병행되고 있다. 즉 ‘알리려고’, ‘불화 때문에’, ‘토로하기 위해’인데 이들의 표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연결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3b)처럼 바꿔 쓰면 좋다.

## 마. 부적절한 시제 사용의 오류

- (1) 한국은 바야흐로 세계화를 지향했다.
- (2) 최근에 와서야 우리나라는 오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조금씩 빠져 나올 수 있다.
- (3) 우리는 아직도 그 교훈을 믿는 중이다.
- (4)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었다.

위 예시문의 (1)은 ‘지향하고 있다’로, (2)는 ‘있었다’로, (3)은 ‘믿는다’ 또는 ‘믿고 있다’로, (4)는 ‘영장이다’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논술문이 아닌 경우에는 시제의 일치를 이루지 않는 표현도 있을 수 있다. 확실한 내용(객관적 양태)을 추측되는 내용(인식 양태)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11)</sup> 이렇게 함으로써 논술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즉 논술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특정의 표현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이를 위하여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 혹은 명시적 의미를 가진 표현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논술자는 표현이 갖는 명시적 의미를 단순히 전달하기 위하여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명시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거나 혹은 특정의 의도한 효과를 유발하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혹은 완료 형태소로 알려진 ‘-었-’을 사용함으로써 시제의 일치를 깨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온 동생에게 형이)  
엄마한테 걸렸으니, 넌 이제 죽었다.

11)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논문

(2) (선생님들끼리 퇴근 후 술 한 잔 하러 가면서 한 사람이)

- a. 오늘 술은 내가 사겠다.
- b. 오늘 술은 내가 샀다.

위 예시문에서, ‘죽었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혹은 완료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는 ‘-었-’이 사용되었다. ‘-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1)의 표현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 혹은 완료된 사건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제의 불일치를 통해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즉,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틀림없이 크게 혼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강한 추측이다. 그와 동시에 혼날 것이 틀림없으니 미리 방어하라는 권고의 의도도 들어있다. (2)의 상황에서는 a.처럼 표현하는 것이 문장 구조상 비문이 아니다. 그러나 화자들은 때때로 b.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틀림없는 비문이다. 비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장이 사용되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성과 독자의 용인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a.에 비해 b.가 더 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겠-’의 기본 의미가 미래의 일과 관련되는 반면에, ‘-었-’의 기본 의미가 과거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화라는 상황에서는 시제의 일치가 깨져도 오류 문장이라 할 수 없으나, 논술문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논술문만이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바. 반복 · 환언의 오류

길을 모르는 나그네에게 지도는 길잡이 구실을 한다. 그가 지금 선 곳이 어디이며, 그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방향과 위치가 어디인가를 그는 그 지도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 지도는 현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알려준다. 지도는 현실에 관한 앎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방인에게 한 장의 지도는 무지의 고뇌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인식의 안내자이다. 지도는 현실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지도는 현실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의미 있는 특성을 추려 보여 주는, 점과 선으로 엮어진 2차원의 열개가 바로 지도이다.

위 예시문에서, ‘지도’ 라는 어휘의 반복이 7번이나 나타난다. 첫 번째 문장의 ‘지도’ 와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는 6번의 ‘지도’ 가 동일성을 이루면서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방인’ 은 ‘나그네’ 에 대한 환언으로, ‘길잡이’, ‘안내자’, ‘그림’, ‘2차원의 열개’ 는 ‘지도’ 에 대한 환언으로 글의 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적절한 표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 사. 띄어쓰기 오류

띄어쓰기는 ‘**낱말은 각각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낱말의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오류에 빠진다. 또한 의존 명사나 보조 용언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이 결여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띄어쓰기 규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첫 칸을 비우고 쓴다.
- ◆ 대화체일 때에는 첫 칸을 비우고 쓴다.
- ◆ 긴 인용문의 경우 행을 따로 잡아 쓰고, 인용 부분 전체를 한 칸 들여서 쓴다.
- ◆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방법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될 경우 제시된 내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마다 첫 칸을 비우고 쓸 수 있다.
-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어 쓴다.
-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 쓴다.
- ◆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잇는 말들을 띄어 쓴다.
-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붙여 쓸 수가 있다.  
예) 그때, 그곳, 좀더, 큰가, 이말 등
-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

-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 ◆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한 개 낱말처럼 익어진 것은 붙여 쓴다.
- ◆ 대립적인 뜻을 가진 두 낱말이 하나의 낱말처럼 익어진 것도 붙여 쓴다.
- ◆ 접사는 어근에 붙여 쓴다.  
예) 부부간, 무시당하다, 합격되다, 고생시키다, 그늘지다, 맨주먹, 선잠 등
- ◆ 합성어와 접어는 붙여 쓴다.
- ◆ 마침표(.)와 쉼표(,)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우지 않고, 느낌표(!)와 물음표(?)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운다.

## 아. 맞춤법의 오류

국어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맞춤법 상의 오류는 평소 언어생활이 잘못 되어 있거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한자어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문법 형태소에 대한 의식의 결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음상의 불분명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을 쓰면서 흔히 틀리기 쉬운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 ▣ <뇌, 내, 네>의 혼동

‘되어, 되면’을 ‘돼어, 돼면’으로, 반면 ‘돼, 됐다’를 ‘되, 났다’ 잘못 표기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뇌’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언어 현상이다. 이는 ‘뇌’음과 ‘내’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인데 ‘돼, 됐다’는 ‘되어 → 돼, 되었다 → 됐다’의 과정을 거쳐 축약된 상태이므로 어간(語幹) ‘되-’에 어미(語尾) ‘어’가 결합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꽤 어렵다.’ ‘꽤가 많다’에서도 역시 ‘뇌’와 ‘내’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여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내, 내>의 오용

‘내’, ‘내’의 발음은 점차 그 차이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 두 발음을 혼동하여 표기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도대체 → 도데체, 도데체, 도대채’로, ‘현재 → 현제’로, ‘제일 → 재일’로 혼동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존명사 ‘체, 채’의 구별이 잘 안 된다. ‘체’는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라는 뜻으로 어미「-ㄴ, -은, -는」아래 쓰인다. ‘채’는 ‘어떤 상태가 계속된 대로 그냥’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체하다, 있는 체하다, 죽은 체하다’, ‘벗은 채로, 산 채로’ 등이 있다.

### ▣ <는지 / 런지(른지)>의 오용

- 내가 갈런지 모르겠다
- 그 일이 잘 될른지 모르겠다.

우리말에 ‘-런지(른지)’는 없다. 따라서 위 예시문에서, ‘-런지’와 ‘-른지’는 ‘-는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는지’가 / ㄹ/ 아래에 쓰일 때 ‘-런지’와 ‘-른지’로 잘못 발음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 <안 / 았>의 오용

- 나는 생명이 없는 학교에 안 가겠다.
- 나는 적성에 관계없이 점수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일은 하지 았겠다.

‘안’과 ‘았’의 사용에 오류를 많이 저지른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서, ‘았-’은 ‘아니하-’의 준말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아니’의 준말인지, 아니면 ‘아니하-’의 준말인지를

살펴보면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 무관심에 의한 오용

- 경주하면 의례 신라 문화를 떠올린다. →으레(의례, 의례, 으레히는 모두 틀림)
- 시행하고저 하는 →시행하고자
- 그렇게 되어진 원인을 생각하고 →된
- 우리 바깥은 통일이라 →바람
- 지식인은 우리사회의 지도자로써 →지도자로서

## 자. 구어체, 속어 사용의 오류

논술문에서는 일상어, 구어보다는 문장에 알맞은 어휘와 표현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라 하더라도 은어, 속어, 비속어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 (1)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 (2) 다르게 말하면, 어설픈 민족주의보다는 냉철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단 말이다.
- (3)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이 되려면 멀었다는 사실이다. 참다운 언론이란 도덕과 양심으로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언론은 그런 태도를 잃어버린 채 거짓 보도와 사실의 조작, 축소에만 열을 내고 있다.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잘났다고 사회의 목탁인 척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예시문 (1)과(2)에서는 구어체가 사용되었다. ‘건’은 ‘것은’으로, ‘필요하단 말이다’는 ‘필요하다는 말이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또한 (3)은 비속어의 사용,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다. 비속어의 사용, 인신공격과 같은 공격적인 태도도 객관적 자세가 중요시되는 논술문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다.

## 차. 어휘 선택의 부적절성

- (1) 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이처럼 젊은이와 기성세대의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세대 차별을 실감할 수 있다.
- (2) 돈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불가피한 요소이지만
- (3) 월만함과 우매함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 (4) 국민의 복지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되어야 된다.

문맥에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낱말의 뜻이나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몰라 생기는 현상이다. 위 예시에서 ‘세대 차별’은 ‘세대 차이’로, ‘불가피한’은 ‘불가결한’으로, ‘혼돈’은 ‘혼동’으로, ‘발달’은 ‘발전’으로 표현해야 옳다.

## 카. 부정확한 문장 사용

이것은 단순히 비문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속구조 상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주 틀린 경우의 문장이 나타나므로 더욱 더 문제가 된다.

- (1) 기존의 권력의 성격이나 집권 배경이 비민주적인 권력이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비민주적인 것이었다면**
- (2) 도시에서는 바로 옆집의 사람과도 간단한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웃에게 발견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인간관계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 예시문의 (1)에서 집권 배경이 ‘비민주적이었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집권 배경이 비민주적인 권력이었다’는 잘못된 표현일 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집권 배경’과 ‘비민주적 권력’은 서로 호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 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미가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1)은 정확한 사고가 바탕이 되지 않아 나올 수 있는 오류이고, (2)는 밝혀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이다.

## 타. 모호문의 사용

- (1)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2)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
- (3) 키가 큰 주한 미 대사의 친구가 말씀하셨다.
- (4) 늙은 남자와 여자가 토론을 할 경우
- (5)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림이다.

문장의 모호성은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피수식어가 둘인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순(語順)을 바꾸거나, 쉼표(,)를 붙이거나, 말을 첨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문은 발화 현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화에서는 모호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발화 현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 예시문 (1)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우리가 다녀보면’인지,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인지 알 수 없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형태로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모호성을 없앨 수 있다. (2)에서는 ‘끝까지’가 한정하는 것이 ‘신문사에 남아’인지 ‘자유를 지키겠다’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수식과 피수식의 거리를 좁혀, 즉 어순을 바꾸어(신문사에 남아 언론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 모호성을 없앨 수 있다. (3)에서는 ‘키가 큰’의 주체가 ‘대사’인지 ‘대사의 친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4)의 경우도 ‘늙은’의 주체가 남자만인지 아니면 남자 여자 모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5)에서는 세 가지의 중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에 대해서 ①아버지가 그린 그림 ②아버지를 그린 그림 ③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등의 중의성을 지니고 있다.

## 파. 중복된 의미의 불필요한 반복에 의한 오류

- ◆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 사람과 동물은 구조상으로, 생물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 ◆ 같은 동족끼리 마음의 문을 열고 → 동족끼리, 같은 민족(겨레)끼리
- ◆ 새로 들어온 신입생 → 신입생
- ◆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 왼쪽으로 돌면, 좌회전하면
- ◆ 학교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 소음(소음 : 시끄러운 소리)
- ◆ 주지하다시피 통일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주지하다시피 통일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 ◆ 쓰이는 용도에 따라 → 쓰임에 따라, 용도에 따라

## 하. 호응 관계의 오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분류에는 다시 다섯 개의 하위 항목을 들 수 있다. 주술(主述)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문법 요소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구조어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 ▣ 주술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 (1)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주장했던 것은 통일과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북한 사람들과 만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주변의 일들이 모두 기사의 대상이다.
- (3) 개의 일반적인 습성은 냄새를 잘 맡는다.
- (4) 전기료, 수도료,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올랐다.

위 예시문의 (1)에서처럼 ‘것은’이 주어로 사용될 때에 서술어는 ‘-이다’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서술어는 ‘것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2)의 서술어는 ‘대상으로 삼는다.’로, (3)의 서술어는 ‘맡는다는 것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4)의 예문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자체가 스스로 오를 수 없다. 공공요금은 사람이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인정하고 ‘공공요금을 올렸다’로 바꾸어야 한다.

###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한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울수록 의미 전달이 더 잘 된다.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서로 떨어져 멀리 배치됨에 따라 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부사어는 선택적 서술어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특정한 부사어에 알맞은 서술어를 잘못 선택하여 문장의 결속성을 깨는 경우가 있다.

- (1) 단적으로 감정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 (2) 민중의 것으로 우리의 문화가 발전했다.
- (3) 학생은 모름지기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 (4) 우리 학생들의 주장은 확실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 (5)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치고 결과가 아주 좋다.

위 예시문 (1)과(2)는 부사어의 위치가 피수식어인 서술어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결속성이 떨어진다. 이들을 서술어 바로 앞에다 놓으면 그 의미가 명확히 살아나게 된다. (3)-(5)의 예문에서는 부사어의 성격에 따라 특수한 서술어를 선택하게 된다. 즉,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와 선택적으로 호응한다. ‘확실히’는 단정을 의미하는 부사어이므로 서술어의 표현이 단정적이어야 한다. ‘~치고’는 부정 서술어와 호응을 한다.

###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1) 통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통일이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인제는 지구가 위태로울 지경으로 만들었다.

위 예시문의 (1)에서는 ‘심어주다’ 라는 동사가 여격과 목적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만을 두 개 가져서 잘못 되었다. 따라서 ‘생각을’ 대신에 ‘생각에’ 정도가 쓰여야 한다. (2)에서 ‘만들다’ 라는 서술어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에 ‘지구가’ 대신에 ‘지구들’ 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 ▣ 문법 요소의 호응이 잘못 된 경우

(1)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해야 한다

(2) 이 원자력을 강대국가에서 나쁜 목적으로 인류 평화를 해칠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큰 일이다.

(3) 그것이 소수의 잘못된 의식을 가진 이에 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얼마나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한다.

위 예시문 (1)과(3)은 피동이나 능동 표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어색해진 경우이다. (1)은 서술부의 두 용언의 태가 일치되지 않고, (2)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태가 호응되지 않으며, (3)은 주어 서술어의 태가 호응되지 않은 예이다. 이들은 각각 피동이든지 능동이든지 어느 하나를 택하여 표현해야만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나뉘어서’ 는 ‘나누어서’ 로, ‘쓰여진다면’ 을 ‘쓴다면’ 으로, ‘그것이’ 는 ‘그것을’ 로 바꾸어 능동 표현으로 일치하게 하든가, 아니면 ‘설명해야 한다’ 는 ‘설명되어야 한다’ 로, ‘원자력을’ 은 ‘원자력이’ 로, ‘사용하였을’ 은 ‘사용되었을’ 로 바꾸어 피동 표현으로 일치하게 해야 한다.

### ▣ 구조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구조어란 문장이나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을 가진 단어들이며, 조사, 접속어미, 접속 부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구조어에 의해 홑문장은 겹문장으로 연장되고,

짧은 문장은 긴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어들 가운데는 서로 호응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있다. 구조어의 예를 살펴보면, ‘비록 ~일지라도, ~라도, ~지만, ~어도’, ‘결코 ~지 않겠다, 아니다’, ‘하물며 ~랴, ~ㄴ가’, ‘왜냐하면 ~때문, ~까닭이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만약 ~이라면’, ‘그다지 ~하지 않은’ ‘전혀, 결코, 별로, 차마, 여간’은 ‘~아니다, ~지 못하다, ~지 않다’ 등 부정어와 호응한다. 이러한 구조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할 때 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 (1) 어떤 무료한 시간에 그런 회상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 (2) 일제의 협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하물며 독재자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다.

위 예시문의 (1)에서 ‘좀처럼’은 부정어와 호응해야 하고, (2)에서 ‘하물며’는 ‘~ㄴ가’와 호응해야 한다.

## 거. 조사 사용의 오류

국어에서의 조사는 독립성이 약하여 혼자 쓰이지는 못하지만, 많은 문법 사항이 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조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생략하게 됨에 따라 텍스트의 결속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 (1)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 (2) 인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
- (3) 그는 술이 취하자 끝내 울었다.
- (4) 신기록 제조기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 (5) 사람들은, 그것은 선수들보다 관중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6) 비루스와 같은 미생물은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교착어로서의 특성을 지닌 한국어에서 조사의 정확한 사용은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의 경우 모든 NP는 어떤 조사와 통합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NP의 통사적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의 사용은 문장의 문법성이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위 예시문 (1)과(2)에서 ‘~에게’와 ‘~에’는 쓰임이 다르다. 조사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등 유정물(有情物)에만 쓸 수 있고, ‘에’는 무정물(無情物)에 쓰이는 조사이다. 따라서 ‘일본에’, ‘청소년들에게’로 바꾸어 써야 한다. (3)에서 ‘취하다’의 주체는 ‘술’이 아니라 ‘나’이다. 여기서 ‘술’은 ‘취하다’의 대상이기 때문에 ‘술에’로 바꾸어 써야 한다. (4)와 (5)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간접 인용일 때는 ‘~는, ~고’라 써야하고, 직접 인용일 때는 ‘~라는, 라고’라 써야한다. 따라서 (4)와(5)는 간접 인용이기에 ‘~는, ~고’라 써야한다. (6)의 예문에서는 조사가 무리하게 생략된 경우이다. ‘보통의’로 바꾸어야 한다.

## IV. 논리적 근거가 결여된 오류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여 보면 논리적 근거가 결여된 글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논리적인 논술문에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꼭 있어야 한다. 주장만 있고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성 간에 진정한 우정이 존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어떤 친구는 이성 간에도 동성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친구는 이성 사이는 만남 이후에 우정이 아닌 사랑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공방전 속에서 나는 전자에 더 기울어졌다. 남녀가 만난다고 해서 모두 연애의 감정이 생긴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해지겠는가?

위 예시문에서 중심 내용은 ‘남녀간의 우정의 존재 유무’이다.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남녀간의 우정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선택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이 ‘나’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결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논술자들이 이와 같은 글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글의 결론만 중시할 뿐, 그 결론으로 유도되기까지의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수용시키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선다형의 객관식 사고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자기가 쓴 글을 관찰하게 되면 비 논리적인 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째, 글쓰기가 쓴 글이 무엇을 말한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즉, 그 글이 사건이나 상태의 진술인가, 글쓴이의 주장이나 견해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그 글이 견해나 주장을 쓴 것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 하였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주장이나 견해를 쓴 글이라면 그 주장이나 견해에 대한 근거나 이유 또는 예를 제시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더. 주장에 대한 논거(論據)의 오류

언어생활에서 필자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 글에 비록 그 주장이나 견해에 대한 근거나 논거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논리상의 비약이 심하거나, 논리상의 오류가 발견되어서 그 주장이나 견해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술하는 경우가 논술문에는 많이 나타난다. 수사학적으로 아무리 잘 된 글이라 할지라도 논리성이 결여된 글은 글의 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논리학에서는 오류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오류에 대해 기술한 책에 의하면 오류를 분류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이 없다. 분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오류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 오류(formal fallacy)는 추론할 때에 절차상의 규칙을 어기는 데서 일어나는 오류이고, 비형식적 오류(informal fallacy)는 추론의 규칙과는 상관없이 논거 제시 방법상 잘못을 저지르는 오류이다.<sup>12)</sup>

12) 소진형(1996), “고등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지도 방안 탐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일부 인용

논술자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비형식적 오류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 논점 이탈의 오류

논점 이탈은 논증의 본래적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장과 관계없는 주장을 하는 오류로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 논증하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A학생의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다음 글을 보자.

- (1)오늘날 지구상에는 어디를 가나 자연이 제대로 보호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 (2)이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 (3)보다 편리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킨 것이다.
- (4)우리는 하루 빨리 자연을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 예시문의 중심 개념은 ‘자연 보호의 필요성’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하는 요소는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그런데 (1) - (4)에서, (1)은 자연 훼손 실태, (2)는 (1)의 이유 제시, (3)은 (2)의 환언, (4)는 새로운 주장으로, 논제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1) - (4)의 중심 개념은 ‘자연이 훼손된 이유와 자연을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로 자연 보호의 필요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논점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여러 경우가 지니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들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관계된 경우들의 일부만을 보거나 그것들의 어떤 제한된 면만을 주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검토한 사건들은 그와 유사한 모든 사건들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만을 검토하고는 그것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규칙을 끌어낼 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너무 적은 수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도



출해 낸 결론을 일반화시키거나, 사실의 부분적인 것들에서 공통점을 일반화해 규칙을 끌어내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오늘 낮, 한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돈 봉치가 든 가방을 주어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김모씨라는 어른은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에서 백만 원짜리 수표 세 장을 사용하였다가 쇠고랑을 찢습니다. 돈을 앞에 놓고 벌어진 이 대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른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 예시문에서, 가게 주인인 김모씨의 단 하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어른들의 도덕적 타락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물론 사회 현상이 어린이에 비해 어른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논술문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논거를 제시할 때에는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의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순환 논증의 오류)

어떤 명제가 진리임을 증명하려고 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타당한 전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때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전제로 삼으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확립하려는 명제가 결론과 전제에서 똑같은 말로 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런 잘못을 놓치지 않겠지만 전제와 결론이 같은 의미이면서도 상당히 다르게 표현되어서 전제와 결론이 사실은 같은 명제라는 것을 흐리게 하는 수도 있다. 즉,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전제가 그 논증의 결론을 가정하게 되어 나타나는 순환적 논증을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한다. 이러한 논증은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타당한 논증이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제가 결론이 진리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역시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결론이 진리임을 증명 내지 확립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만일 그 명제가 논증 없이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명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무런 논증

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만일 그 명제가 논증 없이 받아들일만하지 않은 명제라면 그 명제 자체를 전제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논증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증에서는 결론이 전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논증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타당한 것이지만 이 논증으로 결론이 진리임을 보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1)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  
 (2) 왜냐하면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위 예시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1)이고,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2)이다. 얼핏 보기에는 (1)과 (2)가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 수용자들은 논증의 오류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2)문장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자유’라는 구절은 (1)의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2)의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과 (1)의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과는 서로 같고, (2)의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와 (1)의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와는 의미상으로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즉, 주장과 전제가 표현만 서로 다를 뿐 의미상 같은 표현이기에 순환 논증의 오류를 저지르면서 논술문의 결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방사능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찬성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와 심리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이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논리의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 ▣ 원천 봉쇄의 오류

어떤 논증을 하기 전에 그 논증을 비난하기 위한 다른 일체의 행동은 나쁜 것 또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반박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봉쇄해 버리는 오류를 말한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아 두어 반대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네 생각이 옳단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 번 물어봐라. 열이면 열 모두 네가 틀렸다고 말할 테니.

## ▣ 잘못된 유추(類推)의 오류

유추는 귀납적 유비추리(類比推理)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이 갖는 상호 유사점들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이다. 즉,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여 한 쪽의 속성들이 다른 쪽의 속성들과 일치할 때, 다른 쪽의 경험하지 못한 속성도 한 쪽의 이미 아는 속성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알아내는 것이 유추이다.

유추는 어떤 사실을 혹은 원리를 설명할 때, 흔히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외의 비슷한 사실 혹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추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부지중(不知中)에 늘 사용하고 있는 추리 방법 중의 하나이다. 유추의 결론은 그 본질상 개연성을 가지지만, 사람들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유추의 논법은 생각해 내기가 비교적 쉽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추론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나, 비교하는 대상의 유사성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된다.

제주도의 감귤나무를 강원도에 심으면 탕자나무가 돼버리듯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 한국에 도입하면 탕자나무가 돼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한다.

위 예시문은 유신 헌법 제정의 타당성을 역설하는 텍스트로서 논리적 형식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그럴 듯한 주장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쉽게 이런 논리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비유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다. 식물인 ‘귤나무’와 인간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잘못되었다. 식물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주변 환경을 주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식물과 달라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제주도의 감귤나무를 강원도에 심으면 탕자가 되기는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진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물과 다른 인간이므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원래의 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은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간에 서로의 유사성이 없는 것을 그럴 듯하게 비유함으로써 글의 결속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 Ⅲ



## Ⅲ. 논술 지도 모형과 방법

- ▶ | 1. 논술 지도 모형
- | 2. 논술 지도 방법



# 1. 논술 지도 모형

## 가. 논술 지도 모형 구안의 필요성

논술이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라루스」사전에서는 논술의 뜻으로 ‘어떤 주제에 관한 토론, 또는 어떤 주제를 토론하면서 작문하는 연습’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논술이란 ‘쓰기 또는 말하기’를 통하여 어떤 입장 또는 문제를 토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지도할 때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한 훈련’과 ‘논리적인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교과별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는 글이나 말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출되어야 하며 이것의 결정체가 논술이라고 볼 수 있다.

논술의 과정도 결국 그 자체가 학습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논술에서의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기억해서 문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학습의 전략을 구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발산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 나. 논술 지도 모형 구안의 원리

논술을 지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배경 이론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정중심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형태의 수업이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공동 참여에서 점차적으로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논술은 결과론적인 텍스트 생성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수업 방법에 있어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단계별 모형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학생들은 논술과제를 부여받고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사회를 보는 안목과 비판력 그리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 모형을 구안하였다.

- ◆ 논술의 기능보다는 고차원적인 사고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논술은 단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고등정신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므로 논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고 양식과 행동 양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 ◆ 학습 활동면에서 교사의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으로 이행하는 교수 방법을 기본 모형으로 택한다.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면서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이 과정을 스스로 적용하여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 과정면에서는 논술의 기초 능력을 지도하는 부분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합적 기능을 지도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도록 구안한다. 논술도 작문의 일종이므로 작문과 관련된 개념 및 원리를 익히게 하고 차츰 전 교과에 걸쳐 시행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개요를 작성하여 텍스트를 생산한 후 평가하는 통합적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 논술의 특성과 원리에 바탕을 둔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이나 원리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안한다. 논제를 분석하고 논지를 세우며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 등에 적절한 목표와 모형이 필요하다.
- ◆ 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논술문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원리나 방법에 관한 책략을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모형을 구안한다. 글을 쓰는 과정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잡한 방식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크게 글 쓰는 사람 자신이 지닌 장기 기억(LTM:Long Term Memory) 창고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을 판별, 선정, 조직하는 ‘의미 구성 과정’과 이 완결된 의미체를 기호화하는 ‘언어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990, 신헌재) 그러므로 논술의 교수 - 학습 모형은 그 과정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 다. 논술 지도 모형의 이론적 배경

논술 지도 모형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의 원리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충실히 반영된 이론에 주목하였다. 그 중 피어슨의 현시적 모형 학습(explicit instruction)의 원리를 논술 교수-학습의 취지에 맞는 이론으로 파악하고 적용하였다.

피어슨의 ‘현시적 모형 학습의 원리’는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전략적 교수 모형의 하나로 언어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모형이다. 전략적 교수 모형에는 직접 교수 모형(Direct instruction), 현시적 교수 모형(Explicit instruction), 상보적 교수 모형(Reciprocal instruction)이 있다. 전략적 교수 모형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사고를 지도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적용한다.

둘째, 수업에서 차지하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양된다.

셋째, 각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여 피드백을 실시한다.

전략적 교수 모형은 학생들의 언어수행 능력을 신장시킴과 더불어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전반에 걸쳐 전략을 짜고 집행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전략은 수업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의도적이고 상세화된 계획을 수립하게 해 주며,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할 때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또 전략은 본질적으로 적용과정에서 유연하여 학습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초인지적으로 의식하고 자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전략적 모형 가운데 현시적 교수 모형은 기능이나 전략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전략의 활용을 직접 시범을 통하여 보여 준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능이나 전략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연습을 시킨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을 관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시켜 주며 학습한 전략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1) 현시적 교수 모형의 전개<sup>3)</sup>

단계	핵심 요소	주요 교수 - 학습 활동
1	안내	<p>그 시간에 다룰 기능이나 전략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보여 준다. 이 때 주로 시범을 통해 보여 주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사고 구술법의 기법을 활용한다. 즉 교사 자신이 어떤 기능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동안에 자신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말로 표현한다.</p> <p>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고 학습목표를 확인하게 하며 기능이나 전략을 소개하게 된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단계이다.</p>
2	교사 유도 활동	<p>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들 기능이나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어진 기능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단계는 기능이나 전략의 적용 방법을 탐색하게 하는 단계로 연습이 이루어지며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하다.</p>
3	강화	<p>주로 학습지를 가지고 그 기능이나 전략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적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학습한 것을 정리하면서 그 기능이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때 기능이나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13) 직접교수법과 전략 교수 모형 - 레포트월드 참조

단계	핵심 요소	주요 교수 - 학습 활동
4	학생 독립 활동	실제로 쓴 글을 가지고 배운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이 때 교사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만 이제 학습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지나 학습 자료를 통한 문제 해결, 교사의 피드백과 이해여부 확인, 미 해독 학생들을 위한 재강화가 필요하다.
5	적용	학습지에서 벗어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실제의 글에 자신이 배운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기능이나 전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 2) 현시적 교수 모형의 특징

현시적 교수 모형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면서도 교사가 학생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보여 주고 학생들은 이 과정을 스스로 적용하여 사고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수업 모형이다. 또 기능을 분류하고 위계화 할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뚜렷이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교사가 명시적으로 그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학습 모형이다. 따라서 논술과 같이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는 종류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 3) 지도 단계

### ● 설명하기

단원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리의 적용 과정이나 본 수업에서 새로 나오는 어휘, 구절을 풀이하고 지식을 설명한다. 수업 구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 시범보이기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고 적용 과정을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임으로써 모형을 제시하며 이 단계에서 학습의 책임이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이양되어 간다. 여기서 말하는 시범이란 주어진 목표 달성의 원리에 적합한 전략 과정을 시범보이는 것이다. 시범을 보일 때는 꼭 교사의 예시 답안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것을 시범 보임으로써 잘못된 적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 ● 숙달시키기

학생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여 오류를 교정하여 주는 단계이다. 학생이 수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준다. 이때 사고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질문을 해서 사고가 구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 활동하기

이제까지 학습한 원리, 지식, 과정을 스스로 적용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 스스로 연습을 하도록 하되 이때 소집단 협력 학습을 통해 조별 발표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새로운 과제 학습을 제시해야 하며 개별 지도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시켜 주어야 한다.

## 라. 논술 지도 모형

현시적 학습 모형은 학습 과제 성취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주거나 모델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전략을 세워가며 자기주도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논술 지도 모형은 이 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논술 수업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즉 추리력, 상상력, 논리력, 비판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안내자, 진단자, 조언자로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설명보다는 시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논술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제의 발견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로서 인문·사회 논술에서는 사회현상이나 주변의 문제 상황에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사실과 사실 사이, 혹은 논리와 사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정당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그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또 수리·과학 논술이라면 출제자

의 의도와 유의사항, 글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진 수학·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 2) 문제의 해결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마련하는 단계이다. 인문· 사회 논술에서는 문제의 사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그에 따라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수리· 과학 논술이라면 논제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및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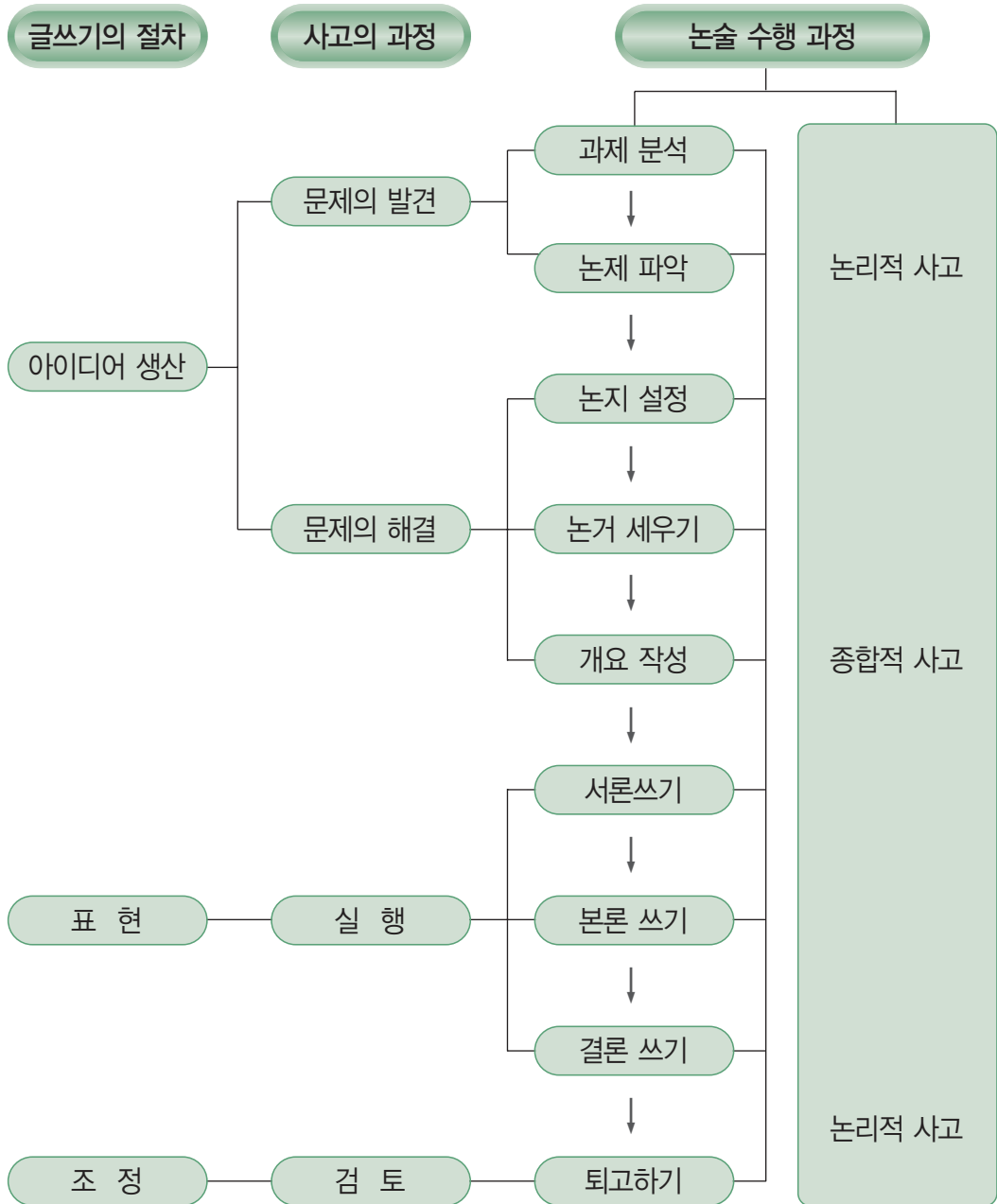
## 3) 실행단계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마련된 해결 방안을 글쓰기의 과정으로 풀어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언어에 관련된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하며 수리· 과학 논술에서는 기본 원리나 개념이 동원 되어야 한다.

## 4) 검토단계

글을 모두 쓰고 난 뒤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이다. 글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논리적 전개는 타당한지, 해결 방안은 가치 있는지 문제 해결 과정은 모순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글쓰기의 원리와 사고의 과정에 의해서 논술 수행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4) 논술지도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교육청, 1997



## 2. 논술 지도 방법

### 가. 아이디어 생산

아이디어 생산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활동이 필수적이다. 창의적인 활동들은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어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쓸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디어의 생성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견적 전략, 조직화 전략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발견적 전략은 주어진 논술 과제로부터 주제를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고 조직하는 전략이다.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그물 만들기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이고 어려운 주제를 특수화시키면서 다루기 쉬운 주제로 바꾸어 준다. 조직화 전략은 발견적 전략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미 설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교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중심 아이디어와 보조 아이디어를 구분하고 중심 아이디어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 전체의 결속력을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직화 전략에는 개요 작성, 다발짓기 등이 있다. 아이디어 생산을 논술 수행 과정에 따라 지도 방법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제 분석

과제는 논술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문제와 제시문,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학생이 답안으로 써야 할 큰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인간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수리·과학 논술 영역의 경우는 수학적 혹은 과학적인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유의사항은 글의 분량이나, 글의 방향과 방식, 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되므로 꼼꼼하게 살펴 읽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 ■ 지도 방법

### ● 설명하기

- 유형을 분석하도록 지도한다. (단독과제형, 자료제시형, 내용완성형, 확대반응형, 제한반응형)
- 문제가 요구하는 바 ('무엇을', '어떻게' 하라)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나 단서들에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여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문제에 담겨있는 힌트들과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문제 제시 방법은 '암시형' 과 '명시형' 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 ● 시범보이기

예시문 : 1996학년도 연세대 인문계열 문제

#### [ 논제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굳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하는 이른바 '여성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600자에서 8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 [ 과제 분석 ]

- 무엇을 - '여성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 **어떻게** - 서술하시오
- **조건**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 600자에서 800 자라는 분량을 지킬 것
- **제시문 파악** - 여성할당제에 대해 언급했다.
- **문제 제시 방법** - 여성 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 아닌지를 서술해야 하는 명시형 문제이다.
- **유형** - 자료 제시형

## 2) 논제 파악

논제는 논술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논술은 작문과 달라 출제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므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논술의 근본 틀을 설정할 수가 있으며 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논술의 방향은 엉뚱하게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논제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각 부분의 내용을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어휘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유의사항 중에 글의 구성이나 논리 전개에 관한 내용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대부분은 질문 자체에 논제의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논제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혹은 논제가 표면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 문제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과제를 질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논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과제를 좀 더 분명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이 주어졌다면 각 제시문에서 단락별로 핵심어와 핵심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자가 가진 문제의식을 찾은 다음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의 쟁점이 되는 핵심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논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의 실타래든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 지도 방법

### ● 설명하기

- 문제를 구성하는 주요 용어나 핵심 어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 유의사항이나 조건 중에 글의 구성 방법이나 논리 전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문제의 요구 사항이 몇 개인지 파악해야 함을 지도한다.

### ● 시범보이기

예시문 : 2005학년도 연세대 정시 논술 문제

#### [ 논제 ]

다음 제시문에 담긴 ‘세월의 흘러감’에 대한 생각을 ‘욕망’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첫머리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한 제목을 달 것. 1800 자 내외로 쓸 것)

#### [ 논제파악 ]

- 문제의 요구사항
  - ① 제시문에 담긴 ‘세월의 흘러감’에 대한 생각을 ‘욕망’과 연관시켜 분석하라.
  - ②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라
- 핵심어휘 : 세월의 흘러감, 욕망
  - 제시문을 읽을 때도 ‘세월의 흘러감’과 ‘욕망’이라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임
- 조건 : 자신의 주장을 반영한 제목  
1800 자 내외
- 글의 구성 방식, 논리 전개 방식 : 분석, 논술  
분석-펼쳐서 그것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나 규칙을 알아보라는 의미

### 3) 논지 설정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 논지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주어진 요구 사항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양비론이나 절충형 같은 논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의 말만 끌어대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에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주지시켜 자신감 있게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논지 설정을 잘 하게 하기 위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장을 세우고 주제문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수리·과학 논술인 경우 서술해야 할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

#### ■ 지도 방법

##### ● 설명하기

- 주어진 요구사항의 논점에 맞는 자기 견해나 내용을 정립해야 함을 설명한다.
-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반영하여 주장하되 자신이 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주장이 되어야 함을 주지시킨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쪽을 택하면 참신성을 지닐 수 있으나 논거 마련이 쉽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반론을 택하면 참신성은 떨어지나 논거 마련이 쉽다는 점을 설명하고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또 수리·논술인 경우 적용해야 할 기본 원리나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지도한다.
- 논지를 정할 때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되기 쉬우므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지도한다.

##### ● 시범보이기

#### [ 논제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굳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하는

이른바 ‘여성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600자에서 8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 논지 설정 방법 ]**

- 어떤 논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내용상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 접근하는 방법상 원칙에 접근하는 방법과 결과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답하는 논술문을 쓰기 위해 이 제도에 찬성할 만한 혹은 반대 할 만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들을 놓고 자신의 관점과 입장이 담긴 주제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논지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쟁 점 :** 과학은 문화 종속적인가, 보편적인가?

**주제문 :** 과학이 일단 수학화하고 실증적이 되면 그 과학은 문화 중립적, 보편적인 것이 된다.

**쟁 점 :**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주제문 :**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쟁 점 :** 생명공학에서 가장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가?

**주제문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이다.

**쟁 점 :**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주제문 :** 과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쟁 점 :**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영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주제문 :**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기 전의 조기 영어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쟁 점 :** 고교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주제문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인재를 뽑으려는 취지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쟁 점 :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제문 : 영웅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닌 민중의 사고와 행동이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다.

#### 4) 논거 세우기

논거 세우기는 배경 지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얼마나 타당하고 논리적인지에 따라서 논술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논거를 세울 때는 논제와 제시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논 의 대상의 특성, 문제의 원인이나 결과,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인과 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극단적인 논거를 택하지 않도록 한다.

논거는 크게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사실 논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논거를 말한다. 보편타당한 지식이나 정보, 통계수치, 역사적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논거를 이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어야 하며 논거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에 대해 소견 논거는 그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의 소견 등을 빌어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리·과학 논술의 경우는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 적용시켜야 할 타당하고 적합한 기본 원리나 개념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좋은 논거가 되기 위해서는 논지를 잘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또 구체적이고 참신해야 한다. 논술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논거 세우기이다.

논거 세우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학습이 가장 유효하다.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디어 생성이 필요한데 타인과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보다 많은 생각을 접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그물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논거를 마련하되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다. 궁극적으로 논술은 혼자 힘으로 쓰게 되는 것이지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진행 방식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 지도 방법

### ● 설명하기

- 논지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풍부한 논거를 확보해야 함을 설명한다.
- 사실 논거를 사용할 때에는 이용되는 가치가 유용해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함을 설명한다.
- 좋은 논거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 즉 정확성, 다양성, 참신성, 논지와와의 논리적 관계성이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 ● 시범 보이기

#### [ 논제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굳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하는 이른바 ‘여성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600자에서 8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 [ 논리의 예시 ]

- 여성할당제의 문제점
  -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역차별적인 제도이다.
  - 남녀평등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에 위배된다.
- 남녀평등의 조건
  - 제도적 차원보다 인식의 차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한계
  - 여성할당제가 임시방편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 다른 나라의 남녀평등

-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서양의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 5) 개요 작성하기

논지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논거가 마련되었다면 기본 재료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완성할 수가 없다. 개요는 무엇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주제문이 설정되었는지 뒷받침 문장의 배열이 적절한지, 논리적 위계에 따라 잘 배열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항목 간 논리적 긴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논거의 적절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항목들의 위상에 따라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소항목끼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 전체의 결속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설득력 있게 효율적으로 배열해 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 ■ 지도 방법

#### ● 시범보이기

논지 : 여성할당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

(1) 서론 :

1-1 전통적인 남성 중심주의 사고방식의 문제점

1-2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여성할당제의 문제점

(2) 본론 1 :

2-1 여성 할당제와 기회균등 원칙의 상충

2-2 여성 할당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우려

(3) 본론2 :

3-1 제도적 차위보다 인식의 전환이 선행 되어야 함

## 3-2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양의 사례

## (4) 결론 :

4-1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강조

4-2 의식 개혁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

## 나. 표현

아이디어 생산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글로 표현해야 한다.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개요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를 파악하고 논지를 설정하며 개요를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개요를 충분히 살려 내야 한다.

내용면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핵심과 본질을 다루어 주어야 하며 논의의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써야 한다. 또 문제의 성격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면에서는 논증할 주제가 일관성 있게 서술되어야 하며 논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이 적절해야 한다. 또 논증을 위한 추론 과정이 적절하고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표현면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어법과 표기법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개개의 단락은 응집성을 지니도록 쓰고 글 전체가 단계성과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

[ 예시문 (가)는 [맹자]에서 (나)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에서 각각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

(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가지는 자는 오직 사(士)라야 할 수 있지만, 백성의 경우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됩니다.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치우치고 편벽되고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죄를 진 뒤에 쫓아가 잡아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 쳐서 잡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 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배불리 먹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뒤에 백성을 인도하여 선(善)에 이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함에 있어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없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게 하여 풍년이 들어도 고생해야 하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이 때에는 오직 죽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도 힘든 판국인데, 어느 겨를에 예의(禮義)를 다스리겠습니까? 왕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하여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적은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것이며, 닭 돼지 개와 같은 가축들의 번식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면 일흔 살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것이며, 큰 밭을 경작하는 데 그 농번기를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교육을 부지런히 하여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반복해서 가르친다면 반백이 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부질없는 근심과 필요 이상으로 힘든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그들의 열 손가락은 열매를



떨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이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결벽성을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는 정정당당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것처럼 자주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 전에 그에게 가끔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우리의 강장제로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야 하겠다. 인간성의 가장 훌륭한 면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어 있는 분가루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는 않는다.

〈논제〉 : 위의 두 예시문을 참고하여, 인간의 삶과 물질적 조건의 관계에 대하여 논술하라.

〈유의사항〉

1. 논제와 성명을 쓰지 말 것.
2. 글의 길이는 빈 칸을 포함하여, 1600자 안팎이 되게 할 것.
3. 예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올 때에는 반드시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것
4. 수험생 개인의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 1) 서론 쓰기

흔히 서론에 논술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론에서 그 글의 분위기와 인상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서론은 어디까지나 중심 논지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서론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문제 제기, 동기 부여 등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출발하면 좋다. 하지만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문제제기를 할 때 너무 일반화하여 범위를 크게 잡으면 논지에 도달하기가 어려우며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시범보이기

서론 1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질이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물질 팽배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삶과 물질적 조건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문제 제기와 논의의 필요성

논제에 충실하며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출발

서론 2

우리는 TV를 통해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곤 한다.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먹이가 늘 풍부하지 못하므로 먹이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그 싸움에서 좀 더 힘센 자가 먹이를 차지하고 약한 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도 생계를 위해서만 급급하여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만 산다면 결국 동물의 삶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 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오히려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환기시킴

≫ 논제와 서론이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시킴

2) 본론 쓰기

본론은 글쓴이의 논지와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다. 논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근거가 다양하고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동양의 예를 들었으면 서양의 예로 짝을 이루게 한다든지, 개인의 경험담을 들었으면 역사적 사실도 다루어 준

다든지 하여 균형을 맞추어 주면 좋다.

본론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문제의 지시 사항과 관련지어 전개하면 좋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전개할 수도 있으며,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본론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 절차를 갖추어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 [ 본론 쓰기의 유의할 점 ]

- 서론에서 취급한 논제 해석을 중복하지 말 것.
- 논제와 무관한 언급을 피할 것.
- 단락의 유기성을 견지할 것.
- 남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엄격히 구분할 것.

### ● 시범보이기

#### 본론 1

우선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간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물질적 조건하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화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이성적 판단도 무척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다. [맹자]나 [월든]같은 고전들을 보면 과거 사람들도 물질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물질적 조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만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삶에 지나치게 팽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의 팽배는 오히려 인간의 삶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요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황금만능주의나 배금사상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존립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물질적 조건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질적 조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신을 길러야 한다. 즉, 어떻게 하면 물질적 조건을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진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혼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 예를 들자면 20세기 초에 일어난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20세기 초, 세계는 물질문명의 거대한 발달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일부 나라들은 부유해졌지만, 이 부를 이용해서 신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나갔다. 즉 물질적 조건의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제국들이 물질적 조건의 산물인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을 볼 때 물질문명에 대한 바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도 지금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우리사회에 가치관 혼란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조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신형성과 더불어, 물질적 조건에 대해 자제를 해야 한다. 물질적 조건은 인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문의 논지 즉 물질적 조건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요약
- »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반론을 제기.  
논거제시 방법으로 예시 사용
- »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물질적 조건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개

## 본론 2

그렇다면 동물과 다른 인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먼저 인간은 예의를 지킨다는 점이다. 힘이 세다고 모두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등은 동물과는 차별화된 인간만의 모습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인

간은 사고한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삶은 사유를 통해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은 유희를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동물도 즐겁게 놀 수도 있지만 스포츠나 예술 문화 활동같이 차원 높은 유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다운 삶은 기본적 물질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될 수 있다. 예시문에서 맹자는 “오직 죽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도 힘든 판국인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다스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까지 생각할 여유를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것처럼 자주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생계를 잇기 위해 하루 종일 노동만 해야 한다면 보다 향상하기 위해 사고하기란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또 “부질없는 근심과 필요 이상으로 힘든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기본적 물질의 충족 없이 삶을 즐기는은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결국 인간다운 삶이란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 후기의 많은 실학자들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농민들의 생업 터전인 토지의 올바른 분배를 강조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나라가 안정하고 부강할 때, 문화가 찬란하게 피어남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 때의 많은 문화 업적도 농민들의 생활안정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학과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철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순수학문 분야보다는 쉽게 취직할 수 있거나 확실한 생활이 보장되는 학과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경제가 보다 안정된 선진국에서 이런 순수 학문의 틀이 더욱 정착됨을 볼 때 물질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보다 높은 정신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첫 번째 단락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열거
  - »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
  - »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논거로 물질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배치

### 3) 결론 쓰기

결론은 출제자가 질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앞에서 쓴 내용을 집약시켜 주고 전체 글의 논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단계이다.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론이어야 하지만 앞의 말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흔히 학생들이 결론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도덕적인 당위론이나 훈계, 계몽적인 결론으로 맺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결론의 도출 과정은 타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론을 쓰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방법
-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전망하는 방법
-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제언을 하는 방법
- 서론의 문제 제기와 본론의 주장을 요약하고 제언을 덧붙이는 방법

#### ● 시범보이기

##### 결론 1

물질적 조건의 발전과 인간의 삶, 이것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물질적 조건을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조화롭게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조화를 지킬 때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제시문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

##### 결론 2

그러나 물질의 가치만을 너무 강조하여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물질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여 본연의 가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물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나친 물질의 추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해 물질이 수반될 때 그 물질은 보다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적절한 접속어로 논리적인 결론을 맺음

## 다. 조정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글로 표현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읽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논술시험이라면 글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내용과 형식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맞춤법이나 문장의 이음새 정도를 다듬어서 매끄러운 글로 만드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수업 시간에는 수정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글을 다듬는 연습을 많이 시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정하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끼리 돌려 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글을 보는 안목이 생기므로 학생들 간의 침삭지도가 의외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 지도 방법

#### ● 설명하기

- 내용면, 표현면, 조직면, 논리면 등 분야별로 평가를 해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글 수준의 단계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되 글 전체로부터 문단, 문장, 단어로 수정해 나가는 하향식 방법이 적절함을 설명한다.
- 글 수준에서는 내용의 일관성과 문제 해결 구조의 논리성 등을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 문단 수준에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고, 주제문과 보조문의 구성, 글 전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 문장 및 단어 수준에서는 주술관계의 호응,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거리, 피동문의 적절성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시범보이기(상호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 소집단 별로 가장 잘된 글을 선정하여 대표학생이 읽는다.
- 다른 조의 학생들은 내용을 듣고 다음과 같은 면에 따라 평가해 본다.
  - 논술과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잘 찾아냈는가?
  - 실제 글쓰기에서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는가?
- 평가자들은 발표자에게 자유롭게 질문 및 평가 발언을 해 본다.
  - 도입단계가 너무 장황하지 않은가?
  -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가?
  - 반론의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 결론의 내용이 빈약하지 않은가?
-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발표와 평가를 정리하여 총평을 해 준다.
  - 사실에 부합되는 사례들을 논거로 하였는가?
  - 논거가 되는 사례는 풍부하고 구체적인가?
  -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 반론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였는가?
  - 정서적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 라. 숙달시키기와 활동하기

### 1) 숙달시키기

앞에서는 주로 각 논술의 진행 단계별로 설명하기와 시범보이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숙달시키기는 설명과 시범보이기를 통해서 인지한 내용들을 실제 논술문쓰기 전략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질문을 통해 학습전략을 내면화해야 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숙달시켜야 한다. 교사는 학생 자신이 배운 방법을 구조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교사가 개인별, 조별 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또 논술의 단계를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 2) 활동하기

이 단계는 숙달시키기를 통해서 익힌 논술 학습의 전략에 따라 학생 스스로 실제에 적용하여 창의적 논술문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숙달시키기 단계가 교사의 방법을 학생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단계라면 활동하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도 제시하고 수행한 결과를 평가 자료로 삼아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한다. 현시적 모형에서 학습의 과제가 교사에게서 점차로 학생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단계를 강조했다고 했듯이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습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어서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IV



## IV. 영역별 논술 지도의 실제

- ▶ | 1. 인문영역
- | 2. 사회영역
- | 3. 수리영역
- | 4. 과학영역
- | 5. 예술영역



# 1. 인문 영역

## 가. 출제 경향 및 지도 대책

### 1) 출제 경향

논술에서 인문 영역은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언어 등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문학을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와 분석을 중시하는 서양의 근대적 사고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인문학을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순수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논술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점을 서술한다는 면에서 보면 동양적인 관점도 타당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논술에서 인문 영역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문 영역의 성격으로 인해 인문 영역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관련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합형 논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물음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논술의 기본적 바탕은 인문 적 소양에서 출발한다.

### 가) 출제 제재

인문 영역의 제재는 대부분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에서 출제된다. 전통적으로 인문 영역의 논술 문제는 다양한 교과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깊이 있는 사고력과 비판력을 변별하

는 수준의 단순한 교과 지식이 아니라, 확장적 사고,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제재에서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시사적인 제재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교과외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지식 체계와 가치관을 묻는다. 구체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의 2008년도 통합 교과형 논술의 ‘예시 문항’에서도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그와 관련된 고전에서 인용되었다. 각 교과외의 통합적 사고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외의 이해를 전제로 한 고전의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논술의 출제 영역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이 논술을 어려워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과정을 도외시한 논술 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나) 평가 요소

일반적으로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는 이해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이다. 그러므로 출제 내용도 대부분 평가 요소에 맞춰 선정되고 있다. 한 편의 논술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할 때는 핵심 쟁점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력, 논리를 갖춰 논증하는 논리력, 창의적 표현력 등이 고루 구비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네 가지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 분석력은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논증력은 주장에 대한 논거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개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창의적 능력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통한 주장과 관점의 독창적인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은 문장, 어법, 어휘가 오류 없이 표현됨은 물론 정확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요즘 논술 문항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다) 출제 경향

2006학년도 논술에서 인문 영역은 고전을 제시문으로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단독 제시문보다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글을 쓰도록 하는 복합 제시문 형태의 문제가 많

아저 종합적, 분석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전문 분야나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윤리 및 철학 문제와 결부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5학년도 서울대의 논술에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보이는 것의 주관성’을 강조한 부분과 ‘경험적 객관성’을 강조한 외국 우화를 읽고,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서강대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마르티 부버의 ‘너와 나’, 니콜사스의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 세계 최초의 안면 이식 수술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 이청준의 ‘말없음표의 속말들’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통해 ‘인간 정체성의 본질적 위기와 실존적 의미에서의 인간관계 본질’을 논하라는 유형을 보이고 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이를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 본 것이다.

한편 다양한 지문 중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은 뒤 답안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는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고 공통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 2) 지도 대책

국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듯이 논술에서도 독서와 논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이 다양한 분야의 동서양 고전이나 기사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윤리적 철학적 판단과 함께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주류이다. 따라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을 꾸준히 연마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논술 지도의 핵심이다.

또한 논술을 지도할 때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글을 쓰는 요령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안목을 길러 주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사고의 형성 과정으로 볼 때, 논리적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꾸준히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문 영역의 논술 지도 대책을 살펴보자.

### 가) 독서와 연계된 논술 지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문 영역의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고,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통해 표현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평소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과 아울러 고전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독서장제를 운영하거나 고전 필독 도서 목록을 정해 주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나) 토론하기와 연계된 논술 지도

인문 영역 논술 지도에서는 제시문과 관련된 질문하기 방식을 통해 학생 상호 간에 토의와 토론을 결들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는 소집단 중심의 협동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쟁점에 대한 토론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토론 과정에서 창의적인 내용을 추론하거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문 영역에는 쟁점이 되는 논제에서 한 논제를 선택하여 다른 논제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 영역과 관련하여 토론하기와 연계된 논술 지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1]**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내면의 소리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명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의 소리 혹은 자연의 법칙으로서 절대성을 지니는 도덕법이다.

**[예문2]** 양심은 특정한 사회적 공동체의 규범이 습관이나 교육에 의해 내면화된 상대적 결과이다. 가령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보다 훔치다가 잡히는 일이 더 비난받을 일이라고 믿었고, 고대 로마인들에게 용기는 칭찬을 받을 만한 덕목이었지만 연민과 겸손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토론하기]** 위의 두 글은 ‘양심’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그 중 하나를 택해 다른 견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시오.

학생들이 발표할 때, 교사는 중립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논거가 타당한가를 살피면서 끊임없이 보충 질문을 던짐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문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논술과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다.

### 다) 논술 평가 기준

논술의 평가는 출제 경향에 따라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 관리 본부의 <논술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b>이해 · 분석력(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분석 능력</li> <li>• 제시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분석(독해) 능력</li> <li>• 논술문이 발문에 충실한 정도</li> <li>•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li> </ul>
<p><b>논증력(3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설정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li> <li>- 제시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독해) 능력</li> <li>-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li> <li>-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한 적절한 뒷받침</li> </ul> </li> <li>• 구성 조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li> <li>-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인 비약의 여부</li> <li>-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li> </ul> </li> </ul>
<p><b>창의력(4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li> <li>-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가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한 고려</li> <li>-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li> <li>-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가 고찰</li> </ul> </li> <li>• 다각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상이나 관점 전환을 시도</li> <li>-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li> <li>- 여러 개념들의 종합</li> <li>-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li> </ul> </li> <li>• 독창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이나 논거에 있어 새로움</li> <li>-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li> <li>-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있어 참신함</li> </ul> </li> </ul>

표현력(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li> <li>- 단락 구성 및 어휘 사용</li> <li>-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li> </ul> </li> </ul>
----------	--

## 나. 지도의 실제

논술 교수-학습은 이론 중, 피어슨(Pearson)의 현시적(顯示的) 모형 학습(explicit instruction)의 원리가 인문 영역의 논술 교수-학습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이 모형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거치는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교수-학습의 단계는 <설명하기> - <시범보이기> - <질문하기> - <활동하기>로 되어 있다.<sup>15)</sup> 그러므로 이 학습 모형을 이용해 학습 과제 성취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전략을 세워 가며 자기 주도의 학습 활동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설명하기

설명하기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원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문제]** 현대 사회는 속도가 숭배되는 사회이다. 모든 일에 신속함과 효율성이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인류의 삶이 시작된 이래로 ‘빠름’은 미덕이었고, ‘속도’는 가치의 척도였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과연 속도와 능률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시오.

15) 경기도 교육청, ‘논술 지도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교육청, 1997. p. 158.



이 학술원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보답으로, 여러분께 느림의 미덕에 관하여 한마디 드려 볼까 합니다.

저와 가장 정이 두터운 한 제자가 오늘 저녁 제가 이런 강연을 하리라는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 보고는, 그 연제인 '느림의 미덕'은 선생님 친구 분들과 저희 제자 모두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대하는 바라고 며칠 전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부끄러운 마음부터 앞섭니다. 저의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대하여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느림의 미덕을 몸소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전보를 쳐 일체의 일을 사양했어야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문을 짓고, 잘 나오지 않는 말귀를 애써 다듬어가면서 느리게 사는 것의 즐거움과 그 미덕을 구가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모저모로 궁리하여 보아도 도무지 빠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모든 남자 안에는 저도 모르게 여자가 들어앉아 있고, 여자는 느낌 이외의 다른 논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박학하신 분들의 모임에 감히 가입하게 되고 그럴싸한 연제가 떠오른 게 그만 너무나도 좋았던가 봅니다.

옛날 옛적 아담이 생명의 나무 그늘 밑에서 하와 곁에 누워 세상의 모든 기쁨을 맛보던 이래, 느림의 미덕을 마땅히 노래할 수 있는 시절이 돌아온 것은 우리 시대가 처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치열하게 생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치열한 생활이란 실상 소란스런 생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징 또한 경쟁이고 보면, 뛰어났다고 과시하는 온갖 발명 역시 슬기의 발명이라기보다는 모두 속도의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제대로 인간적이려면, 마냥 한가롭기만 하여야 할 것은 없지만, 거기에는 느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일에 대한 찬양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만 일이란 무릇 쉽에서 비롯되고 쉽에서 그쳐야 하는 법이며, 위대한 업적이거나 크나큰 기쁨은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에는 쉽게 이를 수도, 음미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만 있

으면 뭐가 되어도 되겠지 ……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봅시다.” 하고 현대인은 말합니다. 옛날엔 양반이면 아시다시피 일하기를 부끄러워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하게 하는 일, 인간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반이면 아무것도 안 하기를 부끄러워 합니다. 이것 또한 그런 생각입니다. 부질없는 것을 피해 마음의 저 깊이를 되찾게 하는 한가로움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노라면 곧 우리 마음을 그늘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목적 없는 맹렬한 활동으로 인한 병폐에 대하여 우리네 대신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어찌나 많이 버는지 그걸 다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일에 짓눌려 삽니다. 근심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 가고 두 눈에는 마음을 줄 줄 모르는 자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벌어들인다고 해서 그런 이가 일을 줄이고 천천히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 주위를 살펴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장의 수입으로 또 하나의 공장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근심을 한층 더 늘립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 사태가 벌어집니다.

오늘날 한가한 사람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쉬는 걸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이들의 삶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자란다는 시간은 무엇에 쓰고 있는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실속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럴듯하고 거창한 단어들 이 더러 유행하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업 때문에 일 좀 보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로 놀러 나간다는 말은 감히 못하게 된 세상입니다. 그저 막연한 사업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구실을 찾기가 정 어려워지면 이맛살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가 나더러 쉬라고 명하네요.”라고 합니다.

저 자신, 그래도 편견 따위는 초월하고 산다고 자처하는 터인데도, 혹 친구네로 저녁이나 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어딘지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시내에 식사하러 가시나요?” 하고 묻기라도 하면, 저는 시시하게 겨우 우정 따위에 이끌려 다닌다는 혐의를 씻어야만 할 것 같아서, 사뭇 점잖은 투로 “모모한 사람들을 좀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하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비로소, ‘아아,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아닌 계로군.’ 하고 이해해 주는 판입니다.

요즘 ‘여행’은 또 어떻게들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도 내로라하는 젊은이라면 대부분 스무 살 안쪽에 유럽의 절반은 다 돌아보았다고 하며, 더러는 바다 건너 다른 대륙에까지 다녀왔다고 그러합니다. 또 영국은 여드레면 되고, 오스트리아는 열흘, 이태리는 길게 잡아 석 주일, 라인 강변은 주말 한나절이면 거뜰히 다 둘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삼백 킬로미터씩은 다녀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부유한 분들 덕에 이 사람도 가끔 차를 얻어 타고 낯선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수도 있고, 가다가 길이 굽으면서 훌쩍 반하게 아름다운 풍경이 언뜻 시야에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획 보면서 지나갑니다. 아름다움을 음미하기는커녕 고색창연(古色蒼然)한 담 같은 것을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쳐 버립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천장이 워낙 낮아서 차안에서는 먼 곳의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하기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자동차라는 데 다른 건 또 보아 무엇 하느냐고 그러면 그만이겠지요. 실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삶과 세계와의 대화’에서

### 가) 1단계 : 제시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단계

- ① 중심 화제는 무엇인가?
- ②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 ③ 글과 관련지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무엇인가?
- ④ 글이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무엇인가? (밑줄 긋기)
- ⑤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 나) 2단계 : 구체적인 논술 구상 단계

## ① 필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보자.

- 동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동감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 필자의 주장을 옹호할 것인가 반박할 것인가

## ② 글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구상해 보자.

- 구체적 진술의 내용 : 예시, 논거, 배경 지식의 내용
- 일반적 진술의 내용 : 중심 문장, 주제 정하기, 결론 쓰기
- 비교, 대조, 유추의 방법 활용 여부
- 반론을 제시하고 재반박하기
- 문제 해결형의 적용 가능 여부

## ③ 구상 및 개요 작성(밑그림 그리기)

-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독서를 통한 배경 지식을 활용할 것인가?
  - 언론 매체의 사례를 이끌어 올 것인가?
  -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가?
- 본론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떤 유형의 논술 유형인가
    - 예) 본문 요약형, 의미 설명형, 논지 비판·평가형, 본문 중심형, 정통 논술형 등
  - 문단은 몇 개로 할 것인가?
  - 본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 다) 3단계 : 쓰기 단계

## ① 서론 쓰기

## ㉠ 논제 확인

- 속도와 능률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

- ㉠ 논제 제기
  - 속도와 능률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 ② 본론 쓰기
  - ㉠ 글쓴이의 입장에 대한 분석
  - ㉡ '느림'과 '빠름'에 대한 입장 설정
  - ㉢ 자신의 입장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근거
  - ㉣ 예상되는 반론
  - ㉤ 반론을 재반박의 논거
- ③ 결론 쓰기
  - ㉠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건
  - ㉡ '느림'과 '빠름'에 대한 입장 제시

#### 라) 4단계 : 평가 단계

- ① 이해 · 분석력 : 논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 ② 논증력
  -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잘 설정되어 있는가?
  - 글의 구성은 잘 되어 있는가?
  - 글의 흐름은 체계적이고 조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③ 창의력
  - 사고에 참신성과 창의성이 있는가?
  - 논의가 심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논의의 범주가 다각적이고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있는가?
- ④ 표현력
  - 문장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 문단 구성 및 어휘 사용이 적절한가?
  -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맞는가?

## 2)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단순한 예를 통하여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익히는 숙달시키기 단계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하기 단계와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문제]** 다음 글 (가)와 (나)에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윤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가)

삶의 의미와 세계의 원리 등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도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앞선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글과 깨달음의 관계는 종종 손가락과 달의 관계로 비유된다.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킬 때, 만약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이 글의 내용도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달이 있듯이 글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 (나)

금강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금강산 그림을 널리 수집하고 자세히 살펴본 뒤에 손뼉을 치면서 말하는 내금강·외금강의 봉우리, 골짜기들은 생생하여 들을 만하다. 그러나 그가 한 번도 한양 밖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본 것이라곤 종이 위의 풍경이므로 기껏해야 산을 보지 못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그가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 주지를 만난다면 곧바로 뒤로 물러서고 말리라. 범부(凡夫)들이 대개 그러하다.

그런데 그림으로만 금강산을 본 데 불과하면서도 타고난 슬기로움으로 그 속의 울긋불긋한 산길과 물길을 잘 알아보고, 지난날의 묵은 자취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은 채 산 속의 경치를 진짜 본 것처럼 상상해 내는 사람도 있

다. 비록 단발령 고개 위에서 금강산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를 선지식\*으로 추켜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장유(張維)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 선지식(善知識): 지혜와 덕망이 있고 사람들을 교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제나라 환공(桓公)이 어느 날 당(堂)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목수 윤편(輪扁)이 당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 위를 쳐다보며 환공에게 물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성인(聖人)의 말씀이다.”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벌써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이군요.”

환공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 만드는 목수 따위가 감히 시비를 건단 말이나. 합당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이 말하였다.

“신(臣)의 일로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험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뽕뽕하여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6학년도 부산대학교 정시 문제]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제시문 (가)와 (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해석한 후, (다)의 윤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유형 분석]**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다른 주장을 반박하는 쟁점 제시형 논술 유형이다.

### [유의 사항]

1.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한 편의 글을 완성할 것
2. 1,300자 내외(±100자)로 쓸 것(600자 이하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함)
3.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법에 따를 것.
4. 연필을 제외한 흑색이나 청색 가운데 한 색의 필기구만 사용할 것
5. 원고지에는 제목과 이름을 쓰지 말 것
6. 답안 내용 중에는 수험생의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
7. 문제나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자료 확인]** 제시문 (가)에서는 ‘달’과 ‘손가락’의 비유적 의미를 통해 글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나)에서는 대상의 본질은 직접 체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접 체험으로서도 인지적 접근 즉 지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가), (나)의 공통점은 문자 표현으로서 진리를 밝히고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는 진리의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② 논제 파악

위 논술 문제는 글을 쓰고 읽는 행위의 본질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 즉 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온전하게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는가? 글로써 내면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가? 삶의 의미와 세계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 스스로 문자 표현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각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는 우선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글의 핵심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이다. ‘달’은 진리의 본질을 의미하며, ‘손가락’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도구를 의미한다. 결국 제시문의 내용은 ‘달’은 ‘글(책)’이라는 ‘손가락’을 통해 최후로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그림 자료를 들어, 지식에의 도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체험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사물이나 대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하지 않고, 그림 자료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 ‘운편’은 지식이나 느낌은 언외(言外), 즉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은 개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글로써 깨달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나) : 간접 경험만으로 대상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가능하다.

(다) : 지식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제는 ‘언어는 삶과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 설정

이 논술 문제는 논지가 이미 제시문에서 한정되어 있다. 즉 논지는 ‘언어 표현은 삶과 세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또는, ‘지식이나 진리의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정할 수 있다.

### ② 논거 세우기

논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한다.

- 인간은 서적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서적은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하였다.
-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 인간은 모든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간접 체험만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③ 개요 작성 시범

개요 작성하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계획하고 완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이는 구상하는 단계이므로 약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괄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위 문제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 : 깨달음의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서론 : 글과 깨달음의 세계는 관계가 있는가?

본론

1. 글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2.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3. 깨달음은 바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결론 : 깨달음의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실행하기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첫째, 최근에는 양자택일의 문제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비판적 글 읽기와 글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지도한다. 양비론(兩丕論), 양시론(兩是論), 절충론(折衝論)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는 합당한 근거를 뒷받침 문장을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셋째, 본론의 내용을 전개할 경우, 논지 강화를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재반박하여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서론 쓰기

서론에서는 상황에 따라 문제를 제기고 쟁점을 부각시키거나 개념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통해 본문에서 논의될 논제를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 서론은 대부분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서론을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며 시작하는 방법
- 논제의 핵심 개념을 풀이하면서 시작하는 방법
- 논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끌어들이며 시작하는 방법
- 논제와 관련된 예화(例話)나 사건, 경험을 인용하며 시작하는 방법
- 논제와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명언이나 시구(詩句), 역사적 사실이나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방법

### [서론 쓰기 시범보이기]

인간은 책을 통하여 지식을 받아들이고 삶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인류 문화 창달의 보고는 서적이며, 수많은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의 사상과 업적도 서적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말과 글로 깨달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 ② 본론 쓰기

문제의 유형에 따라 본론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논쟁형 논술 : 앞부분에서는 반대 견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뒷부분에서는 자기  
가 선택한 입장을 증명하거나 상반된 견해를 종합하는 유형.
- ㉡ 설명형 논술
  - 분류·분석형
    -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현상의 결과를 분석하는 유형

-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는 유형
-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구분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류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기능을 서술하는 유형
- 비교·대조형 :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대상별이나 내용별로 성질을 서술하고, 뒷부분에서는 각 성질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서술하는 유형
- 단순 설명형 :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주어진 견해나 자료에 대한 의의를 해명하고, 뒷부분에서는 해명된 견해나 자료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서술하는 유형
- ㉔ 문제 해결형 :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유형으로 앞부분에서 문제점이나 문제의 조건을 분석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유형

### [본론 쓰기 시범보이기]

제시문 (가)에서 ‘달’은 진리의 세계를, ‘손가락’은 글을 비유한다. 일부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주장하는 우(愚)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을 통하여 비로소 달을 바라보듯 문자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구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를 통해 성현들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 따라서 문자는 진리 그 자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은 그림을 통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상 세계를 이해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이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대상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 넓어진 인식을 다시 책으로 써

서 남겼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인식도 더 넓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책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만일 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 문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언어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 ③ 결론 쓰기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 강조하거나 예상된 문제점을 다시 환기시키며 서술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간결하게 끝맺는 것이 좋다. 결론을 마무리 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주장하고 끝맺기 : 주장을 분명히 하며 마무리하는 방법.
- 전망을 제시하며 끝맺기 : 주장과 관련하여 앞날을 예고하여 주장을 강화시키는 방법.
- 당부나 제언으로 끝맺기 : 본론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방법.

### [결론 쓰기 시범보이기]

요컨대 인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언어이다. 인류 문화가 온전하게 글로써 전달되고 창조될 때, 인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처럼 옛 것을 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인간은 글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 라) 검토하기

논술 지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첨삭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첨삭 지도하는 것이 좋다.

- 원고지 사용법
- 어휘 사용의 적절성
- 맞춤법, 띄어쓰기
- 문장 구조 및 표현의 적절성

- 문단 구조 적절성 및 구성의 일관성, 통일성
- 효과적 표현 및 창의적 표현
- 총평하기

### [검토하기 시범보이기]

옛말에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자가 책을 많이 읽어 가죽끈이 세 번이나 떨어졌다는 뜻

인데, 독서를 많이 해야 함을 강조한말이다. 독서의 기능은 정보습득과 즐거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부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요즘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 깨닫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렇다면 독서를 하면 정말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가)에서는 글을 읽음으로써 어떤 것에 대해 깨달음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한다. 글을 읽는다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귀에 경 읽기”란 옛 속담처럼 자신이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글을 읽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글의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글을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넘어간다면 금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자신의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정말 그 글에 대해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이 곧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나)에서는 장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유는 글이나 그림을 보고 정말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유를 본받아야 한다. 독서는 글쓴이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글이나 그림들을 독자가 읽는 간접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간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이나 그림을 통한 간접경험을 하게 되는데, 장유처럼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이용해 직접경험 한 것처럼 알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고 자신의 지식도 풍부해질 수 있다.

(다)글의 윤편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 주장도 일리는 있다. 직접 경험할 때의 느낌을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음으로써 필자가 전달하려는 것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배경지식이 있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책의 내용은 글쓴이의 경험이 담겨 있기에 책을 읽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서를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의 장점을 간과한 윤편의 주장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책에는 옛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중요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 지식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할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강평 및 첨삭 지도〉

〈예시 문제〉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한 후 반론을 제기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난해한 문제이다. 특히 평소 언어의 효용성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2시간 내에 1300자를 쓰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논제가 미리 정해진 유형이기 때문에 글을 전개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 ( )의 내용으로 고쳐 써야 할 부분임

- 어휘 사용의 적절성 : 옛말~ 말이 있다(중복표현), 정말로(삭제), 오류(수정요함)
- 맞춤법, 띄어쓰기 : 금새(금세), 강조한말이다(강조한 말이다), 정보 습득(정보습득) 등
- 문장구조 및 표현의 적절성 :
  - 독서의 기능은 ~ 필수적인 것이었다.(독서의 기능은 정보 습득과 즐거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예부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 (가)에서는 글을 읽음으로써 어떤 것에 대해~ 한다.(세계)
  - (나)에서는 장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례를 들고 있다)
  - 우리는 장유를 본받아야 한다.(삭제해야 함)
  - 독서는 글쓴이가 경험한 것을 ~ 간접경험이다.(독서는 글쓴이가 경험한 것을 간접

적으로 체험하는 행위이다.)

- 그러나 책을 읽음으로써 ~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서 필자가 전달하려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무슨 일을 할 때에도 ~ 때문이다.(또한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필자가 의도한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독서의 장점을 ~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윤편’의 주장은 독서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다.)
- 그 지식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 실천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므로 독서가 필요하다.)
- 문단 구조 적절성 및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

위 글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론에서는 (가), (나)의 제시문을 해석하고, (다)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독서의 의의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서론에서는 독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는 필수적이며, 깨닫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어지는 문제 제기는 ‘그렇다면 독서를 하면 정말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못한 논제 제시이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가급적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론의 첫 문단에서는 제시문 (가)를 비교적 잘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처럼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 ‘쇠귀에 경 읽기’란 속담은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또 ‘글의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문장은 이해와 깨달음이 같은 의미인데 잘못 구분하여 사용한 표현이다. 본론은 전체적으로 ‘글은 깨달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는 장유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장유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제시문은 ‘장유’처럼 그림 매체를 통해서도 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해석은 간접 경험만으로도 대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학생은 ‘경험한 바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윤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론의 논거로써 독서의 효용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일을 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은 독서의 효용성과는 동떨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독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런 결론보다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해 주는 정도로 끝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효과적 표현 및 창의적 표현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위편삼절(韋編三絕)이란 말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 ● 총평하기

학생의 글은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글이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일부 모순을 보인다. 그리고 표현에서도 정서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보완이 좀더 필요하고 문장도 다듬어져야 한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주장과 논거의 관계가 좀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겠고, 반론에 대한 반박 논거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 〈시범보이기를 통해 완성된 논술문〉

인간은 책을 통하여 지식을 받아들이고 삶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인류 문화 창달의 보고는 서적이며, 수많은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의 사상과 업적도 서적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말과 글로 깨달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제시문 (가)에서 ‘달’은 진리의 세계를, ‘손가락’은 글을 비유한다. 일부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주장하는 우(愚)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을 통하여 비로소 달을 바라보듯 문자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구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를 통해 성현들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 따라서 문자는 진리 그 자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은 그림을 통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상 세계를 이해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알고 느끼는 것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이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대상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 넓어진 인식을 다시 책으로 써서 남겼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인식도 더 넓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책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만일 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 문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언어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요컨대 인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언어이다. 인류 문화가 온전하게 글로써 전달되고 창조될 때, 인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처럼 옛 것을 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인간은 글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 3) 숙달시키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시범보이기를 한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논술을 써 보도록 한 뒤, 교사가 시범보이기 방식으로 작성된 논술을 나눠 주고 상호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문제]** 다음 제시문을 참고하여 역사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1,500자 내외로 논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진보를 믿고 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역사의 퇴보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진보 발전 사관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에 비하면 퇴보사관은 단조롭다.

역사의 발전을 믿는 이들은 오늘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편해졌다는 것을 내세운다. 불편하던 의식주의 취득 방법이나 교통 통신의 방법 등을 비교해 볼 때, 발전이란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서 한탄한다. 젊은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 모습도 마땅치 않고, 왕년의 소달구지 다니던 낭만적인 생각을 더듬으며 교통 혼잡에 짜증을 내기도 한다. 풍치지구를 메워가고 있는 러브호텔들을 보며 망국의 징조라며 흥분하기도 한다. 역사가 진전되어 갈수록 세상은 말세로 치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과거를 보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현재를 추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려는 이들은 대체로 삶의 가치를 물질적인 풍요나 편리에서가 아니라, 윤리-도덕적인데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이들이다.

이들을 가리켜 반문명주의자 또는 복고주의자라 한다. 이들의 눈에는 미개하였던 시대의 인간은 선량하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는 루소다.

루소는 그의 『불평등기원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러나 문명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 중략 -

이와 같이 루소는 문명사회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다. 그는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 인위적인 것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보다 원초적인 사회라 해서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에서 인간들은 진지했고 열려져 있었다. 모든 인간들은 어떤 강력한 동기가 없다면 대개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어떤 동기가 개입되면 인간의 진지한 우정과 진실한 믿음은

사라진다. 거짓된 부드러움의 미소가 얼굴을 감싸고 그 속에 온갖 음모가 꿈틀거린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루소의 생각은 옳다. 과학,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 발달하여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하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 수 있는가? 회사 직원이 상사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장이 직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학교의 선생이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학생이 선생을 존경할 수 있는가. 오늘의 모든 인간은 돈과 출세라는 동기에 의하여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 때문에 루소는 “우리의 정신은 기술과 과학이 성장하는 데 비례하여 붕괴되어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술과 과학은 악의 산물이다. 그것들은 악에서 나왔고 악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 그것들은 사치, 방종, 나태, 타락을 조장한다.

헤시오도스는 서양사학사에서 최초로 퇴보사관을 주장한 사람이다.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라난 그는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로부터 대부분의 유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여 방랑생활을 해야 하였다. 이 때문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나, 그는 자기의 시대(당시로서는 가장 문명화된 시대)를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겸양과 진실과 명예는 헌신짝처럼 취급되었고 사기와 간지와 폭력, 그리고 사악한 이욕(利慾)만 판을 치는 시대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역사를 원초에 가까울수록 아름다운 시대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시대일수록 악한 시대로 보았다.

그는 역사의 전 과정을 4개의 시기, 즉 황금의 시대, 은의시대, 동의시대, 그리고 철의시대로 나누어 시대구분을 하였다. 요즈음에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라는 도구의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 과정을 그는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여 퇴보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 중 황금의 시대는 죄악이 없어 규정이나 법률과 같은 강제가 없어도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었던 시대다. 배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벌채하는 일도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 성곽을 쌓거나 칼이나 창이나 투구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은 노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계절은 늘 봄이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꽃은 피고, 내(川)에는 우유와 술이 언제나 흐르고, 상수리나무에서는 노란 꿀이 저절로 떨어진다. 그러니 인간은 고통이나 우환이 무엇인지 알 리 없었고, 죽을 때도 병을 앓지 않고 편안히 잠든 것처럼 죽었다,

세월이 흘러 은의 시대에 이르면, 봄은 단축되어 일 년이 4계절로 나뉜다. 그래서

인간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참아야 하고 이를 이기기 위해 가옥을 만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나뭇가지를 잘라 자연을 파손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작물의 생산을 위해 땅을 흘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네 것 내 것을 구별하여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의 시대에 이르면, 노동의 질곡과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 인간들을 대립하게 만들고, 이 대립으로 인간의 기질은 포악하고 호전적으로 되어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다.

철의 시대는 인류의 최후시대, 즉 현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겸양이나 진실 명예와 같은 것은 등지고 오로지 사기와 간지와 폭력에만 의존하여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지경에 이른다. 때문에 산은 벌채되어 민둥산으로 변하고 대양은 배들로 가득 차서 평온을 잃으며, 땅은 파헤쳐져서 성한 곳이 없게 된다. 친구들은 서로의 만남을 불편해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여 가정은 파탄되고, 형제 자매는 부모의 재산을 놓고 살육전을 전개한다.

요즈음 서양인들은 그들의 사상적 전통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동시에 동양의 고전에 대해 놀라우리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보다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서양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지닌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이 동양 세계에 있음을 감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양사상의 바탕은 상고적(尙古的) 사고에 있다, 유학이나 도학은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인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상의 전통에 따르면, 요순시대에 인간은 선한 삶을 살았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기에 이기심은 없었고,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없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루고 자기의 부모나 남의 부모, 자기의 자식이나 남의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다. 여기서는 예(禮)조차도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은 점차 사악해져 문왕(文王)이 주(周)나라를 세우고,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멸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예(禮)를 내세워 인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없이는 바른 삶을 살 수 없고, 정치로써 다스리지 않고는 사회의 질서가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현, '역사 그 지식의 즐거움'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다음 제시문을 참고하여 역사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1,500자 내외로 논하시오.

**[논술 유형]** 이 문제 유형은 제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본론 중심의 논설문 쓰기 유형이다. 즉 역사는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유형이다.

**[유의 사항]**

1.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한 편의 글을 완성할 것.
2. 1,500자 내외(±100자)로 쓸 것(800자 이하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함).
3.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법에 따를 것.
4. 연필을 제외한 흑색이나 청색 가운데 한 색의 필기구만 사용할 것.
5. 원고지에는 제목과 이름을 쓰지 말 것.
6. 답안 내용 중에는 수험생의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
7. 문제나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자료 확인]** 제시문에서 글쓴이는 역사는 퇴보한다는 퇴보론적 사관을 옹호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루소(불신, 거짓, 음모)와 헤시오도스(환경파괴, 가정파탄, 살육)의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현대인이 물질적 부와 소비에 대한 욕망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에 영향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상실한 삶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논제 파악

- 논제는 ‘역사는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이다.
- 역사는 퇴보한다는 입장에 서는 경우 : 역사는 퇴보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들 수 있다.
- 역사는 발전한다는 입장에 서는 경우 :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주었다. 또한 역사가 흐를수록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나) 문제의 해결(역사는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

① 논지 설정

[논제1] 역사는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

[논지1]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논제2] 필자의 관점은 어떠한가?

[논지2] 현대인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퇴보하고 있다.

[논제3] 필자의 역사관에 동의하는가?

[논지3] 동의하지 않는다.

② 논거 세우기

[논제1] 역사는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

[논지1]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논 거]

- 역사가 흐를수록 자유와 평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논제2] 필자의 관점은 어떠한가?

[논지2] 현대인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퇴보하고 있다.

[논 거]

- 인간의 정신은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데 비례하여 붕괴되어 왔다.
-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현대는 퇴보하고 있다.

[논제3] 필자의 역사관에 동의하는가?

[논지3] 동의하지 않는다.

[논 거]

-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
- 사회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 지고 있다.
-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권이 중시되고 있다.

### ③ 개요 작성하기

주제 :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서론 :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문제 제기

본론 :

1.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가. 도덕적 타락
  - 나. 사회적 불평등
2.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과 근거
  - 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확대
  - 나. 경제적 풍요와 인권의 중시

결론 :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 다) 실행하기

### ① 서론 쓰기

인간의 사고와 가치 판단이 다양하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에서 온 것이므로, 역사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인류의 다수가 끊임없는 전쟁, 대규모 자연 재해, 빈곤과 질병, 인간 소외 등으로 비인간적 삶 속에 고통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삶은 역사가 흐를수록 도덕성이 약화되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 불행해져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

### ② 본론 쓰기

역사는 퇴보한다는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이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성 상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점



점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의 독재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대보다 미흡했으며 특히 일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무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또한, 과거에는 신분적 질서가 고착되어 계층 간에 차별이 존재하였지만 현대에는 신분적 차별이 사라져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은 현대보다 짧았다. 그 원인은 가난과 질병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식주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 갔다. 하지만 현대인은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로 인해 과거보다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관리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인해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 ③ 결론 쓰기

이처럼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발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지닐 때 인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 [속달사키기를 통한 완성문]

인간의 사고와 가치 판단이 다양하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에서 온 것이므로, 역사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인류의 다수가 끊임없는 전쟁, 대규모 자연 재해, 빈곤과 질병, 인간 소외 등으로 비인간적 삶 속에 고통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삶은 역사가 흐를수록 도덕성이 약화되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 불행해져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

역사는 퇴보한다는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이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성 상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의 독재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대보다 미흡했으며 특히 일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무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또한, 과거에는 신분적 질서가 고착되어 계층간에 차별이 존재하였지만 현대에는 신분적 차별이 사라져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은 현대보다 짧았다. 그 원인은 가난과 질병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식주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 갔다. 하지만 현대인은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로 인해 과거보다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관리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인해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발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지닐 때 인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 4) 활동하기

활동하기는 숙달시키기 단계를 거친 다음, 학생들 스스로 논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논술 문제를 통해 실전처럼 활동하는 단계이다.

### 〈활동하기1〉

**[문제]** 다음 제시문을 참고하여, 정신과 육체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1,500자 내외)

인간의 몸을 ‘정신이 결합된 기계’로 보고, 정신이나 이성은 ‘몸’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데카르트식의 이원론은 근대적 사유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신/육체의 이분법으로부터 이성/감성의 이분법이 나오게 되고, 이로부터 파생된 인간/자연, 남성/여성, 개발(문명)/미개발(야만) 등의 이분법적 구도가 근대적 사유의 중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 체계에 수반된 독극성 부산물로는 도구적 이상의 패배로 인한 의미와 목적의 상실, 인간 중심주의이고 인간 자연의 남획과 환경 파괴, 개별적 감성과 구체성에 대한 이성 중심주의적 억압,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적 차별, 그리고 서구중심적 문화제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근대성에 내포된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성찰의 목소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지구의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후기 근대철학에서 방법적 전략으로 채택하는 해체주의도 그러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근대 철학은 근대적 사유에 내포된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자연·감성·여성·육체에게 인간·이성·남성·정신과 동등한 존재론적·가치론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후기 근대철학의 해체는 일그러진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선 이분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즉 이성을 감성의 우위에 놓고 정신을 육체의 지배자로 보아왔던 근대적 이분법 대신에, ‘거꾸로 선 이분법’이 인류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는 후기 근대 철학이 목표로 삼아왔던 도구적 이성의 해체와 몸의 복권이 아닌, 전도된 이분법에 다름없다.

이러한 전도된 이분법이 가져다주는 물신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동양의 지적 전통에서 강조해온 몸과 마음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육체와 정신의 상호 영향성의 명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동양에서는 몸/마음 또는 정신/육체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지적 탐구 대신에, 몸과 마음에 대한 훈련과 실천은 유교의 수신(修身), 도교의 수련(修練), 그리고 불교의 수행(修行)의 전통에서 잘 드러난다. 수양의 목적은 몸과 마음이 동시적 단련을 통해 현상적(세속적) 자아를 변형시켜 본래적(이상적) 자아를 성취하려는 데 있다. 수양의 전통이 후기자본주의적 현실에서 새롭게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전통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상호 영향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육체를 정신의 우위에 놓아서 파생되는 물신숭배와 정신을 육체의 지배자로 간주하여 생겨나는 감성의 억압이라는 양극단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수신·수련·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몸과 마음이 절연하게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관적 관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호연계성의 전제, 그리고 자기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동양에서 추구해 온 수양의 노력은 성립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양의 전통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어떻게 교섭하는가? 그리고 수양을 통하여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일본 츠쿠바 대학의 저명한 비교사상사 학자인 유아사 야스오는 수양을 통한 몸과 마음의 훈련은 인체의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분출되는 감정의 난류를 바로잡고 그것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인격의 성장과 인간성의 변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야스오에 따르면 인간의 자율신경계통은 의식의 한 종류인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무의식적 충동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수양은 신체의 자율 신경 계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단련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을 제어하게 만든다. 이러한 훈련을 거쳐 우리는 무의식적 충동과 욕망 그리고 과도한 감정의 분출과 억압에서 해방되어, 스스로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수양을 통한 몸과 마음의 변화에 관한 심신 생리학적 설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을 통한 전문적 해설이 필요하다.)

심신 수련을 통한 자기 변혁의 노력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물질이 나머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후기자본주의적 현실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인간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가 지구의 허파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이성적’ 으로는 인지한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작은 불편도 감내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지혜로운 미개인’은 문명의 이기에 노예적 상태로 복속되어 버리고 만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충동을 극복하고 작은 불편을 감내해낼 수 있는 실천력은 ‘이성’ 그 자체로부터는 촉발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천력은 몸-마음에 대한 절제와 단련, 그리고 몸-마음에 대한 주체적이고도 자율적인 제어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정신을 육체의 지배자로 간주하는 근대적 이분법이 인간을 구체적 감성이 결여된 합리적 기계로 만들었다면, 정신이 결여된 육체만을 숭배하는 후기 근대의 ‘거꾸로 선 이분법’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극단적인 두 뿔로부터 헤어내기 위해서는 동양의 지적 전통에서 추구해온 몸-마음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수양을 통한 자기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승환, <몸, 신체, 육체 중에서>

### <출제 의도>

제시문은 서양의 근대적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사유 체제를 제시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사유의 방식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 근대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신과 이성이 육체와 감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분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 와서 도구적 이성의 문제점과 남성 중심의 사고로 인해 자연 파괴와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대두되었다. 서양인들은 근대적 사고에 대해 회의하게 되었으며 결국 근대적 사고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사고의 대안으로 선택한 해체주의는 감성과 육체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역전된 이분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도된

이분법은 물질주의 팽배라는 후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나게 되었으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이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유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양은 과거부터 마음공부[心學]이라고 해서 학문과 인격수양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왔다. 동양적 사고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동양의 통합적 사고로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 〈활동하기2〉

**[문제]** 다음 (가)를 참조하여, (나)와 같은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다)를 참고하여 논하시오.

(2,000자 내외)

#### (가)

절대적인 것은 어떤 다른 사물과 관계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며, 가장 숭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희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이 제공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여건들 - 주변의 기온, 색채, 배고픔이나 피곤 따위의 육체 내부의 감각까지도 - 은 모두 절대적인 것, 일종의 일차적인 자료로 주어진다. 우리는 흔히 이 일차적 자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것을 취해서 잘 가공할 수도 있다.

상대적인 것은 이 가공의 결과로 나타난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를 예로 들어 보자. 온도계를 사용해서 기온을 재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이다. 그러면 절대적 여건이 당장 인지 체계의 그물 안에 걸려든다. 숫자로 치환된 기온은 수많은 다른 기온들 - 밤 기온, 바깥 기온, 계절 평균 기온 등 - 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상대적인 것은, 따라서 지성적 행동의 정상적인 산물이거나 당연한 목표로 여겨진다. 지성은 경험에 의하여 자연 상태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하는' 능력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성에 의하여 짜여진 관계의 그물을 뚫고 나가려는 사상가들이 있다. 그들은 일차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을 과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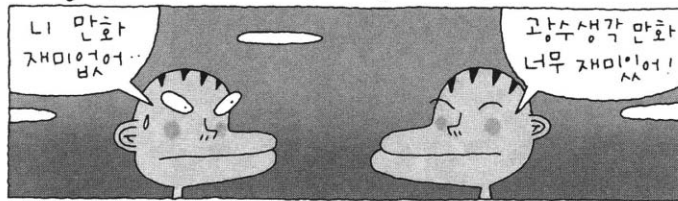
통해 가공해 보고 난 뒤, 세 번째의 지식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 지식은 모든 빛의 근원에 곧바로 도달하게 해주리라고 기대되는 지식이다. 그것은 일차적 경험의 직접성과 과학적 지식의 전달 가능성을 접합시키는 신비주의적 직관이다. 신비주의적 경험의 근원에는 신의 현존에 대한 확신으로서 체험된 신앙이 있다. 그러나 이 현존은 약해지거나 지워진다. 신자는 ‘어둔 밤’ 속에 혼자 버려진다. 반대로 그 현존이 더욱 강렬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신자는 빛의 심연 속에 깊이 잠긴다.

신비주의적 경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과학적 지식 사이의 공통점은, 그 경험이 소통된다는 것이며, 그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제자들, 동료 수도사들이나 평신도들-가 신비주의자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혼자 있는 신비주의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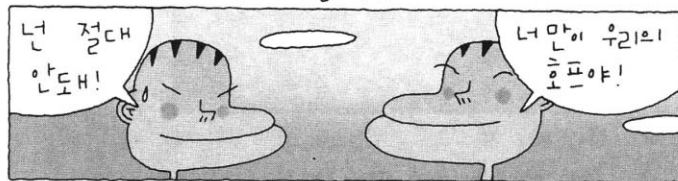
미셸투르니에, ‘소트라테스와 헤르만헤세의 점심’ 중에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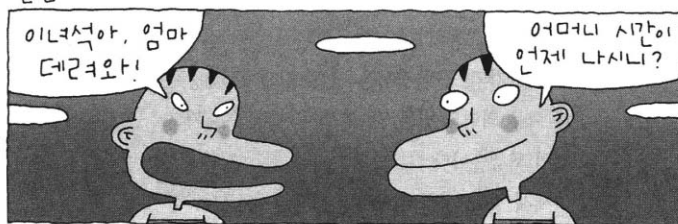
서시상에게는 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둘만이 존재합니다.



정치는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에게 표를 찍어주는 사람과 표를 찍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두사람이 존재합니까? 광수생각 EVID.

## (다)

임술(壬戌) 가을 7월 기망(期望)에 소자(蘇子)가 손[客]과 배를 띄워 적벽(赤壁) 아래 노닐새,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 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며 명월(明月)의 시를 외고 요조(窈窕)의 장(章)을 노래하더니, 이윽고 달이 동쪽 산 위에 솟아올라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 사이를 서성이더라. 흰 이슬은 강에 비끼고, 물빛은 하늘에 이었더라. 한 잎의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일만 이량의 아득한 물결을 헤치니, 넓고도 넓게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그 칠 테를 알 수 없고, 가뭇가뭇 나부껴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가 돋치어 신선(神仙)으로 돼 오르는 것 같더라.

이에 술을 마시고 흥취가 도도해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노래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木蘭) 상앗대로 속이 흰히 들이비치는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한 내 생각이여, 미인(美人)을 하늘 한 가에 바라보도다.” 손 중에 통소를 부는 이 있어 노래를 따라 화답(和答)하니,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하는 듯, 여음(餘音)이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 교룡(蛟龍)을 춤추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를 울릴레라.

소자(蘇子)가 근심스레 옷깃을 바꾸고 곧추 앉아 손에게 묻기를,

“어찌 그러한가?”

하니, 손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조맹덕(曹孟德)의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하구(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武昌)을 바라보니 산천(山川)이 서로 얽혀 뻑뻑이 푸르는데, 예는 맹덕이 주랑(周郎)에게 곤욕(困辱)을 받은 데가 아니던가? 바야흐로 형주(荊州)를 깨뜨리고 강릉(江陵)으로 내려갈 제,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감에 배는 천 리에 이어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어라. 술을 걸러 강물을 굽어보며 창을 비끼고 시를 읊으니 진실로 일세(一世)의 영웅(英雄)이러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벗함어라. 한 잎의 좁은 배를 타고서 술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삶을 천지(天地)에 부치니 아득한 넓은 바다의 한 알갱이 좁쌀 알이로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江)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날



은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노닐며, 밝은 달을 안고서 길이 마치는 것은 갑자기 얻지 못할 줄 알새, 끼치는 소리를 슬픈 바람에 부치노라.”

소자 말하되,

“손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으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되 마침내 줄고 늙이 없으니, 변하는 데서 보면 천지(天地)도 한 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변하지 않는 데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오? 또, 천지 사이에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山間)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뜨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造物主)의 다함이 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바로다.”

손이 기뻐하며 웃고,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럽더라. 배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동녘 하늘이 밝아 오는 줄도 몰랐어라.

- 소동파, '적벽부(赤壁賦)'

주)

임술(壬戌) : 송나라 신종(神宗) 원풍(元豐) 5년(1082년). 소동파의 나이 47세

기망(既望) : 16일 밤

손[客] : 소동파의 고향으로부터 온 도가(道家)의 무리인 양세창(楊世昌)

교룡(蛟龍) : 뱀과 같고 넓적한 네 발이 있다는 상상의 동물

바루고 : 바르게 하고

곧추 : 굽히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성긴데 : 공간적으로 사이가 뜨다

조맹덕(曹孟德 154-220) : 중국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왕

하구(夏口) : 호북성(湖北城)의 강하현(江夏懸) 서쪽의 지명

무창(武昌) : 호북성(湖北城) 악주부(鄂州府)

주랑(周郎) : 중국 삼국 시대 오(吳)나라의 장수. 이름은 주유(周瑜)

형주(荊州) : 호북(湖北)과 호남(湖南)의 중간쯤에 위치한 지명

가는 것 : 여기서는 '흘러가는 물' 을 뜻함

차고 비는 것 : 여기서는 '차고 기우는 달' 을 뜻함

한 터럭 : 털 한 개. 극히 적은 분량을 비유해서 나타내는 말  
 다함이 없는 갈무리 : 원문은 ‘무진장(無盡藏)’이니, 원래 ‘유마경(維摩經)’에 서  
 나온 말로 ‘다함이 없는 창고(倉庫)’란 뜻이다.  
 어지럽더라 : 마구 흩어져 뒤섞여 있었다.

### 〈출제 의도〉

우리 사회에는 사고의 경직성과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개인은 흑백논리에 빠져 들어 좌우에 대한 입장과 사회계층을 양극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연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절대주의적 입장의 차이점을 알고,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발생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통합적 사고를 통해 찾도록 출제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개념을 제시한 글이다.

(나)는 흑백논리의 사고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모든 현상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극단으로 바라보는 경직된 사고를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는 통합적 사고와 절충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손[孫]’은 상대주의적 사고에 빠져 인생무상의 허무함에 빠져 비관하고 있지만, ‘소자(蘇子)’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사고로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제시문은 상대주의적 사고와 절대주의 사고를 통합하여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동양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여기서는 (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의 사고 유형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책을 (다)의 사고 유형에서 찾아 서술하면 된다.



## 2. 사회영역

### 가. 출제 경향 및 지도 대책

#### 1) 출제 경향

2008학년도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교과적인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이다. 사회, 역사, 윤리, 정치, 경제, 지리 등을 아우른 형태로 관련 교과의 폭넓은 지식의 바탕 위에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 영역의 논술은 교과 지식에 기초한 기본 원리나 개념의 이해를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학별로 출제된 사회 영역 논술 문제의 출제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첫째, 사회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최근 출제되는 논술 문제의 추세를 보면 교과 지식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깊이 있는 사고력과 비판력을 변별하기 위해 단순한 교과 지식이 아니라 확장적 사고, 종합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지만, 그 근원은 교과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즉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사회 현상에 적용해서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시사적인 소재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 체계와 가치관을 묻는 내용이다.

16) 사회 교과 영역과 관련된 논제 주제별 유형은 사회 영역의 끝 부분에 <보충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 둘째, 논증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논술고사는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논증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고사에서는 일정한 정답이 기대되거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문제보다는 여러 학문 영역의 관점에서 두루 조망할 수 있고 주어진 논점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 셋째, 실생활과 관련된 시사적 주제가 출제되었다.

과거에는 시사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출제되기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인간 사회의 법칙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2) 지도 대책

이상과 같은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논술 지도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교과 지식과 연계된 읽기 자료를 활용한 논술 지도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통합교과적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논술 지도를 한다. 사회 교과서는 논술 문제의 제시문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교과서는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 자료이므로 교과 지식과 연계된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교과서의 통합교과적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 논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사회 교과(사회, 역사, 윤리, 정치, 경제, 지리 등)의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삼고, 사회 영역 교과 관련의 심층적 독서를 통한 다양한 시각과 사고의 깊이를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 나) 논쟁적 책읽기, 토론 활동을 강화하는 논술 지도

사회 영역 논술은 논쟁적 사고와 토론 활동의 강화에서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에 확실히 서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의 상식적 사고에 충격을 줌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논쟁적 책읽기와 토론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힘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를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

#### 다) 시사적 소재를 활용한 논술 지도

실생활과 관련된 시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논술을 지도 한다.

사회 영역 논술 지도에서는 신문, 방송을 통한 시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현대 사회의 여러 속성을 다룬 문제(정보화, 복지, 교육, 인권, 환경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논술 문제는 단순히 시사 쟁점에 대한 견해를 직접 묻는 경우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관점, 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사적인 문제를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건의 근원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 라) 사회 영역 관련 읽기 교육을 통한 논술 지도

사회 영역과 관련한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교육을 강화하는 논술 지도를 한다. 사회 영역의 제시문은 정확한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자료이거나 해석을 요구하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탁월한 독해 능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장 또는 단락 단위로 글을 읽고 핵심 아이디어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학생들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포함한 읽기 자료를 통해 반복적 숙달 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지도의 실제

여기에서는 사회 영역 관련 논술 문제를 피어슨의 현시적 모형에 따라 지도하고자 한다. 사회 영역 논술 문제를 ‘설명하기’ - ‘시범보이기’ - ‘숙달시키기’ - ‘활동하기’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설명하기

설명하기 단계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원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 그리고 과정,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사회 영역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논제의 분석이 정확한가, 해결 방법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논거가 독창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등 논술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동국대학교 2003학년도 정시 논술 기출 문제를 부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문제]** 제시문 (가)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제시문 (나)는 ‘대동(大同)’ 사회를 설명한 글이다. ‘대동(大同)’ 사회의 이상을 근거로 하여,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 〈유의 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00자 내외(900~1100자)로 서술할 것
2. 시험 시간은 120분임
3.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4.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5.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 (가)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의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과 성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그 기동으로 삼고 있다. 또, 공정한 경제 질서 속에서 정당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룩된 경제적 성과는 개인에 의하여 향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야말로 시장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중략)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 생산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그러므로 공급자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중략)

그러나 시장의 경쟁 상태가 불완전할 때, 예를 들어 시장이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지배될 경우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보장되지 못한다. (중략)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자유 경쟁의 결과가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도 있다. 먼저,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제삼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중략 -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도 있다. 교육, 국방, 치안이나 도로, 교량, 댐 등은 기업이나 가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시장이 아무리 경쟁적이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기는 어렵다. (중략)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불경기가 심하여 실업이 증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으로 경제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중략)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생산물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경쟁적인 시장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완전히 경쟁적이지 못하며, 더욱이 능력 차이 등으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누적, 심화될 수 있다. 지나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부 격차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수반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나)

대도(大道)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두 만인의 것이다. 현명한 이와 능력 있는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겨 신뢰와 화목을 두텁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편안히 여생을 보낼 곳이 있으며, 장성한 사람들에게겐 일자리가 있고, 어린이 에겐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부모, 폐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남자는 모두 자기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자기 가정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않으며,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만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일어나지 않으며, 도적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바깥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편

참고 자료 : 2004학년도 동국대 논술 기출 문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바람직한 경제 사회’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서 발췌한 글이다.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는 그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그 문제점을 ‘시장의 실패’로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이다. 제시문 (가)의 글은 전자의 입장에 서있다.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시장의 실패에서 찾을 경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새로운 주체, 즉 정부의 개입에서 찾게 된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과점의 형성으로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과 관련된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부족 현상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정거래법 제정, 환경규제정책, 사회 보장제도 확대 등이 있다. 제시문 (가)는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분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많은 재정 지출을 하는 다양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제시문 (나)의 ‘대동(大同)’ 사회의 특징은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천하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공유물로 한다.

둘째, 사람들은 모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며 노동의 산물인 재화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향유한다.



셋째,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은 사회 보장제에 의해 부양한다.

넷째, 통치자는 어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신의와 화목을 구현한다.

다섯째, 자기 부모나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널리 사랑을 베푼다.

여섯째, 악의적인 음모나 모략을 배제한다.

일곱째, 도둑질, 횡령, 착복 등 질서 문란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덟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 가) 1단계 : 제시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단계

- ① 논술의 문제는 무엇인가?
- ② 무엇을 논술하라는 문제인가?
- ③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 ④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⑤ (가)와 (나) 제시문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⑥ 글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 나) 2단계 : 구체적인 논술 구상 단계

- ① 논지설정
  - (가)제시문의 논지는 무엇인가?
  - (나)제시문의 논지는 무엇인가?
  -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 ② 논거 세우기
  - (가) 제시문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분석
  - (나) 제시문에서의 대동(大同)사회의 이상 분석
- ③ 구상 및 개요 작성
  - 어떻게 주의를 환기하고, 과제를 제시할 것인가?

-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지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인가?
- 과제를 해명하고, 구체화하기
- 어떤 유형으로 전개할 것인가?  
(예) 본문 요약형, 의미 설명형 논술, 논지비판·평가형 논술, 본문 중심형 논술, 정통 논술형 등
- 문단은 몇 문단으로 할 것인가?
- 본문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과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글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 다) 3단계 : 쓰기 단계

##### ① 서론쓰기

- 성장과 효율성 중시 풍조에 따른 문제점 제기
- 경제 성장의 목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맹목적인 경제성장 추구의 문제점을 지적
- 경제 성장의 목적과 정부 역할의 고찰 필요성

##### ② 본문 쓰기

- (나) 제시문에서 대동사회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사점 정리
- (가)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문제 분석 및 정리
- (가) 제시문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의 필요성 지적
- '대동사회의 이상을 근거로 하여' 라는 조건에 따라 복지사회의 실현 필요성, 정부의 올바른 개입 형태 등에 대해 진술

##### ③ 결론쓰기

-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적(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 확인 및 정리
-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정부의 적절한 역할 강조

#### 라) 4단계 : 평가 단계

- 내용면 : 문제의 핵심 파악 여부, 내용의 풍부성, 내용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방법의 유연성, 내용상의 독창적 관점이 나타나는가?
- 논리면 :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 논리상의 오류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는가?
- 표현면 : 글의 기본 조건 준수 여부, 문장의 정확성, 어휘의 풍부성, 문장의 호응 관계 등에 중점을 두었는가?

## 2) 시범 보이기

이 단계는 교사가 논술의 이론과 원리에 따라서 직접 논술을 시범 보이는 것이다. 즉, 교사가 사고의 과정과 '논술 수행 과정'에 따라 논술 문제를 적용하여 실제와 똑같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2000년 고려대 정시 논술 문제(제도에 관한 켈렌과 아도르노의 주장)를 활용하여 시범을 보이기로 한다.

**[문제]** 제도(制度)에 관한 켈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반드시 예시문에 언급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논술하시오.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논제와 성명은 쓰지 말 것
2.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내외(1500~1700자)가 되게 할 것

#### (가)

제도는 인간의 생식과 보호, 생계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형식이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 안정된 권력이 된다. 제도는 본래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들이 서로 견뎌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낸 형식이다. 제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공동으로 추구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며 내적 삶의 안

정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제도는 우리가 항상 격렬하게 대립해야 하는 부담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제도는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며, 개인은 그 제도 안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은 사실상 사유재산이나 결혼과 같은 제도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행동양식으로 체험한다. 제도는 그 구성원이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 의식되며, 개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직업, 관청, 공장과 같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형식들 안에서 지배가 형성되고 정신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식들이 결국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지닌 제도가 되고, 이 제도가 개인에 대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체제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떤 제도에 그 개인이 편입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개인의 행동을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아놀드 겔렌, 『인간학적 연구』

#### (나)

아도르노 :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로부터 비롯된 이 권력은 철학의 용어로 '타율적' 이라고 불립니다. 제도는 인간과 맞닥뜨려 있는 낯설고 위협적인 권력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여 제도의 권력을 용납하게 된 것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엄청난 중압이 되어 개인을 말살하는 위협적인 것이 되고 마침내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 되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겔렌 : 동감입니다. 가족, 법, 결혼, 사유재산 등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제도나, 경제는 역사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언젠가 해체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계속 바뀌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이상으로 묻고 있습

니다. “왜 켈렌은 제도를 옹호하느냐”라고 말이죠.

아도르노 :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어떤 점에서는 제도를 옹호합니다. 오늘 의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켈렌 : 좋습니다. 어디 봅시다. 우리는 어쨌든 논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안전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제도는 인간이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을 막고 인간이 서로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는 제한되지요. 그러나 혁명가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도르노 : 당신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이 제도 아래에서 갖는 책임이란 순응과 복종의 형태를 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듯이, 인간이 자기실현의 가능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잠재해 있는 인간 실현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에 대한 순응은 인간을 심각하게 기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요. 인간의 잠재력은 제도에 의해서 억압되고 불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켈렌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연배이고, 다 같이 네 번의 정부 형태, 세 번의 혁명, 두 번의 전쟁을 겪었지요. 그 동안 많은 제도가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전반적인 내적 불안정입니다. 내적인 동요지요. 이 사실은 이제 명백하고 공개적인 것이 되었지요. 제도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찬성입니다. 인간은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가로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도르노 :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내 견해는 다만 그로부터 얻은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날 기계 장치의 한 부속품이지 자신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쓸모없는 부속품이 되지 않도록 세계가 이루어지고, 인간을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인간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겔렌 : 엄마의 앞치마에 몸을 숨기는 아이는 불안과 동시에 다소간의 안전을 느낍니다. 당신은 물론 성숙의 문제를 논하려 하겠지요.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 당신은 기본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제도에 맡기기보다 인간 스스로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시행착오와 삶의 과오를 감수하도록 모든 인간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도르노 : 그렇습니다. 나는 객관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절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 세계 내에서의 안녕과 행복은 하나의 허상임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겔렌 :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당신은 ‘예’, 나는 ‘아니오’ 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신은 인간 중심적이며 이상주의적입니다.

아도르노 : 나는 그렇게 이상주의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이 처한 곤경은 제도에 의해서 지워진 부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인간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바로 그 권력의 품안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심층 심리학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 자신을 ‘공격자와 동일화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도 두려워하는 바로 그 권력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있습니다.

겔렌 : 나는 반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아직 인간의 손에 남아 있는 약간의 것마저도 인간으로 하여금 불만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도르노 :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바로 이런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그렌츠, 『아도르노의 철학』 중 ‘A. 겔렌과 T. 아도르노의 논쟁’

출전 : 2000학년도 고려대 정시 논술 기출 문제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시범

**[유형 분석]** 위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독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출제 유형상 자료 제시형에 해당된다.

**[자료 확인]** 논제는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며, 이는 규범의 복합체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켈렌과 아도르노의 입장을 분석하고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함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 사항]** 1,600자 안팎으로 작성하되, 켈렌과 아도르노의 주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논술한다.

**[과제 확인]** 제시문을 읽고 켈렌과 아도르노의 관점을 정리한 뒤,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후 반대의 입장을 비판한다.

### ② 논제 파악 시범

논제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좀 더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야 한다. 논제는 출제자가 학생에게 던진 ‘무엇’에 해당되며, 학생 스스로 그 질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 제시형의 경우에는 문제를 ‘물음’으로 바꾸기에 앞서 주어진 자료를 독해해야 한다.

논제는 첫째, 제도(制度)에 관한 켈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을 밝힌다. 둘째,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반드시 제시문에 언급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논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본론I에서 다루고,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본론II에서 다루도록 한다.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 설정하기

여기에서는 글 전체를 이끌어 나갈 중심축인 논지를 설정한다. 즉,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먼저 제시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 제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형식이다. 사회 속에서 개인은 제도의 도움을 얻어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간다. 제도는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며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 (겔렌의 지지 입장)제시문 (나)에서 겔렌의 주장은 제도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보호 장치이다. 제도의 약화는 인간의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는 일부 제한된다. 비록 제약이 있어도 제도는 보존해야 한다. 제도가 감당했던 기본적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맡게 된다면 이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도를 벗어난 자유의 주장은 이상주의적인 입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아도르노의 지지 입장)아도르노의 주장은 현재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인간이 처한 문제는 바로 제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자기실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도는 이러한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제도는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었다. 인간은 제도의 부속품이 되었다. 인간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제도 내에서의 안정은 허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 ② 논거 세우기

논증에는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필요로 한다. 이는 논술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논리성과 관계가 깊다. 이에 기초하여 논거를 세워 보면 다음과 같다.

논제의 첫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 제도에 대한 겔렌과 아도르노의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겔렌의 주장 :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고 서로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제도가 없다면 인간은 끊임 없는 시행착오와 삶의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 결혼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의 발생에 의해 인간의 자유 제약이 필요하다.



- 아도르노의 주장 :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억압적 권력의 성격이 짙다. 결국 인간의 잠재력이 제도에 의해 억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로부터 얻은 성과가 별로 없다

-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다.
- 교육제도는 필요한 것이긴 하나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논제의 두 번째 항목은 제시문에 소개된 제도 중 하나를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 (가)에 나오는 제도는 사유 재산, 결혼, 직업, 관청, 공장 등이 있다.
- (나)에서는 가족, 법, 결혼, 사유 재산, 경제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자신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③ 개요 작성하기

겔렌에 동조하는 경우,

**[서론]** 제도의 개념 정의

**[본론]** 제시문에 나타난 겔렌과 아도르노의 입장 차이

- 겔렌의 입장 : 제도는 불가피하다.
- 아도르노의 입장 :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를 억압한다.

**[본론II]** 제도는 인간에게 필요한 형식이다.

- 법과 제도가 없을 때의 혼란
- 아도르노의 입장 비판

**[결론]** 우리는 제도 안에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

- 아도르노에 동조하는 경우,

**[서론]** 제도의 개념 정의

**[본론]** 제시문에 나타난 겔렌과 아도르노의 입장 차이

- 겔렌의 입장 : 제도는 불가피하다.

- 아도르노의 입장 :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를 억압한다.

**[본론]**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를 억압한다.

- 제도가 인간의 잠재 능력을 말살시키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켈렌의 입장 비판

**[결론]**

-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 실행하기

##### ① 서론 쓰기

서론은 자신의 주장을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논제와 관련된 화제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앞으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면 된다. 켈렌과 아도르노의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더라도 서론 쓰기는 동일하다.

##### 〈서론 쓰기 시범보이기〉

우리는 제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도는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계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제도란 규범의 복합체이다. ‘규범’의 내용은,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막연한 약속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교육 제도, 가족 제도, 종교 제도 같은 것부터 도덕이나 언어 같은 것까지 포함된다. 이제 켈렌과 아도르노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 ② 본론 쓰기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미 작성된 개요를 따라 써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본론 쓰기 시범보이기〉

- 켈렌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도가 없을 경우 생길 혼란을 미리 생각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라는 점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 사유 재산, 결혼, 가족, 법, 경제 제도 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신의 이해만을 돌볼 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각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부족이 있다고 하자. 그 부족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살인과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탈취하는데 결국에는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진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켈렌은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법과 질서가 없고, 근시안적이면서 모두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도르노는 제도가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제도가 없다면 인간은 더욱 심한 부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법 등의 사회 제도에 의하여 규제받지 않는 자유를 상상해 보라. 극단적으로 미운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곳에 정말, 완벽한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켈렌은 아도르노에게 인간 중심적이며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 아도르노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과 자유를 억압한다. 물론 제도 그 자체를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제나 그 시대에 맞게 변경될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인간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신고를 하고 교육 제도에 의해 교육받고 사회, 경제, 정치적 제도 안에서 삶을 영위해간다. 한마디로 정해진 지나간 틀에 박힌 삶의 궤도를 따라 뒤쫓아 간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 장치의 부속품처럼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율적 존재이다. 자율속에서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육제도가 필요할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도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잠재 능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 ③ 결론 쓰기

## 〈결론쓰기 시범보이기〉

결론은 출제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의 결론은 피해야 하며, 제기된 문제의식의 답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즉,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 등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컨대 결론은 요약, 요약+전망, 전망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히 결론을 잘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속담이나 경구 등을 인용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피해야 한다. 결론은 어떤 것의 결과인지, 어떤 것의 원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물론 주장이나 입장이 논제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다.

위 논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겔렌의 입장을 견지한 경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제도는 인간의 삶의 제약한다. 그러나 인류의 경험은 제도 없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같등을 여실히 보여 왔다. 역설적이지만 완벽한 자유의 추구는 오히려 부자유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제도 안에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

**아도르노의 입장을 견지한 경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게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어떻게 올바르게 개선시켜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라) 검토하기 시범보이기

여기서는 학생이 작성한 논술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시범을 보이기로 한다.

①(Ⅰ) 인간은 스스로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다. 즉 제도는 인간의 욕구 충족과 관련 있다. 제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러한 노력들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회가 점점 다원화됨에 따라 단순한 형태에서 거대한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과연 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Ⅱ) 예시의 아도르노는 제도의 기본적 속성은 타율에 기초하고 있고, 인간과는 괴리된 낯선 것이라고 정의한다.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제도를 무겁게 만들고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 간다는 것이다. 권력이라고 명명된 가치에 따라 인간은 제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고, 형식이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보다는 익숙해진 제도 안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것은 결국 인간을 제도의 부속품처럼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잠재성은 묻혀버리고, 제도는 개인에 대해 권리를 얻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주체적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아도르노는 말하고 있다.

(Ⅲ) 반대로 켈렌은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제도는 인간들이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약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인류의 역사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내적 불안성은 명백한 것이 되었고,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통한 안심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이 독립된 개체가 됨에 따라 수반되는 불안정성의 폐해를,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Ⅳ) 우리는 제도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고, 또 삶을 보호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유를 가져간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먼저 자유를 지불했다. 이것은 인간이 보다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이끌어 냈고, 그로 인해 더욱 다원화 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인류의 공동체와 함께 한 제도는 이미 너무 거대해졌고,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제도 속에

편입시켰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화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대가로 더욱 많은 자유를 가져간 것이다.

③(V) 제도는 분명 인간을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주체적 삶을 살 권리마저 박탈할 만큼 커진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인류가 보아온 단계로 가기 위해 존재한 것이 제도이고, 그 제도가 인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제도에 길들여져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인류에게 발전은 없을 것이다.

### 〈강평 및 첨삭 지도〉

위 학생의 작품은 대체로 논제에 충실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작품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의 경우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글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을 보면 켈렌과 아도르노는 제도의 필요성과 가변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학생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권력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단지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 부문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점은 이해하나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분석하고 있고 실제 이후 전개한 글의 맥락과도 잘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②의 경우 ‘제시된 제도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는 요구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제도 외에는 특별히 고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주장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사회교과의 여러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혼제도나 법제도 등을 선택하여 주장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은 결론 부분으로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 즉 켈렌의 입장과 아도르노의 입장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3의 입장을 선택하여 전개하였다면 보다 명료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서론과 본문에서 이 입장의 선택이 분명하지 못하면서 결론도 다소 불충분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하자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부재, 논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사례를 통한 내용의 전개가 아쉬운 글이다.

## 〈시범보이기를 통한 완성된 예시 답안〉

우리는 다양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형식이다. 제도는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제도란 규범의 복합체이다. ‘규범’의 내용은,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막연한 약속이나 관습에서부터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까지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교육 제도, 가족 제도, 종교 제도 같은 것부터 도덕이나 언어 같은 것까지 포함된다. 제도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규범이 되는 순간 인간을 종속시킨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제도를 위한 자유의 제약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겔렌은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제도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장치로 이해한다. 그는 제도의 보존을 위해서는 비록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러 제도 중 결혼제도를 통해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제도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고 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제도를 통해 배우자를 얻게 되면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본능에 반하는 규범을 따라야만 한다. 이는 겔렌의 논지를 통해 보자면 결혼제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약당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규제는 인간의 본성상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기실현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도르노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할지라도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오늘날의 제도는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반인간적 현상의 핵심은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제도는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도르노

는 인간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제도 내에서의 안정은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제도 즉,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 서로 간에 지켜야만 하는 규범들은 제도 그 자체의 유지를 위한 것일 뿐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실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해 가면서 제도가 가져오는 자유에 대한 굴레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제도를 통해 자유가 가능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제도를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제도도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때로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 않겠지만 자유의 확대를 위해 전진해온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은 항상 가치 있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강호영의 논술교실

### 3) 숙달시키기

숙달하기는 교사가 시범을 보인 논술 수행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예시 문제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논리 수행 과정에 따라 해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문제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주제로 한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예시문제를 활용하였다.

**[문제]** 세계화에 대한 제시문 (가)의 견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작성요령〉

1. 글의 분량은 제목을 포함하여 1,600자(1400~1700자) 내외로 할 것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쓸 때는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것

(가)

보편주의의 노선과 개방적, 공존적 민족주의 노선은 겹으로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원리는 세계화 시대가 부과하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과제, 즉 증가하는 상호 의존과 심화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간, 민족 간에 평화적 공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만약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과 수많은 민족 집단들이 보편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또한 이들이 개방적, 공존적 민족주의 대신에 폐쇄적 배타적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변질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하나는 헌팅턴(Huntington)이 이미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명쾌하게 제시한 바가 있다. 헌팅턴은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경제도 아닌 바로 문화라고 갈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탈냉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에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구 공산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문화적 요소에 뿌리를 둔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중략) 헌팅턴은 세계화로 인해 증가하는 상이한 문화권 사이의 접촉이 자칫 문화적 갈등과 정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종, 언어, 종교가 상이한 집단 사이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곤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항상 많은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 집단 사이에 배척과 차별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쉽게 집단 간 갈등과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팅턴의 지적대로 문화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비타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들이 문화적 갈등을 훨씬 더 가소성이 높고 폭발력이 높 갈등으로 만드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민족주의가 강렬하게 부활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 수많은 민족 집단들이 보편화된 세계 규범을 확고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헌팅턴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문화 충돌이나 문명 충돌이 만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화는 세계 각 문화 권역(문명권보다 작은 권역)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결국 세계주의의 명제가 상징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계의 종말’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보편주의를 수용해야 하는 주된 근거이다. 또한 우리가 보편주의의 큰 틀 속에서 개방적, 공존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나)

한자는 문자의 근본이다. 예를 들어 하늘 천(天)은 바로 ‘천’이라고 발음한다. 말 뜻을 또다시 중복해서 풀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물건의 명칭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비록 글을 모르는 부녀자나 어린아이라도 보통 때 쓰는 말이 그대로 문구가 된다. 경사자집(經史子集)등도 입에서 지껄이는 대로 나온다. 중국은 말로 인해서 글자가 나왔고 글자를 찾아서 말을 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나라가 중국처럼 문학을 숭상하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언어라는 커다란 꺼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성음도 비슷하다. 따라서 백성전체가 우리 말을 버린다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래야만 오랑캐라는 말을 면할 것이며, 동쪽 수천 리 땅에 스스로 주(周), 한(漢), 당(唐), 송(宋)의 풍속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 (다)

다산의 문학론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 ‘자주적 조선사’를 선언한 주체적 문학 정신이다.

노인의 즐거운 일 하나는

붓 가는 대로 마음껏 시를 쓰는 것.

어려운 운자(韻字)에 신경 안 쓰고 고치고 다듬느라 늦지도 않네.

흥이 나면 뜻을 싣고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를 쓰네.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즐거이 조선시를 쓴다.  
그대들은 마땅히 그대의 법을 따르면 되지  
시 짓는 법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누군가.  
까다로운 중국시의 격과 율을  
먼 곳의 우리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중략 -

배와 굴은 다 맛이 다른 것처럼  
오직 입맛에 맞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네.

-정약용, 「老人一快事 六首 效香山體」

다산이 71세에 지은 시다. “조선인의 기호와 성정에 일치되는 조선시를 써야만 참다운 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문학의 주체성과 자아 확립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멀리 “한자로 시를 쓰면 온전한 우리의 감흥을 드러낼 수 없다.”는 퇴계 이황이나 서포 김만중의 생각과 일치한다. 중국시, 곧 한시 짓는 법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대담한 주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참고자료 : 2005학교 서울대학교 예시문제 변용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세계화에 대한 제시문 (가)의 견해를 분석하고,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문제이다.

**[유형 분석]** 위 문제는 전개 유형상 분석형 문제이고, 출제 유형상 복합 자료 제시형 논술이다.

**[자료 확인]** 제시문 (가)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보편

주의와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고 제시된 세계화에 대한 두 개의 고전 지문의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 사항]** 1,600자 내외로 적성하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와 (다)의 글을 세계화와 민족주의 문제와 연관하여 논술을 전개한다.

**[과제 확인]** 제시문 (가)의 견해를 분석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글을 활용하여 세계화와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 ② 논제 파악

논제는 세계화 시대의 보편주의와 민족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을 택하려는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묻고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의 배타성과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부활이 ‘문명의 충돌’ 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떠한 입장이 정당한지를 밝혀야 한다.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설정

세계화 시대라고 하여 민족 간, 국가 간 충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탈냉전 이후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큰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민족주의 대신에 세계의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는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초정 박제가의 『북학의』에 나오는 ‘한어(漢語)’라는 글이다. 오늘날의 영어 공용화론을 연상하게 하는 이 글에서 박제가는 우리가 중국과 같은 선진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말과 글이 다른 불편함을 없앤다면 우리도 중국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박

제가의 주장은 민족보다는 문화 혹은 문명이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청나라가 만주족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여 깔보고 당시의 조선을 중화의 나라로 높이던 시대 상황에서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쓰자는 박제가의 주장은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제시문 (다)는 박제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실학자 정약용의 시 세계를 평가한 글이다. 글 쓰이는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즐겨 조선시를 쓴다.”는 시구를 통해 정약용의 민족에 대한 주체 의식과 문화적 자신감을 읽어내고 있다. 정약용의 자신감은 ‘청나라=만주족’, ‘조선=소중화’ 라는 중화의식의 산물이기보다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발로한 것이다.

- 세계화 시대에 민족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는 개방적 · 공존적 민족주의가 요구된다.
- 박제가의 주장처럼 세계화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대폭 없애거나 바꾸자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 정약용의 주장처럼 폐쇄적 ·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 폐쇄적 · 배타적 민족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② 논거 세우기

- 세계화 시대에는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보편적 규범이나 가치의 수용이 중요해진다.
- 박제가의 의견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 정약용의 견해는 세계화의 강대국 패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인식하면서 우리 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 ③ 개요 작성하기

### [서론]

- 세계화는 시대적 대세이다.
-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긴장과 충돌이 예상된다.

**[본론]**

- 제시문 (가)의 견해 분석
  -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 국가 간, 민족 간 평화적 공존 달성이 과제이다.
  - 헌팅턴의 의견처럼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은 문화이며, 문화적 갈등은 비타협적이라는 점에서 가소성이 높은 요인이다.
- 어떤 민족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 박제가의 의견처럼 세계 정치에 편입되는 탈자아(脫自我)의 성격이 강하다.
  - 정약용의 의견은 자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으나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결론]**

- 헌팅턴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박제가의 견해처럼 나를 버리면서까지 세계에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문화적 자부심을 갖되,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좋다.

**다) 실행하기****① 서론 쓰기**

인류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켜온 과학 기술과 교통의 발달, 정보화 사회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크게 이바지 하여 점차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장벽을 허물게 하고 있다. 연계된 국가의 형태가 강화되면서 점차 다양성을 허물고 보편성을 중심축으로 뺏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규범의 저변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인 상태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하나만을 고집할 경우 국가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근래 일어나는 세계의 정세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본론 쓰기**

오늘날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국제 간 갈등요인이었던 이념과 경제에서 벗어나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요소에 의한 문화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민족 간 평화적 공존 달성이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헌팅턴이 분석한 것처럼,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은 문화이며 문화적 갈등은 비타협타적이라는 점에서 가소성이 높은 요인이다. 그러므로 보편화된 세계 규범을 확고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에 연연하지 말고 중국어를 사용하자는 박제가의 의견은 보편화된 세계 규범을 확고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백성 전체가 우리말을 버리는 것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박제가의 주장은, 그러나 말까지 버리고 세계 규범에 재편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민족을 규정지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세계에 편입되는 탈자아(脫自我)의 민족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가 주장한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가 이런 식의 탈자아적, 몰자아적 민족주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 선언이라 불릴 만한 정약용의 견해는 이런 점에서 박제가의 의견과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런 생각은 우리말을 버리고 세계 규범에 순응하자는 박제가의 견해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이런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타 문화에 대한 비하 의식이나 자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변질될 경우,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세계화가 시대의 대세이며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이 문화라고 분석되는 이 시기에, 배타적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입지가 좁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약용이 천명한 문화적 자부심이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③ 결론 쓰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이것이 문명의 충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편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배타적 민족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올바른 문화 인식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수용을 통해 성숙한 세계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 〈속달시키기를 통해 완성된 논술문〉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발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하게 접목되면서 세계화는 이제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떤 세력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공간적 확산에 의해 본격화된 세계화 과정은, 물리적 장애물과 정치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이제사람들의 의식을 구속하는 문화적 장애물까지 극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재편되다 보니, 각국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의 결과물인 보편성이 긴장을 일으키면서 세계화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의 갈등과 충돌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국가 간, 민족 간 평화적 공존 달성이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제시문 (가)이다. 세계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민족 간의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민족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팅턴이 분석한 것처럼,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은 문화이며 문화적 갈등은 비타협적이라는 점에서 가소성이 높은 요인이다. 그러므로 보편화된 세계 규범을 확고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에 연연하지 말고 중국어를 사용하자는 박제가의 의견은 보편화된 세계 규범을 확고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백성 전체가 우리말을 버리는 것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박제가의 주장은, 그러나 말까지 버리고 세계 규범에 재편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민족을 규정지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세계에 편입되는 탈자아(脫自我)의 민족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가 주장한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가 이런 식의 탈자아적, 몰자아적 민족주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 선언이라 불릴 만한 정약용의 견해는 이런 점에서 박제가의 의견과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런 생각은 우리말을 버리고 세계 규범에 순응하자는 박제가의 견해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이런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타 문화에 대한 비하 의식이나 자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변질될 경우,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세계화가 시대의 대세이며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 요인이 문화라고 분석되는 이 시기에, 배타적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입지



가 좁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약용이 천명한 문화적 자부심이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민족의 자기 민족의 고유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주의와 긴장 관계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 미국과 이슬람의 충돌, 일본의 우경화, 중화 패권주의의 등장을 보더라도 세계화가 된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세계화와 민족주의 두 가치가 유연하게 화해하고 타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민족 간 평화적 공존이 절실한 까닭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를 버리면서 세계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탈자아, 몰자아의 세계화 편입은 오히려 민족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갖되 그것이 폐쇄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하다. 급속도로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개방적·공존적 민족주의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4) 활동하기

활동하기 단계는 숙달시키기 단계를 지나 학생들 스스로 논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논술 문제를 접해 보고 실전처럼 활동하는 단계이다.

##### 〈활동하기1〉

[문제] 제시문 (가)와 (나)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글이고, (다)는 전자정보 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글이다. 서론에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와 관련하여 유비쿼터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 〈유의사항〉

1. 피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1300~1500자)로 서술할 것
2. 시험시간은 140분임
3. 자신의 신원은 드러내지 말 것
4.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5. 서론에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할 것

**(가)**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란 뜻이며,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있는 자연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유·무선을 가리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

유비쿼터스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유비쿼터스 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곧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냉장고·안경·시계·스테레오 장비 등과 같이 어떤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 넣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정보기술(IT) 환경 또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뜻한다.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면 가정과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산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 정보기술 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동아일보, 2006. 2. 28

**(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어느 직장인 부부의 하루 일과

07:00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 ‘건강육실’에 들어가 체온 및 혈압 등을 측정하고 결과는 자동으로 ‘光 건강카드’에 입력된다. 이것은 병원으로 전송되어져 나중에 주치의와 상담할 때 활용된다.

08:00 가족들은 전자적으로 송신된 뉴스 파일에서 각각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단말기에 의하여 습득된다. 노트북이나 거실의 벽에 설치된 대형화면 등등…….

09:00 출퇴근 자유시간제이므로 교통 혼잡시간을 피하여 출근한다. 미리 출근한 동료에게 비주얼폰으로 연락하고, 원격화상회의 준비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

13:00 외국의 고객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자동번역통신'으로 통화를 한다.  
16:00 퇴근길은 동료의 자가용을 이용한다. 동료는 자가용의 항행 시스템을 작동 시키고 주행 루트와 소요 시간 등을 차안의 디스플레이를 보고 신다.  
21:00 콘서트가 끝나고 귀가하면 현관의 자동인식장치가 작동하여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닫힌다. 벽의 영상 화면을 통해 새로 등록한 디지털대학의 강의를 VOD로 공부한다.  
22:00 목욕을 하다 온천의 입욕제를 넣어 온천 분위기를 살리고 영상화면에는 온천 풍경이 전개된다.  
23:00 잠자리에 든다. 이상 발생 시 보안회사에 접속되어 있는 텔레홈키퍼가 작동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 가정의 모든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유틸리티 비용은 텔레미터링(telemetry)에 의하여 원격 점검되어 은행구좌에서 자동 결제된다.

공성진, '2005년 어느 직장인의 하루' 자료 변형

#### (다)

전자정보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그 속도이다. 뉴스 전달 속도는 며칠 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분으로 측정된다. 컴퓨터는 더구나 즉각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속도가 민주적 논의에 적절한 것인가? 전자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난제는 전자고속도로 상에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생각, 인내심 및 재고(再考)를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의회에서는 입법절차상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독회(讀會)를 요하는 경우가 잦다. 그 이유는 졸속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즉각적인 사고(思考)를 유발하며, 이는 종종 여과되지 않은 편견과 오만에 의한 의견 표출을 야기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디지털 매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성이다. 이는 2진법적인 이원주의(二元主義)의 성향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예/아니오' 식의 여론조사와 2개 정당간의 선택으로 대의민주정치를 촉진한다. 강력한 민주주의는 선다형 판단을 요하고 선다형 의견이 가져오는 복잡성을 요하므로 이원주의적 편향은 특히 염려스러운 문제이다. 양극적인 대안 간에 무조건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구하려 할 때, 의견 합일이나 최소한의 미묘한 입장 조화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자정보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들을 나누고 고립시키고 원자화시키는 경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한 개인은 자판과 화면 앞에 혼자 앉아 바깥세상과는 가상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며, 전자적 픽셀(pixel,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화소(畵素). picture element의 약자)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 짓는 유일한 연락책이 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면, 이웃들이나 남편과 아내 및 동료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줄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의사소통 단절과 이웃끼리의 갈등이 컴퓨터에 의한 장거리 통신의 기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2003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1학기 자연계 학업적성평가 부분 발췌

참고 자료 : 동아일보 이지논술(2006. 2. 28)

### 〈출제의도〉

제시문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란 뜻의 유비쿼터스는 전자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일상생활에 널리 적용되어 응용되고 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환경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문제이다. 전자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전자정보기술의 발전, 특히 유비쿼터스의 환경이 민주주의와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활동하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시문 분석〉

(가)는 유비쿼터스의 개념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서론에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라는 요구 사항에 입각하여 제시문 (가)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전자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제시문이다.

(나)는 어느 직장인 부부의 하루 일과를 유비쿼터스 환경에 알맞은 형태로 소개하고 있

다. 이미 현대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적인 일상생활의 실타래를 통해 제시문 (다)에서 민주주의 정치 환경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는 전자정보기술의 속도, 단순성, 가상적 인간관계가 민주주의적 논의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을 토대로 하여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활동하기2〉

**[문제]** 다음 (가)의 글은 현대 소비 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나)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 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다)의 글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0자 내외(1400~1600자)로 서술할 것
2. 시험 시간은 150분임
3.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4.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5.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 (가)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과정이나 물질적 생산품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기능과 욕구가 이윤에 의해 대상화되고 조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열되어 구경거리가 된다는, 즉 이미지, 기호, 소비 가능한 모델로 환기되고 유발되고 편성된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이다.

소비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대신 쇼 윈도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소비의 주체는 기호의 질서이다.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육체이다. 오늘날 육체는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 육체를 둘러싼 위생, 영양, 의료와 관련한 숭배의식,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건강, 날씬함을 위한 식이요법, 이것들 모두는 육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육체는 영혼이 담당했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문자 그대로 넘겨받았다. 오늘날 육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규범인 향락과 쾌락주의적 이윤창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제 육체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육체는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의 하나로서 조작된다.

2004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제시문 발췌

#### (나)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대로 진행된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 그 근면, 성실함은 무한한 무위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이미 이 우주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어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이미 우리 몸에도 흘러서, 심장을 움직여 주고, 생물을 성장시킨다. 모든 생명체가 스스로 태초부터 있는 에너지에 의존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을 잘 탈수록, 일은 편안하며, 몸은 건강해진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헤엄을 친다면, 10m도 전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마음은 이런 부질없는 도전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아무도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쳐서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흐름에 거슬러 도전을 해 보지만, 결국, 누구라도 그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야 만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자연의 흐름을 따라 무위의 생활을 시작한다. 불필요한 욕심과 생각을 비우면, 자연의 힘이 내 몸에 흐르기 시작한다. 홀로 안간힘을 쓰기 보다, 자연의 힘을 응용해서 살아가는 법이 바로 무위적인 생활이다. 우리가 무위적으로 살아갈 때 늘 건강은 좋은 친구로 내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다)

세속적인 삶의 목적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세계의 일각에서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을 1차적 관심사로 여기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로 삶의 질 문제로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적(知的), 심미적(審美的) 만족에서부터 사랑, 존경에의 욕구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종래에는 삶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객관적 지표 - 주택, 이웃, 건강, 경제 형편, 결혼, 자녀 양육, 집안일, 친구, 여가, 교육, 정부(政府), 직업 등 - 의 개선만을 삶의 목적과 깊이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하는 주관적 지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도, 삶의 목적에서 자아의 발견과 그 실현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참고 자료 : 2004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논술 기출 문제

〈출제의도〉

논제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나)의 ‘갈등의 이유’와 ‘갈등의 양상’을 구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갈등의 해소를 제시문 (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의 이유는 제시문 (가)의 소비 사회가 상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데 반해 제시문 (나)의 삶의 방식은 상품의 논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갈등의 양상은 제시문 (나)의 자연적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제시문

(가)의 소비 사회의 근간인 기호의 질서를 거부할 것이다. 제시문 자체를 잘 분석하고, 논제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시켰는가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논술 시험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시문 분석〉

(가)는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과정이나 물질적 생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장자의 무위자연을 소개한 글로서,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힘에 내맡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임을 지적하고 있다. 무위자연의 삶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은 상품의 논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논리에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 인용한 글로서, 종전의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하던 삶의 내용과 목적이 점차로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조용한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소비와 상품의 물질적 가치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변화가 (가)와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보충자료〉

#### 사회교과 영역의 논제 주제별 유형

#####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 2001년 연세대학교 정시

**[문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과 집단의 동의를 필수적이다. 다음 제시문에 드러난 동의의 여러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술하시오.(1,800자 내외)



<제시문>(가) 브레이트, 『동의하지 않는 자』

<제시문>(나) 플라톤, 『크리톤』

### 2000년 고려대학교 정시

**[문제]** 제도(制度)에 관한 켈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반드시 예시문에 언급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논술하시오. (1,600자 내외)

<제시문>(가) 아놀드 켈렌, 『인간학적 연구』

<제시문>(나) 프리드리히 그렌츠, 「A. 켈렌과 T. 아도르노의 논쟁」, 『아도르노의 철학』

###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문제]** 소문이나 평판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시선은 개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세 글을 논의와 근거로 삼아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1500자 내외)

<제시문>(가)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제시문>(나) 피터 버거, 『사회학에의 초대 : 인간주의적 전망』

### 1997년 서울대학교 정시

**[문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대부분이 익명의 존재로 방치돼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 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참다운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간략히 밝히고 둘째,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이 글에서 암시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1600자 내외)

〈제시문〉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 2) 자유와 평등, 시민 사회

### 2004년 고려대학교 수시1(계열공통)

- [문제]** I. 제시문(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0자 내외)  
 II.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00자 내외)

〈제시문〉(가) 허균, 『유재론(遺才論)』

〈제시문〉(나) 앤서니 기든슨, 『사회학 개론』

〈제시문〉(다) 창-린 티엔, 『A View from Berkely』

〈제시문〉(라) 하이예크, 『자유와 법칙』

### 2005년 건국대학교 정시

- [문제]** 지문 (가)에 제시된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문(나)에 제시된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100~1200자)

〈제시문〉(가) 이병주, 『관부연락선』

〈제시문〉(나) 버나드 마빙, 『선거는 민주적인가』

## 3) 환경과 인간

### 2000년 한양대학교 정시(계열 공통)

- [문제]** 환경 문제는 새 천년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글 (가)와 (나)를 관련지어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을 분석하고, 글 (다)에서 시사점을 찾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1,700자 내외)

〈제시문〉(가) 프리드리히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시문>(나) 과학전문지 『과학사상』

<제시문>(다) 움베르토 에코, 『언어와 여행하는 방법』

### 2003년 경희대학교 정시(인문 계열)

**[문제]** 다음 지문들은 현대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시된 글들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600자 내외)

<제시문>(가) 빌 드발, 『근본적, 장기적 생태운동』

<제시문>(나) 토마스 베리, 『생존가능한 인간』

<제시문>(다) 정기문, 『불교의 욕망관과 경제 문제의 인식』, 불교평론 9호

#### 4) 과학 기술과 윤리, 생명 윤리

### 2002년 고려대학교 수시1

**[문제]** 아래의 예시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600자 내외)

<제시문>(가) 김영하, 『바람이 분다』

<제시문>(나) 앤드류 핀버그, 『비판적 기술이론』

<제시문>(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온실 경제학』

<제시문>(라) 빌 맥레인, 『물고기는 물을 먹는가?』

<제시문>(마) 오란R. 영, 『지구촌 통치』

### 2003년 경희대학교 정시(자연계열)

**[문제]**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유기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300~1,400자)

<제시문>(가) 『식품의약품안정청』자료

<제시문>(나) 로이터 데일리 환경 뉴스(2000. 7. 29)

〈제시문〉(다) 시카고 트리뷴(2000. 9. 3)

###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 정시

**[문제]**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각각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제시문〉(가) 이은희,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제시문〉(나) 쿤터 그라스, 『나의 세기』

### 5) 현대 사회 문명 비판

### 2002년 고려대학교 정시

**[문제]** 아래 글 (다)는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 잘 드러난 예이다.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1,600자 내외)

〈제시문〉(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제시문〉(나) 위르겐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해명』

〈제시문〉(다)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 2000년 연세대학교 정시(자연 계열)

**[문제]** 다음 제시문은 현대 문명이 빚어내는 부정적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1,800자 내외)

〈제시문〉(가)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제시문〉(나) 호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제시문〉(다)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 6) 세계화와 문화의 다양성

### 2005년 서울대학교 예시문제

**[문제]** 가상으로 만든 두 인물의 대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갑의 대화문 [ ① ] 부분에 ‘중국어 공용어화’에 대한 적합한 내용으로 400자 정도의 문장들을 작성하되, 자신이 갑이 되었다고 가정하고서 자연스러운 대화문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오.
- (2) 갑이나 을 가운데 한 인물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현대에서 외래 문물을 수용하는 일에 대하여 논술하는 글을 작성하되, 적절한 제목을 달고 2000자 내외로 완성된 글이 되도록 하시오.

〈제시문〉 정조 임금(갑)과 박제가(을)의 가상 대화

###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시(계열 공통)

**[문제]** 〈예시문 1〉과 〈예시문 2〉를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걸맞는 문화의 형성과 교류에 대해 〈제시문〉의 논지를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1,200자 내외)

〈제시문〉 박종홍, 『한국의 사상1』

〈예시문 1〉 『문화를 알면 경영전략이 선다』

〈예시문 2〉 박영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 200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시

**[문제]** 다음 〈제시문 1〉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을 토대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읽고,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의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1,200자 내외)

〈제시문 1〉 미셸 세르, 『Entre Disneyland et les ayatollah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칼럼

〈제시문 2〉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제시문 3〉 기 소르망, 『Le monde est ma tribu』

## 2003년 성균관대학교 정시

**[문제]** 다음 중 (가)는 인류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하나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I. (나)와 (다)에 담긴 내용을 (가)에 나타난 이념의 실현과 관련지어 분석·평가하고, II. 이를 기초로 하여 (라)와 (마)가 기술하고 있는 사태에 관한 자신의 (긍정적, 비판적, 혹은 절충적) 견해를 논술하라. 단, I과 II에 대한 논술 분량은 비슷하게 되도록 하라.

〈제시문〉(가) 칸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발췌·편집

〈제시문〉(나) 고등학교 교과서,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제제시〉(다) Scholte, J. A., 『Globalization : a critical introduction』

〈제시문〉(라) A. 스톡홀름 선언 -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B.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1996. 11. 28.)

〈제제시〉(마) 중앙일보(2002. 1. 22)

## 2005년 동국대 수시2 인문

**[문제 1]** 제시문 (가)는 한스 쾅(Hans K?ng)이 제안한 ‘세계 윤리(global ethic)’의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서술하시오. (200~300자)

**[문제 2]** 제시문 (나)는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하노이 탑(the Tower of Hanoi)’을 중심으로 세계 윤리의 전반적인 내용—세계 윤리의 필요성, 의미와 기본 방향, 주안점, 전망 등—을 다룬 글이고, 제시문 (다)는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鸞郎碑序)’를 해설한 글이다. 제시문 (나)를 근거로 ‘세계 윤리(global ethic)’의 근본 취지를 밝히고, 제시문 (다)의 풍류도(風流道)가 ‘세계 윤리’의 세계관 확립 및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제시문〉(가) 한스 쾅(Hans Kung)이 제안한 ‘세계 윤리(global ethic)’ 영문

〈제시문〉(나) 교육 인적 자원부, 『윤리와 사상』

〈제시문〉(다) 최치원(崔致遠), ‘난랑비서(鸞郎碑序)’

## 7) 자본주의와 소비 사회

### 2003년 고려대학교 수시1

**[문제]** 제시문 (가), (나), (다)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소비 현상과 관련된 글이다. 각각의 제시문에 함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되, 소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소비의 특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1,600자 내외)

###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문제]** 다음 (가)의 글은 현대 소비 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나)와 (다)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 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1,500자 내외)

〈제시문〉(가)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제시문〉(나)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

〈제시문〉(다) 정약용, 『목민심서』



## 가. 출제경향 및 지도대책

### 1) 출제경향

수리영역 논술은 다른 영역의 논술과 마찬가지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문제해결력을 요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력은 꾸준한 수학적 사고능력 함양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대학별 수리논술고사의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8개 팀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두 번째로 강한 실력을 가진 철수가 준우승을 못할 가능성’이나,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실생활에 적용하라.’ 등 수리논술에서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17)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8월에 발표한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안’에 따르면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수리 논술문제’는 논술고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수리 논술이 앞으로의 대학별 논술고사 경향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리 논술영역을 다룬 이유는 수리 영역에서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논술의 입장에서 지도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2008년 이후 강화될 구술(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둘째,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 중앙대학교에서 ‘아들을 낳을 확률이 일 때, 첫 아들을 낳고나서 계속 낳는다면 자식 세대에서 인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논증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200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크기가 같은 원 모양의 과자를 여러 개의 정사각형 쟁반에 과자들을 서로 겹치지 않고 쟁반 밖으로 나가지 않게 배열하려고 할 때, 나란히 배열하는 것과 엇갈리게 배열할 때 어느 쪽이 과자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셋째,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중앙대학교에서 ‘A지점에서 B지점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강 위를 비행할 때는 육지 위를 비행할 때보다 소비되는 에너지의 k배가 필요하다. 이때,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갈 때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구하라.’라는 문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 넷째, 인문·사회 영역과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 1학기 수시에서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수리논술과 영어논술이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부터는 영어논술과 혼합된 문제는 지양하고, 인문·사회 영역과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 다섯째, 과학과 관련된 통합교과적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중앙대학교의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이어지는 매미의 생활사를 이라는 소수와 연관 짓는 문제와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북극지지의 혹성이 막 팽창하여 부피가 이 되었을 때, 남극기지에서 구조차량을 최대 시속 로 구조대를 보내야 할까?’의 문제는 과학 교과와 통합된 문제이다.

### 여섯째,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2005년 8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리 논술은 점차 ‘본

고사형’ 문제에서 탈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수리 논술에서는 ‘○○○의 아버지’라는 일상적 의미가 함수적 표현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함수적 표현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조사해 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수학적 문제를 풀기보다는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2) 지도대책

대학별 수리영역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수리영역의 논술 지도 대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 가)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적인 개념·원리 법칙 지도

‘수학적 규칙성이 자연현상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라.’는 2005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문제는 나뭇잎 모양이나 눈의 결정 모양에 들어 있는 카오스이론과 프랙탈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주변 현상이나 구체적 사실을 학습 소재로 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지도해야 한다.

### 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용한 문제해결력 함양 지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다) 사고력 능력 함양 및 고등 사고 능력 함양 지도

습득된 수학적 지식과 사고 방법을 토대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자주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지도한다.

### 라) 통합교과와 연계 지도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하려면 수학, 과학 등의 교과에 나오는 연관성이 있는 원리나 현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교과에서 나온 관련 있는 개념은 사례를 묶어 설명하며, 신문이나 과학잡지 등 대중매체를 비롯해 교양서적 등을 평소에

읽어보도록 지도한다.

### 마) 수리영역 논술의 평가 요소 및 기준안 제시

수리영역의 논술 평가는 수학적 사고 능력과 독창성, 창의성 등에 중점 목표를 두어 평가한다. 수리논술의 평가 요소<sup>18)</sup>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리영역은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내용면, 논리면, 표현면의 비율로 채점한다.

#### (1) 평가 요소

(가) 내용 : 문제의 핵심 파악 여부, 내용의 정확성, 독창적 관점이 나타났는가 등에 중점을 둔다.

##### ① 문제 파악

-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논의하였는가.
-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는가.

##### ② 문제의 이해

- 논의의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논의 대상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③ 사고의 참신성과 타당성

- 논리 전개가 참신한가?
-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며 타당성과 가치를 지녔는가?

(나) 논리 : 식 세우기, 문제해결력, 독창성과 창의성 등에 중점을 둔다.

##### ① 문제해결력

- 수리적 특성을 잘 고착하여 문제 해결하였는가?
- 수학적 논리 연관성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았는가?

18) 경기도교육청, '논술 지도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교육청, 1997, p. 437

## ② 독창성과 창의성

- 수학적 논리를 독창적으로 이끌어 나갔는가?
- 문제해결을 창의적으로 전개하였는가?

## ③ 논거 제시의 적절성

- 논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식(논거)들이 적절한가?
- 논거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것인가?

(다) 표현 : 풀이 과정의 정확성, 정답의 정확성, 수식, 단위 등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

## ① 수식의 정확성

- 사용된 수식이 정확한가?
- 사용된 단위가 정확한가?

## ② 풀이과정의 정확성

- 풀이 과정이 맞게 표현 되었는가?

## ③ 정답의 정확성

- 정답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었는가?
- 계산상의 오류는 없었는가?

## ④ 표현 및 어법의 정확성

- 표현과 어법이 정확한가?

## (2) 채점 기준

〈표 1-1〉 수리논술의 평가기준

평가 내용	평가 관점	배점	평가 척도					평가 의견
			A	B	C	D	E	
내용면 (1) 내용의 정확성 (2) 사고의 참신성	문제의 파악	5	5	4	3	2	1	
	문제의 이해	5	5	4	3	2	1	
	사고의 참신성	15	15	13	11	9	8	
논리면 (1) 문제해결력 (2) 논증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논리적 전개 of 적절성	문제해결력	25	25	23	21	19	17	
	독창성 및 창의성	25	25	23	21	19	17	
	논리적 전개의 적절성	10	10	8	6	4	2	
표현면 (1) 풀이 과정 및 정답의 정확성 (2) 수식, 단위 등의 정확성 (3) 표현 및 어법의 정확성	풀이 과정 및 정답의 정확성	5	5	4	3	2	1	
	수식, 단위 등의 정확성	5	5	4	3	2	1	
	표현 및 어법의 정확성	5	5	4	3	2	1	
총 점		100	100	87	74	61	49	

## 나. 지도의 실제

최근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지도 대책에 따라 대학에서 출제된 수리 영역 관련 논술 문제를 피어슨의 현시적 모형에 따라 지도하고자 한다.

### 1) 설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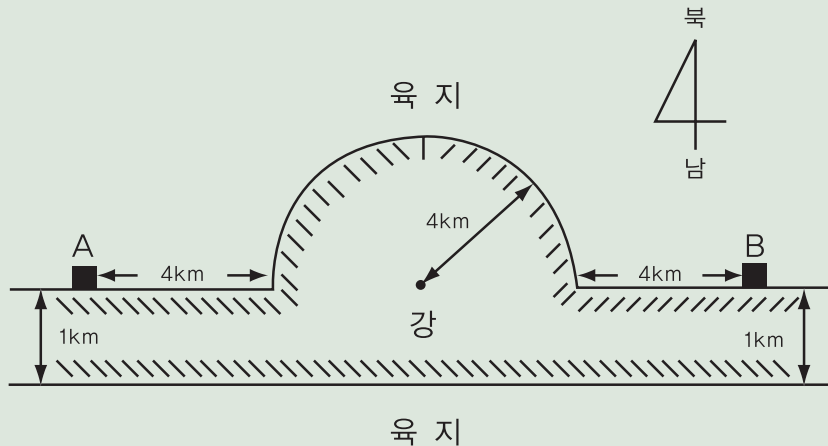
설명하기 단계는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학적 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전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활동의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는 학생이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논술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수업일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 문제 파악, 해결의 실마리 찾기 등을 설명한다.

다음 대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문제]

아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생각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경비행기로 육지 위와 강 위를 비행할 때는 소모되는 에너지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강 위를 비행할 때는, 육지 위를 비행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k$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다음은 두 지점 A와 B 사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두 지점 사이에는 반지름이 4km인 반원 모양의 강변이 있고, 다른 곳은 강폭이 동일하게 1km이다. 경비행기를 타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려고 한다.



1. 육지 위로만 비행하여 A 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가장 경제적인 항로를 답안지에 그리고, 이 때의 비행 거리를 측정하시오.(15점)
2. A지점에서 강 남단을 경유하여 B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k$ 값에 따른 가장 경제적인 항로를 답안지에 그리고, 이 때의 비행거리를 측정하시오.(15점)
3. (문제1)과 (문제2)에서 구한 항로를 비교할 때, 어느 항로가 더 경제적인지  $k$ 값에 따라 판단하시오.(10점)

〈2005학년도 중앙대학교 1학기 수시논술 기출 문제〉

가) 1단계 : 문제의 발견(문제에 대한 이해단계)

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상황과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고, 경로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낸 후, 그에 따른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이다.

②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피타고라스 정리, 미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이다.

③ 문제에 나타난 수학적 사실은 무엇인가?

④ 글과 관련해서 내가 가진 수학적 지식은 무엇인가?

나) 2단계 : 문제의 해결(구체적인 논술 구상 단계)

① 논지 설정

- 문제의 논지는 무엇인가?

문제 1. 육지 위로만 비행할 때, 가장 경제적인 항로는 무엇인가?

문제 2. 강의 강남을 경유하여 비행할 때, 가장 경제적인 항로는 무엇인가?

문제 3. 가장 경제적인 항로는  $k$ 의 값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

-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 1. 육지 위를 비행할 때는 A지점에서 원의 접선을 따라 이동하고, 원 주의 길이를 이동한 다음, 접선을 따라 B지점까지 비행하면 된다.

문제 2. 강의 강남을 경유하여 비행할 때  $k$ 에 따라 달라지므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인 경로를 식으로 나타낸다.

문제 3. 육지 위를 지날 때의 경로, 강의 강남을 경유할 때 경로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보고 각 상황에 따른 경제적인 경로를 구한다.

② 논거 세우기

-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문제 1. 육지 위로만 비행할 때, 경제적인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고, 원주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알면 된다.

문제 2. 강의 강남을 경유한 항로의 길이는 무리식의 방정식이 나오므로, 가장 경제적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 3.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각 경우에 대해서 경제적인 항로를 구하면 된다.

-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피타고라스 정리, 미분, 부등식 등을 이용한다.

### ③ 구상 및 개요 작성

-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 가장 최단 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본다.  
· 상황에 맞게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항로를 구한다.
- 수학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과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다) 3단계: 실행(쓰기 단계)

### ① 문제해결 하기

- 상황에 맞게 문제해결을 하였는가?
- 수학 지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으로 전개하기

- 평가요소에 비추어 적절하게 논술하고 있는가?
-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전개시켰는가?

### ③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 논리 전개가 적절하며 오류는 없는가?
- 맞춤법과 어법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였는가?

## 라) 4단계: 평가 단계

- ① 내용면 : 문제의 핵심 파악 여부, 문제의 이해, 사고의 참신성이 나타났는가?



- ② 논리면 : 문제해결력, 논증 과정의 독창성과 창의성, 논리가 적절하게 전개되었는가?
- ③ 표현면 : 풀이 과정 및 정답의 정확성, 표현 및 어법 등이 적절한가?

## 2) 시범보이기

이 단계는 예시 문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수리 논술에서 필요한 사고 적용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시범을 통해 보여주는 단계이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 위한 학습전략을 세울 때는 수리 논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시범보이기에 사용된 <예시 문제 1>은 2004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이고, <예시 문제 2>는 2005년 1학기 고려대학교 논술 기출문제이다.

<예시 문제 1> 아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생각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은행에 연이율이 같은 1년 만기 정기예금 A와 B 두 종류가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중도 해약시에는 원리금에서 해약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두 상품 A, B의 해약 부담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text{상품 A : (해약금)} = a \times (\text{원금}) \times \frac{(\text{잔여일수})}{365}$$

$$\text{상품 B : (해약 부담금)} = b \times (\text{원금})$$

K씨는 일정 금액을 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K씨가 1년 이내에 해약할 때, 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두 상품에 대하여 K씨가 받는 금액을 해약 시점에 따른 모형으로 각각 표현하고, 이를 동일한 좌표상에 그리시오.

(단, 해약 시점은 0과 365 사이의 연속적인 값으로 가정한다.)

[2] K씨가 중도 해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상품 A, B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중도 해약이 예상되는 시점이 있을 때, 어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해약부담금의 규정에 명시된  $a, b$ 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용어설명〉

- 연이율 : 1년 동안 받게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
- 원리금 : 원금과 계약이 유지된 시점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
- 해약부담금 : 만기이전에 해약하였을 때 내는 수수료

### (1) 문제의 발견

#### (가) 문제의 확인

이 문제는 실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간단한 이자 계산 및 그 래프에 대한 분석 등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진술하는 문제이다.

#### ▣ 문제 확인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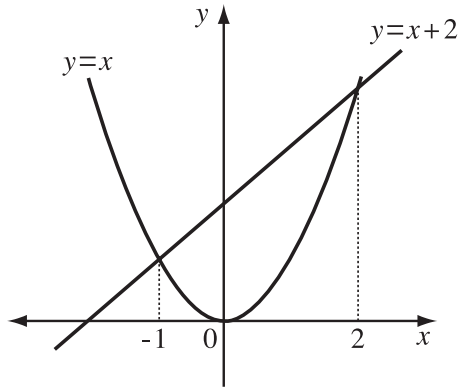
[논술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생각하여라.

[유형 분석] 주어진 자료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질문의 요지를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대표적인 수리논술 문제 유형이다.

[자료 확인] 일정 금액을 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탁할 때 1년 만기시에 받는 금액을 간단한 이율 계산 공식을 통해 계산하고, 만약에 중도해약 할 경우, 두 상품 A, B 각각에 대하여 받게 될 금액을 문제에 주어진 계산 방식에 의 해 식을 세워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수학 개념 확인]

- ① 원금  $A$ , 이율  $r$ , 기간  $n$ 일 때, 복리에 의한 이자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년 후 원리금은  $A+Ar = A(1+r)$ 이고,
  - 2년 후 원리금은  $A(1+r)+A(1+r)r = A(1+r)^2$ 이다.
  - 같은 방법으로,  $n$ 년 후 원리금은  $A(1+r)^n$ 으로 유도 된다.
- ②  $y=x^2$ ,  $y=x+2$ 의 그래프를 같은 좌표평면 위에 그리고 교점을 구한 후,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보고 부등식  $x^2 < x+2$ 의 해를 구해보자.



부등식  $x^2 < x+2$ 의 해는  $y=x^2$ 의 그래프가  $y=x+2$ 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하는  $x$ 의 값의 범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1 < x < 2$ 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확인] 해약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며, 해약시점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식으로 세우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후, 그래프 분석을 통해 해약시점에 따라 어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이다.

(나) 논제 파악

수리논술에서 논제파악은 문제 속에 담겨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질문을 통해 문제 속의 수학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 논제 파악 시범

[자료 내용] 자료에는 두 종류의 정기예금 A, B을 가입한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해약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도 해약할 경우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논제 파악] 다음 물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논제 1〉 두 종류의 정기예금 A, B 각각에 대하여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논제 2〉 〈논제 1〉에서 구한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기간  $x$ 에 관한 함수로 보았을 때, 두 함수가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상수  $a$ 에 어떤 조건을 주면 될까?

## (2) 문제의 해결

### (가) 논지 설정

논제가 파악되고 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예시 문제 1〉은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가 설정될 수 있다.

[논제 1] 두 종류의 정기예금 각각에 대하여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논지 1]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원리금을 계산하고 만기이전에 해약할 때 해약부담금을 구한 후에 원리금에서 해약부담금을 뺀다.

[논제 2] 〈논제 1〉에서 구한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기간  $x$ 에 관한 함수로 보았을 때, 두 함수가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상수  $a$ 에 어떤 조건을 주면 될까?

[논지 2] 해약시점에 대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의 위치관계로부터 두 종류의 정기예금 중 해약시점을 고려할 때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다.

### (나) 논거 세우기

논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논거가 충분해야 한다. 수리논술에서 논거를 세우는 것은 논제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및 조건들을 찾는 것이다.

[논거 1]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원리금을 계산하고 만기이전에 해약할 때 해약부담금을 구한 후에 원리금에서 해약부담금을 뺀다.

- 적당한 변수를 사용하여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수식으로 표현해 본다.

- $M$ : 원금,  $r$ : 연이율,  $t$ : 예금가입부터 해약시점까지 경과기간

- $n$ 년 후 원리금은  $A(1+r)^n$

- $R_A, R_B$ : 각각  $A, B$  상품 가입 후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 해약부담금이 원리금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논거 2] 해약시점  $t$ 에 대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의 위치관계로부터 두 종류의 정기예금  $A, B$  중 해약시점을 고려할 때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다) 구상 및 개요 작성하기

개요 작성하기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면서 출제자가 묻는 의도에 논리적으로 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 ▣ 개요작성 시범

[문제 1에 대한 개요] 두 종류의 정기예금 각각에 대하여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은,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해약시점까지의 원리금에서 만기이전에 해약할 때의 해약부담금을 뺀 것이다.

- 적당한 변수를 사용하여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수식으로 표현한다.

- $M$ : 원금,  $r$ : 연이율,  $t$ : 예금가입부터 해약시점까지 경과기간

- $R_A, R_B$ : 각각  $A, B$  상품 가입 후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 해약부담금이 원리금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어진 자료의 상수  $a, b$ 에 적당한 조건이 주어져야 함을 언급한다.

[문제 2에 대한 개요]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기간  $t$  에 관한 함수로 보고, 그린 그래프의 위치관계로부터 중도해약이 예상될 때, 두 종류의 정기예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를 설명한다.

-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고 교점의 의미를 설명한다.
-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 (3) 실행(표현하기)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써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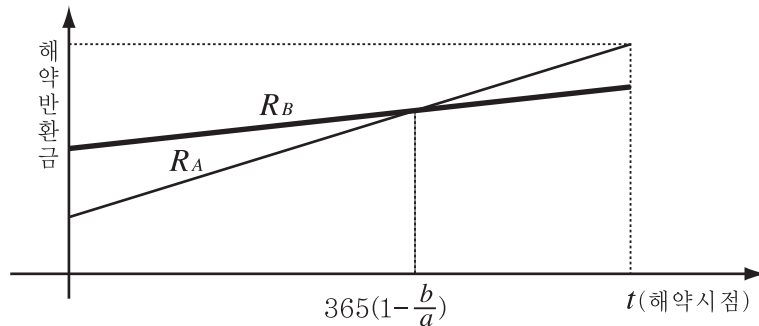
#### ■ 문제 1에 대한 풀이 쓰기 시범

개요 작성하기에서 정의한 변수를 이용하여 두 상품을 각각 선택하였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_A = M\left(1 + \frac{t}{365}r\right) - aM\left(\frac{365-t}{365}\right)$$

$$R_B = M\left(1 + \frac{t}{365}r\right) - bM \quad (a, b \text{는 상수}, 0 < t < 365)$$

$R_A$ ,  $R_B$ , 그래프를 동일평면 상에 그리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만기 이전에 해약하더라도 해약부담금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수  $a$ ,  $b$ 에 합리적인 조건이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두 직선,  $R_A$ ,  $R_B$ 가 만나는 점이 없다면 해약시점에 관계없이 두 그래프 중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하는 상품이 있게 된

다. 이것은 해약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은 당연히 두 그래프 중에서 위쪽에 존재하는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두 직선은 교점을 가져야 한다. 두 직선의 교점은 방정식  $R_A=R_B$ 의 해이다. 여기서  $a > b$ 이면  $t=365(1-\frac{b}{a})$ 라는 교점을 갖는다.

▣ 문제 2에 대한 풀이 쓰기 시범

문제1에서 구한  $t=365(1-\frac{b}{a})$ 를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해약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시점이 이 값보다 작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약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 B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해약 가능 시점이 이 값보다 크다면 해약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 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검토하기 - 실제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대상으로 검토

▣ 검토하기 시범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

[1] 원금을  $M$ , 연이율  $r$ ,  $t$ 를 가입시점부터 해약일까지 경과기간  $R(A), R(B)$ 를 각각 A, B 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이라 하면,

$$R(A) = M(1 + \frac{t}{365}r) - aM(1 - \frac{t}{365})$$

$$R(B) = M(1 + \frac{t}{365}r) - bM \text{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동일한 좌표평면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i)  $t < 365(1-\frac{b}{a})$  즉 해약시점이  $365(1-\frac{b}{a})$ 보다 빠른 경우는 A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i)  $t > 365(1-\frac{b}{a})$  즉 해약시점이  $365(1-\frac{b}{a})$ 보다 느린 경우는 B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강평 및 첨삭지도]

[1] 해약시점에 받는 금액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의미를 갖기 위해 상수  $a, b$ 의 조건이 필요하다. - 감점 요인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상수  $a, b$  사이의 조건  $a > b$ 이 필요하다. 만약  $a > b$ 라는 조건이 없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할 수 없다. 교점이 없으면 두 개의 그래프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하는 상품이 아래쪽에 있는 상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고객들은 당연히 두 상품 중에서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은행에서 두 개의 상품을 만든 것이 타당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상수  $a$ 에 대한 조건 즉  $a > b$ 가 있어야 해약시점  $t$ 가  $t < 365$ 일 때 만족하게 되고 학생이 제시한 식이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의 조건을 서술하지 않은 것은 감점의 요인이 된다.

[2] 학생이 제시한 답안이 논리적이고 타당하여 감점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 시범보이기를 통해 완성된 답안

[1] K씨가 1년 이내에 해약한다고 할 때, 해약시점에 두 상품에 대해 K씨가 받는 금액을 해약시점에 따른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text{ 상품의 경우 : } R_A = M\left(1 + \frac{t}{365}r\right) - aM\left(\frac{365-t}{365}\right)$$

$$B \text{ 상품의 경우 : } R_B = M\left(1 + \frac{t}{365}r\right) - bM \quad (a, b \text{는 상수, } 0 < t < 365)$$

(단,  $M$ =원금,  $r$ =연이율,  $t$ =예금가입부터 해약시점까지 경과기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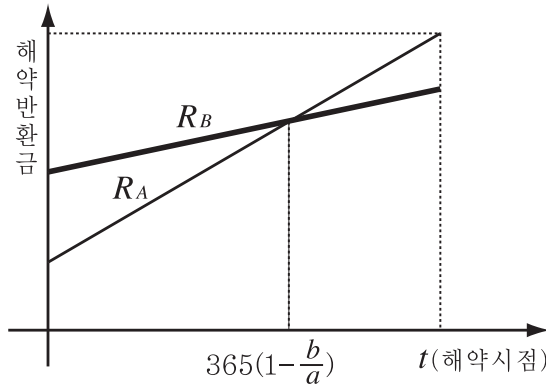
$R_A, R_B$ : 해약시점에 돌려받는 금액(해약반환금)

위 표현에서 상수  $a, b$ 는 만기 이전에 아무 때나 해약하더라도 해약 부담금이 원금을 초



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a > b$ 이어야 해약시점  $t$ 가  $0 < t < 365$ 을 만족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환경설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R_A, R_B$ 의 그래프를 동일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자.

- $t=0$ 일 때,  $R_A=(1-a)M, R_B=(1-b)M$ 이고,  $a > b$ 이므로  $R_A < R_B$
- 교점  $t=365(1-\frac{b}{a})$ 이므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은행에서 두 상품 A, B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1]에서처럼  $R_A, R_B$  그래프의 교점의  $t$  좌표  $t=365(1-\frac{b}{a})$ 가 0과 365 사이에 존재하도록, 문제에서 주어진 해약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  $a, b$ 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K씨가 중도에 해약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두 상품 A, B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려고 한다면  $t=365(1-\frac{b}{a})$ 를 이용하여, 해약을 예상하는 시점이  $t=365(1-\frac{b}{a})$ 보다 이르면 B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t=365(1-\frac{b}{a})$ 보다 늦다면 A에 가입하는 것이 해약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유리할 것이다.

### <예시 문제 2>

3명의 가수가 2003년 후반기에 동시에 음반을 발표했다. 그 이후, 총 누적 음반 판매량을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말일 집계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했다. 이 표를 이용하여 세 가수의 월간 음반판매량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세 가수의 총 누적 음반판매량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개략적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단위 : 천 장)

가수 \ 집계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A	203	224	266	327	407	507
B	187	199	219	258	337	498
C	251	283	340	411	489	551

## (1) 문제의 발견

### (가) 문제의 확인

#### ☑ 문제 확인 시범

[논술 문제] 세 가수의 월간 음반판매량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세 가수의 총 누적 음반판매량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개략적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유형 분석] 제시된 자료(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물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료제시형 문제 유형이다.

[자료 확인] 제시된 누적음반 판매량 표를 보고 월별 판매량을 계산하면 세 명의 가수에 대한 앞으로의 월별 판매 추이를 전망할 수 있다.

#### [수학 개념 확인]

- 누적도수 :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도수를 계급이 낮은 쪽으로부터 어떤 계급까지 차례로 더한 합을 그 계급까지의 누적도수라 한다.

### (나) 논제 파악

#### ☑ 논제 파악 시범

[자료 내용] 제시된 총 누적음반 판매량은 세 명의 가수의 월별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월별 판매량에 대한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논제 파악] 6월까지의 총 누적 음반 판매량으로부터 월별 음반판매량을 찾아내고 후반기 음반 판매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가?

## (2) 문제의 해결

### (가) 논지 설정

논제를 파악한 후, 자신이 펼칠 주장의 핵심인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예시문제 2〉는 6월까지 누적 음반 판매량을 보고 후반기 음반 판매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므로, 누적 음반 판매량을 나타낸 표로부터 월별 음반 판매량을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후반기 음반 판매량을 예측해야 한다.

[논지] 6월까지 누적 음반 판매량이 많은 가수의 음반이 후반기에도 많이 팔린다고 할 수 없다.

- 월별 음반 판매량을 조사한다.
- 조사한 월별 음반 판매량으로부터 가수별로 음반 판매 증가추이를 알아본다.

### (나) 논거세우기

#### ▣ 논거세우기 시범

[논제] 6월까지의 총 누적 음반 판매량으로부터 월별 음반판매량을 찾아내고 후반기 음반 판매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가?

[논거] · 누적 판매량과 월별 증가량과의 관계  
· 음반 판매량의 월별 증가 추세

### (다) 구상 및 개요 작성하기

#### ▣ 개요작성 시범

[물음에 대한 개요]

- 월별 음반 판매량을 다음 표에 작성한다.

단위 : 천장

가수 \ 집계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A					
B					
C					

- 누적 판매량과 월별 증가량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 월간 음반 판매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가수별 월별 증가량을 조사하여 그래프를 그려보고 월별 증가 추세를 근거로 하반기 음반 판매량을 예상해본다.

### (3) 실행(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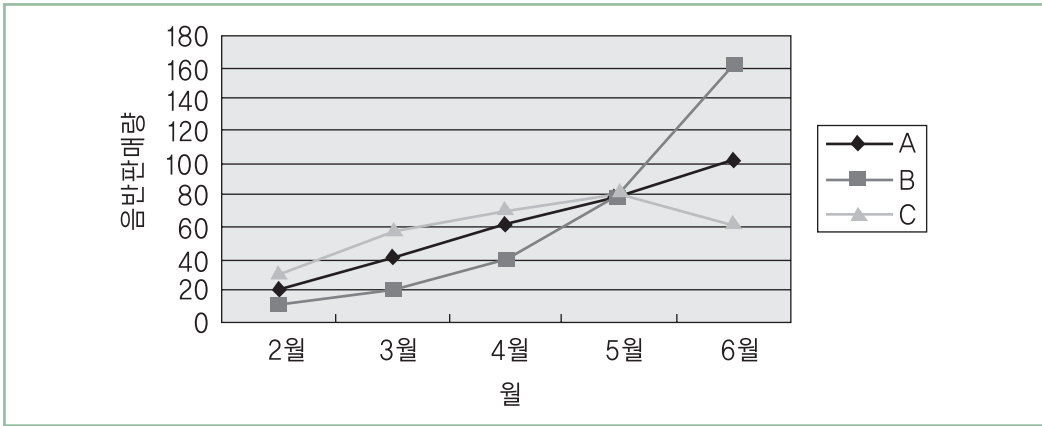
개요 작성하기에서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써내려간다.

#### ▣ 물음에 대한 풀이 쓰기 시범

누적 음반 판매량을 보면 6월말까지 가수 C의 음반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적 음반 판매량으로부터 월별 음반 판매량을 조사하여 표는 다음과 같다.

가수 \ 집계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A	21	42	61	79	100
B	12	20	39	78	161
C	32	57	71	80	62

누적 음반 판매량으로부터 월별 음반 판매량을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와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가수 A와 B의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5월에는 세 가수의 음반 판매량이 거의 같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B가수의 음반 판매량은 매달 두 배 가까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가수 B의 음반 판매가 두드러질 것이다.

(4) 검토하기 - 실제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대상으로 검토

▣ 검토하기 시범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대상으로 강평 및 첨삭 지도를 해 준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

세 가수의 월별 음반 판매량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3월	4월	5월	6월
A	21	42	61	79	100
B	12	20	39	78	161
C	32	57	71	80	62

가수 A는 매월 음반 판매량이 2만장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가수 B는 " " 전담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수 C는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6월에는 5월보다 오히려 작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6월 이후 가수 A의 음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7월이 가수 C 보다 누적 판매량이 더 많은 것 같다.  
 또한 가수 B도 조만간 가수 A, C 보다 누적 판매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강평 및 첨삭지도]

학생의 답안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이 양호한 편이다.

우선 월별 판매량을 표로 제시하여 월별 판매량의 추이를 한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잘한 점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표와 함께 그래프도 그려서 월별 판매량을 보여 주었다면, 월별 음반 판매량의 변화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월 이후 가수 B의 누적 음반 판매량이 가수 A, C보다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가수 B의 누적 음반 판매량이 가수 A, C의 누적 음반 판매량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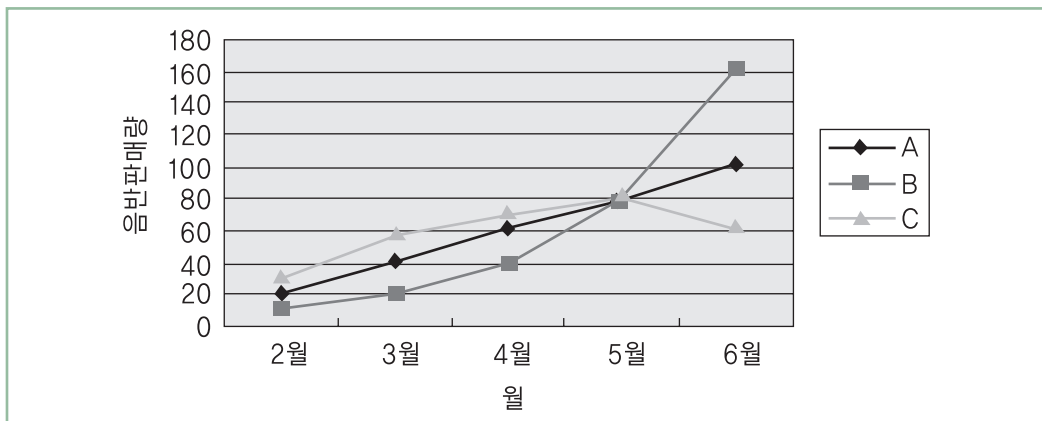
▣ 시범보이기를 통해 완성된 답안

총 누적 음반 판매량을 보면 가수 C의 음반이 6월말까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나 다음의 월별 음반 판매량을 보면 가수 A와 가수 B의 월간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 천장

가수 \ 집계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A	21	42	61	79	100
B	12	20	39	78	161
C	32	57	71	80	62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월간 음반 판매량의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즉, 가수 A와 가수 B의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5월 음반 판매량은 세 가수가 거의 같아지고, 6월에는 오히려 누적 판매량과 반대로 가수 A와 가수 B의 음반이 가수 C의 음반보다 각각 약 4만 장, 약 10만 장 더 팔렸음을 알 수 있다. 가수 A는 매월 음반 판매량이 2만 장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가수 B는 매월 음반 판매량이 전월의 거의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6월 이후 가수 A의 누적 음반 판매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7월에는 누적 음반 판매량이 가수 C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가수 B의 누적 음반 판매량은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른 두 가수보다 월간 판매량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누적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가수 B의 음반 판매 증가속도가 지금과 같다면 가수 B의 누적 음반 판매량은 조만간에 다른 두 가수 A, C의 누적 판매량의 합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속달하기

여기서는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교사가 시범을 보인 '논술 수행 과정'인 문제의 발견 → 문제의 해결 → 실행 → 검토의 4단계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논술 학습 전략의 빠른 속달을 위해서 「시범 보이기」에서와 같은 '논술 수행 과정'을 양식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고 지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전체 학생에게 이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이행 정도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수준별로 지도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이 단계에서 예시 문제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논술 수행 과정'에 따라 해보도록 지도한 후, 여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직접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

#### 〈예시 문제 1〉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할 때, 상품을 탈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인지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라.

세 명을 한 방에 모아 눈을 감게 한 후, 세 명 각각에게 흰 모자 또는 검은 모자를 무작위로 한 개씩 씌운다. 눈을 뜬 후 개개인은 흰 모자나 검은 모자가 씌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절대로 자기 모자는 볼 수 없고 남의 모자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자 색깔을 가르쳐주는 행동이나 말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적어도 한 명이 자기의 모자 색깔을 말해야 하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자 색깔을 모두 맞추었을 때, 5명 모두에게 상품을 준다. (단, 모자의 색깔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말을 해야 한다.)

수리 논술에서는 기본적인 창의력, 논리적 추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단순히 수학적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에 근거하여 주어진 정보에 따라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기본 능력을 측정한다. 이와 같은 측정에 부합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의 전략을 찾으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 (1) 문제의 발견(문제 확인)

[논술 문제] 상품을 탈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인지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

[논술 유형]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에 근거하여 주어진 정보에 따라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문제유형이다.

[자료의 확인]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모자의 색깔을 알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모자의 색깔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의 사항] 주어진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자기의 모자 색깔을 말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받으려면 자기의 모자 색깔을 모두 맞추어야 한다.

[과제 확인] 최대의 전략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한 명이 말하는 경우, 두 명이 말하는 경우, 세 명이 모두 말하는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이거니와, 세 명이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명 또는 2명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게임에 임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2) 문제의 해결(해결의 실마리 찾기)

[논제1] 1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나 2명이 게임하는 경우나 항상 1명만 말을 하는 것이 최대 확률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항상 똑 같겠는가?

[논지1] 좀 더 일반화 된 자료를 얻으려면 세 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확인해 봐야 된다.

[논제2] 3명이 게임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경우를 포기하고 집중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만 공략하는 방법은 없는가?

[논지2] 검은 모자를 B, 흰 모자를 W라고 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적어 보면 WWW, BBB, WWB, BBW, WBW, BWB, WBB, BWW의 총 8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타내어보면 WWW, BBB와 같이 모두 같은 색인 경우와 WWB, BBW, WBW, BWB, WBB, BWW와 같이 2가지의 색이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방의 모자색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가 적은 WWW, BBB의 두 가지는 포기하고 나머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모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제3] WWB, BBW, WBW, BWB, WBB, BWW의 6가지 경우에 대하여 모자의 색깔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자의 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논지3] WWB, BBW, WBW, BWB, WBB, BWW인 경우를 맞추는 방법은 상대 2명의 모자 색이 다를 경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2명의 모자 색이 같은 경우 그 색이 아닌 다른 색을 말하면 된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우	참여자	갑	을	병	전략
1		W	W	B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B라고 말한다.
2		W	B	W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B라고 말한다.
3		B	W	W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B라고 말한다.
4		B	B	W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W라고 말한다.
5		B	W	B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W라고 말한다.
6		W	B	B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W라고 말한다.

### (3) 실행(모범답안)

검은 모자를 B, 흰 모자를 W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 수 별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2명만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1명은 명목상으로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는 2명만이 서로의 모자 색깔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자 색깔을 말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이다. 즉, 세 명 중에서 사전에 정해 놓은 한 명은 경기에는 임하겠지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두 명만이 게임에 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세 명이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명 또는 2명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게임에 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가) 1명만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두 명은 말을 하지 않고 한 명만 무작위로 모자 색깔을 얘기할 때, 모자의 색깔을 맞추는 확률은 50%이므로 상품을 탈 확률도 50%가 된다.

#### (나) 2명만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이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한 명은 무시하게 되므로, 흰 모자를 W, 검은 모자를 B라고 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어 보면 WW, BB, WB, BW의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의 모자의 색깔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자 색깔을 알아내는 데는 여전히 50%의 확률이므로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2명 모두 말을 하면 25%로 그 확률

이 오히려 줄어들는다. 따라서 2명만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한 명은 말을 하지 않고 한 명만 말을 하는 것이 최대 확률을 얻는 방법이 된다. 이 경우도 상품을 탈 확률은 50%이다.

**(다) 3명 모두 실질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어 보면, WWW, BBB, WWB, BBW, WBW, BWB, WBB, BWW의 총 8경우가 나온다. 이 때, 최대의 확률을 얻는 방법은 WWW, BBB인 경우는 포기하고 WWB, BBW, WBW, BWB, WBB, BWW인 경우는 맞추면 된다.

WWB, BBW, WBW, BWB, WBB, BWW인 경우를 맞추는 방법은 상대 2명의 모자 색이 다를 경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 2명 모자 색이 같은 경우 그 색이 아닌 다른 색을 말하면 된다. 즉, WWB, BBW, WBW, BWB, WBB, BWW의 6가지 경우에 대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갑, 을, 병 세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법으로 모자의 색깔을 모두 맞출 수 있다.

경우 \ 참여자	갑	을	병	전 략
1	W	W	B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B라고 말한다.
2	W	B	W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B라고 말한다.
3	B	W	W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B라고 말한다.
4	B	B	W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W라고 말한다.
5	B	W	B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W라고 말한다.
6	W	B	B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W라고 말한다.

따라서 위의 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맞출 수 있으므로, 맞출 확률은  $\frac{6}{8} = 0.75$ 이다. 그러므로 상품을 탈 수 있을 최대의 확률은 75(%)임을 알 수 있다.

**(4) 검토**

 학생의 작성한 답안을 이용한 검토 및 숙달하기

## ▶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의 예

말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p>말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 <p>(1) 1명만 말을 하는 경우  두 명은 말을 하지 않고 한 명만 무작위로 모자색깔을 이야기 할 때, 모자의 색깔을 맞출 확률은 50%이므로 상품을 탈 확률도 50%가 된다.</p>
<p>(2) 2명만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자 색깔을 안다고 라더라도 자신의 모자색깔을 알아 내는 것은 여전히 50%의 확률이므로 2명 모두 말을 하면 <math>\frac{1}{2} \times \frac{1}{2} = \frac{1}{4}</math>로 그 확률이 25%로 오히려 줄어든다.</p>
<p>(3) 3명 모두 말을 하는 경우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어 보면, WWW, BBB, WWB, BBW, WBW, BWB, WBB, BWW의 8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3명 모두 말을 하면 맞출 확률은 <math>\frac{1}{2} \times \frac{1}{2} \times \frac{1}{2} = \frac{1}{8}</math>이 된다.</p>
<p>(1), (2), (3)에서 최대 확률을 얻는 방법은 두 명은 말을 하지 않고 한 명만 말을 하는 것이 최대 확률을 얻는 방법이다. 이 때, 상품을 탈 확률은 50%이다.</p>

## [강평 및 첨삭지도]

위의 학생 답안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을 하는 사람의 수로 분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이 너무 아쉽다. 즉, 위의 상황은 말하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자의 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학생 답안에서 1명만 말하는 경우 두 명은 말을 하지 않고 한 명만 무작위로 모자의 색깔을 말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모자의 색깔을 이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한 명만 말을 하면, 세 명 모두 같은 색의 모자를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맞출 수 있으므로 상품을 탈 확률을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표에서 편의상 모자의 색을 흰색인 경우 W, 검은 색인 경우 B로 나타내었다.

경우	참여자	갑	을	병	전 략
1		W	W	B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B라고 말한다.
2		W	B	W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B라고 말한다.
3		B	W	W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B라고 말한다.
4		B	B	W	갑과 을은 말을 하지 않고, 병만 W라고 말한다.
5		B	W	B	갑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을만 W라고 말한다.
6		W	B	B	을과 병은 말을 하지 않고, 갑만 W라고 말한다.

따라서, 학생이 작성한 답에서 점수를 얻을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의도 없이 W와 B라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감점의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학생이 작성한 답안에서 가장 큰 오류는 최선의 전략은 ‘무작위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예시 문제 2〉

임의의 6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았을 때, 적어도 3명이 서로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단, A와 B 두 사람에게 대하여 A가 B를 알면 B도 A를 아는 것으로 한다.)

#### (1) 문제의 발견(과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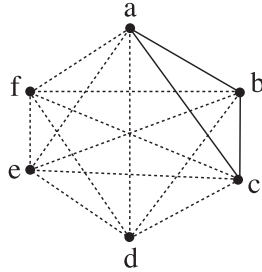
[논술 문제] 임의의 6명의 사람 중 적어도 3명이 서로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논술 유형] 비둘기의 집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문제해결 전략의 유형이다.

[자료의 확인]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비둘기의 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의 사항] 6명 중에서 ‘4명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2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결코 같은 명제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6명의 사람들을 a, b, c, d, e, f라 할 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 a,b,c 3명은 서로 아는 학생이지만 b,c,e,f의 4명의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과제 확인] 임의의 6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았을 때, 적어도 3명이 서로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므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림그리기 전략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임을 이해한다.

## (2) 문제의 해결(해결의 실마리 찾기)

[논제1]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논지1] 사람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육각형을 그리고 서로를 연결해도 된다.

[논제2] 육각형으로 주어진 상황을 표현할 때, 서로 아는 경우와 서로 모르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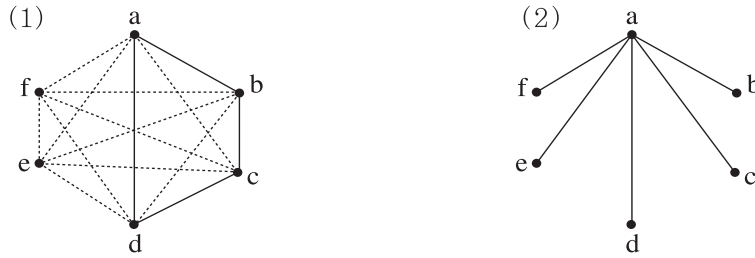
[논지2] 꼭지점을 잇는 선분을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리면 된다.

[논제3] 여섯 명에 대해서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논지3] 6명 모두 같은 상황이므로 한 명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된다. 또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람일 때에는 실선으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일 때에는 점선으로 표시하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5개의 실선 또는 점선을 그릴 수 있다. 이 때, 실선과 점선을 비둘기 집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3개의 비둘기를 가진 비둘기집이 있다. 즉, 적어도 3개의 실선이 있거나 적어도 3개의 점선이 있게 된다.

### (3) 실행(모범답안)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육각형의 6개의 점을 각각 a, b, c, d, e, f라 하고 이 점들을 6명의 사람으로 표시한다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람일 때에는 실선으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일 때에는 점선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그림 (1)에서는 서로 간에 알고 있는 3명은 없으나 a, c, e는 서로 간에 모르는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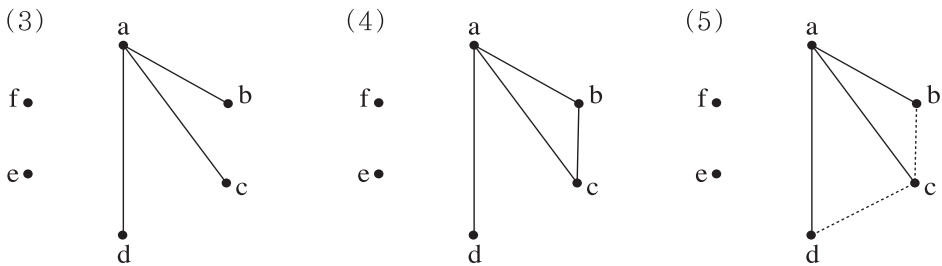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사람 a를 생각하자. 최대 5개의 실선 또는 점선을 그릴 수 있다. 실선과 점선을 비둘기 집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3개의 비둘기집이 있다. 이는 a로부터 적어도 3개의 실선이 있거나 적어도 3개의 점선이 있게 된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로부터 3개의 실선이 있다고 하자. 그림 (3)과 같이 a가 b, c, d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b, c, d 중 어느 한 쌍이 서로 알고 있다면(b, c라 하자.) 그림 (4)와 같이 a, b, c로 실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b, c, d 모두 서로 간에 모른다면 그림 (5)와 같이 점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즉, 임의의 6명 중에 서로 간에 알고 있거나 서로 간에 전혀 모르는 적어도 3명이 존재한다.

#### (4) 검토

##### ▣ 학생의 작성한 답안을 이용한 검토 및 숙달하기

##### ▶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의 예

$n$ 명이 서로 알고 있으면  $6-n$ 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므로 서로 아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아도 된다.

서로 아는 사람의 수가 0, 2, 3, 4, 5, 6 명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서로 아는 사람의 수가 0명인 경우  
서로 아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6명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즉,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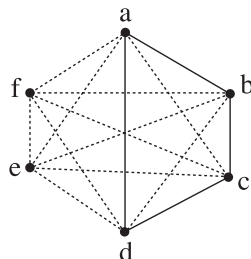
(2) 2명이 서로 아는 경우  
2명이 서로 안다는 것은 4명은 서로 모르는 것이므로, 역시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3, 4, 5, 6 명이 서로 아는 경우는 서로 아는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이므로 명확하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1), (2), (3)에서 적어도 3명이 서로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3명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

##### [강평 및 첨삭지도]

위의 풀이는 얼핏 보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보이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 중 시 작부분에 언급한 ‘ $n$ 명이 서로 알고 있으면  $6-n$ 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6명의 사람들을 육각형의 6개의 점 a, b, c, d, e, f라 하고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람일 때에는 실선으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일 때에는 점선으로 표시하기로 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a, b, c, d의 4명의 학생은 서로 아는 학생이지만 a, c, e, f의 4명의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위의 학생 답안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 학생 본인은 높은 점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출발에서부터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점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점수를 거의 얻지 못하는 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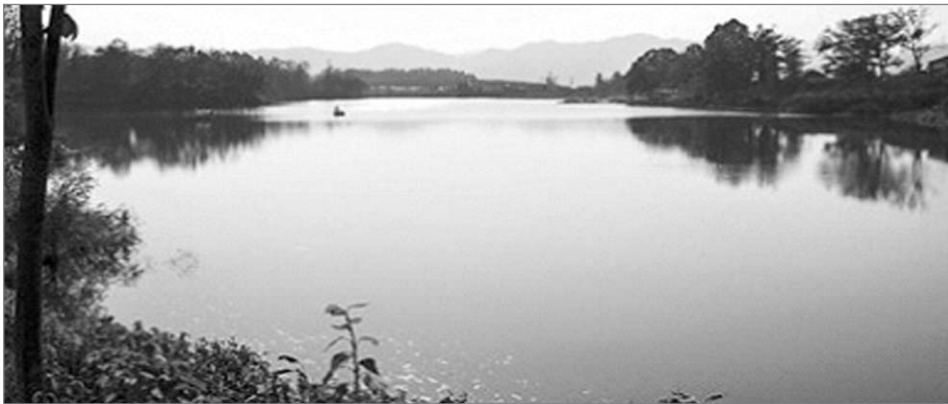
#### 4) 활동하기

「활동하기」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논술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제시한 문제는 실생활과 관련짓는 최근의 수리 영역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각 대학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논술 교수-학습 문제로 사용해 보기 바란다.

##### 〈활동하기 1〉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은 큰 저수지에 붕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저수지에 살고 있는 붕어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저수지에서 500마리의 붕어를 잡은 후,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고 저수지의 여러 곳에 적당히 나누어 풀어주었다. 이때, 참값에 근접한 붕어의 수를 수학적 논리에 맞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시오.(단,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과학적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비례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출제 의도〉

단순히 수학적 계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력에 근거하여, 주어진 정보에 따라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능력을 테스트 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즉, 주어진 조건에 맞는 상황을 만든 후, 그 상황 속에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문제이다.

### 〈문제 분석〉

비례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즉, (붕어 전체의 수):(저수지에 넣은 500마리의 붕어의 수)에 대한 비와 같은 비를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이 참값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상황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붕어를 다시 적당한 양 만큼 잡았을 때, 잡힌 붕어의 수와 그 속에 포함된 표시된 붕어 수의 비 등을 점검해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활동하기 2〉

[문제]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가 열 개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의 자루들은 9g짜리 금화로 가득 차 있고, 나머지는 모두 10g짜리 금화로 가득 차 있다. 무게 저울을 꼭 한 번만 써서 9g짜리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를 찾고자 한다.

- (1) 열 개의 자루들 중에서 9g짜리의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가 두 개 이상일 때, 9g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자루를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라.
- (2)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의 개수나 자루에 들어 있는 금화의 개수 등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때, 한계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여라.

### 〈출제 의도〉

이진법과 등비수열의 합 등의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수학적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또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 〈문제 분석〉

자루에 적당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의 수와 같은 개수의 금화를 꺼내어 무게를 재었을 때, 전체가 모두 10g짜리의 금화인 경우의 무게와 실제 측정된 금화의 무게의 차이가 9g짜리 금화의 개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g짜리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가 하나라면 열 개의 자루에 차례로 1, 2, 3, ..., 10의 번호를 붙인 다음, 1번 자루에서 금화 1개, 2번 자루에서 금화 2개, ..., 10번 자루에서 금화 열개를 꺼내 모두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보면 된다. 예를 들면, 모아 놓은 금화의 총 무게가 547g이라고 하면 모두 10g짜리인 경우보다 3g이 부족하므로 3번 자루의 금화가 9g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g짜리의 금화가 들어 있는 자루가 여러 개인 경우라면 1번과 2번 두 개 자루가 우리가 찾는 자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이진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 4. 과학 영역

### 가. 출제 경향 및 지도 대책

#### 1) 출제 경향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2005.8.30)을 보면 앞으로의 논술은 단답형이나 선다형의 문제, 특정 교과에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정시논술의 방향을 보면 과학 논술의 경우 단순 지식의 측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되, 자연 현상을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유추하는 논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주어진 문항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전통적인 과학 중 어느 한 분야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가능하면 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되, 문항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식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의 과학 논술은 지식 위주의 논술에서 벗어나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과학적 지식이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 특정 과학 분야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영역 논술의 특징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논술의 형식에서 벗어나 과학의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실제 생활과 관련 지어 묻고 있다.**

예를 들면 2006학년도 이화여대 2학기 수시 논술문제에서는 복사기와 전력 소비량과의 관계, 과자를 쟁반에 효과적으로 담는 방법, 음식물 발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의 변화와 영양가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1학기 수시논술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서 다른 대학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과학적 원리와 논리적 분석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식의 문제로 판단된다.

**둘째, 통합교과적인 소재로 단편적 지식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학기 논문문제를 살펴보면 물리, 지구과학, 수학,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지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복합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셋째, 제시된 지문이나 표, 그래픽 자료를 참고하여 과학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 및 탐구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논술 예시문항을 보면 원시지구의 탄생과 환경적 변화 과정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지구와 금성, 화성의 환경적 조건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 다음 지구의 반지름이 반으로 줄었을 경우와 태양과의 거리가 70%로 줄었을 때를 가정하여 논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넷째, 현대 과학적 이슈가 되는 문제나 시사적 소재를 제시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2학기 수시논술고사에서 21세기 생명공학의 동향을 설명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전통육종 방법의 단점을 제시하고 각 단점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고 하는 문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물을 자연환경에 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고 하는 문

제가 출제되었다.

**다섯째, 과학사적 사실이나 실험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학년도 한양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문제에서는 16세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관, 뉴턴의 역학과 만유인력, 그리고, 빛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제시하고, 20세기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제를 간단히 제시하여 이와 관련한 과학발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2학기 수시논술에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과 톰슨, 러더퍼드, 보어 등의 원자모형, 뉴턴의 고전역학 이론 및 양자역학 이론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1927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윈의 종의 기원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한 제시문을 참고한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 2) 지도 대책

최근의 경향과 이후의 출제 방향을 고려한 과학 관련 논술 지도 대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

최근 출제되었던 과학 논술에서도 과학의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며 그 방향이 옳은가를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2004학년도 동국대 수시1학기에 나온 문제를 보면 ‘과학 탐구에서 단위(unit)의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제시문 가>의 ①, ②, ③은 각각 어떤 단위를 정의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기술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관련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도록 지도

개념 적용은 한 교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술의 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교과를 아우르는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 교과의 지식만을 암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개별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현상을 생각해 보는 통합(統合)적이고 교과 영역 간 전이(轉移) 과정을 생각해 보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과학논술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다)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도록 지도.**

실제로 기출 논술 문제를 보면 결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1학기 문제가 대표적인데, ‘연어의 회귀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생물학적 감각 사용하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가정, 실험방법, 결과 그리고 해석 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훈련과 통계자료나 그래프 등을 지문과 관련지어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또한 평소 교과서 이외의 과학 관련 서적이나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자주 접하여 문제에 대한 친근감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라) 과학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지도.**

2004학년도 중앙대 수시 1학기에 보면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20세기 후반 현대 과학의 발전 단계와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 제시문에 나타난 현대과학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평소에 과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파생될 인명경시의 풍조, 복제인간과 체세포 공여자와의 신분관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희귀·난치병 치료, 이식용 장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거를 통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생태적 세계관과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지도.

과거의 환경문제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문제였다면,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금속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나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범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제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와 관련된 생태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적용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에 대한 응용 기술, 그리고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의 응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과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획특집 기사는 쟁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입장이 대립하는지 잘 정리돼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3) 평가 요소 및 기준안 제시

과학영역 논술의 평가는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표현되며, 국어적 어법과 표현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소위 생각의 뒤틀기나 역 발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사고력과 분석력, 종합적 사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구어적 표현이나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과학영역 논술의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평가 요소

##### ① 이해력 및 분석력

이해력 및 분석력이란 주어진 문제에서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된 지문의 과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한 능력을 평가한다.

-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제시문의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했는가?
-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 ② 논증력

논증력은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연관성, 논어의 적합성 및 일관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논제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논거가 적절하고 분명한가?
- 논어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는가?
- 논의 전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가?
-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는가?

## ③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가설을 형성하고, 여러 개념들을 응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는가?
- 문제 해결 과정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문제 해결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 여러 개념들을 응용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가?

## ④ 표현력

표현력은 단락의 구성 및 어휘사용의 적절성, 어법에 맞는 글쓰기 및 원고지 사용법 등을 평가한다.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이 적절한가?

나) 과학 논술의 평가 기준

〈표-1〉 과학 논술의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단 계					평가 의견
			A	B	C	D	E	
이해력 및 분석력 (20점)	논제에 대한 이해력	5	5	4	3	2	1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5	5	4	3	2	1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	5	5	4	3	2	1	
	제시문 활용의 적절성	5	5	4	3	2	1	
논증력 (30점)	논제에 대한 주장의 명확성	6	6	5	4	3	2	
	논거 제시의 타당성	6	6	5	4	3	2	
	논의 전개에 일관성	6	6	5	4	3	2	
	논의 전개에 체계성	6	6	5	4	3	2	
	논의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 여부	6	6	5	4	3	2	
과학적 문제해결력 (40점)	논의 전개에서의 과학적인 사고력	10	10	9	8	7	6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창의성	10	10	9	8	7	6	
	문제 해결 방법에서의 과학적인 타당성	10	10	9	8	7	6	
	일반화된 결론 도출의 적절성	10	10	9	8	7	6	
표현력 (10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표현의 적절성	5	5	4	3	2	1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의 적절성	5	5	4	3	2	1	
합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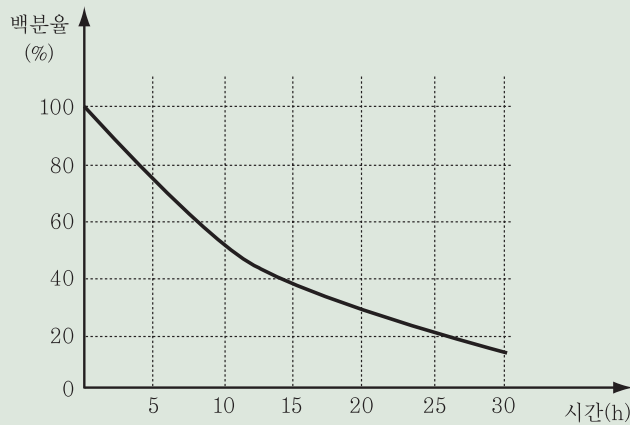
## 나. 지도의 실제

### 1) 설명하기

피어슨의 현시적 학습모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과학영역의 논술문과 관련지어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 이론, 원리 등을 해설하고 이를 실제 논술문에 적용하기 위한 주제 설정 방법과 과학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문제〉

어떤 음식물이 발효되기 전의 상태를 A라고 하자. A상태의 음식물은 발효가 진행되어 B상태가 된다. 또한 B상태의 음식물도 점차적으로 변해 C상태가 된다. A상태로 남아 있는 음식물의 일정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B상태로 변하며, A상태 음식물이 원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10시간이 소요된다. 일단 발효된 B상태의 음식물 또한 지속적으로 C상태로 변하여 절반으로 되는데 5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A상태의 음식물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상태와 C상태의 음식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발효의 전 과정에 걸쳐 음식물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아래의 그래프에는 A상태의 음식물 양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문제 1] 상태의 음식물의 양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문제 2] 발효된 B 상태의 음식물은 A상태일 때보다 영양가가 2배 많고 C상태는 영양가가 전혀 없다고 하자. A상태와 B상태의 음식물을 합하여 영양가가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B상태의 음식물의 양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혹은 두 시점이 동일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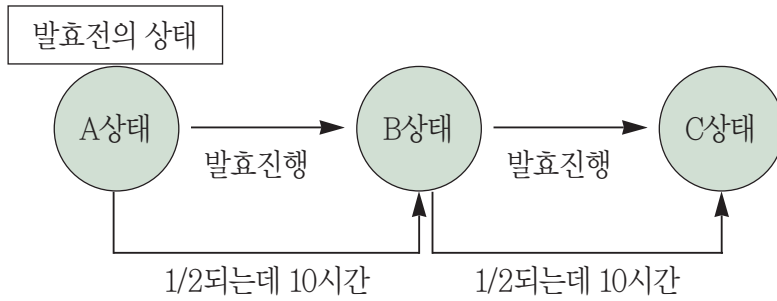
〈200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2학기 수시 논술 기출 문제〉

가) 1단계 : 문제의 발견

- ① 문제의 요지는 무엇인가?
- ② 문제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은 무엇인가?
- ③ 글과 관련지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배경 지식은 무엇인가?
- ④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의 방식은 어떤 것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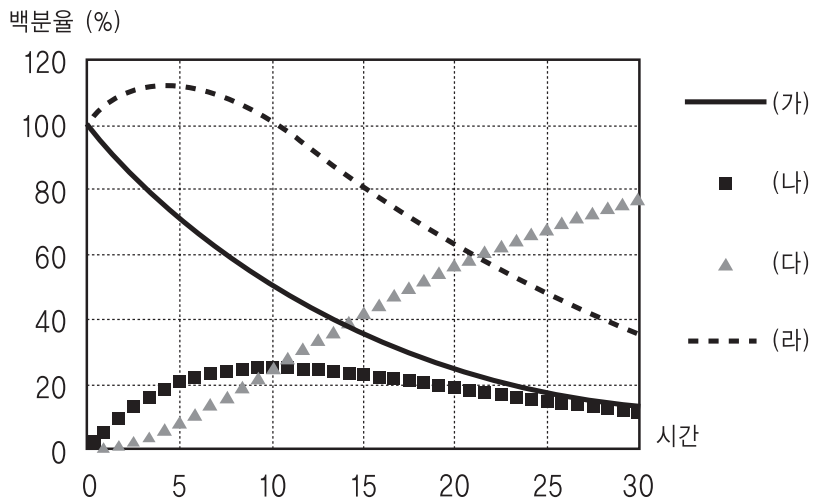
나) 2단계 : 문제의 해결

- ① 제시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보자.



- ②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재구성하여 보자.

- ③ 글의 구성 - 개요작성하기



[문제 1]

- A상태의 음식물의 양은 10시간마다 전단계의 반으로 줄어든다.
- A상태의 음식물의 양이 줄어든 만큼 B상태의 음식물이 생성되고, 5시간 후 B상태의 음식물의 반은 C상태의 음식물로 변화된다.
- 반응이 일어난 후 10시간이 되었을 때 B상태의 음식물의 양은 최대가 된다.

[문제 2]

- 발효된 B상태의 음식물이 A상태로 머무르는 것보다 영양가가 2배 높기 때문에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 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유리하다.
- A상태와 B상태의 음식물을 합하여 영양가가 가장 높은 때는 5시간이 지났을 때이고 상태의 음식물이 가장 많은 시점은 10시간이 지났을 때이다. 따라서 A상태와 B 상태의 음식물을 합하여 영양가가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B상태의 음식물의 양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보다 5시간 이전이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을 즐겨먹었고, 이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 3단계 : 쓰기 단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쓰기 단계를 진행한다.

- ① 학생이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 ②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가?
- ③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으로 논술하고 있는가?
- ④ 맞춤법과 어법에 맞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 ⑤ 비속어나 과격한 어투, 은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⑥ 평가 요소에 비추어 적절하게 논술하고 있는가?

#### 라) 4단계 : 평가 단계

이 단계에서는 과학 논술의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학생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2) 시범보이기

이 단계는 교사가 논술의 이론과 원리에 따라서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이 논술문을 보다 순조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시범을 보일 때는 항목별로 사전에 미리 암기하였다가 학습 전략에 따라 간략하게 판서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기 전에는 반드시 시범 보일 항목을 순차적으로 학습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 중에는 논제와 다른 방향의 진술이 많은데, 이것은 논술에 대한 기본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 「시범보이기」 단계에서 ‘논술의 수행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문제〉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약 46억 년 전 먼지와 가스의 집합체인 태양계 성운에서 탄생하였다.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회전력에 의해 납작한 원반모양으로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원반면에서는 먼지가 모여 점차 커다란 암석 덩어리로, 이들은 다시 미행성으로 성장하였으며, 미행성들은 반복된 충돌에 의해 행성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원시 지구는 충돌에 의해 행성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원시 지구는 충돌에 의한 열과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에 의한 열에 의해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거의 전체가 녹아 있는 상태였으며, 철질 마그마와 석질 마그마가 분리되면서 핵과 맨틀이 형성되었다. 식어가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끊임없는 화산활동에 의해 방출된 가스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풍부한 대기층이 형성되었다.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는 지구 대기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비가 되어

표면에 내려 최초의 바다를 형성하였다. 바다의 생성은 지구 표면의 진화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표면의 2/3가 바다이며,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존재하고, 수많은 생명체 등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크기와 화학 조성, 바다 및 대기의 존재와 조성,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지구가 탄생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들 조건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지구가 탄생하고 전혀 다른 지구로 진화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결정한 이들 조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현재보다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목성이나 그보다 먼 곳에서 생성되었다면 얼음까지 끌어 들여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행성으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아마도 주로 수소와 헬륨 등 가스 성분이 풍부한 목성형 행성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크기와 화학 조성, 바다 및 대기의 존재와 조성 등은 지구의 표면 온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표면의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높거나 낮았다면 바다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경우 지금과는 표면의 모습이 전혀 다른 지구로 진화했을 것이다.

※ [문제 1], [문제 2]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문제 1]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문제 2] 지구가 지금의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 (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크기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 〈참고사항〉

구 분	금 성	지 구	화 성
태양과의 평균 거리(AU)	0.72	1	1.52
적도 반지름(km)	~ 6,000	~ 6,400	~ 3,400
질량( $\times 10^{24}$ )	4.87	5.97	0.64
태양복사에너지( $W/m^2$ )	~ 2600	~ 1400	~ 600
주성분원소	O, Si, Al, Fe	O, Si, Al, Fe	O, Si, Al, Fe
표면대기압(기압)	~ 90	~ 1	~ 0.01
대기의 주성분	CO <sub>2</sub> , N <sub>2</sub>	N <sub>2</sub> , O <sub>2</sub>	CO <sub>2</sub> , N <sub>2</sub>
표면온도	평균 ~480℃ 지역별+계절별 변화 가 적음	평균 ~15℃ 약 100℃ 이상의 지역별+계절별 차이	평균 -65℃ 약 150℃ 이상의 지역별+계절별 차이
바다의 존재유무	없음	표면의 약 2/3	과거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논술 예시문제〉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예시 문제는 현재의 금성과 화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지구 환경이 태양계의 금성이나, 화성의 환경과 유사하게 변할 경우 미래의 지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추리하는 문제로,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논술 문제가 자주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제 확인 시범〉

※ 제시문과 주어진 표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문제 1], [문제 2]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문제 1]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문제 2] 지구가 지금의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크기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유형 분석]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구 환경과 달라지는 환경 변화를 종합적 사고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출제 유형상 자료 제시형 문항에 속한다.

[자료 확인] 지구과학 I의 교육과정 중 지구의 환경 구성 요소와 관련이 깊은 문제로 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금성이나, 화성과 유사한 조건에 처했을 경우 현재 지구의 모습과 비교하여 어떤 환경으로 달라질 것인지를 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의 진화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지구의 진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제 확인]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조건을 가정하여 지구의 환경이 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의 진화 관점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과학적인 추리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논제 파악

논제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좀 더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야 한다. 논제는 출제자가 학생에게 던진 ‘무엇’에 해당하기에 학생 스스로 그 질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 제시형의 경우에는 문제를 ‘물음(질문)’으로 바꾸기에 앞서 주어진 자료를 독해해야 한다.

## 〈논제 파악 시범〉

[논술 문제] 제시문과 주어진 표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논제 1], [논제 2]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논제 1]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논제 2] 지구가 지금의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크기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 [논제 파악]

논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항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구조화시켜야 한다.

[문제 1]에서 지구의 반경이 현재의 절반 정도(화성의 평균 반경)에 불과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문제 2]에서 지구가 오늘날의 금성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나) 문제의 해결(계획하기)

#### ① 논지 설정(주제 설정)

논제가 파악되고 나면, 글 전체를 이끌어 나갈 중심축인 논지(논점)를 설정해야 한다. 즉, '나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예시 문제는 학생들의 관점에 따라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논점)가 설정될 수 있다.

[논제 1] 지구의 반경이 현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논지 1]

-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 현재 태양계의 어느 행성의 조건과 유사한지를 알아야 한다.
- 원시 지구의 성장과정에서 지질, 대기, 환경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 지구가 오늘날의 금성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논지 2]

- 오늘날 금성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 현재보다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② 논거 세우기 (소재 선택 및 정리)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만 있고, 뒷받침할 논거가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논리성과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충분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거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예시 문제를 통해서 논지에 대한 논거 세우기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논거 세우기 시범〉

[논제 1] 지구의 반경이 현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논지 1]

-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 현재 태양계의 어느 행성의 조건과 유사한지를 알아야 한다.

[논거]

- 태양계 행성 중 평균 반경이 3,400km인 행성은 화성이다.
- 지구의 반경이 화성의 반경과 유사하지만 중력이나 공전궤도반지름 등이 다르므로 대기 조성이나 일사량 등이 달라진다.
- 원시 지구의 성장과정에서 지질, 대기, 환경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

- 원시 지구의 반경이 현재 지구 반경의 절반일 때 지구 표층은 마그마의 상태였고, 그 후 표층은 점차 냉각되었다.
- 미행성체의 충돌과 화산 폭발 등으로 원시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

의 대기 환경과는 크게 달랐다.

- 원시 지구의 환경이 현재 지구 환경의 절반일 때 수권과 생물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

[논제 2] 지구가 오늘날의 금성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논지 2]

- 오늘날 금성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논거]

- 금성은 지구보다 대기압이 훨씬 크고, 대기의 주성분이 CO<sub>2</sub>이므로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80℃이므로 수권이 형성될 수 없다.

-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논거]

-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가까워 일사량이 많다.
- 지표면의 일사량이 많을수록 대기로 방출하는 복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높아진다.

#### 다) 구상 및 개요 작성하기(개요 작성하기)

개요 작성하기는 논술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실제로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검토하기 단계에서 글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요 작성하기에서 내용이 검토되고 수정되어야만 검토하기에서 고쳐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 〈개요 작성 시범〉

[서론]

현재 지구의 환경이 다른 행성의 환경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현재의 환경 조건과 달라진다고 가정할 경우의 지구 환경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본론 1]

〈논제 1〉 지구의 반경이 현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논지 1]

- ①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경우 현재 태양계의 어느 행성의 조건과 유사한지를 알아야 한다.

[논거]

- 태양계 행성 중 평균 반경이 3,400km인 행성은 화성이다.
- 지구의 평균 반경은 약 6400km이다.
- 지구의 반경이 화성의 반경과 유사하지만 중력이나 공전궤도반지름 등이 다르므로 대기 조성이나 일사량 등이 달라진다.
- 중력이 큰 천체일수록 대기에는 가벼운 기체 성분이 많으며,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행성일수록 일사량이 적어진다.

[논지 2]

- ① 원시 지구의 성장 과정에서 지질, 대기, 환경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

- 원시 지구의 반경이 현재 지구 반경의 절반일 때 지구 표층은 마그마의 상태였고, 그 후 표층은 점차 냉각되었다.
- 마그마 상태에서 지구의 표층은 액체 상태였으므로 지각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표층에 대한 미행성체의 충돌 횟수가 적어지면서 점차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 미행성체의 충돌과 화산 폭발 등으로 원시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의 대기 환경과는 크게 달랐다.
- 미행성체가 표층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대기에 방출되고 화산 폭발에 의해 화산 가스가 대기에 방출되어 원시 기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원시 지구의 반경이 현재 지구 반경의 절반일 때 수권과 생물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

- 원시 지구의 수권은 진화 단계의 말기에 표층이 크게 냉각되어 강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수권이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나서야 생물권이 출현하였다.

## [본론 2]

〈논제 2〉 지구가 오늘날의 금성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논지 2]

- ① 오늘날 금성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 [논거]

- 금성은 지구보다 대기압이 훨씬 크고, 대기의 주성분이 CO<sub>2</sub>이므로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금성은 지구보다 일사량이 많고, 대기압이 약 90배 정도로 주성분이 CO<sub>2</sub>이므로 왕성한 온실 효과에 의해 기온이 훨씬 높다.
-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80℃이므로 수권이 형성될 수 없다.
- 금성에서는 비가 내려도 즉시 증발이 일어나므로 수권이 형성되지 못한다.

## [논지 2]

- ②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 [논거]

-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가까워 일사량이 많다.
-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지표면의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양이 많아진다.
- 지표면의 일사량이 많을수록 대기로 방출하는 복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높아진다.
  - 지표면의 일사량이 많을수록 대기로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의 에너지가 많아져 기온이 높아진다.

[결론] 현재의 지구 환경이 화성이나 금성의 조건과 유사하게 달라질 경우를 가정해 봄으로써 현재의 지구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 다) 실행(표현하기)

### ① 서론 쓰기

서론은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본론에서 전개하기 위하여 논제와 관련된 화제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앞으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면 된다.

### 〈서론 쓰기 시범〉

현재까지 태양계의 행성 중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같고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췄다고 가정할 경우, 또한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은 크기는 지금과 같고 지구가 현재의 금성의 위치에 있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지구 환경은 오늘날의 지구 환경과 크게 달라질 것이

### ② 본론 쓰기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된다. 본론의 성공 여부는 실제 논지를 얼마나 타당한 논거에 의해 뒷받침하고 있는냐에 달려 있다. 특히 서론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미 작성된 개요를 따라 써내려 가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 체계를 세워서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본론 쓰기 시범〉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렸을 경우 지구의 크기는 현재 화성의 크기와 거의 같다. 따라서 지구는 중력이 작아져서 현재의 대기 성분이 대기권을 이탈하므로 화성처럼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산소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중력이 작아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존재하지 못하므로 구름을 형성하지 못한다.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물은 증발만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지구상에 물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물과 공기가 없으므로 생물체는 당연히 생존이 어려워진다. 대기가 거의 없으므로 지표면에는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운석은 타지 않고 지표면으로 바로 떨어지므로 달처럼 많은 운석 구덩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가 공전 궤도상의 위치가 현재보다 태양에 70% 정도 가까워진다면 금성 정도에 위치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두 배 정도 많이 입사하게 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지구상에 있는 물이 많이 증발하여 형성된 두꺼운 구름층에 의해 온실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바다 면적의 감소와 해수 중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상의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기온이 일정수준이상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므로 식물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순환 과정이 반복될 경우 지구상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되어 종 다양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식물이 점점 멸종하게 되면 기온 상승과 더불어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표면은 점차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식물과 바다가 점점 사라질 경우 이산화탄소의 양은 계속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점점 더 커지므로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여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 ③ 결론 쓰기

결론은 출제자가 물어본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결론은 요약, 요약+전망, 전망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한다. 결론 부분에 속담이나 경구 등을 인용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본론에서의 논의가 불충분한데도 결론을 맺는다면 내용이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론은 어떤 것의 결과이지, 절대로 어떤 것의 원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 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이 논제와 부합되는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 〈결론 쓰기 시범〉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화성의 반경과 유사할 경우와 지구 평균 화학 조성은 변하지 않고 태양과의 거리가 금성과 같은 지점에 위치할 경우에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지질, 대기, 생명 진화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달리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기온과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는 화성처럼 너무 춥



지도 않고, 금성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구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검토하기

검토 단계에서는 작성한 글이 논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지,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논지를 이끌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일관성 있게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과학적 논거가 객관적이며 타당한지, 논지 전개 과정은 체계적이며 논리적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단락의 구성 및 어휘사용은 적절한지, 어법에 맞게 글을 썼는지, 원고지 사용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본다.

### 〈검토하기 시범〉

(I)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물이 있음으로써(씨)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대기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지구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태양복사에너지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태양복사에너지를 고르게 분산 시킴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 또(또한) 대기권이 존재함으로써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고 자외선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차단하여 우리들을(생명체를) 보호 해준다. (보호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단단한 암권은 우리가 ㉠여러 식품들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듯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지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을 비롯한 많은(삭제)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는데) 필요한 많은(삭제) 조건들을 적당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나는 이렇게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중 ㉤하필 지구가 이렇게(지구에서만)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한 여러 조건 중 지구의 반경과 지구와 태양사이의 거리도 현재 의 지구의 모습을 이루는데 작용한(삭제)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II)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의 지구가 6400km인 것에 비해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렸다면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선, 지구의 반경이 지금 보다 줄어든다면 분명히 ㉠지구표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처럼 1000km 정도의 대기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기권 중 열권이나 중간권에는 가벼운 수소기체나 헬륨 기체가 존재하지만 중력이 작아질 경우 가벼운 성분들은 모두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기체들만 대기권에 많이(삭제) 포함되어있게 될 것이다.(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물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현재의 지구는 물이 71%를 덮고 있는 반면 3400km의 지구는 그 보다 낮은 비율로 지구를 덮게 될 것이다.

㉡둘째로, 지구의 대기권의 두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의 수성이나 달처럼 많은 운석구덩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지구는 두꺼운 대기권 층으로 인하여 운석 같은 물질이 떨어지면 대기권에서 모두 마찰열로 타버려 지구의 표면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성이나 달의 위성사진 같은 것을 보면 대기권이 적어 표면에 크레이터가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물체가 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운석충돌에 의해 생긴 기체들로 인하여 대기권의 성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III) 그럼 이번에는 지구와 태양사이의 거리가 지금의 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 때를) 상상해보자.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지구와는 다른 모습의 지구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첫째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공전거리보다 70%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금성의 공전궤도와 비슷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금성은 많은 이산화탄소기체로 인한 온실효과가 더 큰 표면온도의 상승을 일으키지만 공전거리가 작아질 경우 ㉤지구의 표면온도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의 증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익히(삭제) 배워왔듯이(배워온 내용과 같이) 물이라는 물질은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약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의 물로 인한 체온 유지나 영양분 공급과 같은 여러 생명 활동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식물의 경우에도 광합성을 하는 데에도 물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토양으로부터 수분공급이 안되면 식물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처럼 물의 증발이 일어나서 지구의 표면에(서) 물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생명체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지구의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로, 물의 증발은 생명체의 생존 말고도 대기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지구의 경우에는 많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표면의 물에 탄산이온 상태로 녹아있다. 하지만 물의 증발이 일어나 더 이상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의 용해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면 탄산이온들이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기권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의 금성처럼 두꺼운 이산화탄소 층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표면온도가 480도에 이르게 될 것이고 표면 대기압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게(갖게) 될 것이다.

(Ⅳ)이렇게 지구의 반경과 태양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 요인만 변화를 시켜도 우리(삭제)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요인들을 다 충족시키며 지금의 모습을 완성한 지구가 신기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르른 자연 속에서 살게 되기에는 자연의 많은 도움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더 아끼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룰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친환경적으로 누려야겠다.

-학생 작품 -

## 〈평가요소의 적용〉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득 점					평가 의견
			A	B	C	D	E	
이해력 및 분석력 (20점)	논제에 대한 이해력	5	5	④	3	2	1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5	5	④	3	2	1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	5	5	④	3	2	1	
	제시문 활용의 적절성	5	⑤	4	3	2	1	
논증력 (30점)	논제에 대한 주장의 명확성	6	6	⑤	4	3	2	
	논거 제시의 타당성	6	6	⑤	4	3	2	
	논의 전개에 일관성	6	6	⑤	4	3	2	
	논의 전개에 체계성	6	6	⑤	4	3	2	
	논의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 여부	6	6	5	④	3	2	
과학적 문제해결력 (40점)	논의 전개에서의 과학적인 사고력	10	10	⑨	8	7	6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창의성	10	10	9	⑧	7	6	
	문제 해결 방법에서의 과학적인 타당성	10	10	⑨	8	7	6	
	일반화된 결론 도출의 적절성	10	10	9	⑧	7	6	
표현력 (10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표현의 적절성	5	5	4	③	2	1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의 적절성	5	5	④	3	2	1	
합계		100	82점					

## 〈강평 및 첨삭 지도〉

위 학생의 작품은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논의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환경을 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의 역할로 논거를 들면서 1)과 2)의 상황처럼 조건이 변했을 경우 화성과 금성의 환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파악하여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단어의 선택과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중의적인 표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압축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문맥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I)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의 지구 환경의 특성을 도입부로 설정하여 기술하고자 한 의도는 바람직한 접근이었다. 다만 지구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 문맥 파악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 ㉡, ㉢),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 있어 기술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

달되지 않았다.

(Ⅱ)는 본론의 내용 중 지구의 반경이 화성의 반경과 유사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와 같이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만 논제에서 지구의 반경이 3400km일 경우를 가정한 이유는 화성의 환경과 유사해진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논거가 미약하여 ㉡와 같은 내용 전개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력 감소로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공기양의 변화, 생물권의 변화에 대한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다.

(Ⅲ)은 본론의 내용 중 지구 공전 궤도 반지름이 금성의 공전 궤도와 유사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와 같이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는 중의적인 표현이므로 ㉠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Ⅳ)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 등을 재확인하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으로 흐르고 있다. 지구 환경이 금성의 조건과 유사할 경우의 환경변화나 화성의 조건과 유사할 경우의 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언급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시범 보이기를 통해 완성된 논술문〉

현재까지 태양계의 행성 중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같고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췄다고 가정할 경우, 또한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과 크기는 지금과 같고 지구가 현재의 금성의 위치에 있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지구 환경은 오늘날의 지구 환경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구의 반경이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추었을 경우 지구의 크기는 현재 화성의 크기와 거의 같다. 따라서 지구는 중력이 작아져서 현재의 대기 성분이 대기권을 이탈하므로 화성처럼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산소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중력이 작아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존재하지 못하므로 구름을 형성하지 못한다.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물은 증발만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지구상에 물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물과 공기가 없으므로 생물은 당연히 생존이 어려워진다. 대기가 거의 없으므로 지표면에는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운석은 타지 않고 지표면으로 바로 떨어지므로 달처럼 많은 운석 구덩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가 공전 궤도상의 위치가 현재보다 태양에 70% 정도 가까워진다면 금성 정도에 위치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두 배 정도 더 많이 입사하게 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지구상에 있는 물이 많이 증발하여 형성된 두꺼운 구름층에 의해 온실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바다 면적의 감소와 해수 중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상의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기온이 일정수준이상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므로 식물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순환 과정이 반복될 경우 지구상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되어 종 다양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식물이 점점 멸종하게 되면 기온 상승과 더불어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표면은 점차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식물과 바다가 점점 사라질 경우 이산화탄소의 양은 계속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점점 더 커지므로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여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화성의 반경과 유사할 경우,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은 변하지 않고 태양과의 거리만 금성 정도에 위치할 경우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가정하여 지질, 대기, 생명 진화의 관점에서 살펴해보았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적절하게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기온, 풍부한 물, 산소를 가지고 있다. 화성처럼 너무 춥지도, 금성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을 정도의 기온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붙잡고 있을 정도의 중력과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구가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된 과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형성된 지구 환경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숙달시키기

[설명하기]와 [시범보이기]를 통하여 제시된 논술 학습 전략을 익히는 단계로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활동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위하여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논제에 대한 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숙달이 될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한다.

[예시문제] 다음 글은 새롭게 제기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논쟁에 관한 것이다. 간척 사업문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이론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한 후 개발우선인가? 아니면 갯벌보호 우선인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글을 쓰시오.

#### (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이론적 배경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관광 수입 증대,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 집단화·규모화된 우량 농지 조성

방조제 안쪽에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가 만들어 좁은 국토를 더 넓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량 농경지를 확보함으로써 쌀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식량의 자급도를 더 높일 수 있다.

##### ▶ 수자원 확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400ha 급수규모의 중규모 저수지 200개분에 상당 하는 5억3500m<sup>3</sup> 저수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수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 ▶ 상습 침수 피해 해소

방조제가 설치되면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어 홍수 때마다 바닷물(밀물)과 겹쳐 발생하는 기존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12천ha(3천6백만평)에 대한 침수 문제가 해소되어 배수개선사업비 약 4천 6백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 교통 환경 개선 및 관광 효과

방조제를 통해 교통 거리 단축 등 육상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 조성 효과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조제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새만금 현장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이므로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이론적 배경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 새만금 담수호 오염 문제는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 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 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 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7년 국정감사 자료)

### ▶ 환경 기초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 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상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점,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 새만금 간척 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 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 사업지 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사라지는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갯벌은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철새의 이동로, 수질 오염의 정화, 재해 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 www.naver.com 중에서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다음 글은 새롭게 제기된 새만금 간척사업 논쟁에 관한 것이다. 간척사업문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이론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한 후 개발우선인가? 아니면 갯벌보호 우선인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글을 쓰시오.

[논술 유형] 형태상으로 주어진 자료를 독해·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독해 포괄형이다.

### [자료 확인]

(가)글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관광 수입 증대,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례이고, (나)글은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과제 확인] 간척사업문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이론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한 후 개발우선인가? 아니면 갯벌보호 우선인가?

## ② 논제 파악

[논술 문제] 다음 글은 새롭게 제기된 새만금 간척사업 논쟁에 관한 것이다. 간척사업문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이론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한 후 개발우선인가? 아니면 갯벌보호 우선인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글을 쓰시오.

### [자료 내용]

(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관광 수입 증대,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논제 파악]

(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지지—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관광 수입 증대,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지지—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의 설정

■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지지

[논제1] 집단화·규모화된 우량 농지 조성

[논지1]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논제2] 관광 수입 증대

[논지2]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 조성 효과 창출

[논제3] 상습 침수 피해 해소

[논지3] 기존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12천ha(3천6백만평)에 대한 침수 문제가 해소

■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지지

[논제1] 새만금 담수호 오염 문제는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 해결 불가

[논지1]

○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 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음

○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 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룸.

[논제2] 환경 기초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

[논지2]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점,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논제3] 새만금 간척 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불가

[논지3]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 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음

[논제4]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논지4]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 ② 논거 세우기

-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지지

[논제1] 집단화·규모화된 우량 농지 조성

[논지1]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논거1] 간척사업

[논제2] 관광 수입 증대

[논지2]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 조성 효과 창출

[논거2]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

[논제3] 상습 침수 피해 해소

[논지3] 기존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12천ha(3천6백만평)에 대한 침수 문제가 해소

[논거3] 방조제 설치

-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지지

[논제1] 새만금 담수호 오염 문제는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 해결 불가

[논지1]

-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 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음
-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 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름

[논거1] 수질오염, COD, 97년 국정감사 자료, 축산 폐수량, 부영양화, 총인과 총질소의 양

[논제2] 환경 기초 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

[논지2]

-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점,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

수중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논거2] 수질오염, COD, 물막이 공사, 국정감사 자료, 축산 폐수, 부영양화, 총인과 총 질소의 양

[논제3]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논지3]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논거3]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짐,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 수행, 수산 자원의 고갈, 중요한 물새 서식지

### ③ 개요 작성하기

#### ■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지지

[제목] 간척 사업

[주제] 새만금 간척 사업

[서론] 간척사업이 제기된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글의 전개방향을 밝힌다.

[본론] 간척사업에 대한 소개(짧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 생략 가능한 문단임)

- 간척이란?
- 갯벌의 기능이란?
- 간척사업의 반론에 대한 의견 제시
- 간척사업 찬성의 논거 제시
  -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 관광 수입 증대 및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결론]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관광 수입 증대,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 ■ 간척사업의 반대 입장을 지지

[제목] 생태계의 보고 갯벌

[주제] 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의 생태계

[서론] 간척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글의 전개 방향을 밝힌다.

[본론] 갯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짧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 생략 가능한 문단임)

- 간척이란?
- 갯벌의 기능이란?
- 간척사업의 찬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간척사업의 반대 의견에 대한 논거 제시
  -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및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 언급
  - 갯벌이 생태계의 보고이며 생산성이 가장 높음을 언급

[결론]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 문제,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 막대한 자금 소요 등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파괴 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다) 실행하기

- ① 새만금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지지

##### 〈서론 쓰기〉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은 나라이므로 간척사업으로 4만 100ha의 간척지가 생겨남으로써 농경지가 증가하여 여기서 예상되는 쌀 수확량은 연간 14만 톤으로서 우리나라 인구 150만 명이 일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 외에도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곡물 자급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현재 70%의 곡식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국가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하여 UN이 물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21세기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10억<sup>m</sup>³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본론 쓰기〉

일부에서 시화호처럼 새만금호의 수질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환경기초시설을 처음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설치하면서, 축산분뇨 처리, 농경 시비량 감축, 인공습지 건설, 금강호 물의 유입, 침전지 설치 등을 한다면 새만금호 수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환배수로로 통해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바다에 바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정화된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을 더 깨끗이 할 수도 있다. 또한 방조제가 설치되면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어 홍수 때마다 바닷물(밀물)과 겹쳐 발생하는 기존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12천 ha(3천6백만 평)에 대한 침수문제가 해소되어 배수 개선 사업비 약 4천 6백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방조제를 통해 교통 거리 단축 등 육상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군산, 고군산군도, 백제문화권,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 조성 효과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새만금 현장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이므로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조제에 도로 설치로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안에서 군산이 가까워지며, 위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방조제와 연결되어 이제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므로 운송 수단이 육로로 바뀌므로 인적, 물적 수송 방법에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 〈결론 쓰기〉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기간 중 연 13,390천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여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어떤 사업이든 장점만 가진 사업은 없으므로 지금까지 쏟아 부은 천문학적 건설비를 낭비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사업을 중단 내지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간척 농지가 조성되고, 재해가 방지되어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네덜란드의 쭈다찌 지구 간척 사업의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새만금 간척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 ①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지지

## 〈서론 쓰기〉

간척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대부분 ‘농토 확장’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이라는 두 가지 수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농토 확장을 위한 간척 사업과 산업 시설을 위한 토지 창출면에서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 갯벌 훼손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본론 쓰기〉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간척 후의 에이커 당 미곡 생산 가치는 2백47만원이었으며, 갯벌을 그대로 두고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는 에이커 당 3백65만원의 가치가 발생했다.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농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척지에 대한 용도도 간척사업으로 생겨난 담수호의 오염으로 인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가 용도 변경되어 사라지는 면적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나는 농지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에서는 토지는 왜 하필이면 ‘갯벌’에서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 면적 확대라는 개발 논리와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잠재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갯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갯벌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심미적 가치를 더한다면 갯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업 과정에서 건강한 마을 공감대와 공동체가 형성된다. 간척 사업을 통해 어민들은 삶의 터전 뿐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로 이주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상실해 버렸다. 이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그 결과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 빈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결론 쓰기〉

서해안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연속된 서식처인 갯벌 생태계가 매립과 간척으로 여러 개의 작고 고립된 조각으로 나누어져 단편화되고 있다. 매립과 간척으로 조각난 서식처는 격리되어 종의 이입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종수는 감소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단편화된 갯벌 생태계는 주위가 본래와는 다른 이질적인 생태계로 둘러싸여 이웃하던 생태계의 구성원과 장구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 왔던 먹이 사슬이나 생물학적 상호 관계가 균형을 잃고 결국 멸종한다. 결론적으로 간척사업은 교통편의, 국토창출효과, 홍수 피해 방지 효과 등으로 인한 편익만을 상정했을 뿐, 이로 인한 더 큰 손실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다.

## 4) 활동하기

활동하기 단계는 숙달시키기 단계를 지나 학생들 스스로 논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문제를 접해보고 실제의 논술에 적용시키는 단계이다.

### 〈활동하기 1〉

#### [통합 교과 복합지문 : 출제문제]

제시문을 읽고 주변 국가들에 의한 우리 역사의 왜곡현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고 우리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1,50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 (가)

삼국사기의 기록은 외국의 다른 기록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서양과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삼국사기의 기록 중 6세기 이전의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삼국사기의 기록 중 6세기 이전의 기록에 나타난 천문관측 기록의 최적 관측지가 대부분 중국 대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기록은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후대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말갈’, ‘오행’ 등의 용어 사용을 들어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가들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삼국의 성립시기를 삼국사기의 기록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점으로 추정하여 우리의 역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나)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민족의 과학사는 아직 연구가 미비하거나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과학사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우리의 과학사를 독립적인 과학사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영향권 아래 놓인 하나의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세계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를 종교적 제단이나 상징물이라 주장하거나(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역사가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논쟁이 일고 있음.)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심체요절도 최고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금속활자의 발명자는 독일의 구텐베르그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발명품인 측우기도 중국의 발명품이 조선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자연현상인 오로라에 대한 우리 역사서의 기록은 기원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의 시티븐슨은 우리의 기록이 일본 최초의 기록(서기 620년)보다 한참 뒤인 993년부터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어 한국사의 고려사 이전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 초의 천문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도 중국 수나라의 천문도를 옮겨 새긴 것이라 주장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천문 관측을 부정하고 있다. 영국의 루퍼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천문지도가 당나라에서 보낸 천문도가 원본일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중

국의 역사가들은 중국황제의 하사품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과학사 연구가인 조셉 니덤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에서 “조선은 중국의 봉건적 제후국에 불과한 속국인데 황제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역법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여 한국의 과학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삼국사기의 천문관측 기록이 중국의 내용을 베낀 것이라면 관측 내용의 기록은 모두 중국의 동일한 장소여야 한다. 그러나 삼국의 일식관측 지역은 뚜렷하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찰한 기록이며, 역사에 기록된 일식에 대한 기록 중 실제로 일식 현상이 일어난 실현율을 계산하여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기록에 비해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천문관측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예로 동양 삼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일식현상의 실현율을 조사하여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66개중 53개가 실제로 일어나 실현율은 80%로 아주 높으며, 서기 200년까지의 초기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더욱 높아 89%에 이른다. 중국의 기록은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78%, 이후 당대 말까지의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63~7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겨우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인돌에는 지름이 3-10cm, 깊이가 0.5-10cm인 인위적인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이 구멍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생산과 풍요, 다산에 대한 원시 종교의 흔적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의 고인돌에서 흙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새긴 천문기록임이 밝혀졌다. 실제로 기원전 3000년 전에 세워진 함남 지석리 고인돌 덮개돌과, 서기 500년 전의 아득이 돌판 천문도, 6세기 초 평양 진파리 4호분 천장의 천문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로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긴 시간동안 자체적인 별자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전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위고 중성편(象緯考 中星篇)의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설명의 내용을 보면 ‘태조께서 천명을 받으신 초기에 평양의 구본 천문도를 바친 자가 있었다. 서운관에서는 이 천문도가 세월이 오래되어 별의 위치에 차이가 생겼으니 마땅히 다시 계산하여 사계절의 혼(昏)과 효(曉)의 중성(中星)을 정해야겠다고 하니 전하께서 옳다고 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분명히 고구려의 별자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맞도록 수정한 우리 고유의 별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중국의 별자리 기록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의 보천가에 비해 별자리의 위치, 별의 밝기와 크기의 상관관계 등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중국의 별자리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참고 자료 :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 중에서

### <출제의도>

최근 주변 정세를 보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우리 역사 전체를 중국 변방의 제후국의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 일본 또한 임나일본부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정당화 하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의 시도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민지 사관에 물든 일부의 역사학자들은 아예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민족은 찬란한 과학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과학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의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고 국민적 관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논술을 통해 찬란한 우리 민족의 과학사에 대한 학생들의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과학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제시문 분석〉

- (가) 삼국사기 역사의 기록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서 내의 천문 관측 기록에 대한 분석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고 외국의 연구 사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국사기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우리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세계적인 우리민족의 과학기술 역시 외국의 연구 사례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과학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외국의 과학사 연구기들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봉건 제후국으로 보고, 우리나라 고유의 천문관측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천문 관측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천문관측 기술이 독창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라) 삼국사기에 나타난 천문관측 기록은 중국의 내용을 베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식 현상을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현율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 정확한 것에 비추어 중국보다 우수하고 독창적인 관측임을 알 수 있다.
- (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인돌에는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으로부터 독자적인 천문 관측이 이루어진 흔적이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긴 시간동안 자체적인 별자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전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비록 중국의 별자리 기록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의 보천가에 비해 별자리의 위치, 별의 밝기와 크기의 상관관계 등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중국의 별자리를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천문 관측 기록임을 알 수 있다.

### 〈활동하기 2〉

#### [복합지문 : 출제문제]

제시문을 읽고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1,5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

(가)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 대체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된다. 즉 대체에너지는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 및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나)

국내에서 실용화된 대체에너지로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개발로 소규모 주택의 난방용 에너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용 정도를 보면 2004년 기준 총 에너지수요(석유환산 215,000,000TOE) 중에서 겨우 2.27%(5,002,000 TOE)를 신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 및 장기 저리 융자 그리고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의 사용량을 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태양전지를 통해 곧바로 전기로 바꾸면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태양 전지의 에너지 효율이 겨우 15%에 머무르고 있고, 에너지 밀도도 너무 낮아 서울에서 2003년에 사용한 전기 728억kWh를 태양광 발전소로 발전할 경우 남한 면적의  $\frac{1}{14}$  정도인 728 km<sup>2</sup>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비용도 많이 들어 1년 평균 약 3000kWh의 전

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태양열 발전 방식은 태양빛을 가지고 고온의 열을 얻은 다음에, 이 고온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대형 장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토가 좁은 우리의 현실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장치보다는 소규모의 가정용 태양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나 관공서의 옥상에 의무적으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난방에너지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옛날 우리의 조상이 난방과 조리를 위해 나무를 활용 하였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바이오매스에너지이다. 즉 생물이 생산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식물의 생산성이 열대지방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 논에 버려지는 볏짚과 축산 폐수를 한꺼번에 모아 효소로 분해하여 메탄이나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축산 폐수를 모두 수거하여 메탄을 얻는 방법은 축산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도시의 오염된 하천에서 열을 뽑아 난방열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이 방법도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수소는 물을 분해하면 무한정 얻을 수 있고, 연소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공해가 없는 에너지이다. 수소의 보관 방법으로는 최근 우리나라 교수가 개발한 얼음 속에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과 수소저장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효율적인 저장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 외에

도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학적 방법이나 광학적 방법을 활용한 수소의 제조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세계 5위를 목표로 2003년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이용 기술개발 프론티어 사업단이 과학기술부 산하에 설치되어 수소에너지의 실용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1000℃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반응으로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송에너지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바)

연료 전지는 전기의 발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80% 정도로 상당히 높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방출량이 낮은 청정연료이며, 필요한 곳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전력을 송전할 필요가 없는 등 매우 장점이 많은 에너지이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곧 노트북의 배터리와 같은 소형 연료전지는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용의 연료전지에서는 고가의 백금 촉매가 사용되어 활용화가 어려웠으나 최근 백금 촉매의 대체제가 개발되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가까운 시일에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기의 개발 자동차는 가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매자에 대한 세금 등을 통해 사용을 유도하면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이다.

(아)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의 양은 무려  $1.5 \times 10^{18}$ 톤(1조 톤의 150만 배)이나 되며, 이 바닷물 속에 중수소( ${}^2\text{H}$ ) 또는 D(Deuterium)이라고도 표기함)는 중수(重水)의 형태로 약 0.015%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바닷물 1톤 속에 들어 있는 중수소를 핵융합 발전하면 석탄 270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 속의 모든 중수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인류가 4억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거의 무한정하기 때문에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도 핵융합 온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온 상태인 플라즈마에 강한 자



기장을 걸어 자기장 공간에 가두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아직 강한 자기장을 얻는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여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곧 완벽한 핵융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웹사이트, 원자력 지식 발전소 웹사이트, 에너지 기술 연구소 웹사이트 중에서 발췌〉

### 〈출제의도〉

현대인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확보 문제는 한 국가의 사활을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에너지로부터 비롯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에너지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점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논술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자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신재생에너지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 및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 (나)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실태를 보면 2004년 기준 총 에너지수요(석유환산 215,000,000TOE) 의 2.27%를 충당하고 있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에너지는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에너지이나 아직 태양 전지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충분한 대체에너지가 되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러나 소규모의 가정용 태양전지를 활용하면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 (라) 우리의 조상들은 대부분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나무, 볏짚 등으로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버려지는 볏짚과 축산 폐수를 효소로 분해하여 메탄이나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 수소는 물을 분해하면 무한정 얻을 수 있고, 연소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공해가 없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수소의 보관 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사용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수가 개발한 얼음 속에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과 수소저장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저장 방법이 나오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 연료 전지는 전기의 발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방출량이 낮은 청정연료이다. 대용량의 연료전지보다는 노트북의 배터리와 같은 소형 연료전지 분야는 많은 연구가 되어 곧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중수소를 핵융합 발전하면 인류가 4억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거의 무한정하기 때문에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도 핵융합 온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으로 열을 가두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핵융합 기술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예술영역

### 가. 출제 경향 및 지도 대책

#### 1) 출제 경향

2006학년도 예술 영역의 각 대학교 1학기 수시 논술문제에서는 영어관련 지문이 출제되었지만, 2학기 정시 논술 문제에서는 영어 관련 지문이 사라졌다. 대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받은 아이들이라면 서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제시를 통한 통합교과형의 논술이 출제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영역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재, ‘스크린쿼터제’와 관련된 문화의 주권과 개방 및 다양성, 상업주의 문화와 인권, 우리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 한류열풍 등이 다른 영역과 통합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그러면 2006학년도 예술영역의 논술 출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첫째, 제시 자료가 다양화 되었다.

한양대학교는 2006학년도 정시 논술 문제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논제로, 제시문 대신 인간형 로봇 ‘휴보’와 일본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그림과 설명을 사용함으로써 글이 아닌 그림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를 제시문으로 사용하여 대사도 제시문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둘째, 영어지문 사용 금지로 인한 제시문의 개수가 늘었다.

제시문의 경우에도 2005학년도에는 2개의 제시문을 주었던 경희대는 2학기 정시논술에서는 제시문의 개수가 5개로 늘어났다.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제시문의 개수가 많아졌다.

200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고사의 경우, 글과 그림이 복합된 3개의 제시문이 2005학년도에는 5개로 늘었다.

### 셋째, 제시문의 정확한 파악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아졌다.

최근의 대학별 논술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요약하여 정리하는 요약형의 논술은 거의 없었으며, 주어진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문제가 많아졌다. 이는 글쓰기 능력도 측정하지만,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느냐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넷째,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를 사회 문화 현상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논술의 경우,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의 글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화의 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연세대학교는 남동원의 ‘주역 해의’,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억압, 그리고 불안’ 등의 제시문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내어 구체적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2) 지도 대책

대학별 예술 영역 논술 고사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예술 영역 논술 지도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다른 영역과 연계한 논술지도

예술 영역의 논술 고사 수준이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준 내에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논술지도가 예술적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나) 논술 문제와 제시문 파악을 통한 논술지도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진술했다고 해도 제시문의 정확한 파악에서 벗어난 논술은 좋은 논술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예술 영역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과 통합된 형태의 논술로 출제됨을 감안할 때, 문제와 제시문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다) 단계별 논술 수행 과정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예술 영역의 논술 또한 단계별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논술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지도는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논술 지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1단계 :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
- ② 2단계 :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 주제를 선정하는 논지 설정하기
  -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논거 세우기
  - 전체적인 열개를 짜는 개요 작성하기
- ③ 3단계 :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단계
  - 서론쓰기
  - 본론쓰기
  - 결론쓰기
- ④ 4단계 : 교사가 첨삭지도 해 주는 검토의 단계

#### 라) 배경 지식 활용을 통한 논술지도

예술 영역에서 논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논술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예술 영

역의 논술 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읽기 제재나 통계 및 시청각 자료가 나오면 스크랩하여 공책에 오려 붙이도록 한다.

또한, 논술 모음 자료집을 만들어 논술의 기본 능력을 쌓게 하는 것도 재미있는 글쓰기 방법이 될 수 있다.

## 나. 지도의 실제

2006학년도 논술의 출제 경향과 지도 대책에 따라 대학에서 출제된 예술 영역 관련 논술 문제를 피어슨의 현시적 모형에 따라 지도하고자 한다. 대학별 기출 논술 문제를 교수-학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선에서 교사와 학생간이 출제 유형을 익혀 논술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 1) 설명하기

설명하기 단계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원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 그리고 과정,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활동의 주체는 교사이며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술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수업일 경우에는 논술의 개념과 특징, 논술 수행 과정, 형태별 접근 방법 등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최근 예술 영역에서의 대학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주어진 논제의 분석이 정확한가, 해결 방법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그래서 과연 독창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등 논술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 [문제]

1. 이글의 필자가 비판하는 ‘천재’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요약하여 200자 원고지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2.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천재’의 개념을 유추(유추)하여 모차르트가 가진 천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200자 원고지 2,000자 내외로 서술하되, 이 글에서 언급

된 ‘천재’의 개념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밝히고 자기 입장을 보강하는 다른 사례를 더 들면서 제목을 달아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우리는 천재적 재능의 성숙이 그 개인의 인간적 운명과는 별개로 완성되는 자동적이고 내면적인 과정이라는 생각과 드물지 않게 마주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위대한 예술 작품의 창조가 그 창조자의 사회적 실존, 즉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온 한 사람으로서 그의 성장 과정이나 그의 체험과는 무관하다는 관념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모차르트 전기들은 종종 예술가 모차르트와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 일을 인간 모차르트에 대한 이해와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분리는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에 불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현 수준의 지식으로는 한 예술가의 사회적 실존과 작품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칼로 해부하듯 펼쳐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탐침으로 내장을 진찰하듯이 탐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천재의 비밀을 미화하는 것은 현재의 문명 수준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미화는 위대한 인물들을 신격화하는 형태들 중의 하나로서 그 이면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 쪽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다른 쪽을 낮추는 것이다. 한 예술가의 업적에 대한 이해와 그의 작품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 작품과 인간 사회 속에서의 그의 운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깊어지고 강화될 수 있다. 특출한 재능, 또는 모차르트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을 뜻하는 ‘천재’는 그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며 이런 점에서 천재가 아닌 범인들의 범상한 재능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베토벤과 달리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예술가’와 ‘인간’의 관계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특별히 혼란스럽게 보이는데, 그 까닭은 서신이나 보고서 또는 다른 증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그의 이미지가 천재에 대한 선입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모차르트를 마주친다면 그는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할 평

범한 한 인간이었다. 그는 때로는 유치한 행동을 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퐁과 관련된 비유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짧은 성년기에 왕성했던 성욕이나 아내와 청중의 사랑에 대한 끝없었던 갈구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평범한 범인의 모든 동물적 욕망을 두루 갖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듣는 이들의 모든 동물성을 씻어 주는 듯한 순수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음악의 특질을 ‘심오한’, ‘다정 다감한’, ‘고상한’ 이나 ‘비밀스러운’ 등의 개념들로 나타낸다. 이런 음악은 범상한 인간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속하는 듯 하며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승화되지 못한 측면들을 기억하는 일조차 거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이원론이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명백한 까닭이 있다. 이 이원론은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는 자신의 동물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문명인의 거듭된 확인과 성찰에 다름 아니다. 천재의 이상적 이미지는 각자가 자신의 정신성을 지키기 위해 육체성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동맹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싸움터를 이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천재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비밀과 그의 비천재적 인간성을 다른 서랍 속에 넣어 두는 이분법은 바로 유럽 사상계에 깊이 자리한 비인간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이는 극복되지 못한 문명적 문제인 것이다.

출전 :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모의 논술 기출 문제

#### 가) 1단계 : 제시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단계

- ① 어떤 유형의 논술 문제인가?
- ② 과제를 확인하고, 논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③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④ 제시문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⑤ 배경 지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나) 2단계 : 구체적인 논술 구상 단계

- ① 논지설정(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논지를 설정해 보자.)



- (문제1) : 천재의 개념은 무엇인가?
- (문제2) : 천재와 사회적 실존에 대한 입장 정하기
  -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논거세우기(논지를 뒷받침할 논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 구체적 논거의 내용 제시 : 베토벤과 그의 시대적 상황, 모차르트와 당대의 관련성, 낭만주의 계열의 미술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 호의 뗏목' 등
-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구체적 논거의 내용 제시 : 예술가와 인간 모차르트의 부조화, 일반인들의 음악적 '천재'와 그의 업적을 따로 떼어내어 인식하는 사례 등
- (가), (나)에 대한 논거와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③ 구상 및 개요 작성(밧그림 그리기)

- 주의 환기와 과제 제시
  - 주의를 어떻게 환기할 것인가?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서론을 어떻게 제시하며,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 과제를 해명하고, 구체화하기
  - 사회적 실존과 관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논지는 각각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두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두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입장에 대해 보강하는 사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 다) 3단계 : 쓰기 단계

#### ① 서론쓰기

- (가)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 주의는 어떻게 환기할 것인가?
  - 과제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천재는 무엇이며, (가)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 (나)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주의는 어떻게 환기할 것인가?
  - 과제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천재는 무엇이며, (나)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 ② 본론쓰기

- (가)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 (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의 견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나의 견해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 : 예술과 사회적 실존과의 이분화의 불가, 모차르트 음악과 당대 음악의 관련성 등
- (나)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의 견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나의 견해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 : 천재의 업적과 사회와의 무관성,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예술적 배경 지식과 구체적 사례 들기

#### ③ 결론쓰기

- (가)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 (가)를 지지했을 경우 어떤 유형으로 마무리할까? 예) 내용을 요약 및 정리,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관련된다는 입장의 부연 설명 및 강조
- (나)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나) 입장을 지지했을 경우 어떤 유형으로 마무리할까? 예) 내용을 요약 및 정리,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다는 입장의 부연 설명 및 강조

#### 라) 4단계 : 평가 단계

- (가)와 (나) 입장을 각각 지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경우의 평가
  - 내용면 : 문제의 핵심 파악 여부, 내용의 풍부성, 내용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방법의 유연성, 개념 설명과 입장을 보강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있는가?
  - 논리면 :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 논리상의 오류 여부, 즉 무리한 일반화나 단정은 없는가, 입장에 대한 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 표현면 : 글의 기본 조건 준수 여부, 문장의 정확성, 어휘의 풍부성, 예술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표현, 상투적 표현 유무 등에 중점을 두었는가?
  - 이해 및 분석력 :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 과제를 확인하고,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2) 시범보이기

이 단계는 교사가 논술의 이론과 원리에 따라서 직접 논술을 시범 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시범을 보일 때는 학습 전략을 항목별로 암기하거나 메모를 하여 판서하면서 시범을 보여야 하며, 반드시 순차적으로 학습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이 논제와 다른 방향으로 진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논술에 대한 기본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논술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 「시범보이기」 단계에서 ‘논술의 수행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시범보이기」에 사용된 〈예시 문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출간한 「삶과 세계와의 대화」에서 발췌한 글을 논술 문제로 만든 것이다.

[문제] 제시문 (가)는 패러디물에 대한 시사 주간지의 평론이며 (나)는 한 일간지의 패러디물에 관한 평론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유의 사항〉

- ①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 ② 2,500자 정도의 길이로 쓸 것.
- ③ 학교, 이름 등 신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쓰지 말 것.

(가)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익살이나 풍자의 효과를 내기 위해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작품에 차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니, 패러디의 역사는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기법이며 예술과 나란히 발전해 온 하위문화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기법으로는 키치(Kitsch)가 있다. 패러디에 비할 때 키치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저속한 싸구려 모방작이라는 성격, 그러니까 일부러 조악하게 만들기라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패러디와 키치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유희성이 강조될 때 패러디를, 목적성이 강조될 때 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중략)

최근에는 두 편의 광고가 패러디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남자가 클럽에서 메리 제이 블라이지의 Family Affair에 맞춰 춤을 추며 여자에게 다가아가 이어폰의 한쪽을 건네주면서 “같이 들을래?”라고 말하는 휴대폰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동일한 설정과 분위기에 광고품목만 컵라면으로 바꾼 패러디 광고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배꼽을 빼놓았다. 원작 광고 제작자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컵라면 광고가 휴대폰 광고에 대한 기억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패러디가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패러디가 나타남으로써 원본 또는 진본의 가치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이후로 패러디는 너무나도 친숙한 문화적 코드가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배우 전지현이 등장하는 디지털 카메라 선전을 패러디한 광고가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사비나 미술관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김홍도의 ‘미인도’와 같은 유명 작품에 교수와 학생들의 얼굴을 그려 넣은 권여현의 패러디 회화가 전시된 바 있다. 패러디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일상을 대변하는 가장 일상적

인 기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관련 기기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고 사진 합성이나 이미지 변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 온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이 가로 놓여 있다. 이들에게 패러디는 놀이의 방식이면서 표현의 방법이다.

예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패러디는 고급스럽지 못한 모방의 양식이다. 또한 패러디에는 상투적이고 소모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의 패러디 문화를 저급한 문화라는 관점에서만 보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패러디는 자신이 드라마나 영화 또는 정치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소통의 즐거움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반항과 일탈 욕구, 상상력의 변주를 통한 풍자정신의 표현 등이 패러디와 함께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디 문화는 수용자의 자기표현의 한 방법이며 공유의 문화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여러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불합리한 기존 가치에 대한 항의일 수도 있고, 새로운 창조를 향한 가벼운 발걸음일 수도 있으며,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재미 삼아 하는 장난일 수도 있다. 그리고 패러디의 일반화 현상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위와 후위, 고상함과 저속함,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포스트모던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패러디의 수준이 대중문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 주간한국, 2004. 3. 25

(나)

해석, 변형을 통한 ‘가짜·헛것의 문화’가 가장 격렬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인터넷이다. 영화 포스터 패러디를 통한 고도의 정치 풍자부터 단순한 엽기 패러디 유머에 이르기까지 기존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한 복제, 변형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일상적인 문화이자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됐다. 주류 문화를 변형, 해석한 이와 같은 디지털 넷 문화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끈 뒤 역으로 현실 정치, 주류 예술, 오프라인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풍자 패러디 만화 ‘대선자객’(불

법 대신 자금 수사 상황을 풍자) 시리즈이다. (중략) 평균 조회건수가 3만 건이 넘는 이 만화는 사이버공간 곳곳으로 ‘퍼나르기’ 되면서 “이를 모르면 네티즌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편파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패러디 신문, 패러디시, 영화 포스터 패러디, CF 패러디는 물론,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이용한 합성과 모방, 변형 작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패러디가 날카로운 풍자보다는 가벼운 오락이나 의미없는 엽기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 텍스트에 대한 변형은 그것이 풍자이든 엽기이든 사물의 다른 면을 바라보는 작업이며 텍스트와 변형 텍스트 사이의 거리에서 수준이 높든 낮든, 풍자이든 헛웃음이든,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문화평론가 장은수씨는 “독창성과 고유성(originality)이 사라진 시대에 이제 지식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를 변형해 자기화하는 것 자체가 재미이고 유희이며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넘치는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등 기존텍스트를 쉽게 변형하고 해석케 하는 기술 발전이 뒷받침하고 있다. 장은수씨는 “네티즌들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사이트의 벽만 통과하면 그 순간 그 어떤 주류 문화에 못지 않은 혹은 그보다 더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통적인 문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역전시키는 일종의 미디어 버그”라며 “이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대중의 거센 대반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도 주류 문화 텍스트를 변형한 대중의 문화가 다시 주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예술가들에게 상상력의 근원을 제공한다고 “사본이 원본을 베꼈던 시대에서 이제는 원본이 사본을 베끼는 문화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2003. 12. 17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제시문 (가)는 패러디물에 대한 시사 주간지의 평론이며, (나)는 한 일간

지의 패러디물에 대한 평론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유형 분석] 예시 문제는 찬성 또는 반대 논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찬반양론형 논술문제이다.

[자료 확인] 제시문 (가)는 패러디의 개념과 기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후, 예술적인 관점과 대중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패러디가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패러디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한 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패러디물이 오히려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적 역전 현상이 있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 모두 패러디물의 예술적 가치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성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유의 사항] 제목 붙이기, 1,600자 내외의 분량, 신분 노출 금지

[과제 확인]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제목을 붙여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

## ② 논제 파악

[논술 문제] 제시문 (가)는 패러디물에 대한 시사 주간지의 평론이며, (나)는 한 일간지의 패러디물에 대한 평론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자료 내용] 제시문 (가)는 패러디의 개념과 기원을 설명하고 패러디가 예술적인 관점에서나 대중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패러디가 오히려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적 역전 현상이 있어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패러디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논제 파악]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입장1〉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입장2〉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 설정

논제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예시 문제는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므로 〈입장1〉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중 한 가지 입장이 논지가 될 것이다.

논지 설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므로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논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논제에 부합되는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평소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풍부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 ② 논거 세우기

논거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논지를 잘 세우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고 풍부한 논거의 제시가 중요하다. 논거가 논지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거나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좋은 논술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은 훌륭한 논술을 쓰기 위해 꼭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 문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논지를 세웠다면 그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 〈입장1〉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의 논거 세우기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과 ‘패러디물’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의 정립을 바탕으로 패러디물의 속성이 예술 작품의 본질에 부합하거나 긍정적



으로 기능한다는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면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의 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예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진술들을 나열해 보면,

- 예술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창작의 결과이다.
- 예술 창작은 자연 세계를 유형화하며 해석하는 행위이다.
- 예술 창작은 독창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예술 창작은 정신의 자유로운 상상과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 예술 창작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하는 수단이다.

이상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예술의 개념을 정리하면 ‘예술이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 활동 및 그 작품을 말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패러디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진술들을 나열해 보면,

- 패러디는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모방한다.
- 패러디는 기존 작품의 흥내를 통해 익살스러운 효과를 거둔다.
- 패러디는 대상에 대한 조롱이나 풍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의 소재나 기법 등을 모방하므로 창조성이 약하다.
- 패러디는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익살과 풍자 등의 효과를 거두려는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상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패러디물의 개념을 정리하면 ‘패러디물이란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기법 등을 모방하여 풍자나 조롱 등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나 작품을 말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개념과 패러디물의 개념을 바탕으로 <입장1>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입장1>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논제]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지]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논거]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의 한 장르이다.

- 패러디물의 기본 정신은 풍자와 조롱이며, 이는 예술의 본질적 정신의 하나이다.
- 패러디물은 작품을 통해 기존 체제를 비판하여 새로운 질서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 패러디물은 현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표출하는 동시에 서로의 사고를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패러디물은 재미와 오락 등의 쾌락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예술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 패러디물은 예술가의 상상력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의 논거 세우기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의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도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패러디물’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이 정립되어야 패러디물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는 면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논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입장1〉의 논거 세우기에서 제시했으므로 예술 작품과 패러디물의 개념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제 예술의 개념과 패러디물의 개념을 바탕으로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논제]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지]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논거]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

- 패러디물은 작가의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다.
- 패러디물은 예술의 중요한 속성인 창조성이 부족하다.

- 패러디물은 단순하고 일회적인 작품이어서 진지함이 부족하다.
-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존재 가치가 없다.

### ③ 개요 작성하기

한 편의 논술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글 전체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요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글 전체의 체계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춘 논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글을 쓰고 난 후 자신의 논술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준의 작성이기도 하다.

〈입장1〉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제 목]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주 제]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의도와는 다른 예술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 론] 1. 최근의 패러디물이 홍수를 이루는 현상  
2. 패러디물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필요성

[본 론] 1. 예술 작품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고찰

가. 예술 작품의 본질

- 예술 작품은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표현한다.
- 예술 작품은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나. 예술 작품의 가치

- 예술 작품은 삶의 가치를 제시하거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 예술 작품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하고 드러낸다.

2. 패러디물의 특성과 의의

가. 패러디의 특성

- 패러디의 어원과 유래
- 패러디의 유형과 특성

나. 패러디물의 기능과 의의

- 패러디물의 풍자와 비판 기능

## - 패러디물의 예술적 가치와 의의

- [결론] 1. 패러디물의 풍자와 비판 정신은 예술의 본질적 기능과 일치한다.  
2. 패러디물은 기존의 작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다.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제 목]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변형물에 불과하다.

[주 제]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며 창의적 가치가 부족하므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 론] 1. 최근 패러디물의 양산으로 인한 혼란과 논란 제시

2. 패러디물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본 론] 1. 패러디의 특징과 패러디물의 양산 이유 고찰

가. 패러디물의 특징

- 패러디물의 개념과 기원
- 패러디물의 특성과 본질

나. 패러디물이 양산되는 이유

- 패러디물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항과 변주의 욕구를 반영한다.
- 정보 통신 세대의 감수성을 기존 텍스트의 변형을 통해 쉽게 표현할 수 있다.

2. 예술의 본질과 패러디물의 예술적 한계

가. 예술 작품의 본질과 가치

- 예술 작품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 활동이다.
- 예술 작품의 가치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표현에서 생겨난다.

나. 패러디물의 예술적 한계와 역기능

- 패러디물의 예술적인 한계
- 패러디물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

- [결론] 1. 패러디물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치가 부족한 모방과 변형물에 불과하다.  
2.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다.

## 다) 실행

### ① 서론 쓰기

서론은 글의 시작이다. 그러나 서론부터 채점자를 사로잡으려고 현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잘못된 논술이다. 주의 환기, 문제 제기, 논제 제시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서론 쓰기의 요령이 될 것이다.

#### <입장1>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서론 1] 지난 2003년, 여배우의 누드 사진을 이용한 영화 포스터에 야당 총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패러디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야당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패러디는 인기 연예인, 영화, 광고를 넘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나 현상까지 소재로 하는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론 2] 영화 포스터에 정치인 사진을 합성한 패러디물, 모나리자 그림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패러디물, 광고물을 모방한 중·고생들의 학생회장 입후보 포스터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패러디물은 보는 이들의 미소나 폭소 또는 통쾌함을 자아낸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어떤 심미적인 즐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작품과 감상자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깊이 있는 탐구와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패러디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서론1] 최근 각종 매체에서 패러디를 통해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는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포스터에 특정인물의 사진을 합성한 것에서부터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풍자한 작품까지 분야와 소재 또한 아주 다양하다.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뒤상의 그림, 평균 조회 건수 3만 건을 넘는 ‘대선자객 시리즈’, ‘딴지일보’ 등은 우리 사회에서 패러디가 얼마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현상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패러디는 단순한 웃

음에서 날카로운 풍자, 조롱 섞인 냉소, 재치 있는 자기소개 등 실로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 [서론2]

그러나 이러한 패러디물에 대해서는 재치와 유머 그리고 풍자의 결정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원작에 대한 가치 폄하와 악의적이고 책임감 없는 저질적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패러디물이 신선한 자극을 주는 문화 현상이라는 의견과 기존 예술의 체제와 가치를 뒤흔드는 천박하고 저속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패러디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작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치기(稚氣) 어린 모방작에 불과한지에 관해 진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 ② 본론 쓰기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다.

본론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논지를 절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개요 쓰기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글을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 〈입장 1〉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의 본론 쓰기

우선, 예술 작품의 본질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창조적인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조된 예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삶의 가치를 제시하거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한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과 미의식과 가치체계에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제공하는 가치를 지닌다.

한편, 패러디는 ‘대응노래(counter-song)’, ‘파생적인 노래’라는 뜻의 고대 희랍어 ‘parodia’에서 유래한 말이다. 패러디(pardoy)는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기법 등을 모방하여 풍자나 조롱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나 작품을 말한다. 본래 문학의 용어였던 패러디는 이후 물론 음악, 미술, 영화, 광고 등 모든 예술 장르로 확산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패러디물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모방이나 변형을 통하여 웃음과 과장과 풍자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익히 알려진 작품의 교묘한 모방이나 변형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패러디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예술의 본질과 패러디의 특성을 바탕으로 패러디물의 예술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패러디의 기본 정신과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널리 알려진 원작이 없다면 패러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창조성이 약하며 그래서 원작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나리자의 그림에 수염을 그려 넣은 그림’이 주는 웃음과 익살은 원작에서는 맞볼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또 하나의 창조적인 가치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가장 큰 특징인 익살과 풍자와 비판 정신은 예술적인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패러디물을 예술로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패러디물이 이미 원작 못지않은 감상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형상화되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은 수용자의 감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이 없는 예술 작품도 존재할 수 없지만 수용자 없는 예술 작품도 존재하기 어렵다. 이미 패러디물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패러디물이 감상자들에게 미소와 의미심장한 깨달음, 통렬하고 시원한 쾌감을 제공한다는 점은 패러디물이 원작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패러디물이 하나의 예술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입장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의 본론 쓰기

패러디는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기법 등을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익살, 풍자, 조롱 등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나 작품을 말한다. 문학으로부터 시작된 패러디는 오늘날에는 미술, 영화,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문화 현상이자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늘날 패러디물이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홍수처럼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텍스트를 쉽게 변형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 욕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패러디물이 원작의 모

방과 변형을 통해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반항과 일탈을 가능하게 하며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풍자와 웃음의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패러디물에 대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술 작품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며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조된 예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삶의 가치를 제시하거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감상자들의 미의식과 가치체계에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주는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패러디물이 보편적인 대중문화 현상의 일부가 되었다거나 원작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곧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패러디물은 원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작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창의적인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자성과 창의성은 모든 예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므로 결국 패러디는 예술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변형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디물은 원작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며 대중문화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수많은 패러디물은 대부분 풍자와 비판과 조롱의 근본적인 정신과는 무관한 오락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패러디물은 원작의 저작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몇 해 전 한 유명 가수의 음악을 모방했던 패러디 가수의 음반과 뮤직비디오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원작자의 고소로 폐기된 사건은 패러디물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원작의 저작권이 법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패러디물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③ 결론 쓰기

논술문의 결론은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단계이다.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입장 1>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세계에 대한 작가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형상화하는 것이며, 패러디물의 특징인 익살과 풍자와 비판의 정신은 예술의 본질적 정신과 일치한다. 더욱이 최근의 패러디물은 원작의 가치와는 다른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다. 패러디는 예술작품의 일방적인 수용자들이었던 감상자들 중심의 창의적인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물도 충분히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입장 2〉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패러디물은 원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치가 부족하며 이는 예술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홍수처럼 범람하는 패러디물들은 패러디의 근본적 정신이 결여된 단순한 오락물이나 일회적인 변형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패러디물들은 결국 기존 작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문화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패러디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검토

논술고사에서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어진 시간 안에 논제를 파악하고 개요를 작성해 논술을 하고 나면 검토를 통해 논술문을 수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최근에는 논술 시험에서 연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까지 있어 논술 고사장에서의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사장에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논제 파악과 논거 세우기를 토대로 한 개요 작성을 철저히 하여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 〈검토하기 시범〉

패러디물은 예술작품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패러디를 통한 다양한 창작물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음악,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부터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내

용도 다양하다.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그림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 콧수염을 그려 넣은 모나리자. 그림을 옆으로 늘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모나리자 등의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낸다. 또 만화를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쓴웃음을 맛보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은 패러디 문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미의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패러디가 이렇게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컴퓨터 기기와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컴퓨터 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손쉽게 사진을 합성하고 변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누구나 패러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패러디물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패러디란 무엇일까? 패러디란 기존의 작품을 모방하고 흉내 내어 작품을 새롭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과연 작품을 새롭게 재창조한다고 해서 이것을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창적인 생각과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예술 작품이다. 하지만 패러디물은 다른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조금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만든다.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재창조한다지만 결코 기존 작품이 가진 창의성만큼은 가질 수 없다. 즉, 패러디물은 예술작품이라고 하기엔 창의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또한 패러디는 단순한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멋대로 바꿈으로써 기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기존 작품의 가치와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 작품을 손상시키는 격이다. 이로 인해 패러디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이제수가 패러디하여 만든 뮤직비디오로 인해 자신의 노래가 수준 낮은 노래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존의 작품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원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패러디물을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패러디는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뒤돌

아 볼 수 있게 해주는 패러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패러디물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패러디물도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기엔 부족함과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

### 〈강평 및 첨삭 지도〉

위 논술은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 전개 방향을 정하기는 쉬운 편이다. 그러나 논점을 파악하기가 쉬운 만큼 오히려 자신의 논지와 그 논지에 대한 논거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생의 글은 ‘패러디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패러디물이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으로 일상화 되어 있으며 웃음이나 통쾌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패러디물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너무 부족하며 단순한 재미를 위해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논술하고 있다.

이 논술은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난한 편이지만, 주어진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접근해가는 면이 아쉽다. 반박의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분석과 패러디물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물을 예술의 본질적 속성에 대입하고 적용하는 순서를 논거로 제시했다면 보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술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생의 논술문은 글의 짜임새 면에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 하나의 서론 단락과 세 개의 본론 단락 그리고 결론 한 단락의 짜임은 무난하다. 그러나 서론 단락의 경우, 흥미유발은 무난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서론 쓰기의 핵심인 과제 확인이나 문제 제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감점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논술에서 학생의 주장은 ‘패러디물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인데, 그렇다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론에서 ‘~패러디물이 왜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야 했다.

또한, 결론 단락의 경우도 본문에서 제시한 자신의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더욱 좋은 단락 쓰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의 견해를 요

약하고 정리해야 하는 결론에서 ‘~않을까 싶다.’와 같은 자신 없는 논 의 전개는 논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위 논술에서 표현상 아쉬운 점도 많다.

둘째 단락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무엇일까?’, ‘~있을까?’, 넷째 단락에서 ‘있을까? 등을 의문형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논 의 전개를 핵심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여 평가자로 하여금 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을 ‘~우리 사회를 뒤돌아 볼 수 있게 해 주는 패러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의 문장으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정서법에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어 감점의 요소가 없다. 다만 서론 단락의 둘째 문장 ‘음악,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부터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는 ‘음악,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순한 웃음을 주는 것에서부터 사회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 〈시범보이기를 통한 완성된 예시 답안〉

#### 입장 1, ‘패러디물도 예술 작품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지난 2003년, 여배우의 누드 사진을 이용한 영화 포스터에 야당 총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패러디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야당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패러디는 인기 연예인, 영화, 광고를 넘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나 현상까지 소재로 하는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화 포스터에 정치인 사진을 합성한 패러디물, 모나리자 그림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패러디물, 광고물을 모방한 중·고생들의 학생회장 입후보 포스터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패러디물은 보는 이들의 미소나 폭소 또는 통쾌함을 자아낸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어떤 심미적인 즐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작품과 감상자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깊이 있는 탐구

와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패러디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술 작품의 본질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창조적인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조된 예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삶의 가치를 제시하거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한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과 미의식과 가치체계에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제공하는 가치를 지닌다.

한편, 패러디는 ‘대응노래(counter-song)’, ‘파생적인 노래’ 라는 뜻의 고대 희랍어 ‘parodia’ 에서 유래한 말이다. 패러디(pardoy)는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기법 등을 모방하여 풍자나 조롱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나 작품을 말한다. 본래 문학의 용어였던 패러디는 이후 물론 음악, 미술, 영화, 광고 등 모든 예술 장르로 확산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패러디물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모방이나 변형을 통하여 웃음과 과장과 풍자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익히 알려진 작품의 교묘한 모방이나 변형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패러디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예술의 본질과 패러디의 특성을 바탕으로 패러디물의 예술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패러디의 기본 정신과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널리 알려진 원작이 없다면 패러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창조성이 약하며 그래서 원작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나리자의 그림에 수염을 그려 넣은 그림’ 이 주는 웃음과 익살은 원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또 하나의 창조적인 가치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가장 큰 특징인 익살과 풍자와 비판 정신은 예술적인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패러디물을 예술로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패러디물이 이미 원작 못지 않은 감상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형상화 되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은 수용자의 감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이 없는 예술 작품도 존재할 수 없지만 수용자 없는 예술 작품도 존재하기 어렵다. 이미 패러디물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패러디물이 감상자들에게 미소와 의미심장한 깨달음, 통렬하고 시원한 쾌감을 제공한다는 점은 패러디물이 원작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패러디물이 하나의 예술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세계에 대한 작가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형상화하는 것이며, 패러디물의 특징인 익살과 풍자와 비판의 정신은 예술의 본질적 정신과 일치한다. 더욱이 최근의 패러디물은 원작의 가치와는 다른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다. 패러디는 예술작품의 일방적인 수용자들이었던 감상자들 중심의 창의적인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물도 충분히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입장 2, ‘패러디물은 기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변형물에 불과하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패러디를 통해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는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포스터에 특정인물의 사진을 합성한 것에서부터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풍자한 작품까지 분야와 소재 또한 아주 다양하다.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뒤상의 그림, 평균 조회 건수 3만 건을 넘는 ‘대선자객 시리즈’, ‘딴지일보’ 등은 우리 사회에서 패러디가 얼마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현상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패러디는 단순한 웃음에서 날카로운 풍자, 조롱 섞인 냉소, 재치 있는 자기소개 등 실로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디물에 대해서는 재치와 유머 그리고 풍자의 결정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원작에 대한 가치 폄하와 악의적이고 책임감 없는 저질적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패러디물이 신선한 자극을 주는 문화 현상이라는 의견과 기존 예술의 체제와 가치를 뒤흔드는 천박하고 저속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패러디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작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치기(稚氣) 어린 모방작에 불과한지에 관해

진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패러디는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기법 등을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익살, 풍자, 조롱 등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나 작품을 말한다. 문학으로부터 시작된 패러디는 오늘날에는 미술, 영화,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문화 현상이자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늘날 패러디물이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홍수처럼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텍스트를 쉽게 변형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 욕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패러디물이 원작의 모방과 변형을 통해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반항과 일탈을 가능하게 하며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풍자와 웃음의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패러디물에 대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술 작품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며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조된 예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삶의 가치를 제시하거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감상자들의 미의식과 가치체계에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주는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패러디물이 보편적인 대중문화 현상의 일부가 되었다거나 원작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곧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패러디물은 원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작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창의적인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자성과 창의성은 모든 예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므로 결국 패러디는 예술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변형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디물은 원작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며 대중문화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수많은 패러디물은 대부분 풍자와 비판과 조롱의 근본적인 정신과는 무관한 오락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패러디물은 원작의 저작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몇 해 전 한 유명 가수의 음악을 모방했던 패러디 가수의 음반과 뮤직비디오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원작자의 고소로 폐기된 사건은 패러디물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원작의 저작권이 법으로 보호받는다든 것은 패러디물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물은 원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치가 부족하며 이는 예술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흥수처럼 범람하는 패러디물들은 패러디의 근본적 정신이 결여된 단순한 오락물이나 일회적인 변형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패러디물들은 결국 기존 작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문화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패러디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숙달하기

숙달하기는 이러한 예술 영역의 논술 경향을 바탕으로 교사가 시범을 보인 ‘논술 수행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논술 학습 전략의 빠른 숙달을 위해서 「시범보이기」에서와 같은 ‘논술 수행 과정’의 9가지 항목을 양식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고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에게 이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이행 정도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수준별로 지도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이 단계에서 예시 문제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논술 수행 과정’에 따라 해보도록 지도한 후, 여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직접 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 「숙달시키기」에 사용된 〈예시 문제〉는 2005학년도 카톨릭대학교 논술 문제이다. 유의사항은 필자가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문제] (가), (나)를 참조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밑줄 친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유의 사항〉

1. 4~5개의 단락으로 구성하시오.
2. 2,000자 내외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가) 소문을 들으니 누군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식물은 잘 자라고 헤비메탈을 들은 식물은 성장이 시원치 않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또 육각수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육각수라 하면 물 분자의 결합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은 물 분자를 육각수로 만들고 헤비메탈은 그것을 산만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이 인간의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 대중들이 대중문화에 거는 기대는 꽤 큼니다. 그리고 통속성에 대한 비판 또한 그만큼 크죠.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따뜻하고 너그러울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중문화를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수인지 배우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국적 없는 문화를 퍼뜨린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보고, 액션, 호러 영화에 내용이 없다고 질책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대중문화를 즐기는 방법일 것입니다. ‘재미 있긴 한데 남는 게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야, 그거 재미 하나는 끝내주는데’라고 말해보자는 거죠.

(다) 성웅(聖雄) 이순신. 전란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그가 요괴를 퇴치하는 판타지의 주인공이 된다면? 큰 뜻을 갖고 있지 않는 한량이라면?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파격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영웅 이순신’의 이미지를 벗어나 ‘이순신 새로 보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젊은이들이 국가 권위의 상징인 태극기로 머리카락이나 몸을 감싸는 발상의 전환을 했듯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순신들이 나오고 있다. 이순신이라는 아이콘을 SF나 판타지 등 대중문화적 요소와 처음 결합한 것은 서울 광화문 앞의 이순신 동

상이 '유쾌 상쾌 통쾌' 라고 외치는 한 통신회사의 광고였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그 상품의 이름을 딴 '0000 장군' 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권위의 해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 가) 문제의 발견

### ① 과제 확인

[논술 문제] (가), (나)를 참조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밑줄 친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자료확인] (가)는 클래식으로 대표되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대표되는 헤비메탈 음악을 비교한 실험과 육각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래식으로 대표되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중들이 대중음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무조건 비난하거나 질책하기 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너그럽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대중문화를 즐기자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는 '역사적 권위' 로 상징되는 이순신 장군이 SF나 판타지 등의 대중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범접할 수 없는 '역사적 권위' 가 해체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면서 대중문화의 한 아이콘으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의사항] 4~5개의 단락으로 구성, 2,0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

[과제확인] (가), (나)를 참조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밑줄 친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에 대해 4~5개의 단락으로 2,000자 내외로 작성하되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② 논제 파악

[논술문제] (가), (나)를 참조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밑줄 친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여기서는 ‘역사적 권위’의 해체가 그 ‘무엇’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가) 모차르트 음악이 인간의 몸에 좋다.

- ① 실험 결과 1-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식물이 헤비메탈 음악을 들은 식물보다 성장이 빠르다.
- ② 실험 결과 2-모차르트 음악이 물분자를 육각수로 만들고, 헤비메탈은 그것을 산만하게 만든다.
- ③ 결론-모차르트 음악이 인간의 몸에 좋다.

(나) 대중문화의 통속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

- ① 목적과 의미보다는 대중문화가 주는 단순한 즐거움에 빠지자.
- ②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여기자.

(다) 대중문화계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파격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젊은이들이 국가 권위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신을 깨뜨렸다.
- ② 통신회사가 이순신 장군 아이콘을 SF나 판타지 등의 대중 문화적요소와 결합했다.

[논제파악]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가)와 긍정적인 (나)의 제시문을 참조하여,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 나) 문제의 해결

### ① 논지 설정

-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면

[논제] 모차르트 음악이 인간의 몸에 더 좋다.

[논지] ·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준다.
- 대중문화가 질이 낮다

-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

[논제] 통속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헤비메탈 음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논지] · 단순한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자.

-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
- 일상에서 벗어나 탈출구 역할을 한다.

- 대중 문화계에서의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과 의미

[논제] 역사적 권위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파격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논지] ·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젊은이들이 국가 권위의 상징인 태극기를 위신을 깨뜨렸다.

- 한 통신회사가 이순신 장군 아이콘을 SF나 판타지 등의 대중 문화적 요소와 결합했다.

## ② 논거 세우기

-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면 지지 : 대중문화가 유익하지 않다.

[논거] ·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지 못한다.

- 오히려 인간의 정서를 해친다.
- 인간의 정서적 발달에 해롭다.

-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 지지 : 대중문화가 유익하다.

[논거] · 사회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한다.

- 일상의 고루함을 깨고,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시킨다.
-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는 분출구이다.

- 대중 문화계에서의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과 의미

[논거] · 권위적인 것과 비권위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진다.

- 사회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 획일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 ③ 개요 작성하기

[제목]: '대중문화 시대와 역사적 권위 해체'

[주제]: '대중문화 시대에' 역사적 권위의 해체 '가 지니는 해체와 의미

[서론]: 음악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역사적 권위 해체 현상의 의미와 해명에 대한 필요성

[본론]- 대중음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지 못한다.
- 오히려 인간의 정서를 해친다.
- 인간의 정서적 발달에 해롭다.

- 대중음악에 대한 긍정적 시각

- 사회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한다.
- 일상의 고루함을 깨고,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시킨다.
-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는 분출구이다.

- 대중 문화계에서의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과 의미

- 권위적인 것과 비권위적인 것의 구분이 사라진다.
- 사회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 획일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결론]: 대중문화 시대에 '역사적 권위의 해체'가 지니는 가치와 전망

### 다) 실행하기

#### ① 서론 쓰기

오늘날 대중음악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대중 헤비메탈 가수의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 듣고 이를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공중파를 타서 '욘사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가수 보아가 일본의 가요계를 주름 잡기도하고, 드라마 '장금이'가 중국에 전파되어 '장금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대중문화 영향력이 지니는 지배력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대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중문화 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중음악과 영화 등 우리 대중문화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역사적 권위의 해체’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② 본론 쓰기

먼저, 대중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제시문의 분석이 필요하다.

제시문 (가)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 그리고 육각수 실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인간의 몸에 좋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대중음악인 헤비메탈의 대중문화 통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문화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여겨야 한다는 긍정적인 바라보고 있다.

(가)의 입장에 설 때, 대중문화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지 못하며, 인간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발달에도 해롭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대중음악으로 대표되는 헤비메탈류의 음악이 학생들에게 난청 현상을 유발하여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오는 일들을 종종 본다. 또한,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클래식 음악으로 대표되는 모차르트 음악을 선호함으로써 신생아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대중음악을 기피하게 한다. 이렇듯 대중문화는 순수한 인간의 사고와 표현의 정수이어야 할 기존의 문화와 예술을 오히려 저급한 상태로 퇴행시킨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나)의 입장에 서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대중문화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대충 우유 한잔과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출근했다가 다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틀에 박혀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트롯트’ 한 곡조는 일상의 고루함을 깨고, 일상의 문화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분출구이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울려 퍼진 ‘오 필승 코리아’와 같은 ‘국민가요’ 노래는 우리 민족의 사회적 통합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기존의 문화와 비교하여 저급하여 비판과 배격으로 일관하기보다는, 그것의 긍정적 면과 가치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역사적 권위로 상징되는 ‘성웅 이순신 장군’과 ‘태극기’가 대중문화의 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역사적 권위의 해체’를 새롭게 해체·재해석하여 창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가치의 발견은 비단 대중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여성 중심의 구조로 변모했다든가, 권위와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상이 친근한 ‘친구’와 같은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인 평등한 구조로, ‘권위’가 ‘친근함’으로 해석되고 해체되는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은 우리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결론 쓰기

이상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바탕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권위의 해체’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시각에 사로 잡혀, 문화의 주체자임을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권위의 해체’를 통해 사회는 발전한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체계로의 변화이며 친근감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역사적 권위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권위는 해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등한 사회로의 나아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숙달시키기를 통한 완성문]

#### ▶ (가)의 입장 지지

#### [문제1]

일반인들은 ‘천재’가 사회적 실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술 작품의 창조가 그 창조자의 사회적 실존 즉,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의 성장 및 체험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천재’와 그의 업적을 이분화하여 천재를 사회적 실존과는 무관하게 인식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차

르트의 예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 재능만이 아닌 온갖 동물적 욕망을 두루 갖춘 평범한 한 사람이 심오하고, 고상한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천재’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천재적 재능의 성숙이 그 개인의 인간적 운명과는 별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하다. 천재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 [문제2]

일반인들은 ‘천재’를 자동적이고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의 천재적 재능은 사회적 실존과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온 한 사람으로서 그의 성장과정이나 체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재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위대한 예술 작품의 창조와 그의 삶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려는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천재’는 사회적 실존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그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며,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결국 ‘천재’라는 것은 시대와 관련이 없는, 시대 현실을 초월한 존재가 아닌 오히려 시대와 관련을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35세로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차르트의 사례는 일반인들에게 ‘천재’라는 한 인간과 그의 업적(혹은 작품)을 나누어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변태적 성(性)기질이 있는 인물로,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다가 결혼한 후에 파혼이라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가 파괴적인 욕망을 궁중연회를 통해서 분출했다는 사실에 부닥치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모차르트와 같은 평범한 모든 동물적 욕망을 두루 갖춘 인물이 듣는 이들에게 심오하고, 고상하고, 비밀스러운 음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예술 작품의 창조가 그 창조자의 사회적 실존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천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과이다. 결국 모차르트와 같이 동물적 욕망을 두



루 갖춘 한 인물이 사회적 실존으로써, 그 동물적 욕망을 억제하여 현실의 문제를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모차르트와 같은 예를 우리 주변의 위대한 많은 천재 예술가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우는 베토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모방했지만, 독자적인 자기만의 음악적 위치를 정립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음악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시대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예술적 경지로 승화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디 이뿐인가? 음악계를 떠나 미술계만 하더라도 이러한 예를 더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군함 메두사 호가 난파된 사건을 제재로 극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삼각의 구도 안에서 극명하게 묘사한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불후의 명작 ‘메두사 호의 뗏목’. 가장 아끼던 딸이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병사하고 자기 자신도 매독과 안질로 고생했지만 빛 때문에 치료비마저 댈 수 없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이라는 절망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명작을 남긴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 역시 예술 작품의 창조가 그 창조가의 성장과정이나 체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와 현실은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 또한, 이러한 예들에서 우리는 천재라는 개념이 사회적 실존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천재는 사회적 실존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천재라는 개념을 반드시 사회적 실존, 사회적 실존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얽매이면 무리다. 오히려, 천재는 일반인들의 견해와 같이 범인들의 범상한 재능을 초월하여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천재적 능력이 있다. 모차르트, 베토벤, 테오도르 제리고와 같은 위대한 천재적 예술가가 사회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사람들과 다른 천재적 재능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우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천재라는 개념을 일반인들과 같이 타고난 천재적 재능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실존으로써 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학생 작품

## 4) 활동하기

「활동하기」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논술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제시한 문제들은 대학 논술 기출 문제와 최근 출제된 주요 대학의 논술 문제 중에서 최근의 예술 영역의 출제 경향을 반영된 것들을 엄선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각 대학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논술 교수-학습 문제로 사용해 보기 바란다.

### 〈활동하기 1〉

[문제]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제시문 (가)의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유의 사항〉

- ①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 ② 구체적인 사례나 예를 들어 주장을 전개할 것.
- ③ 1,200자 정도의 길이로 쓸 것.
- ④ 학교, 이름 등 신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쓰지 말 것.

(가)

완전한 사회란 없다. 각 사회는 그 사회가 주장하는 규범들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불순물을 그 자체 내에 선형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불순물은 구체적으로 많은 잔인, 부정, 그리고 무감각이다. 우리는 이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만 할까? 민족학적 조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적은 수의 사회를 비교하면, 서로서로가 매우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의 영역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 차이점들은 점점 감소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어떤 인간 사회도 철저하게 선하지는 않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 사회도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는 겉으로 보아, 어떤 일정한 수효의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일부 구성원들까지 포함한 모든 성원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일부 구성원이란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타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든 조직적 노력에 장애물이 되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여러 민족의 ‘야만적인’ 습관을 소개한 여행 서적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류의 독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들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재정립되기만 한다면, 이 같은 피상적인 반응들은 즉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야만인의 모든 관례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장 끔찍하게 혐오하는 식인 풍습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다른 고기[肉]가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는 경우 - 폴리네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 는 제외시켜야 한다.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회도 굶주림으로부터 나오는 욕구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나치의 학살 수용소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아사(餓死)할 지경이 되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먹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식인 풍습의 긍정적인 형태 - 그 기원의 신비적, 주술적, 또는 종교적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 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들의 신체의 일 부분이나 적의 시체의 살점을 먹음으로써 식인종은 죽은 자의 덕을 획득하려 하거나 또는 그 힘들을 중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매우 비밀스럽게 거행되며,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과 섞거나 또는 빵아 가루로 만든 유기물 약간에 합해 먹는다. 그리고 식인 풍습의 요소가 보다 공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근거에서 그러한 습관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시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면 어떠한 육체적 부활이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에 의거한 것이거나, 또는 영혼과 육체의 연결과 여기에 따르는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에 대한 확신에 의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확신은 의식적인 식인풍습의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인종을 비난하는 이유인 죽음의 신성함에 대한 무시의 정도는,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약 어떤 다른 사회의 관찰자가 우리를 조사하게 된다면,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실이, 그에게는 우리가 비문명적이라고 여기는 식인 풍습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들의 재판

과 형벌의 습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만약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것들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되는 사회형을 구별해 보고 싶어질 것이다. 즉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자기네의 육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우리 사회와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앙트로페미(anthropemie: 특정인을 축출 또는 배제해 버리는 일)를 채택할 것이다. 그들은 이 끔찍한 존재들을 일정 기간 또한 영원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시설들 가운데에서 인간성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당한다. 우리가 미개적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이 같은 관습은 극심한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우리들 자신도 그들에게서는 야만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나) 한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

파리, 1999년 6월 1일

또 한번 한국인들은 애완동물에 대하여 천하고 비열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불법시장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이를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세계에 불쾌감을 자아낸 이 같은 야만성은 오늘날 정치적 문제가 되었으며 나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며 인간의 존엄성 수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986년부터 수차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귀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 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 언론을 통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이를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오늘부터 더 이상 식용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단호히 매듭지으려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나의 지지를 보내며, 다른 분들도 동참하여 한국에서 개고기, 고양이고기의 소비를 널리 고발할 것을 호소합니다.

목매달아 패고 갈기갈기 찢겨져 잡아먹히는 수많은 개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 브리짓트 바르도(Brigitte Bardot)

### 〈출제 의도〉

흔히 대학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의 유형 중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찬성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들이 많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안이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주장의 정당함과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 논술 문제는 전개 유형상 ‘논쟁형 문제’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찬성(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거나 제시된 주장(생각)을 비판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와 같은 논술 문제에서도 분명한 입장 선택과 그에 대한 논거 제시가 관건이 된다.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문제는 비판적 사고를 요한다. 제시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난 후, 학생들에게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개성과 경험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하나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분석〉

위 논술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제시문 (가)의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필자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문제이다. 위 논술 문제는 두 편의 자료를 제시하고 논술을 유도하는 자료 제시형 문제 중

기술 자료 제시형 논술 문제이며, 하나의 입장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비판하라는 논쟁 유도형 논술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어떤 사회의 문화도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회의 문화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점에서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문화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류의 가장 좋은 친구’를 희생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다른 민족의 가치관·생활양식 등에 대해 부정적 가치판단을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ethnocentrism)’ 태도로 한국의 문화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글이다. 자민족의 문화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국, 제시문 (가)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적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자민족 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ethnocentrism)’ 적 입장에서 문화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 논술 문제는 ‘문화 상대주의’ 적 관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를 비판하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므로 문화를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한편, 논지의 설정과 논거 세우기 작업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보자.

논지를 ‘문화를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로 설정한다면 첫째, ‘문화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둘째,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각 문화는 그 문화만의 독특한 환경과 상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넷째, 각 문화의 독특한 특성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다섯째, 각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해야만 자신의 문화가 지닌 특성도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등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하기2〉

[문제]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1.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표현한다.
2.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킨다.
3.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

아래 제시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위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을 펼칠 수도 있다.)

※ 1,800자 안팎으로 쓰시오.

(가)

금강산을 처음 대면하는 감흥 속에서 겸재(謙齋)는 이미 금강산의 정신을 간파하게 되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가를 순간적으로 터득해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을 보는 순간 겸재의 천재적 순발력은 영감으로 작용하였고 그 작동한 영감은 곧 그의 축적된 화기(畫技)에 의해서 능숙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 「불정대(佛頂臺)」 그림에서 동해 바다는 그리지 않고 있다. 불정대 아래로 운림(雲林)에 싸인 외원통암(外圓通庵)을 까마득하게 포치(布置)시켰을 뿐이다. 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하늘빛 운염(暈染:빛무리)의 연하(煙霞:안개낀 노을)만으로도 그 밖에 바다가 이어질 듯한 느낌이 드는데, 수직으로 끊어져 내린 암벽의 발치가 허공에 잠기고 있음에랴! 겸재는 한 붓도 바다를 그리는 데 쓰지 않았으나 그 넓은 바다를 느끼게 하고 있다. (...) 「칠성암(七星巖)」 그림에서는 농담을 달리하는 권운준(卷雲皴:새털구름 모양으로 주름지게 표현하는 화법의 일종) 계통의 대담한 필선을 분방하게 구사하여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쭈그러 앉기도 하며 또는 의자에 앉기도 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인물의 자태를 표현해 놓았는데, 어찌면 그렇게도 그 본질을 정확하게 추출해내어 감필(減筆)의 묘(妙)로 추상화시킬 수 있었는

지! 더구나 성긴 대빛자루로 대강대강 쓸어간 듯한 물결 표현에서 일렁이는 동해바다의 높고 큰 파도를 실감할 수 있어 어지러운 배멀미를 느끼게 해주는 데 이르면 아연 말문이 막힐 뿐이다. 그렇다. 바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여 그 물성을 터득한 다음, 그 표현에 알맞은 화법을 찾아내어 익숙하게 손에 익히고 나서 거침없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화법을 전통 속에서 찾아내든 외래 것에서 빌려오든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표현에 알맞은, 그래서 남이 공감할 수 있는 화법이면 되는 것이다.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나)

이미지는 욕망과 쾌락을 (...) 상상 속에 위치시킨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이다. (...) 여기에 거의 나체인 한 남자 운동선수의 사진이 있다. 바다를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요트의 난간과 밧줄을 잡고 선 그의 팔과 넓적다리는 곧게 뻗어있고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포말과 밧줄의 팽팽함에서 우리는 이 요트가 최고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멋진 청년의 눈은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다. 잡지의 독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그는 알아보고 있는 것일까? 위험, 모험 또는 기적? 또는 아무 것도 없을 수 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밧줄을 잡아당기지도 방향을 틀지도 않는다. 그걸로 그는 그냥 멋지다. 이 이미지의 의미를 규정하는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진짜 남성의 인생, 그래, 멋진 남성의 인생이 여기에 있다. 매일 아침 애프터 세이브 로션의 짙은 향기를 맡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약간의 주석을 달아보자.

1) 설명문이 없다면 이미지는 아무 의미가 없거나 또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이미지가 없다면 설명문은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다. 이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태양 아래 벌거벗은 남자’, ‘바다’, ‘배’ 등과 같은 시니피앙(signifiant : 기호표현)들의 융통성과 ‘진짜 인생’, ‘충만함’, ‘인간’ 등과 같은 시니피에(signifié : 기호내용)들의 공허성을 강조해보자. 이 애프터 세이브 광고는 판



매 행위를 위해서 상품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방향들을 서로 연결시켜 고정시킨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광고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옛 신화들, 즉 자연, 남성다움, 자연과 맞선 남성상, 남성의 자연성 등의 신화를 복원한다. 이 커다란 주제들과 함께 우리는 글자 그대로의 신화에서 벗어난다. (...) 광고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한다. 광고는 하나의 물건(애프터 셰이브)에 이데올로기적 주제를 입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에 현실과 상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를 부여한다. 광고는 거기에 이데올로기의 항목들을 다시 연결하여, 복원되어서 재활용되는 시니피에들에 시니피양들을 연결시킨다.

3)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진작가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요트를 타며 정말로 '자발적'으로 멋들어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생각해보자. 광고회사는 이 청년을 통해서 애프터 셰이브의 쾌적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와 설명문의 수사학이라는 이중의 테러리즘을 사용한다. "깔끔한 남자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멋있는 남자가 되어 자신도 만족하고 여자에게도 만족을 주십시오. 이 애프터 셰이브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남자가 되든가... 명심하십시오."

-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다)



\* Ceci n'est pas une pipe: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르네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출제 의도〉

위 논술 문제는 학생들이 평소에 예술 관련 고전을 많이 읽고, 우리 주변의 사물과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술 영역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제는 대학 논술 고사의 문제와 맥락이 닿아 있다.

제시된 문제는 ‘이미지’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설명하고,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미지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명하도록 하고 있다.

### 〈제시문 분석〉

위 논술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독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 제시형, 독해 포괄형 문제이다.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관한 세가지 관점을 취하거나, 다른 관점을 취하기 취할 수도 있다. 논리 전개를 위한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자.

제시문 (가)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평론으로 ‘이미지가 심오한 현실을 표현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앙리 르페르브가 저술한 ‘현대인의 일상성’이란 책의 일부분으로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킨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된 그림 자료 (다)는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논제를 파악해 보면, 이미지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표현한다.’, ‘2.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킨다.’, ‘3.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에 대하여 <논제1>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논제2>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논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논지 설정과 논거 세우기 작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논제1>에 대해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표현한다’,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킨다.’,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논제2>에 대해 논지를 첫째, ‘이미지가 현실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로 설정한다면

인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나 예술가들의 심오한 예술 작업을 구체적인 논거로 설정할 수 있겠다. 둘째, ‘이미지는 의도된 목적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다.’ 를 논지를 설정한다면, 현실과는 다른 이미지로 이미지의 본질을 왜곡시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TV와 신문의 광고를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미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다’ 를 논지로 설정한다면, 막스 에른스트의 ‘셀레베스의 코끼리’ 등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할 수 있겠다.

한편, 위 세 가지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입장(관점) ‘이미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존재 양상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을 논지로 설정한다면, 소설가 마광수의 성적 이미지의 표현과 상업적 목적의 이미지를 논거로 세울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요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서론, 본론, 결론 쓰기의 과정을 거치면 좋은 논술이 될 수 있다.



# 부 록

- ▶ | 대학별 논술고사 기출 문제 및 해설
- |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안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별 논술고사 기출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1** 다음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1) 원장님, 그러나 이제 탈출이 끊어진 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섬은 이제 생명의 증거를 잃어버린 죽음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섬 위에 이룩하시고자 하신 천국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 섬은 그 원장님의 단 하나의 명분에 일사불란하게 묶여버린 얼굴 없는 유령 집단의 섬이 되어갈 뿐입니다. 하여 점점 더 다스리기가 쉬운, 그러나 개개인의 삶을 찾을 수 없는 생기 없는 유령들의 섬이 되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원하기만 하신다면 원장님께서서는 끝끝내 이 섬을 그렇게 만들어놓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섬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입니다.

섬사람들을 원장님 뜻대로 설득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맘에 들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역시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울타리 속에 격리된 사회의 질서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성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대표하는 몇몇 상층부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며, 이 섬에 관한 한 모든 원장들의 시대가

그것을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대개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야 원장님께서서는 다른 어느 분보다도 섬 살림을 이끌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오셨고, 대부분의 경우 원장님은 그 사람들의 의견에 승복하고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원장님은 먼저 장로회를 만들어 무슨 일에서나 그 장로회의 자문과 동의를 주문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절차 이상의 뜻을 지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로회에선 스스로 일을 발의한 일이 없으며, 언제나 원장님의 뜻에 따라 원장님의 계획들을 원의로 확정시켜주는 절차로 봉사하면서, 원장님의 명분을 마련해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전 지금 그렇다고 그 장로회 사람들을 나무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섬에서 겪어온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높다란 울타리로 만족스러울 만큼 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섬의 형편은 비록 장로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밖엔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 사실 원장님 부임 직후부터 이 섬의 선의의 지배자로서의 원장님과 그에 대한 피치자로서의 원생들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협의적인 지배 질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 마침내 원장님에게서마저도 저의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대 상황 안에 격리된 인간 집단 안에서는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협의 관계에 의한 지배 질서란 궁극적으로 그 상황의 벽을 무너뜨리는 순교자적 용기와 희생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선의나 정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의 지배권이 어디에서 연유했든 그것만은 끝끝내 절대 전제가 되어 있는 한, 다스림을 받는 쪽은 항상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 자체의 압력 때문에 스스로가 무력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회의 질서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듯이 다종의 희망이나 기도 같은 것과는 일단 상관없이, 우선은 그 지배자 한 사람의 책임과 각성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슬픈 결론입니다.

(2) 무릇 음양이 어울려 만물이 생겨나지만, 같은 것이 모여 있을 때에는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물끼리 서로를 보충해 균형 있게 하는 것을 화(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물을 풍부하게 하고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것을 같은 것에 보탠다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은 토(土)를 금(金), 목(木), 수(水), 화(火)와 섞어서 만물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맛을 조화하여 입맛에 맞게 하고, 사지(四肢)를 튼튼히 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며, 여러 가지 음악 소리를 조절하여 귀를 밝게 하고, 눈, 코, 입, 귀 등의 일곱 구멍을 바르게 하여 마음에 맞게 쓰이게 하며, 인체의 여덟 부위를 자기 기능을 다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아홉 가지 장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순수한 품성을 세우며, 관리들의 열 가지 등급을 살펴서 각각의 직능과 업무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천(千) 가지 관직의 품계를 만들어 만(萬) 가지 국가 경영의 방략(方略)을 갖추었으며, 억(億) 가지 국가 일을 잘 헤아려 조(兆) 가지 사물들을 제자리에 있도록 하였으며, 경(京) 가지 세입(稅入)을 거두어 해(垓) 가지 행정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천하의 넓은 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세입들을 거두어들여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며, 도의로 가르치고 등용하여 그 백성들이 한 집안처럼 화락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아야 화(和)의 지극한 경지입니다.

(3)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수(數)는 매우 매혹적인 것이었다. 그는 <티마이오스>에 나타난 플라톤의 견해를 받아들여 수를 신의 천지창조의 근본 원리로 간주하였다. 모든 것은 수에 의존한다. 대상은 오로지 수의 속성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수는 존재와 아름다움 양자에 근본적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령 특정한 의도나 목적 없이 단지 즐거움을 위해 팔을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라. 그것은 춤이 될 것이다. 춤의 무엇이 당신을 즐겁게 하는지를 물어 보라. 그러면 수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자, 나 여기 있소.’ 신체 형태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 수에 따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신체 동작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라. 그러면 당신은 모

든 것이 수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수는 질서의 근본 원리이며, 질서는 여러 부분들을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의 통합된 복합체로 배열하는 것이다. 질서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4) 자유의 적들은 인간의 질서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개인 행위의 자발적 상호 조정이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들 사이의 상호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반 준칙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타인의 일정한 기여에 대한 기대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는 행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질서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사회생활에 일종의 질서, 일관성 및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질서가 있기에, 개인은 성공적인 예측에 의해 행동하고, 자신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분산적 질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 확립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들의 상호 작용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폴라니가 ‘다중심적 질서’의 자생적 형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인간들 사이에 질서가 확립될 때, 우리는 이를 자생적 질서 체계라 한다.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 질서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기 조정은 공적 토대 위에서 자유를 정당화한다. 이때 개인의 행동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월하거나 공적인 권력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적 대상을 체계화하는 방법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생적 질서 형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질서의 형성도 많은 경우 개체들 간의



자생적 조정에 의존한다. 만일 우리가 각각의 분자나 원자들을 일일이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면 복잡한 유기 화합물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개별 요소들이 스스로 배열되어 특정한 속성을 지닌 구조를 이루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 [지문의 분석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시험은 ‘질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질서란 무엇인가?”, “질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을 접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의 정확한 함의, 속성, 기능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질(秩)은 공간적 안배를, 그리고 서(序)는 시간적 차례(次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질서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순서 잡힌 배열을 의미한다.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각기 자신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이렇게 제자리에 놓인 것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조화가 곧 질서의 아름다움이요, 좋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질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질서는 무조건 좋은 것, 더 이상 아무런 논의와 반성도 필요 없이 그저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때때로 질서는 그 생성 과정의 임의성과 운영 방식의 부당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서는 아름답다’는 구호 아래 부패한 권력의 통치가 정당화되기도 하고, 질서의 편안함이라는 미명 아래 창조적 일탈의 생산성이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에게 질서의 다양한 생성 기제와 종류, 여러 속성과 측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주어진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물음을 통해 수험

생들이 다층적인 이해와 분석, 창조적인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번 논술 시험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가 논술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 틀을 이어 받고 있다. 네 개의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질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는 이 제시문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밝히고, 제시문의 논지들이 어떠한 상호 연관 속에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 공통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분량의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논지들의 상호 연관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심층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며,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한 것은 논리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제시문 분석]

제시된 네 개의 글들은 각각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 협의가 없는 지배 질서에 대한 비판, 바람직한 정치 질서로서의 조화, 수적(數的) 질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생적이고 자기 조정적(self-co-ordinating) 질서를 보여준다.

#### ▣ 제시문 1

첫 번째 제시문은 한 사회의 질서가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때 그러한 질서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사회의 질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 글에서 비판받는 ‘불행한 사회의 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의(協議)보다는 지배자 한 사람과 그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규정, 구성되는 질서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 형성되는 대안적 질서와는 거리를 가진 것이다. 이 글은 소록도 나환자촌 병원에 현역 군인이 새 원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에서 발췌하였다.

#### ▣ 제시문 2

두 번째 제시문은 중국 선진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국어(國語)」중 「정어(鄭語)」에서 인

용하였다. 정(鄭)나라 환공이 “주(周)나라가 장차 쇠망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사백(史伯)이 답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사백은 우주의 구조와 생성 기능의 근본 원리가 개별적이며 다양한 요소의 통일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하여 주나라가 “자기와 다른 것은 버리고 같은 것만 취하였기 때문에” 폐단이 일어났고 쇠망의 길을 걸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쇠망해가는 주나라 이후의 바람직한 정치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이다. 그는 주 왕실 중심의 천하 질서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각 제후국의 다양함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획일이 아닌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천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바람직한 정치, 사회적 질서는 “서로 다른 사물끼리 서로를 보충해 주는” 공존 공영의 ‘화(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개별적 다이(多異)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몸의 여러 부분들이 어우러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천하의 많은 인재와 재화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천하와 국가를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개별적 다이(多異)의 화합과 교섭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제시문 3

세 번째 제시문은 수(數)의 계열에서 발견되는 규칙적 질서를 아름다움의 본질로 설명한 글이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은 비례, 대칭, 균제 등 ‘질서 잡힌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수는 피타고라스 이래 서양철학사에서 음악, 우주와 더불어 신의 형상으로서의 질서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이념적 실재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제시문은 질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 계열에 구현된 아름다운 질서는 신이 우주 창조의 원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시문은 M. C. 비어슬리의 「미학사」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안의 인용문은 A. 아우구스티누스의 「참된 종교」De vera religione liber unus에 수록된 글이다.

### ▣ 제시문 4

네 번째 제시문은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저서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사회적 질

서가 권력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생적이고 분권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다중심적 질서(polycentric order)가 가능하며, 이러한 질서 속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공통 주제인 '질서'를 사회적 차원에서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지배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술은 수험생들이 질서의 다양한 속성과 측면에 대한 제시문들 간에 설득력 있는 연관 관계를 부여하고, 그 공통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사고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은 제시문의 함의를 참조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부분에서 수험생들은 질서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논거와 설득력 있는 글을 통해 진술해야 한다.

-<http://www.unidream.co.kr>-

**기출문제 2** 사례 <A>, <B>, <C>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1>~ <7>을 참고할 것)

[사례 A]

고슴도치와 토끼가 맛있는 음식을 걸고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고슴도치는 피를 써서 몰래 자신과 닮은 아내를 경주의 결승점에 먼저 보냈다. 토끼가 도착하자 고슴도치 아내가 “나는 벌써 와 있다.”하고 말하였다. 결국 고슴도치가 음식을 차지하였다.

[사례 B]

초등학교 축구 팀과 아마추어 성인 축구 팀이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다. 심판은 새로운 규칙을 정하여, 초등학생 팀은 11명, 성인 팀은 6명으로 하며, 성인 팀 선수는 상대에게 태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심판은 규칙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였다.

[사례 C]

새끼고양이 가운데 한 마리가 유난히 작고 허약해서 어미젖을 먹을 때도 다른 형제들에게 밀려 생존이 어렵게 보였다. 주인이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먼저 주는 등 특별히 돌보고 사랑하여 그 고양이도 다른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 제시문 1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동의 땅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 놓으려 한다. 자신의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하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개릿 하딘, 「공유의 비극」)

▣ 제시문 2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연민(憐憫)과 동정(同情)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기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연민과 동정을 느낀다.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무도한 폭한(暴漢)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 제시문 3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형태의 경쟁이 아니라 신상품·신기술·신공급원·신조직형태 등과 관련한 경쟁이다. 이 경쟁은 비용 또는 품질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의 이윤이나 생산량의 다과(多寡)를 좌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토대 및 그 생존 자체까지도 좌우한다. 이런 종류의 경쟁은 다른

경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사업자가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외부에서는 경쟁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늘 경쟁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국 완전경쟁 상태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독점보다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혁신자가 차지하는 독점이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요제프 A. 슈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 ▣ 제시문 4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분배적 정의라고 간주되는 것은 인위적인 질서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지 자생적인 질서 속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자유는 제한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장 질서에 대한 간섭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부분 가시적이며 피부로 느낄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자유와 간섭 사이의 선택이 그때그때의 편의에 맡겨진다면, 이는 분명히 자유의 점진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여 야기되는 손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 ▣ 제시문 5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정의(正義)에 따르면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善)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에만 결함 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不正義)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다. 인간 생활의 제1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존 롤즈, 『사회정의론』)

### ▣ 제시문 6

경제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경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경쟁질서에 반하여 행동할 때 경쟁질서를 준수할 때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게 된다.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와 권력에의 의지(意志)가 각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한번 형성된 경제권력은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붕괴되기 어렵다. 그런데 강력한 경제권력은 경쟁관계를 마비시키고, 권력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여 우수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쟁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쟁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국가는 경쟁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켜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틀 안에서 경쟁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오토 슐레히트, 『사회적 시장경제』)

### ▣ 제시문 7

‘경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경쟁의 논리가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욕구 수준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창조를 가능케 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쟁 심리는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었다.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익집단 또는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은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변질되어 통용된다. 경쟁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경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세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물론 아무렇게나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법칙’이 공정했을 때 패자도 승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지만 경쟁 사회에서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거나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다.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쟁이란 곧 상대의 이익을 빼앗는 과정이다.

(리스본 그룹, 『경쟁의 한계』)

(서울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 [출제 의도]

서울대학교 논술고사는 (1)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2)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3) 그에 따라 설정된 주장들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4)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논증하는 능력과 함께 (5)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아울러서 평가한다.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는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쟁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와 경쟁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루는 제시문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것을 자료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 [제시문 분석]

이번 정시모집 논술고사는 사례와 제시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례 세 가지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쟁자들이 각기 상이한 조건 아래서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은 경쟁 또는 경쟁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자유에 관하여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는 인문사회과학 문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대등하지 않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제시문에서 자유와 경쟁의 의미, 자유와 경쟁의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사유를 전개해야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사례 A]

그림(Grimm) 형제 동화집에 나오는 「고슴도치와 토끼」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아무런 규제나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오로지 경쟁자 상호간의 경쟁 행위만이 있다. 고슴도치의 행위를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 경제 영역에서 경쟁은 이와 같이 치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 내기라는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쟁 상황을 상정하여 경쟁의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사례 B]

초등학교 축구 팀과 성인 축구 팀 사이에 시합을 한다는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례는 경쟁자 사이에 현저한 능력 차이가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로서,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경기 규칙과 심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례 A>와 다르다. 그러나 심판은 경기 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경쟁자들이 상호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경기 과정에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 C>와 차이가 있다. 경쟁에 개입하되 경쟁의 규칙이라는 틀만을 규제하고, 가능하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페어플레이가 강조되는 운동 경기 영역에서 경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에서도 이러한 경쟁 방식이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례 C]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새끼고양이 형제들 사이의 경쟁에 개입해서 사실상 경쟁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즉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경쟁 제한의 예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사례가 생존의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온정주의적 개입이 경제 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입이 다른 고양이에게 피해가 된다는 문제점을 단서로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제시문 1

하딘의 「공유의 비극」에서 나오는 목초지 사례로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이 사례는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의 총합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의 제한, 곧 경쟁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 ▣ 제시문 2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일부이다. 이 책은 『국부론』과 함께 아담 스미스의 사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은 동정과 연민에 의하여 절제될 수 있다고 한다. 주어진 제시문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사례 B>와 <사례 C>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제시문 3

슘페터의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의 일부이다. 여기서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시한다. 특히 독점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 수정을 가하여, 독점기업도 잠재적인 경쟁자와 신기술 등 혁신을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른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 질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 ▣ 제시문 4

신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하이에크의 저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자유 경쟁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새끼고양이 사례에서 약한 고양이를 보호한다는 간섭의 목적과 그 효과는 가시적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간섭이 장기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는 간섭에 의하여 변경된 결과를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시문 5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준을 추론하여 정당성 판단의 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6

슐레히트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일부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독점의 형성으로 시장 기능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 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경쟁 보호를 위한 규제의 목적은 경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문으로부터 <사례 A>를 비판하고, <사례 B>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7

리스본 그룹의 『경쟁의 한계』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경쟁 자체의 순기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례 B>와 같은 방식의 제한에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이익 탈취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경쟁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 C>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이상의 제시문은 세 가지 사례와 일 대 일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론으로서 자유와 경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점이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세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하나의 제시문에서 추출된 관점이 세 사례 모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http://www.unidream.co.kr> -

**기출문제 3** 사회 공동체에서 언어는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한다. 아래 지문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가] 인간이 벌이나 다른 군서(群棲)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은 그 어떠한 것도 헛되이 만드는 법이 없다. 자연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어 능력을 부여했다. 언어는 발성 능력과

다르다. 다른 동물들도 소리는 낼 수 있으나, 그들의 소리는 단지 고통스러움과 쾌적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본성적으로 쾌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들을 소리를 질러 서로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러므로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의 진정한 차이는 인간만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을 지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소유함으로써 가정과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사람은 논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사람은 누누가 홀로 서 있으면서도 의사소통적 문맥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다. 논변적 담론의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합의는 현실적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야 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속하여 있음에서 오는 그들의 사회적 유대감은 이런 담론 속에서 손상되지 않고 유지된다. 담론에 의해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다음 두 사항에 의거한다. 하나는 예 또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기중심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비판 가능한 주장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불가침적인 자유가 없다면, 동의는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각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오랜 토론을 거치며 속고해도 보편적 동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자율성을 지닌 동시에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되는 관계망의 구성원이다. 이 두 국면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론을 통한 결정 절차에서는 바로 이런 연결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 토론을 하는 사람은 의(義)로써 서로 돕고, 도(道)로써 서로 깨우치고, 선(善)을 따를 뿐 반드시 이길 것을 구하지 않으며, 이에 승복할 뿐 말이 막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으로써 서로 미혹케 하고, 화려한 언사로써 서로 혼란스럽게 하고, 나중에 멈추는 것을 서로 자랑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이기기만을 바라는 것은 토론을 함에서 본받을 바가 아닙니다. 무릇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는 제

후들을 현혹시켜 대국을 망하게 하고 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하였으니, 이들이 변설에 뛰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말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길이었습니다. 군자는 비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군주를 섬기는 것을 꺼려하였으니, 그들이 군주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면서 어떤 일도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르고 의로운 말을 받아들여 경(卿)?상(相)을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여 당장의 유리한 말만을 좋아하며 훗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식으로 관리 노릇을 하면 마땅히 중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 [출제 경향 및 논제 파악하기]

전통적으로 이화여대의 논술 문제는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어 왔다. 시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찬반 견해를 묻거나 특정 학문의 특정 이론을 배경 지식으로 요구하는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03), ‘소비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2004), ‘신화, 소설 등 비일상적인 것들의 기능’ (2005)을 물었던 기출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6학년도 정시 모집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번 논술의 주제는 ‘언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문제]에서는 논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언어라 어떤 방식으로 사회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은 아마도 언어학이나 사회학 관련 이론들을 떠올리며 더 깊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불안해했을 성 싶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어졌을 법한 주제이다. 또한 학생들 각자가 사회적 관심이나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응용해 볼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주어진 제시문 속에 숨어 있는 실마리들을 잘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논술문제 3]의 첫 문장은 “사회 공동체에서 언어는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한다.”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문장은 주어진 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보를 제공한다. 아마도 학생들이 언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할 때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라는 측면에 집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의 역할’을 생각해 보라는 숨은 길잡이로 읽어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문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히 읽어야 출제자가 배려한 이정표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이화여대 논술 문제에는 해마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빠지지 않고 붙는 요구사항이 있다. ‘아래 지문들의 내용에 근거하여’와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라’가 그것이다.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여’는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살펴 이에 맞게 글을 구성하라는 주문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라’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아무나 읽어도 그만인 맛있는 글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개성 있는 사고를 보이려는 요구이다. 뻔한 인용이나 예시보다는 참신한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구절은 학생이 사전에 유사 논제에 맞추어 암기식으로 준비한 논술문을 피하라는 주문이다. 출제 의도에 맞추어 글을 작성해야 평가자들이 채점하기에도 편하고 학생의 사고 수준을 평가하기에도 좋다. 실제로 각 대학의 논술 담당 교수들은 붕어빵을 찍어 낸 듯한 똑같은 주장과 논거들 때문에 채점하기가 난감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따라 한 발짝 나아간 생각을 풀어내지 못하고, 익숙한 지식 패턴에 맞추어 글을 작성하다 보니 너무나 쉽게 다 알고 있는 뻔한 공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독창적 사고력을 보이려는 논술 평가 기준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 [자기 생각 쓰기]

학생들은 대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을 가장 까다롭게 여긴다. 사실, 논술의 변별력도 제시문 분석보다는 주로 이 대목에서 발생한다. 독해 분석력보다 창의력과 논증력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 안에 힌트가 숨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비법은 ‘꼼꼼하게 살피

보기’와 ‘현실에서 사례 찾기’이다.

예를 들어, ‘윤리적 가치를 공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정과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에 주목해 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떠올려 보면 지지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 문화는 혹시 어떨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동지’, ‘당파성’, ‘혁명’ 등 계급성을 강조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노동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외국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사례가 많다. 한자어의 경우 ‘견인선(牽引船)’은 ‘끌배’, 외래어 ‘볼펜’은 ‘원주필’, 일상 용어 ‘도시락’은 ‘꼭밥’ 등으로 표현하는 데, 이는 남한의 표준어와 다른 예들이다. 또 ‘효과를 얻다’를 ‘은을 내다’로, ‘책상다리를 하다’를 ‘올방자를 틀다’로 표현하는 등 말의 형태에서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언어들은 북한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는 논의 속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 과제가 바로 민족 동질감의 회복이며 첫째로 꼽는 것이 언어 이질화 문제이다.

그 밖에도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칠 때 우리 선조들이 언어를 민족정신과 동일시 여기며 항거했던 전례가 있다. 주권을 빼앗긴 조국을 등지고 제 3세계로 떠났던 해외 한인들이 자식에게 한글을 전수함으로써 민족의식을 살려내는 것도 떠올려 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조선족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여기면서도 한민족의 풍습과 민속을 통해 자치구를 지켜내는 데에는 언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들 모두 언어가 가치관과 문화를 담아내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사례들이다.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계층, 집단 간에 벌어지는 일에도 눈을 돌려보자. 인터넷에서 청소년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모티콘과 채팅 언어는 익숙한 계층의 동질감을 쉽게 형성해 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TV의 특정 개그 프로그램들이 양산하는 유행어는 그것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 언어를 달리 사용하고 유머를 구사하는 규칙이 달라지면 대화의 어려움이 증폭된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결속을 느슨하게 만드는 부정적 사례를 통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겠다.

한편, 제시문 (나)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중심적 관점

의 극복', '담론에 의한 합의' 등도 논술문 작성의 실마리를 준다. 이 구정들에 착안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상호 관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할 권리를 억누르고 자기중심적 관점만 내세우면 합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도 담론 형성을 어렵게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왜곡하면 힘에 의한 질서만이 남을 뿐이다.

실제로 하버마스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평등해야 함을 들었다.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 행위가 민주 사회의 윤리성과 상통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간에, 그리고 나아가 국가 간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분야는 많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구체적 모습으로는, 소신 있는 소장파 정치인들이 당의 압력에 눌려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양심적 견해가 쉽게 묻히는 경우는 어떨까.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당했던 사건들도 종종 쟁점이 되고 있다. 과거 독재 정치 기간에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이다. 모두 다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표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자기만의 입장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며 억지 동의를 얻어낸다.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면 의사소통 공동체는 먼 이야기임을 강조해 볼 수 있겠다.

제시문 (다)에서는 토론에서 피해야 할 여러 자세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짓말과 화려한 수사는 인간 관계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한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먼저 인정하며, 이기는 것보다 옳음을 추구해야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권력에 아부하고 옳은 소리를 숨기는 것은 공동체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던 당시 거짓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의 태도나,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했던 네티즌들의 자세는 반성해볼 지점이다. 또한,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는 언론이 독재 정권에 아부했던 모습도 지적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익 단체의 대변자들이 감정 싸움과 승패에만 집착하는 모습도 흔히 보게 된다.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옳음을 목표로



삼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토론이 공동체를 위한 일임을 강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인용해도 좋다.

종합해 보면, 올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언어가 공동체의 연대성과 윤리성 확보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풀어내는지 평가하려는 데 있다. 제시문 독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므로, 숨어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어 우리의 현실 맥락과 연결시킨다면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매일신문(2006년 3월 15일)-

**기출문제 4** ※ 아래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 각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하여 논술하시오.

(1,800자 안팎. 150분. 답안지 본문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말 것.)

(가)



『주역』의 화택규(火澤睽)괘는 태하리상(兌下離上)의 괘다. 상리괘(上離卦)는 불(火)이고 하태괘(下兌卦)는 연못(澤)이다. [...] 규(睽)는 노려볼 규. 등지다, 배반하다는 뜻. 곧 서로의 의견이 어긋나서 반목하다, 노려본다는 의미다. [...] 불은 위로 타오르고 물은 밑으로 흘러가니 이것은 서로의 의사가 합쳐지지 않고 반목해서 서로 배반하는 상태다. [...] 규괘를 한 개인으로 보고 해석하면 곧 그 마음이 순일(純一)하지 못해서 사욕과 도리(道理)가 갈등하므로 생각이 통일되지 못해 바른 길을 못 찾는 상태다. 이래서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 어렵다. 집단이나 한 국가로 보고 해석해도 내용은 같다. [...] 군자는 이 상(象)을 법도로 삼아, 귀결되는 바는 설사 같아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선처해야 한다. [...] 사람이 행복을 구하는 뜻은 비록 같아 해도 그 행위는 모두 다르다. ‘같으면서 다름’(同而異)은 이런 의미다. [...] 이 우주와 인생에는 시간과 공간, 환경의 변화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곤 존재할 수 없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성(人性)도 비록 근원은 동일할지라도 말단에 이르러서는

서로 어긋남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규괘는 이런 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어긋남을 인식하면서 화협(和協)의 도리를 찾아야 한다. [...] 규의 상태는 고금왕래(古今往來)에, 인류사회에 면면히 계속되고 있다. 「단전」에는 [...] ‘다르면서 같음’(異而同)의 도리를 말했으며 「대상전」에는 ‘같으면서 다름’(同而異)을 말했으니, 이 도리를 터득하면 인간만사에 통용되어 큰 허물을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어긋남()의 때의 쓰임이 위대하다”라 했다. [...]

「계사전」에서는 “나무를 곱혀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서 활과 화살을 이용함으로써 천하를 위협하니, 아마 이것은 규괘에서 취함이니라”고 언급하였다.

—남동원, 『주역 해의』

(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의 단지를 곁에 두시고, 말씀하시길,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노라,  
 이 세상 여기저기 흩어진 부를  
 이 한 줌에 다 모으리라.”  
 그래서 먼저 힘이 길을 뚫자, 이어서 아름다움,  
 다음엔 지혜, 명예, 쾌락이 흘러 들어갔다.  
 거의 동이 날 무렵, 하나님은 잠시 멈추셨다.  
 모든 보물 중에 혼자만 남아,  
 안식이 맨 바닥에 있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보석조차 인간에게 부여한다면,  
 나보다도 내 선물들을 더 숭배할 것이니,  
 자연을 지은 하나님 대신, 자연에서 안식할 것이요,  
 결국 우리 둘 다 패배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다른 축복은 누리나,

늘 목마른 불안에 젖게 하리라.

인간은 풍요롭되 피로에 시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적어도,  
선(善)이 그를 인도치 못하면, 피로함이 그를  
내 품에 던질 수 있도록.”

—조지 허버트, 「도르래」

(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의 현상 가운데 몇 가지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을 그런 현상들에 국한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들은 아이가 혼자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또는 어머니처럼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대신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예들은 단 한 가지의 조건, 즉 아이가 좋아하고 갈망하는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로 축약할 수 있다. [...]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상상실의 문제 외에도 더 고찰할 것이 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지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욕구를 지체 없이 만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위협으로 느끼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상황은 욕구로 인해 긴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 해결도 할 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

자극이 심리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불쾌감을 유발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필경 태어날 때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고, 따라서 위협상황의 되풀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 해소되어야 할 자극이 축적되는 것, 이것이 위협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로부터 불안의 반응이 나타난다. 불안은, 출생 시 이 반응이 체내의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폐를 활성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또한 축적된 자극을 호흡기관과 발성기관으로 돌려 엄마를 부르게 되는 과정을 유도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라) 위대한 발견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겨난다. 플람스테이드와 헬리의 실용적인 천문학 해석은 뉴턴으로 하여금 혜성의 움직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내게 했고, 그 후 하늘에 있는 모든 물체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법칙을 주장하게 하였다. 혹성과 혜성들의 궤도가 공히 타원형인 이유는 이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뉴턴의 이 ‘중력론’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전적으로 순수과학적인 논증은 아니었다. 사뭇 신비롭게 들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인력’ 개념은 유럽 전역이 유달리 불안정했던 때인 17세기 후반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주 나타났던 혜성에 대해 우주적 신비 등을 내세워 설명하려던 미신장인들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초판에서 뉴턴은 우주의 조화와 균형이 곧 깨어질 수도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그 예로 최근 하늘에 나타난 일련의 놀라운 현상들, 즉 혜성의 잦은 출현을 들었다. 그리고 핼리는 1697년에 영국 왕립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혜성과 같은 크기의 물체가 충돌할 때”의 효과를 “다시 태초의 카오스 상태로 지구가 환원될 수도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1680~81년 혜성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뉴턴도 여든 살이 넘었을 때 조카 존 کن듀잇에게 1680년에 태양을 스치듯 비껴간 혜성에 의해 지구가 거의 멸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 혜성이 중력에 의해 태양으로 끌려들어갔더라면 그 결과 지구는 엄청난 화염으로 멸망했으리라는 것이다. 핼리도 같은 생각이었다. [...]

핼리와 뉴턴은 둘 다 1680년에 왔던 혜성이 다시 나타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결국 “그 혜성의 여파”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다(핼리의 계산에 의하면 그 혜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은 575년이었다). کن듀잇은 뉴턴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언제 이 혜성이 태양으로 떨어질 지 알 수는 없네. 어쩌면 그 혜성이 대여섯 바퀴는 더 돌고 난 후일 수도 있지. 그게 언제이건, 혜성이 떨어진다면 태양의 열은 치솟아 지구는 다 타버리고, 생명체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리자 자딘, 「기발한 탐구: 과학혁명의 구축과정」

(연세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 [출제 방향]

1. 우리 대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풍부한 독서와 문화적 체험을 쌓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에서 출제”한다는 서울지역 12개 대학의 합의(1997년 12월)에 따라 출제되고 있다.
2. 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평소에 고전을 많이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능력과 우리 주변의 사물과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3. 제시문은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사회에 관한 여러 책에서 고루 선정하였다. 최근 문자의 형태가 그림, 광고, 표 등 다양한 시각적 기호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은 이를 제시문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학생들이 단순한 독서만이 아니라 미술 등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명화를 제시문에 넣기도 하였다. 비록 제시된 책을 직접 읽지 않거나 그림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꾸준한 독서와 사고를 통해 다양한 지적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논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올해는 지난 몇 년간의 연세대학교 논술고사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나 느끼는 익숙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세상과 사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성과 창의성을 키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생각과 열린 마음, 그리고 성찰적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장래는 물론 본 연세대학교의 학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불안’이며, 본 문제는 제시문 속에 보이는 ‘불안의 생산성, 향존성’이 어떻게 사회문화의 역동성으로 작동하는가를 묻고

자 한 것이다.

불안은 다양한 사회제도 속에서 그 조건들과 함께 발현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과거의 개인이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의 흐름은 불안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 불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혹은 주관적인 의식세계 속에서, 때로는 종교 속에서, 심지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 속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불안의 시대’라고 지칭될 만큼 개인,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적인 ‘존재’ 자체로부터 사회구조적으로 강요된 개별화와 고립감, 심지어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금융자본의 투기와 시장의 교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나 환경 및 생태위험 등 불안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시대의 불안을 성찰하고,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인간에게 불안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를 해체하는 병리현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문명을 진보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안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와 결핍, 경쟁과 강박, 내재적인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였지만, 개인이나 역사의 변동(진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불안은 인간에게 환경을 변형시키고, 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하나의 증후이기도 하고, 새로운 욕구로 도전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항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유발한다.

본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불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수험생들에게 불안이라는 증후를 통해 사회변동의 흐름을 성찰하게하고, 더 나아가 불안이 개인이나 역사발전에 어떠한 에너지를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게 하였다. 기존의 불안에 대한 인식, 즉, 긴장과 갈등, 소외 등 병리현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켜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내재하는 불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전’을 다시 반추하게 될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보도자료: 출제위원장 김도형 교수(사학과)-

- <http://www.grrfrog.com> -

## 기출문제 5

제시문 (가)에 제시된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시문 (나)에 제시된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가) 그 다음의 순서는 희미한데 한 사람, 애국 애족을 들먹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 뒤에 등단한 사람이 그것을 꼬집었다.

“이제 막 말한 사람, 틀림없이 애국자입니다. 개장국 잘 먹거든요. 또 애족자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돼지 족발 잘 잡숫거든요.”

애국 애족한다는 사람이 가만있을 리가 없었다. 단상에 뛰어 올라 꼬집은 자의 목살을 잡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뒤에 알고 보니 사돈끼리하고 했다.

그 다음 차례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공출을 없애고 뺏을 없애고 하며 한창 신이 나게 없애 가는 통에 세금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미친 놈 다 보겠다.”

고 내 곁에 있던 영감이 통명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저편에서,  
“이왕 없앨 바엔 국회도 없애 버려라.”

고 고함이 터졌다.(중략)

“내 기호는 10, 보시오, 위에 막대기 다섯 개 밑에도 다섯 개, 노름꾼 문자로 5뽕이라는 겁니다. 열다섯 사람이 나왔는데 짓고뽕이 낄수로선 내가 최고 아닙니까. 노름으로 치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표를 찍어 주건 안 찍어 주건 나는 국회에 갈랍니다. 내 기술이 목공이오. 책상 하나 걸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톱 갖다 놓고 앉아 버틸 참이오.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작년 사범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푹 떨어졌거든요. 그래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 아이놈에게 짊어지우고 학교로 가서 교실 한구석에 톱 갖다 놓고 아들놈 보고 앉으라고 하고 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곤 동냥글 좀 배웁시다 했지요. 그랬더니 1주일 만에 보결로 입학시켜 줍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배짱으로 입학을 시키는데 백성을 돌보는 국회가 팔세를 하겠습니까. 허나 선거에 떨어진 놈이 국회에 가서 옥신각신한다면 우리 고을의 창피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창피가 없도록 미리 내게 표를 많이 던져 주십시오. 기호는 10, 5뽕이올시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며 곁에 있는 노인이 우리더러 들으라고 씨부렸다.

“저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낙선되면 우리 집 일이 말이 아니라면서 돌아댁긴다오.”

말이 내킨 참인지 그 노인은 또 이런 얘기도 들려주었다. 윤포상이란 입후보자의 아들은 운동원을 트럭에 가득 싣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윤포상 군을 국회에 보냅시다.”

하고 선창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감의 주석이 또 걸작이었다.

“국회의원도 좋지만 아들놈이 제 애비를 윤포상 군이라고 해? 후례자식 같으니……”

정견 발표회가 끝나자 나와 이광열은 그 노인을 막걸릿집으로 청했다. 거기서 별의별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들었다. 돈의 힘, 술의 힘, 온갖 수단이 쓰여진다는 얘기는 우울했지만 처음으로 겪는 선거라 그런 정도로 되어 가는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우리들은 웃었다.

“저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국회의 꼴이 뻔하기도 하지만.”

하면서도 이광열은,

“그러나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고 덧붙이길 잊지 않았다.

-이병주, 「관부연락선」-

(나) 근대 국가의 크기는 추첨 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 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숫자만큼의 개인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발의 한 방법인 추첨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 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첨이 아닌 선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추첨의 정치적 사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추첨은 근대 사회의 정치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추첨을 괴상한 관습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놀랍다는 말투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해



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현대 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중략)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a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였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 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 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 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 체제는 시민들이 미숙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 법정의 감시를 받았다.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임기 중에도 시민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행정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은 최고회의(ekklesiai kyriai)의 필수 안건이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만약 행정관이 투표에서 지면 즉각적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사건은 법정에 회부되어 무죄(그 이후에는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상식이었기에, 모든 시민들은 행정관이 되면 직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탄핵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소송에서 지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첨기계(kleroteria)에 넣어졌다는 사실이다.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후보로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이 이루어졌다.

-버나드 마넝 지음,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건국대학교 2005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논술문제)

### [출제 의도 및 해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선거’만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곤 한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고정 관념에 대하여 도전적인 무제 제기를 한 지문을 제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통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제도 및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및 유효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점검하는 데 출제의 주안점을 두었다.

문제는 제시문 (가)에 묘사된 선거의 양상을 고려하여 제시문 (나)에 제시된 ‘추첨’의 대안적 가능성 여부를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제시문 가운데 (나)에 초점이 놓이는 셈이다. (나)의 내용은 고대 아테네에서 시행됐던 추첨 제도의 요목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면밀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미숙하거나 무능력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사항은 ‘추첨’을 영똥하거나 초보적인 제도로 논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첨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할 때 치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문 첫머리에는 오늘날 배심원 선출에 추첨을 적용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그것이 현대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추첨을 한낱 지난날의 제도일 뿐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게 하는 한편, 오늘날 추첨을 적용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또는 없을까)를 고민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추첨의 대안적 가능성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논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에 대한 보조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제시문 속에도 몇 가지 신중히 고려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선거의 혼탁상과 난맥상이 묘사되어 있지만, 글 뒷부분에 ‘처음으로 겪는 선거’라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어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수험생들은 선거의 난맥상이 여전하며 본질적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또한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며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도 논지를 전개할 수가 있다. 이때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어떻게 개선 가능하다거나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요청된다. 지문의 내용 가운데 선거에서 ‘돈의 힘’ [금권]이나 ‘공약(空約)’, ‘비방 및 인신 공격’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될 터인바, 이러한 요소를 잘 짚어 내 논리 정연하게 주장을 풀어 나가면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이번 문제의 답안을 평가할 때 수험생이 추첨 제도의 대안적 가능성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여부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 방향의 논지 전개가 모두 가능하다. 관건은 적절하고 충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상대편 논지에 대한 적절한 반박 근거를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한 사항이 된다. 답안 가운데는 선거와 추첨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선거와 추첨을 함께 비판하면서도 다른 방안을 내거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답안에 대해서도 그 선택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살펴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쉽게 생각 못할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과 상관없이 일반론 차원에서 상투적 주장을 전개하는 글, 주어진 제시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글, 막연하고 어설피게 문제의 절충을 꾀하는 글 등은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 》 예시답안 1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면 누구나 선거를 생각하고 민주주의와 선거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거나 선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것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제도인지 의심하게 된다.

선거란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각자 1표를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나라의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 보이는 것처럼 선거에는 금력, 권력이 가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비롯하여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요서와 선동, 대중적 인기, 호기심, 무관심과 냉소 등의 상황적, 비합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고비용과 인력동원, 공약(空約) 남발은 과연 그것이 훌륭한 대

표자를 뽑는 적절한 절차인가 회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번거롭고 복잡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대표자나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선거와 추천, 임명, 시험선발, 추첨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 가운데 부작용이 가장 적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떤 것일까? 물론, 그것은 대표자가 맡은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그에 맞는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전문성보다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이 더 필요한 면이 있다. 사법 절차의 진행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의 결정을 훌륭히 내리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제시문 (나)에 제시된 추첨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요행에 기대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필요악적 요소로 인한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를 고려한다면 추첨의 방식이 더 간명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능력과 성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절한 심사(납세 의무 이행, 범죄 전력 여부, 병역 의무의 이행 등)를 거침으로써, 또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직무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수행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소명의식을 지닌 건전한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커 보인다. 추첨 제도의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예시답안 2

국가 권력은 크게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로 구분되며, 이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원리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복잡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의 선출에서는 선거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는 시험제도가 활용되지만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글 (가)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권 선거, 비방 선거 등 선거 제도의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글 (나)에서는 아테네의 행정관의 선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추첨 제도를 소개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민주적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테네의 행정관 선출 방법이 과연 오늘날의 상화에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아테네에서 추첨에 의한 대표자 선발은 아직 충분한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소규모 도시 국가라는 배경에서 한정된 공직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국제화·전문화·분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각 분야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아테네에서 행정관 추첨 제도가 사후 직무 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오늘날 그러한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사법 제도 개혁에서 논의되는 배심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금권이나 관권 선거 등의 부작용을 근거로 선거 자체의 합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선거의 문제점은 사회가 성숙과 함께 점차 개선돼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그 제도를 통해 민주적 대의 정치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하루아침에 추첨과 같은 다른 제도로 대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배심원 구성 등 일부 영역에서의 조심스러운 적용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폭넓은 적용에는 극히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필요한 모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안정의 바탕 위에서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 예시답안 3

현대 사회의 주류 정치 제도인 대의 민주주의에는 한 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선거 제도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선거 제도를 인류가 개발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표 선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선거의 실상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간단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는 선거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한때의 혼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인신공격과 선심성 공약, 엄청난 선거 비용 등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가 재려고가 학맥 등을 갖춘 일부 기득권층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일반 시민은 대표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정치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문 (나)에 제시된 고대 아테네의 추첨 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대안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의 우려와 달리 미숙자나 무능력자의 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지니고 있는 효율적인 선발 제도였다. 공직에 나설 의사를 가진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는 한편으로, 대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상시적 견제와 평가가 가능했던,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했던 대의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은 아니다. 고대 사회와는 크게 다른 현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보완적 적용이 필요하다. 그 보완책은 여러 맥락에서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직무에 맞추어 추첨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특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임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 성격에 따른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사회 제도든 머물러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사회적 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거에 고비용·비효율의 요소가 있고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추첨 제도는 그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http://www.unidream.co.kr>-

## 기출문제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주장한 이후 이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어, 약 100년 전에 톰슨, 러더퍼드, 보어 등에 의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원자 모형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뉴턴 이후 거시적인 세계를 설명

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고전역학 이론이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자, 원자핵 등 미시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 개발되었다.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 양자역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불확정성 원리’이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도구가 정밀하지 못하거나 측정방법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측정대상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즉 위치와 속도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 전자로부터 반사되어 나온 빛을 관측해야 한다. 이 때 파장이 짧을수록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를 보려면 파장이 매우 짧은 빛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파장이 짧은 빛은 그만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와 충돌할 때 전자의 원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킨다. 또한 전자의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도록 낮은 에너지를 가진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해야 하지만, 파장이 긴 빛으로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와 속도 중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것에 대한 측정은 더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이 공로로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text{속도의 불확정성}) \times (\text{위치의 불확정성}) \geq h$$

여기서  $h$ 는 플랑크 상수로서, 그 크기가  $10^{-34} \text{ kg} \cdot \text{m}^2/\text{s}$ 인 매우 작은 수이다.

[문제 1] 제시문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한편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정의하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시오. <7~8줄

(151~200자), 15점)

[문제 2] 제시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의 측정값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확정적일 수 없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속도측정기로 단속에 걸릴 경우 아무도 불확정성의 원리를 내세워 적발된 속도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7~8줄(151~200자), 1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윈은 약 5년 동안 비글호에 승선하여 세계 곳곳을 탐험하면서 동물들의 습성과 생태를 관찰한 연구 결과로 저술한《종의 기원》에서 이전의 진화론을 진일보시킨 ‘자연선택설’을 발표하였다. 다윈은 이미 맬더스가《인구론》에서 주장한 “모든 종은 억제되지 않는 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개체만이 생존하므로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평형 상태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은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번식이 가능하게 하고, 열등한 개체들은 도태시킨다.”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 가설이 바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에 대한 것이다. 다윈은《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생존 경쟁은 변이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인위적인 선택의 원리가 자연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나는 자연선택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변이가 일어난다면, 다른 개체에 비해서 생존과 출산에서 매우 불리한 변이체는 엄격히 소멸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유리한 변이체는 보존되고 불리한 변이체는 도태되는 것을 나는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전의 여러 학설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반세기 전에 최초로 생물체의 진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들 수 있다. 라마르크가《동물철학》에서 주창한 용불용설은 생물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여 결국 없어지게 된다는 학설이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진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떤 동물의 기관도 다른 기관보다 자주 쓰거나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 기관은 점점 강해지고 사용된 시간에 따라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서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차차 그 기관은 약해지고 기능도 쇠퇴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져 마침내는 거의 없어지고 만다. 나아가 한 세대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형된 형질이 암수에 모두 존재할 경우 그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진다.”

라마르크와 다윈의 학설에서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라마르크의 경우에는 한 세대에서 획득된 우수한 형질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윈의 경우에도 역시 자연선택에 따라 보존된 형질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오스트리아에서 멘델이 유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연구 결과는 1900년대에 와서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진화와 유전의 원리를 통합하고 나서야 형질의 변화가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지, 또 자연선택의 작용 대상인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3] 포유류는 모두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기린의 목은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길다. 그러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목이 길고 짧은 기린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모든 기린의 목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길게 진화된 과정을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입장에서 각각 설명하고, 두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시오. (18~20줄 (426~5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에 들어와 급격히 발달한 생명공학은 농림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의 분야

에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생산량 증대를 비롯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육종법으로는 발현 불가능한 특정 형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이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서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것보다 차원이 높은 선택적 육종법이라 할 수 있다.

식물의 세포내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화분교배를 통한 수정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품종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전자까지도 결합되어 열성의 품종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암·수꽃의 개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나무와 같이 다년생 식물의 경우 꽃이 피는데 대체로 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단기간에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여 상품화한 첫 식물은 토마토이다. 일반 토마토의 경우에는 열매가 성숙되면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나, 유전자 조작 토마토는 열매의 성숙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성숙 속도를 지연시켜서 수확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콩은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농약에 선택적으로 강한 품종이다.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 잡초는 제거되지만 유전적으로 조작된 콩은 내성을 띠는 선택적 특징을 갖게 된다. 나무의 경우에도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나무, 사막과 같이 수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 반딧불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무 등의 고부가가치 자원이 개발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상품화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콩 중에서 80% 이상이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식탁은 유전자 조작 콩을 비롯하여 각종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수확 생산을 통하여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물을 인간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기피하거나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 4] 전통육종 방법의 단점을 3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 단점에 대해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12~14줄(276~350자), 25점>

[문제 5]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물을 자연환경에 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8~10줄(176~250자), 15점>

(동국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자연계 논술고사)

### [출제 의도]

이번 자연계 학업적성 논술고사에서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문제에서는 자연계열 교과목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암기위주의 지식평가를 지양하고, 수험생의 이해력, 창의력, 판단력을 평가하는 논술시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제시문에 비교적 최근 이론인 물리내용과 고전에 해당하는 생물문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수험생들의 이해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 제시문은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론을 평이한 용어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이론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해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제시문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론 두 개를 원전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역시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이 이해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생물과 자연자원을 기초로 하여 수험생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이 제시문의 주요내용은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을 식물의 세계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수험생들의 논리적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였다.

### [문제 해설]

#### [문제 1]

제시문에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다.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물리 이론(불확정성 원리)에 관하여 매우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읽고,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문제 2]

‘문제 1’ 과 동일한 제시문을 읽고 불확정성 원리가 전자와 같이 매우 작은 입자에 적용할 때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큰 물체에는 별 의미가 없음을 이해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험생은 제시문에 제공된 물리적 설명(전자파가 질량이 큰 차의 운동량에는 거의 영향 주지 못함.)을 통해서나 또는 부등식 형식으로 제공한 상관관계(플랑크 상수와 같이 작은 수를 수 미터로 나누면 거의 영에 가깝다.)를 통해서 자동차의 속도에 관한 불확정성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있어야 한다. 또,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요구하는 분량의 답을 작성하는 능력도 보여야 한다.

#### [문제 3]

제시문에 진화의 상이한 해석인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설에 대하여 원문을 인용하면서 두 이론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설명하였다. 즉 다윈은 한 종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수명이 길고 자손도 많이 생산하므로 후손 대에서는 그 유리한 형질을 가진 집단이 월등히 많아져 결국 그렇지 못한 집단은 도태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라마르크는 각 생물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계속 사용(用)하여

강화되는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 형질은 사용하지 않아(不用) 약화되고, 그렇게 강화된 유리한 형질이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전해진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문제 3에서는 앞 두 문제와 달리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론을 원문에 나오는 전문용어와 표현방법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역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기린의 긴 목을 소재로 선택하여 수험생들이 이해한 두 이론의 내용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두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 소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험생은 기린의 목을 소재로 두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다윈의 자연선택에 관한 내용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문제 4]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 및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묻기 위해 본 문제를 출제하였다. 요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사가 속속 보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사가 배아 줄기세포를 비롯하여 인간 또는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문제에서는 우리의 의식주 해결의 보고인 식물을 대상으로 신종 육종을 위해 생명공학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기존의 전통 육종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의 활용범위를 논리적으로 전개토록 하였다. 이는 생명과학분야에서 생명공학 기술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강조하여, 국가의 최첨단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문제 5]

‘문제4’와 같은 제시문으로, 유전자 변형 식물체가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초 지식을 토대로 생태계의 순환구조에서 외래 유전자의 표류를 통한 생태계 교란 현상을 묻고자 하였다. 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쉽게 작성케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필요하지만, 수험생들이 식물을 생산자로서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종자 수정과정에 기초지식이 있을 경우 답안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모범 답안]

※ 유의사항 : 여기에서 제시한 답안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형식의 답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번 문항처럼 여러 실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나 4번처럼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증하는 경우엔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해 주었으므로 요구하는 분량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분량을 지켜서 답해야 한다.

## [문제 1]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는 동시에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항상 영이 아닌 오차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즉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해야 하지만 파장이 짧은 빛은 높은 준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교란시켜 원래의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된다.(공백 포함 192자)

## [문제 2]

자동차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 범위는 최소한 차 길이인 수 미터는 될 것이다.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는 관계식에 의하면 속도의 불확정성은 플랑크 상수 정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속도측정기로 측정된 속도의 불확정성은 무시할 만큼 작을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공백 포함 179자)

또는, 속도측정기가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파가 자동차에 충돌하여도 수백 킬로그램인 자동차의 속도(또는 운동량)에는 무시할 만한 변화밖에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의 경우 속도측정기에서 발사된 전자파는 측정대상인 자동차의 속도에는 무시할 만한 변화밖에 일으키지 못한다.(공백 포함 169자)

## [문제 3]

라마르크의 이론에 따르면 원래 기린의 목이 길지 않았지만 좀 더 높은 가지에 있는 나

못있을 때 먹기 위해 계속 목을 뺏는 노력을 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목이 조금씩 길어졌다. 이런 과정이 여러 자손 대를 걸쳐 전달된 결과 현재와 같이 모든 기린의 목이 다른 포유동물들보다 훨씬 길어졌다. 한편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 조금이라 긴 목을 가진 기린은 나뭇잎을 따 먹는데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기린은 다른 기린보다 튼튼하게 자라 새끼도 많이 낳았고, 목이 긴 형질을 물려받은 기린은 또 목이 짧은 기린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 더 많은 새끼는 낳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린 집단은 목이 긴 기린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두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동시대 기린의 목이 같이 길어졌다고 설명하는 반면, 후자는 목이 조금이라도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자식을 많이 낳는 과정을 여러 세대 반복하면서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공백 포함 494자)

[문제 4]

전통육종 방법의 단점으로, 첫 번째, 화분교배 시 암수 배우자의 모든 유전자가 결합되어 불필요한 유전자가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 열성품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꽃이 핀 후 배우자를 얻는 시간이 장기간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육종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비 선택적인 육종방법으로 특정한 형질의 발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개화에 관여하는 유전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우성유전자, 병충해, 제초제 저항성 등의 특이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발현시켜 활용가능하다.(공백포함 304자)

[문제 5]

유전자 변형 식물체를 자연환경에 심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도입된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입된 유전자가 병충해 저항성을 띠고 있을 경우, 꽃가루 이동을 통한 기타 식물로의 유전자 이동, 생태계의 먹이사슬 과정에서 식물에 도입된 유전자의 특성이 식물을 먹고사는 해충, 해충을 먹고사는 조류, 조류를 먹고사는 포유류 등으로 이동하여 생태계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공백포함 225자)

-<http://www.unidream.co.kr>-

## 기출문제 7

I. 제시문 (1),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II. 제시문 (1), (2), (3)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1) 한국전쟁 기간 중에 나는 종군하여 철원에 간 적이 있었다. 격전이 막 끝난 철원 시기는 완전 폐허였다. 길만 훤히 트인 시가지 도처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 오르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걸던 나는 문득 타 죽은 닭을 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닭은 선 자세로 타 죽어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무심코 발로 닭을 건드려 보았다. 그랬더니 그 닭의 날개 밑에서 병아리 몇 마리가 빼악거리며 나왔다. 죽은 닭을 버려둔 채 종종거리는 병아리를 보며 나는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 억만 겁의 흐름 속에서 어렵고 어려운 인연을 얻어 태어난 생명은 그 태어남의 영겁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무상(無常)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상 영겁의 흐름도 결국은 무상의 연결을 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원과 무상은 서로 별개인 채 대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는 무상하고 영원이란 그 많은 무상들이 통섭(統攝)되어 이루어진다.

무상들이 이어져서 영원을 기약한다고 할 때, 각각의 무상이 시공간 상에서 차지하는 기능은 바로 영원과 맞먹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원이란 무상과 무상이 앞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상과 무상의 전후 연결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지속적 구분에다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식과 생존이라는 실재에서 무상과 무상의 연결은 앞서 태어난 생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의 연속이므로 생명은 어디까지나 고립된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나와 남이 만나는 교섭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이 무한으로 연결되는 길은 우선 남녀가 결합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열리게 된다. 무상과 무상은 시간적 전후 계승에 앞서 공간적인 자타(自他)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으로 이룬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자녀는 현재를 미래로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성장하여 저마다 짝을 찾아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로 다가와 끊임없이 생을 이어간다. 따라서 생식이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자기의 희



생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그러한 자기희생을 겪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미래생(未來生)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한한 자기는 자녀를 통해서 무한하게 존속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현재생(現在生)에서 자녀의 미래생(未來生)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 강인건실(強韌堅實)한 것도 아니요, 더욱이 어린 생명은 그 스스로 생을 영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부모한테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희생이란 생식에서 그치지 않고 보육(保育)까지 연장된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희생을 발판으로 현재성을 굳건히 점유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 자녀가 현재의 점유자가 되었을 때 부모는 과거로 밀려가고 그들의 무상은 끝을 맺는다.

(2) 개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개체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현상을 일컬어 이타적이라고 한다. 생물학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을 자연선택의 결과로 본다. 자연선택에 의한 어느 개체의 자손 감소는 같은 집단 내의 다른 개체들의 자손 증가를 촉진한다. 따라서 어느 개체의 자손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므로 이타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체의 희생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범위는 가깝게는 친족으로부터 멀게는 그 친족을 포함하는 종족까지 확산된다. 친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혈연관계에 있는 어느 개체의 희생은 친족의 내적 결속을 강화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다. 반면에 그 희생은 혈연이 아닌,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친족의 이기주의에 기여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적 관점을 취하는 근래의 유력한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한 개체의 희생이 미치는 수혜의 범위가 혈연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포괄적인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다만 희생하는 개체가 수혜자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비례하여 이타적 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체의 희생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 이기적으로도 이타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혈연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대해 이기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희생이 유전자라는 포괄적인 시각을 취하면 이타적이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개체의 이타주의를 통해 존속하며 그로써 같은 유전자를 보유한 종족의 번식이 가능해진다.

(3) 포식자를 발견한 땅다람쥐는 예외 없이 뒷다리로 서서 소란스러운 경고음을 낸다. 침입자의 주의를 끌어 주변의 다른 땅다람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고음을 낸 땅다람쥐가 침입자에게 잡아먹히는 대가로 다수의 다른 땅다람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심지어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어린 땅다람쥐조차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 죽음을 자초하는 땅다람쥐의 행동은 개체 선택의 관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땅다람쥐가 경고음을 내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개체의 희생을 통해 같은 유전자를 지닌 종족의 보존과 번식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당까마귀의 서식지는 유라시아 대륙에 두루 분포한다. 당까마귀는 군거성이 강해 무리를 지어 살면서 목초지에서 유충을 잡아먹는다. 해마다 봄이 되면 당까마귀 떼는 산란과 부화를 위해 높은 나무 위에 집단적으로 둥지를 튼다. 다수가 군락을 이루어 살면서도 당까마귀들은 별다른 충돌 없이 서로서로 잘 지낸다. 당까마귀 떼가 둥지를 튼 숲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란스런 지저귀이 쉼 없이 들린다. 당까마귀들이 장난치고 짝을 짓기 위해 깹깹대며 서로를 불러대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 사람들은 당까마귀 떼를 ‘까마귀 의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말 의회라는 이름에 합당할 만큼 당까마귀 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당까마귀들은 최적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산란의 양을 조절하기까지 한다. 같은 무리 속의 모든 당까마귀들은 마치 의논이라도 한 듯 그들의 산란능력보다 적은 수의 알을 낳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최적의 개체 수가 유지됨에 따라 당까마귀가 굶주림으로 폐죽음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자연계 언어논술)

### [논제 파악하기]

고려대 자연계 언어논술은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이기심 혹은 이기적 행위와는 반대되는 ‘이타적 행위’ 혹은 ‘이타적 희생의 의미’를 주제로 출제되었다. 개인과 집단의 규범, 개인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는 우리가 행동하는 데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쟁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들이 필요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공동체적 문화와 가치들이 개인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 국가나 ‘우리’의 가치보다 ‘나’ 혹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우선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전체로 봐도 합리적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왔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좋은 규범과 제도들 속에도 문제는 있다. 나의 이익 이외의 다른 가치들에 무심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제하고, 집단적 가치의 힘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 본능을 조절하기 위한 힘으로서 이타적 자아 혹은 이타적 희생을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한 방식 혹은 규범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자연계 언어논술 문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 [제시문 분석]

세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 주제를 추론하는 데 중요한 근거는 제시문(3)의 땅다람쥐와 당까마귀의 예시이다. 이와 연관되어 제시문 1, 2에서는 이타적 희생의 의미를 한국 전쟁 중의 일화나 집단에서 개체들의 이타적 희생을 통한 종족 보존 방식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 제시문 (1) - 희생은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고귀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고려대 명예 교수인 김충렬 교수의 『유가윤리강의』에서 발췌한 글이다. 글의 저자는 한국전쟁에 종군하여 철원을 지나다가 우연히 선 자세로 불에 타 죽은 닭을 보게 되는데, 그 어미닭 날개 밑에서는 새끼 병아리들이 살아 있었다. 이를 보고 저자는 이 세상 생명들은 유한하지만 그 생명들은 죽음과 태어남의 영겁 회귀를 거듭하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발견한다. 또한 생명은 따로 각각의 개체로 단절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시공간적인 생명의 연속과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의 연속이 무상(無常)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모는 생명의 연속을 위해서 희생한다. 마지막 문장 “부모의 희생이란 생식에서 그치지 않고 보육까지 연장된다.”와 “자녀가 현재의 점유자가 되었을 때 부모는 과거로 밀려가고 그들의 무상은

끝을 맺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상한 생명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부모의 희생은 필연적이지만, 이러한 이타적 희생은 유한한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가져오므로 고귀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 제시문 (2) - 개인의 이타적인 희생은 전체의 이익을 만든다.

개체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현상을 생물학의 관점에서 검토한 글이다. 첫 단락에서 “생물학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을 자연 선택의 결과로 본다.”라는 주장을 보자. 개체의 이타적 행동은 종족의 보존과 번식이라는 자연 법칙에 요구되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고, 이러한 이타적 행동이 있어야만 개체는 전체 속에서 보존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희생하는 개체의 혈연 관계에 따라 희생이 가져오는 수혜의 효과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게는 개체의 희생이 친족 이기주의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관점을 취할 때에는 개체의 희생이 가져오는 수혜의 범위는 친족을 넘어서 전체 종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체의 이타적 희생은 궁극적으로 종족 전체에 대한 이타적 행위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 ▣ 제시문 (3) - 개체의 이타주의는 종족의 차원까지 확대된다.

개체의 이타적 희생이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 종족의 차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땅다람쥐와 당까마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땅다람쥐가 경고음을 내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과 당까마귀 떼가 산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집단의 개체수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나아가 굶주림으로 폐죽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종족의 번식과 보전을 위한 자연 세계의 이타적 희생이라는,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제에 대한 추론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시문 요약 (1), (2) 요약하기]

### ▣ 제시문 (1) 요약

전제 1.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겁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무상들이 통섭되어 영원이 이루어진다.

전제 2. 만약 전제 1과 같다면, 수많은 무상들의 연결은 부모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의 연속이므로 모든 생명은 고립된 존재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현재성의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가 성장함으로써 부모의 무상은 끝을 맺는다.

태어나는 생명들은 영겁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무상들의 통섭으로 영원을 이루며, 부모로부터 태어남으로써 생명의 연속은 모든 생명의 현재생과 미래생의 연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는 성장하고 부모의 무상은 끝을 맺는다.

### ▣ 제시문 (2) 요약

전제 1. 생물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은 이타주의로 이해된다.

전제 2. 집단을 위한 이타적 희생은 혈연관계에서 볼 때 다른 집단들에 대한 친족 이기주의로 비치지만 종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결론] 따라서 유전자는 개체의 이타주의를 통해 존속하며 같은 유전자를 보유한 종족의 번식까지 가능해진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 즉 이타적 행동은 자신의 친족 집단의 이익이라는 친족 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 같은 유전자를 보유한 종족 전체의 보존과 종족의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출처 : 매일신문(2006년 2월 21일), <http://www.unidream.co.kr>-

**기출문제 8** ※ (가)글에 제시된 분노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여 (나)글의 순정공과 (다)글의 달라이 라마가 분노에 대응한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시오.

(가)

옛날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제력과

초연한 태도를 강조하였던 스토아학자들은 분노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였다. 불확실하고 위험이 가득한 세계에서 걱정을 차분하게 다스려야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네카는 분노를 “모든 감정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광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인 아레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분노한 사람은 맹목과 어리석음에 휩싸인다. 이성이 달아나고 그 빈자리에 분노가 들어서면 인간의 모든 지성은 한꺼번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분노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 감정으로, 현명하게 표출되면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격정에 사로잡히기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분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노의 무조건적인 억제가 아니라 적절한 표출이 도덕적·사회적 삶의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물론 분노가 이성의 독을 무너뜨리고 파괴적 결과로 치달도록 방치해두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선하게 살 줄도 모른다.”는 어떤 현대 사상가의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 A. C. 그레이링의 『존재의 이유』에서 발췌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나)

성덕왕 시대에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갈 적에 가다가 바닷가에 머물러서 점심을 먹었다. (중략) 순조롭게 이틀 길을 갔는데 또 바닷가에 정자가 있었다. 점심을 먹으려고 머물렀는데 바다의 용이 홀연 부인을 나꿔채서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순정공이 옆어지고 자빠지며 발을 굴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해 주기를,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입은 쇠도 녹인다고 하였는데, 이제 바다 속 미물이 어찌 여러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境內)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게 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순정공이 그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치었다.

순정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으니 말하기를, “칠보(七寶)의 궁전에 먹는 것이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해서 인간 세상의 불에 익힌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또한 부인의 옷에는 이상한 향기가 배어 있었는데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로(水路)는 자태와 용모가 매우 뛰어나서 매번 깊은 산이나 큰 물을 지날 적마다 거둬 신물(神物)들에게 붙들려 가곤 했다.

여러 사람들이 <해가(海歌)>를 불렀는데 노랫말에 이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 남의 부녀 빼앗은 죄 얼마나 크냐? /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으면, / 그물을 넣어 잡아다가 구워서 먹으리라.” 하였다.

-『삼국유사』에서 발췌

(다)

달라이 라마가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티베트 소년은 당시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중국 헌법상으로는 아직 처벌받을 나이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고,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인들에 대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중국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장교가 쇠몽둥이를 집어 들고 그 소년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죽인 그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 장교는 어차피 죽을 운명인 소년을 쇠몽둥이로 때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건장한 어른들이 죄 없는 어린 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그 끔찍한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물었다.

“그 티베트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중국인에 대한 당신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상호의존’의 개념이 이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처음에 나는 화가 났지만, 곧 그 장교에 대해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장교의 행동은 그 자신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기는 그의 사상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평가 기준에서 보면 반혁명분자는 악과 같은 것이고,

그런 악을 몰아내는 행위는 선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면 분노 대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은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저것 때문에 일어나고, 저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나서 달라이 라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소년을 때린 중국 장교를 만났다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내게 총이 있었다면 어찌면 그 장교를 쏘았을지도 모르죠.”

달라이 라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불교 수행을 했는데도 그럴까요?”

“가능하죠.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행동이 먼저 앞서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 오지요.”

- 달라이 라마와 빅터 채의 『용서』에서 발췌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건국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분노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부딪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수많은 갈등들이 대두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분노란 감정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다. 이번 논술은 분노의 해결 방식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통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지문 (가)는 분노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스토아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참조하여 (나)와 (다)의 구체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지문 (가)는 A.C. 그레일링의 『존재의 이유』에서 발췌하였는데, 이 제시문은 분노는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주요인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스토아학과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거론하며 설명하고 있다. 스토아학파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 세계는 불확실하고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에 걱정을 차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적극적 감정이므로 현명하게 표출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는 분노가 이성의 상실과 파괴적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사회적 삶의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문 (나)는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조」에서 발췌하였다. 지문 (나)는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이 아내를 빼앗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나타나 있다. 강릉으로 가던 길목 어느 바닷가에서 순정공은 바다의 용에 의해 아내를 빼앗겼다. 이에 망연자실하던 중 한 노인이 나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다시 아내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말을 따라 했더니 과연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지문 (다)는 달라이 라마와 빅터 찬의 『용서』에서 발췌하였다. 이 지문은 누군가에게 들은 한 티베트 소년에 대한 사건을 달라이 라마가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과 티베트 분쟁 중에 발생한 한 중국 장교와 티베트 소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달라이 라마는 이념적 신념에 의한 폭력에 분개하면서도 그 폭력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 이유를 그는 상호의존개념에 대한 그의 심오한 깨달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문 (가)의 분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지문 (나)와 (다)에서 제시된 분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바르게 파악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수험생 본인이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를 논리적이면서 창의적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출문제 9** 제시문[A]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문 [B]의 내용과 연관지어 논하시오. (400 ~ 500자)

[A] 속도는 고도로 정치적이다. 어떤 사람의 속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자동차에 의해 보행자와 자전거 탄 사람의 가던 길이 차단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 속도를 넘어서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고 일리치는 말한다. 영국에서 도로 건설은 자동차 운행자의 시간가치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즉 자동차 운행자의 시간은 시간당 3만 원의 가치로 환산되면서도, 자동차 도로들이 파괴하는 풍경의 시간에는 그와 같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동차 도로 위에 있다면 당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차창 밖 풍경의 섬세한 변화는 속도와 함께 사라진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욕구에 호소하면서도 정작 그 반대의 것—단조로움—을 제공하는, 속도의 기만술의 하나이다. 패스트푸드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고 아우토반이나 비행장은 어디나 천편일률적이다. 속도는 멀고 가까움의 개념을 오염시키며, 그 결과 교통철학자 존 화이트레그가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된다. 관광지의 균일성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느낌,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긴 시간은 “시간상의 불리한 조건을 대가로 해서 장소의 고유성과 문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이 그리피스, '세계 밖의 시간'

[B]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언제나 시계를 가까이 두고, '시간이 자신을 쫓고 있는 듯' 살아가는 사회인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경제와 산업, 비즈니스의 시간이 현대인의 생활을 제어하는 주요한 틀이다. 그것은 경제인이나 비즈니스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가릴 것 없이 동일한 시간의 틀 속에 자신을 두고 성장과 효율성, 생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사회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생산성을 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이미 생산적인 시기가 지나버린 늙음은 쇠약의 프로세스로 여겨지며, 노약, 노추, 노쇠와 같은 말의 이미지가 보여주

듯이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며,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것,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진다. 와시다에 따르면, 이렇게 ‘어쩐지 싫은 생각이 드는’ 노인을 어떻게든 사회의 틀 속에 무난하게 넣기 위해 사랑스럽고 귀여운 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과는 거리가 있는 유아나 아이들을 사랑스러움과 귀여움 속에 가두려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을 사회의 ‘현역’ 이전 혹은 이후라는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강요한다.

-쓰지 신이치, ‘슬로 라이프’

(서강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자연과학, 공학부 논술고사)

### [제시문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당혹스러운 문제다. 제시문 [A]는 속도의 정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문 [B]에서 왜 노인과 아이의 귀여운 이미지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로 연결되는지, 이 문제가 과연 자연계 문제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제시문 둘 다 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 낯설다.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제시문에서 출발해 출제자가 묻는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시문을 읽을 때는 우선 자연계열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학적이어야 하고 이 같은 이해의 한계나 오류를 지적하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 자연과학적 시간이란 시계에 의해 측정되는 시간이고, 세계 표준으로 확립된 시간이다.

또 제시문 [A]와 [B]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문 [A]에서 제기된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을 어떻게든 제시문 [B]와 연관시켜야 한다.

### ▣ 제시문 [A]

첫째 단락의 요지는 속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는 예컨대 자동차의 빠른 주행을 위해 보행자가 파란 신호를 기다리거나 육교를 건너야 하는 체계다.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마을을

두 동강 내기도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없다. 자동차의 속도 보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속도가 가져다주는 시간 절약에 의해 정당화되어왔다. 그만큼 빨라진 효과가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일일 생활권이 되어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손해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천성산의 도롱뇽이나 고속철도 역에서 소외된 도시들, 없어진 마을들처럼. 그래서 속도는 정치적이다. 권력을 잡는 집단이 있으면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이 있는 것처럼, 속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이라는 말은 둘째 단락에야 나온다. 둘째 단락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된다. 가령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로 여행할 때 바깥 풍경이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빨리 가는데도 운행 시간은 아주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변화의 욕구에 호소하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조로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이’의 고유한 공간은 사라지고 출발지와 목적지만 남는다.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이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장소들의 독특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붓짐을 메거나 달구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여행해 보라. 가는 도중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고유한 풍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독특한 문화를 만난다. 조선 시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던 선비들은 호랑이나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주막에 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길 가다 어두워지면 누군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도 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런 이야기들은 민담으로 설화로 전승되었다.

원래 ‘느리거나 빠른 정도’가 속도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해이지만, 오늘날엔 전적으로 빠름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의 속도가 바로 장소의 고유한 의미를 앗아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부분에서 저자는 다음을 제안한다. 시간상 불리할지 몰라도 장소의 고유성과 문화를 보호하는 느리고도 긴 시간을 말이다.

## ■ 제시문 [B]

첫째 단락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 성찰한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시계로 잴 시간 즉 과학적으로 규정된 시간이다. 이런 시간 덕분에 우리 모두는 노인이나 아이까지도, 동일한 시간의 틀 속에서, 속도 즉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하고, 목적지에 빨리빨리 도착해야 한다. 취업 제한 연령 이전에 취업해야 한다.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백수로 오래 지내면 일할 자질을 의심받는다. 개인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간의 틀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장소의 고유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둘째 단락의 요지를 보자. 위의 기준에서 노인은 생산적인 시기를 지나온 쇠약의 단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지 싫고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의 노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TV드라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노인들은 주책도 잘 떨고 애교도 잘 부린다.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아니 생산성에서 거의 배제된 노인은 귀엽기라도 하면 봐줄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인의 고유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둘째 단락에서 '장소의 고유성' 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노인의 진정한 노인다움, 아이의 진정한 아이다움이다. 동일한 시간의 틀 속에서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는 진정한 '~다움' 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인다움' 이 일은 못하지만 귀여운 노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노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해주기보다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시간의 바깥에서 물러나 있게 하기보다는, 그 느린 시간을 존중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고유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아이는 단지 미래의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이 고유의 시간을 존중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한 마디로 동일한 속도에 모든 사람들을 편입시킨 현대 사회는 각 세대의 고유성을 상실

하게 만들었다. 사회는 시간에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껏해야 허구적인 이미지만을 강요할 뿐이다.

### [예시답안]

우리 모두는 시계로 켜 획일적인 시간에 쫓겨 ‘더 빠르게’를 선호하며 살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성장, 효율성, 생산성은 사회와 개인, 노인과 젊은이와 아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속도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고속도로나 고속전철 덕분에 더 빨리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가는 도중의 여러 장소의 고유성은 사라진 채 단조로운 풍경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만국 공통의 단일한 시간의 틀 속에서 생산적인 시기가 지나간 노인은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노인을 어떻게든 사회가 인정하는 시간의 틀 속으로 밀어 넣어 사랑스럽고 귀여운 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제시문 [A]에서 말한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노인이 가진 고유의 시간을 인정하고, 속도를 쫓아가지 않는 느낌의 시간을 통해서만 장소의 고유성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

-출처 : 매일신문(2006년 2월 1일), <http://www.unidream.co.kr>-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은 “한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만드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왕님이시여! 이토록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한글이 처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 저희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외래어에 쫓겨 안방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형세가 되었는데 하면 무분별한 남용과 오용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말과 글들이 부지기수로 떠돌아 다닙니다.  
(중략)

세종대왕님! 말과 글도 어찌면 공기나 물과 같아서 당연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별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의 오염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말과 글의 오염과 훼손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공기나 물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듯 말과 글은 민족의 얼과 직결되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최근 외솔 최현배 님의 친필 방명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글 한 대목이 서늘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한글이 목숨이다.” 우리들이 한글을 왜? 무엇 때문에? 굳건히 지켜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쟁쟁한 울림장이 아닌가 합니다. 559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대왕님의 커다란 업적을 기리며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한글은 한국인 개개인의 목숨이자, 겨레의 목숨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글을 맺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주현 《세종대왕님 전상서》, 강원일보, 2005. 10. 08-

[나] 요사이 우리 사회는 터진 붓물처럼 마구 흘러드는 외래 문명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세계화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얼마 전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언어들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 언어로 세운 문화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토록 긍지를 갖고 있는 우리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략)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울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참개구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최재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기출문제 10**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천 방안 하나를 들어 논술 하시오.

〈9~10줄(201~250자), 1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라에서 돈을 쓰는 것은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하여 당연한 처사지만 정부로서는 부득이한 일이기도 하다. 법률이 공평하게 시행되고 교육이 골고루 베풀어져 풍속이 순후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의 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집을 짓기도 하고, 옷이나 음식을 나누어 서로 돕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풍속만 믿고 가난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한 직분을 행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개인적인 재력으로는 사정이 미치지 못해서 구제하는 방책이 때를 놓치는 적도 있으며, 때를 놓치는 염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임무를 감당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일을 담당하여 전국적인 세금으로 집행하고,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구제소가 있으면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것도 좋다. 구제하는 대상을 들자면 부모가 없는 고아, 집이 없는 홀아비나 과부, 빌어먹는 장애인, 생계가 없는 병자 및 교육받지 못한 빈민 등이다.

이와 같이 남에게서 구제받기를 바라는 자라도 모두 폐인은 아니다. 그 가운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도 있고, 재주가 뛰어난 자도 있으며, 또 이 두 가지 일을 못하지만 가르치면 할 수 있는 자도 있다.

-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나] 한 인간의 효율성은 그의 신체적 조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나 의지와도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략) 사고와 건강을 위한 보험에 대한 파괴주의적 관점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도가 사고와 질병을 촉진시키고 건강회복을 방해하며 질병과 사고를 초래하는 기능적 무질서를 매우 자주 조성할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고 장기화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략)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파괴해 버림으로써 사회보장제도는 질병과 일에 대한 무능력을 창출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노이로제인 불평하는 습관이나 다른 형태의 노이로제를 생산해 낸다. (중략) 그것(출제자 주: 노이로제)은 마치 사회제도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질병을 증식시키고 장기화하며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는 보험에 대한 노이로제를 위험한 대중적 질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확대하고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한 그 제도는 확산될 것이다. 어떠한 개혁방안도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함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한스 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다] 전통적 좌파에게는 핵심적인 것이 사회정의이며, 전통적 좌파가 재정제도 또는 더 일반적으로 경제제도를 토의할 때는 재분배와 사회정의의 기준 위에서 주로 토의한다. 그러나 전통적 좌파는 반쪽의 이론일 뿐이다. 왜냐하면 좌파는 사회정의 면에서는 잘하지만 경제적 경쟁면에서는 잘못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도 또한 반쪽의 이론일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경쟁면에서는 잘하지만, 반대로 사회정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3의 길 정치는 이 두 개를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이다. 정책차원에서 이들을 합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길은 재정정책의 사회적 함의를 보고 사회정책의 재정적 함의를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조세제도를 변경시킬 때, 예컨대 사회를 더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여부와 관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업창출과 다른 경제적 기준과도 관련시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직업창출 기회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디자인된 경제정책을 도입할 때에는 그 정책의 사회적 영향, 즉 그 정책이 사회정의에 대해 갖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략)

제3의 길 정치의 핵심적 강조점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실업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고용문제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이다. 경제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테스트

트하는 더 좋은 방법은 실업률이 아니라 그 경제가 창출하는 고용률이다. 유럽에서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처럼 내가 언급한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력의 75~78%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은 80%에까지 달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일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고용률이 단지 61%일 뿐이다. (중략)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특히 성공적인 국가에서는, 피동적인 복지혜택 대신 일할 복지제도,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 재훈련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제도들은 바닥에서 불평등을 해결함에 있어 전통적인 재분배 방식보다 실제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 앤서니 기든슨 《제3의 길 어디까지 왔나: 유민기념강연》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서 주장하는 바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8줄(151~200자), 10점>

[문제 3] 제시문 [다]에서 강조하는 바가, [가]와 [나]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3~14줄(301~3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이러한 것들(출제자 주: 만족과 효용)을 느끼기 위해선 대상을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접촉할 수 있고 그래야 추억과 효용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 대상을 소유하지 않고도 접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 이제 ‘소유의 종말’의 시대가 서서히 그러나 아주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머니 덕분에 지폐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고,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이러

한 과학의 발전은 몰상식하게도 아예 실존하지 않아도 접속만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오시이 마모루의 영화 ‘아바론’ 에서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나오기를 영원히 거부할지도 모른다.

-김의경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시대》, 중앙일보, 2004. 02. 28

[나]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산업 자본주의에서 문화 자본주의로, 소유에서 접속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조류 앞에서 사람들은 사회 계약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사유 재산의 관념이 산업 시대의 근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상 생활의 조건을 규정지었고 정치적 담론을 지배했으며 인간의 지위를 판가름하는 잣대의 노릇을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수백 년 동안 문명의 근본 패러다임으로 군림해 온 시장 체제는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접속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접속의 시대는 상거래와 정치 참여의 방식은 물론 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략)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경제는 연결의 속도를 높이고, 지속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비스화함으로써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가 상업적 관계로 변하고 모든 개인의 삶이 24시간 내내 상품의 틀에 갇혀 있을 때, 비상업적 관계, 다시 말해서 혈연, 이웃, 문화적 취향의 공유, 종교적 결사, 민족 의식, 형제애, 시민 의식에 바탕을 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간 그 자체를 사고 팔고, 삶이라는 것이 한낱 계약과 금전적 도구에 의해서 결합된 상업적 거래의 연속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될 때, 애정, 사랑, 헌신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전통적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중략)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 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 상거래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

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문화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는 이념적 세계가 아니라 연극적 세계이다. 그들의 의식은 노동 정신보다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 있다. 그들에게 접속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연결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1세기의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교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 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대신 상호관계의 그물망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다. 그들은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이다.

-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문제 4]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접속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의 인간 관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증하시오.

〈21~24줄(501~600자), 45점〉

(동국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인문계 논술고사)

### [출제 의도]

인문계 논술 문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1. 문제의 선택: 문제 선택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다양성에 두었다. 출제된 세 문제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영역적으로 균형을 갖도록 노력했다. 즉 시간적으로는 고전적(본질적) 문제와 현대적(시사적) 문제 사이의 균형을, 영역에 있어서는 어문,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등 사이의 균형을 취하도록 노력했다.

2. 문제의 유형: 문제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고, 세 유형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 유형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제시문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읽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주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찬성(옹호)과 반대(논박)의 논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소의 분석적, 종합적, 독창적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로서 어느 정도 논증의 형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문제의 난이도: 고등학교 3년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거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과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했다.

[문제 1]

이 글의 논제는 제시문 [가]를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그 우수한 한글을 잘 지켜가지 못하는 국어 현실 상황을 확인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 언어가 처한 현실을 바로 파악하여, 국어 현실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견해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본 문항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그 실천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외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내적으로는 말글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출제의도가 있다.

[문제 2]

19세기 말부터 서구 산업국가들은 경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입장이 개진되어 왔는데, 복지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수혜자들을 정상적 사회인으로 회복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문제는 수험생이 우리의 고전과 서구학자의 견해가 개진된 지시문을 통해 대립되는 의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로 출제했다.

### [문제 3]

제시문[다]는 앤서니 기든슨의 《제3의 길》을 요약한 것이다. 복지문제와 관련해 제3의 길은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이 기반을 두고 있는 평등성을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인 경제적 경쟁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그 주장이 과연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 3]을 출제했다.

### [문제 4]

개인은 무한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우리는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를 우리는 접속의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제시문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n)의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읽고 써낸 서평의 일부와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의 내용 일부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직접적인 만남 못지않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를 접속의 시대로 표현하고, 이 시대에는 인간이 형성해 온 사회적 토대에 수많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개인의 삶과 인간 관계는 더욱 큰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문제는 접속의 시대가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에 초래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증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 [문제 해설]

#### [문제 1]

말은 민족 주체성의 근본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한글은 세

계의 언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한 문자로서 이미 1997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아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말글의 세계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언중의 주인 정신 결여로 인한 외래어, 외국어 등의 무분별한 남용, 채팅어 남발, 국적 불명의 무분별한 언어 사용, 그리고 우리말 체계를 뒤흔드는 언어 사용이 난무하면서 우리 말과 글의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제시문(가)는 559돌을 맞이한 한글날을 기해 세종대왕님께 드리는 편지글 형식으로서, 한글의 우수성과, 그 우수한 한글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국어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나)는 국민 공통 과정인 고등학교 『국어』(상)에 실려 있는 최재천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의 일부이다. 주된 내용은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21세기의 우리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다.

본 문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말과 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그 실천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외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내적으로는 말글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 [문제 2]

19세기 말부터 서구 산업국가들은 경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입장이 개진되어 왔는데, 복지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수혜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회복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가)는 경제적 빈민층(사회적 약자)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층이 결코 무능력하지 않으며, 국가의 복지혜택(구제)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에 의존하게 된 경제적 상황이나 원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자들의 노동 의지를 약화시키고 파괴해 버림으로써 복지의 존자로 전락시키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빈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도덕적 타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결국 복지 의존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파괴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가]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문제는 수험생이 [가]와 [나]로 대비되는 제시문을 통해, 복지제도가 수혜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개진된 뚜렷한 차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의 평가가 목적이다.

### [문제 3]

제시문[다]는 앤서니 기든슨의 ‘제3의 길’을 요약한 것이다. 제1의 길은 최대 정부에 의한 무한 복지를 통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였고, 제2의 길은 최소 정부에 의하여 경제적 경쟁을 중시한 반면 경제적 평등을 축소시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였다. 제3의 길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와 포용적 평등을 선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수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거나, 재훈련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고용을 확대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고용률 향상이 국가의 세입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확대가 또 고용창출로 이어져 경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 문제는 이러한 제시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을 평가하고, 제3의 길이 [가]와 [나]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문제 4]

개인은 무한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우리는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를 우리는 접속의 시대 또는 정



보화 시대라고 한다.

제시문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n)의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읽고 써낸 서평의 일부와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의 내용 일부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직접적인 만남 못지않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를 접속의 시대로 표현하고, 이 시대에는 인간이 형성해 온 사회적 토대에 수많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개인의 삶과 인간 관계는 더욱 큰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문제는 접속의 시대가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에 초래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증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 〈모범 답안〉

※ 유의사항 : 여기에서 제시한 답안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형식의 답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번 문항처럼 여러 실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나 4번처럼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증하는 경우엔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해 주었으므로 요구하는 분량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분량을 지켜서 답해야 한다.

#### [문제1]

##### 〈서론〉

( \* 아래의 내용은 서론으로 쓸 만한 내용들을 글자수와 상관없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일별하면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하나를 정리하기 위한 도입 내용 검토한다. 본 문제는 201-250자로 서술해야 하므로, 서론과 결론은 굳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

세계성과 민족성,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는 충분히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상호 공존 또한 자연스러울 수 있다. 요컨대 민족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공동체적 삶과 집단적 정체성에 연결된 문제이므로 세계화의 진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영속적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간의 교류와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어도 민족적 정

체성이나 민족의 고유한 영역은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그 민족을 바로 서게 하고 세계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말과 글이 내적 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안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본론〉

〈\* 실천 방안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증해야 한다. 제기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글자 수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 본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정리했는가를 검토한다. 물론 여기 제시해 놓지 않은 방안 중 ‘성급한 영어 조기 교육이나 영어 공용화’ 등을 사례로 들어 반대론을 펼칠 수도 있다.〉

(1) 외국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과 오용을 반성하고 바른 언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외국어 남용이 가장 심한 곳은 한글 사용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해야 할 ‘언론 기관’ 들이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잡지 등의 제목이나 표제어 등은 거의가 다 외국어 일색이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는 세련된 말처럼 보이고 우리말을 쓰면 왠지 촌스럽고 고루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의 물결은 한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영어를 실질적인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글로 된 프로그램과 한글 사이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피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라는 말도 그러하지만, 정보화시대는 한글 속에 영어를 대거 수용하여 한글을 새로운 혼성 언어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생각된다. 가령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한다’거나 ‘컴퓨터가 다운되었다’는 말들은 한글이라기보다는 영어와 한글이 합쳐진 혼성 언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이 한글을 이상하게 변화시킬 것은 뻔하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은 외국어,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과 오용을 반성하고 바른 언어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국적불명의 무분별한 언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각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무선 통신 등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체불명의 은어와 비속어 등 국적 불명의 언어가 넘쳐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화는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처한 또 다른 곤경이다. 디지털 공간 속의 문자 언어는 사유의 깊이와 논리성을 상실하고 파편화 되는 경향을 띤다. 그것은 디지털 공간의 속성이다. 이런 경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채팅에 사용되는 언어이다. 그것은 기존의 언어의 정서법과 통사 규칙을 무시하며, 스스로 아주 저렴한 도구가 된다. 즉 파편화 되고 저속해져서, 복잡한 의미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각종 언어, 도형, 기호로 외계어를 만들어 통용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언어 습득력이 높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통신 언어와 일반 언어를 구별하는 성인과 달리 이들은 일생 생활에서도 그대로 통신 언어를 사용, 한글 사용에 대한 혼란은 물론 우리말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도 못한 한글을 마구 짓밟아서 형편없는 엉마조각처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이 처한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는 정보화의 물결로부터 한글을 구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편리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한글 사랑과 더 깊은 우리말 사랑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3) 우리글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널리 알려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외국석학들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다.”라고 했으며, 영국의 언어학자 쉘슨은 “한글을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아야 한다.”라고 극찬하였다. 이는 우리말의 극대화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 앞장 서야 한다.

먼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제 사용 언어의 순화 노력이 필요하다. 작게는 한글 문패 달기 운동, 국회의원석상의 명패 한글로 바꾸어 쓰기 등으로부터, 크게는 전문 용어(특히 법률 용어 등과 같은), 한글 인터넷 주소 쓰기, 간판 및 광고 언어 등의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과 글의 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말에 대하여 주체성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말의 뿌리를 바로 알고 긍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말의 뿌리를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알고자 하면 학습할 만한 충분한 참고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학습 현장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

우리가 순수한 토착어를 체계적으로 응용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무엇보다 우리말의 기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외국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도 외국말에 적대적인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른바 자생적 담론이니 우리말로 철학하기니 하는 것도 이런 무지의 상태에선 공염불로 그치기 십상이다. 언젠가 외국에서 사상으로서의 한류가 흐를 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완전히 배운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말글을 보호한다고 해서,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해 온 중국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범주들로부터 벗어나 그 범주들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근거는 우리말에 담긴 기억, 아직 회상되지 못하고 있는 그 기억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연중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우리말 발전의 기초가 되며, 바른 우리말이 국어를 지키는 신념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은 물론, 우리말의 뿌리, 우리의 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우리말 연구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현재 한글의 미래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이다. 550여 년 전 선조들은 세계 어느 문자보다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었으나 우리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언어 정보화 주도권을 외국 기업에 뺏긴 지 오래 되었다. 마이크로소

프랑스는 10여 년 전부터 인간과 컴퓨터가 완전한 의사 소통을 위해 '마인드넷'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마련, 각국의 언어를 연구 중인데 한국어를 능히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박사급 연구원을 대거 채용해 한국어 문법 체계와 맞춤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한글 정보화에 비해 우리의 국어 정보화는 열악한 환경을 지닌다. 예를 들어, 미흡한 기술, 제품 개발의 지연, 부족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기초 학문을 외면하는 사회 풍토에서 국어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순수 어학적 연구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말과 글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이런 언어 정보화의 주도권 장악이야말로 우리 말과 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6) 우리말이 세계어와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물에 따른 우리말 어휘를 만드는 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새로운 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문화 유입과 함께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고집하고 맹목적이고 국수적인 우리의 말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그런 경우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적 수용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문제2]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자를 정상인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다. [가]는 경제적 빈곤층이 무능력하지 않으며,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으면 정상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나]는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자들의 노동의지를 약화시켜 복지의존자로 전락시키는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제3]

1. 반드시 제시문 [다]의 주된 주장이 [가]와 [나]의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밝히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 아래에 제시되어진 것들 중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논술하면 된다.

###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

제3의 길은 국가의 복지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성과 경제적 성장을 위한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산적(적극적) 복지정책을 강조한다. 평등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도덕적 타락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수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거나, 재훈련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고용률 향상이 국가의 세입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확대가 또 고용창출로 이어져 경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

1) 제3의 길은 복지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성과 경제적 성장을 위한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산적(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장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제3의 길은 복지 정책이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 고용률이 증가하여 경제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며, 국가의 세원이 증대하여 복지제도가 더욱 확대된다는 선순환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어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세원이 늘어나지 않아 복지 확대가 어려워지거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 제3의 길은 복지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성과 경제적 성장을 위한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산적(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장하지만, 복지의존자의 도덕적 타락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 제3의 길은 복지정책이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 고용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며, 국가의 세원이 증대하여 복지제도가 더욱 확대된다는 선순환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3D직종 기피 경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반면, 고학력 실업률도 높다. 국가 고용정책으로는 고학력 실업자가 선호하는 직업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국가는 일할 자리가 있으나 실업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4]

〈유의점〉

1. 반드시 부정적 측면이든 긍정적 측면이든 한 가지 입장만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야만 한다.
2. 아래의 답안 내용은 글자를 제한하지 않고, 논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열거한 것이다.
3. 아래에 제시되어진 것들 중 한 가지 측면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3가지 내외의 사례를 제시하고 논술하면 된다.

[부정적인 측면의 논증]

〈서론〉

(\* 서론은 없어도 됨. 만일 서론을 쓴다 하더라도 제한된 글자수가 있으므로 2~3줄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정보화 사회를 대표하는 문명의 이기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터넷일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보편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삶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 무엇하고도 접속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지지 않고, 엄연히 있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모습을 감춰버려 어디에서도 우리는 접속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디지털 시스템이란 것이 사람의 능력 중 일부만 연장해 줄 뿐 인간의 영혼과 심성의 역할은 못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소유에서 접속으로 넘어가면서 불안과 초조는 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다. 손쉽고 편리한 이점보다 불안감이 몰고 온 불편이 더욱 늘어나 그만큼 걱정의 한도가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인간 관계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본론〉

첫째, 익명성으로 인한 인간 관계의 피폐를 들 수 있다.

접속의 시대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와 같은 사회적 규제에서 벗어난다. 정보 공간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 등 사회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가 약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며,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고, 적대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보 공간에서 제공하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불신하는 경향에 따라 사회적 심리 현상이 불신 풍조가 재연될 수도 있다.

둘째, 정보성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수동적 인간형 양산이다.

정보화 시대는, 다양한 의사 소통 창구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정보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만다. 정보 속에서 무게 중심을 잃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정보화 시대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라기보다 수동적 인간형을 양산하는 공간이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접속의 시대는 모든 인간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공동의 경험은 미디어 시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상업적으로 개조되고, 공동체가 공유해온 문화가 네트워크 경제에서 자꾸만 파편화된 유료 경험으로 쪼개지면서 접속에의 권리도 자연히 상업적 영역의 품으로 이동하게 된다. 소위 문화적 상업주의의 승리로서,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로부터 소외되고 그늘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욕구는 종교의 권위, 카리스마적인 민족적 지도자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체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근대적이거나 전근대적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자유로운 연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인간성 상실, 인간적 교류가 거부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

컴퓨터 오락, 컴퓨터 통신이나 컴퓨터 자체에 대한 해킹에 지나치게 탐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기 쉽고, 성적이 떨어지며, 일반 사회의 예절이 무시되어, 더욱 컴퓨터에만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버 세계에서만 의사 소통하고 현실 세계와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 오락이나 통신을 통해서 쉽게 폭력물이나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음란물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섯째,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입을 수 있다

백화점에 설치하여 문제가 되었던 몰래카메라와 정치인들에 대한 도청과 감청 등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은 전자적인 감시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결론〉

(\* 굳이 없어도 됨)

오늘날 우리는 제러미 리프킨의 말처럼 ‘접속의 시대’, ‘닷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화 시대를 이루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모든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고 해도 결국 정보화 시대의 주인은 우리인 것이다. 하루 속히 인터넷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인격과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한다. 인터넷은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의 바다로 전락시키느냐 인터넷을 자유가 함축되어 있는 건강한 정보의 바다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긍정적인 측면의 논증]

첫째, 정보화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구입, 원격교육 실시,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 소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검색 등, 우리의 삶과 학습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둘째,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 컴퓨터 통신의 대화방, 토론방, 게시판 등에서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의 장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론이 존재할 수 있게 해 주며, 아울러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적 통합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하이퍼 텍스트로 구현되는 다량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로 더 많은 사회적 활동과 더 정확하고 다양한 판단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개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지

방 선거의 많은 후보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익명성이 주는 긍정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익명성은 일상 생활의 사회적 규제에서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시하고, 대면 관계의 경우보다 한층 더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결론〉

(\* 굳이 없어도 됨)

우리는 '정보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정보화라는 정보 기술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우리의 윤리, 문화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무비판적 수용하게 되면 정보화 시대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라기보다 거대한 무사고 인간을 양산하는 공간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잘 살려 폭넓고 다양한 인간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http://www.unidream.co.kr>-



##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

-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과 주제 활용
-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별도의 논술 문제 출제
-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
- 교육부의 논술고사 기준 준수

### ▣ 배경

-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통하여 정원의 약 30%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추후 공지한다고 밝힘

### ▣ 향후 일정

- 2006년 상반기 이후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 조정
- 논술고사 준비가 공교육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논술문항 개발

##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 ▣ 목적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은 암기하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즉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에 있음

-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

### ▣ 개념과 성격

- 개별 교과 지식이 통합되고 교과 영역 간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
- 모든 사고는 통합적 인지활동이며, 중등과정의 개별 교과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총체로서의 사고력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
- 통합교과형의 개념은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 함. 따라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교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교과가 제안하는 여러 학습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논술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임

-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논술고사의 취지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방향과 일치

## ▣ 문제 유형

- 시험 시간: 4시간 내외
- 답안 길이: 인문계열에서는 문항에 따라 300~1,600자로 다양하며, 자연계열에서는 제한이 없음
- 문항 수: 모집단위에 따라 문항 수와 지정 영역이 다를 수 있음
- 문항 형식: 문항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의 제시문과 세부 논제가 출제됨

## ▣ 출제 방향

-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 인문계열에서는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풀이 과정과 답안을 제시한 뒤 원리와 개념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함
  - 주어진 통계나 조건 등의 자료를 해석, 응용, 평가하여 논제를 해결하는 문항도 포함될 수 있음
- 자연계열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며, 문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식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함
  - 수리적 사고력은 기본 개념과 원리 간의 상호관련성, 현상을 관찰하여 얻어낸 원리를 확인하고 일반화하는 수리적 추론, 실생활에서 수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의미
  - 과학적 사고력은 자연 현상을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유추하는 논증 과정을 의미하며, 주어진 문항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전통적인 과학 중 어느 한 분야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학문 분야가 복합적

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가능한 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

- 관련된 공식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한 것은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임
- 영어 제시문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자는 혼용될 수 있음

## ▣ 기대 효과

-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기계적인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을 통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토론 위주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 ▣ 논술고사 준비 방법

- 고등학교 전과정의 교과서가 논술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도출될 수 있음
-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음
-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교사는 그 과정이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논술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 인문계열 예시문항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문항 1]

〈제시문〉

(가)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자연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중략]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人身)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중략]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 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17)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중략]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적게 남아 있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전혀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물을 잔뜩 퍼마셨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갈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전과 다름없는 강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든 물이든 둘 다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존 로크, 『통치론』6장)

(나)

정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 ① 정보는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 ② 정보는 대량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③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다)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이다. 카피라이트 제도 하에서는 저작자, 작곡가, 기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1984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또한 창조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논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십시오.

## [문항2]

문제. 네 가지 문자 A, G, C, T 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란 A, G, C, T, AA, AG, AC, AT, GA, GG, GC, GT, ..., CAT, ... 등과 같은 순열을 뜻한다. 이러한 문자열은 일년이 지나도 대체로 잘 보존되는데, 가끔 다음과 같이 변형되기도 한다.

(가) 문자열의 맨 앞에 A, G, C, T 중 한 문자가 추가된다.

(나) 문자열의 맨 뒤에 A, G, C, T 중 한 문자가 추가된다.

따라서 가능한 변형은 문자열의 앞에 한 문자가 추가되는 것 네 가지와 뒤에 추가되는 것 네 가지로 모두 여덟 가지가 있게 된다. 그리고 변형은 일년에 많아야 한 번 일어나며 각각의 변형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p$ 로 동일하고, 어느 해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 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처음에 A 라는 문자열로 시작하여 10년 후에 GACT 라는 문자열로 변형될 확률은 얼마인가?

**풀이.** 한 문자열을 10년 동안 매년 관찰하여, 아무런 변형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O을, X라는 문자가 앞에 추가되는 변형이 일어났으면 X+를, 뒤에 추가되는 변형이 일어났으면 +X를 차례로 써 넣어서 아래의 표를 완성한다고 가정하자.

해	1	2	3	4	5	6	7	8	9	10
변형										

예컨대 A라는 문자열을 관찰해서 10년 뒤에

해	1	2	3	4	5	6	7	8	9	10
변형	G+	O	O	O	+C	O	O	+T	O	O

위와 같은 표를 얻었다면, 이 표는 A로부터 GACT에로의 문자열 변형을 나타낼 것이다. 또

해	1	2	3	4	5	6	7	8	9	10
변형	O	O	+C	O	O	+T	O	O	G+	O

위와 같은 표를 얻었다면, 이 표도 A로부터 GACT에로의 문자열 변형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처음에 A라는 문자열로 시작해서 10년 후에 GACT라는 문자열로 변형될 필요충분조건을 고려하면, 구하는 최종 확률은  $p^3(1-8p)^7 \times 360$ 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GACT라는 문자열로 변형된 것을 나타내는 표에는 공통적으로 O가 7개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O가 7개 기록되어 있는 특정한 표 하나를 얻을 확률은  $p^3(1-8p)^7$ 이고, 또 이러한 GACT 문자열 변형을 나타내는 표의 개수는  ${}_{10}P_3$ 를 2로 나눈 것, 즉 360개이기 때문이다. 결국 구하는 확률은 이 둘을 곱한  $p^3(1-8p)^7 \times 360$ 이다.

**논제.** 위의 내용은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제시된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풀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 (1) A라는 문자열을 관찰해서 얻어진 표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표가 얻어질 확률이 문자열 GACT를 얻을 확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해	1	2	3	4	5	6	7	8	9	10
변형	C+	O	+G	O	A+	O	O	+T	O	O

- (2) A로부터 GACT에로의 문자열 변형을 나타내는 표의 개수가 2로 나눈 것, 즉 360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 (3) 문제 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하여 문제 풀이 전체에 걸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문항 3]

## 〈제시문〉

(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의 횡포, 환경 오염의 피해, 공공재의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개입해 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공기업을 통한 독점 사업의 운영,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를 특정한 업자에게만 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을 위해서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독과점 기업이 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나)

정부 규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업 경쟁력의 약화, 기업과 정부의 유착,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창의를 실현될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 19세기에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20세기 들어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게 된 지속적인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 시장의 축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영국병’의 원인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 공공 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강성 노조로 인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에 있었다. 특히,

국내 총생산에 있어서 공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말의 경우 약 10%에 달하였다.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 지출 삭감,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는 석유 공사, 항공 회사, 전신·전화 회사 등과 같은 주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980~1994년의 기간 동안 중앙 부처 공무원의 약 25%를 감축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영국 경제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60~1979년 사이에 1인당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선진국 중 11위에 불과하였으나, 1979~1994년 사이에는 2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다)

모든 개인은 그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용도를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의 1차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그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익추구가 자연적으로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에게 가장 유리한 용도를 선호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중략) 물론, 각 개인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촉진하려고 직접 노력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어느 정도 사회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외국의 산업보다 국내의 산업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함이고, 그가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게 되도록 그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셈이다. 그것이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사회에 대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직접 추구했을 경우보다 더욱 유효하게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Adam Smith, 『국부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라)

인간과 자연 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다. 구매력의 양과 사용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비록 사람들은 ‘노동력’도 똑같은 상품이라고 우겨대지만, 일하라고 재촉하거나 마구 써먹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어쨌든 그 특별한 상품을 몸에 담은 인간 개개인은 반드시 영향을 입게 마련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인간’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마저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결국 쇠락해 간다. 그들은 악덕, 인격 파탄, 범죄, 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동하는 사회적 혼란의 희생물이 된다. 자연은 그 구성 원소들로 환원되어 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럽혀진다. 또 강이 오염되며, 군사적 안보는 위협당하고 식량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능력도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기구의 관리에 맡기게 되면 영리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원시 사회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화폐 부족이나 과잉은 경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이 시장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와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한 채 그 ‘악마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어떤 사회도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한순간도 견뎌 내지 못할 것이다.

(Karl Polanyi, 『거대한 변환』)

**문제 1.** (가), (나), (다), (라)를 입장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문제 2.** (라)는 우리 삶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정당한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 위의 제시문들

을 토대로 논술하시오.

논제 3.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어떤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나라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평가하시오.

[문항 4]

<제시문>

요즘 우리 사회에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어느 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이는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미국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혼유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이혼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혼율 산정에 관한 공식적인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혼율을 산정하다 보면 통계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와,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혼율 산정방식은 무엇이며, 그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혼율 산정방식들을 비교·검토해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혼율 산정방식을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를 분모로,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혼율 산정방식으로서, 2002년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306,600쌍)와 이혼한 부부의 수(145,300쌍)를 단순 비교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2002년도 우리나라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가 된다.

두 번째 이혼율 산정 방식으로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2년 연앙인구가 47,000,000명이고, 2002년 이혼건수가 145,300건이었으므로,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이 된다. 이 방식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 방식에 의하여 이혼율을 산정·발표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이혼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2년 기준 조이혼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4.0, 벨로루시 3.8, 몰도바 3.5, 체코 3.1, 벨기에 3.0, 덴마크 2.8, 일본 2.3 등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조이혼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는 일반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이혼 가능한 연령층인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이혼율(有配偶離婚率)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연도말을 기준으로 혼인 부부의 수를 분모로, 특정 연도 중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002년 말 현재 혼인 부부수가 11,011,902쌍이고 2002년 중에 이혼한 부부의 수는 145,300쌍이므로, 2002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3%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는 특정 시점의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를 분모로 하고 같은 시점의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



율로 나타내는 법원행정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시점까지의 누적된 총혼인 횟수, 총이혼횟수 등은 현재 호적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호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산정해보면, 2004년 1월말 현재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가 28,156,405이고, 총이혼횟수는 2,623,659이므로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9.3%가 된다. 이에 따르면 2004년 1월말까지 결혼한 부부 11쌍 중 약 1쌍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1.** 이 글에서 소개한 조이혼율 산정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이 글에서 다섯 번째로 설명한 이혼율 산정 방식을 사용하여 매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율을 계산하고, 매년 산정된 이혼율을 비교하여 이혼율 변화의 추이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 입장을 택하여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제 3.**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의 5가지 이혼율 산정 방식 중 이에 해당하는 방식을 골라 그 타당성을 입증하시오. (만일 새로운 이혼율 산정 방식을 생각해 냈다면, 그 방식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시오.)

## 자연계열 예시문항

▣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 [문제 1]

어느 부부가 아홉 쌍의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열 쌍의 부부는 서로 아는 사이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이도 있다. 이들 가운데 서로 알던 사람들은 악수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정중하게 악수를 한번씩 나누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 주인은 그 자리에 모인 19명(집 주인의 부인과 손님들)에게 오늘 모임에서 악수를 몇 번 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놀랍게도 이들이 악수한 회수는 모두 달랐다. 이때 집 주인의 부인은 악수를 몇 번이나 하였을지 생각해보고, 부인이 악수한 횟수를 일반화하여 설명하시오.

### [문제 2]

케플러는 많은 관측 자료를 조사한 결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궤도가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 왔던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동설보다 지동설이 크게 지지를 얻게 되었다. 타원은 공의 그림자에서 볼 수도 있고, 원기둥이나 원뿔의 절단면에서도 발견되며, 기울어진 유리잔에 담긴 물의 면이나 물체의 운동에서도 관측된다. 타원에는 두개의 초점이 있는데, 초점의 성질을 이용하면 점화 장치를 만들거나 환자의 몸 안에 든 결석 제거 장치, 전파 탐지나 음악실의 음향 효과 등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다.

1. 타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을 타원의 현이라고 하자. 주어진 방향과 평행인 현의 중점은 현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모두 일정한 직선 위에 있음을 설명하시오.

2.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타원에서 타원의 중심, 타원의 장축과 단축, 그리고 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3]

거대한 곤충 모양의 괴물이 등장하는 공상과학영화를 보고 돌아온 영희는 ‘사람보다 큰 개미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을 살펴보았더니 개미와 코끼리처럼 그 크기와 모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 중에는 개미처럼 생긴 것이 없고 반대로 작은 몸집을 가진 곤충 중에는 코끼리처럼 생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동물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연법칙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 각 변의 길이가 1 cm 인 정육면체와 1 m 인 정육면체를 비교하자. 변의 길이는 100 배, 표면적은 100<sup>2</sup>배, 또 부피는 100<sup>3</sup> 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유지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100배 늘어나는 경우, 그 표면적/부피의 비는 1/100이 된다.
- 정육면체 모양의 몸집을 가진 가상 동물을 생각하자. 정육면체의 내부 밀도는 일정하고 밑바닥 면이 다리에 해당된다고 가정하자. 이 동물의 몸집이 100배 커지면, 무게는 100<sup>3</sup>배 커지고 다리의 단면적은 100<sup>2</sup>배 커져서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배 늘어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뼈는 그 재질에 한계가 있어 압력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부러지거나 견딜 수 없게 된다. 이 조건은 정육면체 모양을 가진 동물의 크기를 정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 이번에는 정육면체 모양을 가진 가상 동물의 신진대사를 생각해 보자. 이 동물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외부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 받아야 한다. 이 가상 동물은 그 표면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만일 몸집이 100배 커지면 표면적/부피의 비율이 1/100로 줄어들게 되어 각 세포가 공급 받는 양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동물의 모양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내부 세포는 심각한 영양 부족 또는 산소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영희가 고찰한 “크기와 모양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근거로 ‘코끼리만큼 커진 개미’ 또는 ‘개미만큼 작아진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과학적으로 기술하시오.

#### [문제 4]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약 46억 년 전 먼지와 가스의 집합체인 태양계 성운에서 탄생하였다.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회전력에 의해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원반면에서는 먼지가 모여 점차 커다란 암석 덩어리로, 이들은 다시 미행성(微行星)으로 성장하였으며, 미행성들은 반복된 충돌에 의해 행성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원시 지구는 충돌에 의한 열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한 열에 의해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거의 전체가 녹아 있는 상태였으며, 철질 마그마와 석질 마그마가 분리되면서 핵과 맨틀이 형성되었다. 식어가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끊임없는 화산활동에 의해 방출된 가스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풍부한 두터운 대기층이 형성되었다.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는 지구 대기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비가 되어 표면에 내려 최초의 바다를 형성하였다.

바다의 생성은 지구 표면의 진화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표면의 2/3가 바다이며,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존재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크기와 화학조성, 바다 및 대기의 존재와 조성,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지구가 탄생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들 조건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지구가 탄생하고 전혀 다른 지구로 진화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결정한 이들 조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현재보다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목성이나 그 보다 먼 곳에서 생성되었다면, 얼음까지 끌어들여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행성으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아마도 주로 수소와 헬륨 등 가스 성분이 풍부한 목성형 행성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크기와 화학 조성, 대기의 조성, 바다 등은 지구의 표면의 온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표면의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높거나 낮았다면 바다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경우 지금과는 표면의 모습이 전혀 다른 지구로 진화했을 것이다.

아래 가), 나)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가) 지구가 반경이 약 3,400 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 (단 지구의 평균 화학 조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나) 지구가 지금의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 (단 지구의 평균 화학조성, 크기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참고사항 : 지구형 행성 중 금성, 지구, 화성의 성질〉

구 분	금 성	지 구	화 성
태양과의 평균 거리(AU)	0.72	1	1.52
적도 반지름(km)	~ 6,000	~ 6,400	~ 3,400
질량( $10^{24}$ kg)	4.87	5.97	0.64
태양복사에너지( $W/m^2$ )	~ 2600	~ 1400	~ 600
주성분원소	O, Si, Al, Fe	O, Si, Al, Fe	O, Si, Al, Fe
표면대기압(기압)	~ 90	~ 1	~ 0.01
대기의 주성분	CO <sub>2</sub> , N <sub>2</sub>	N <sub>2</sub> , O <sub>2</sub>	CO <sub>2</sub> , N <sub>2</sub>
표면온도	평균 ~480℃ 지역별, 계절별 변화가 적음	평균 ~15℃ 약 100℃ 이상의 지역적+계절별 차이를 보임	평균 ~ -65℃ 약 150℃ 이상의 지역별+계절별 차이를 보임
바다의 존재유무	없음	표면의 약 2/3	과거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

-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2005.11.28) -

##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안(교육인적자원부)

### 1.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 최근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현재 금지되고 있는 본고사로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대학별고사로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고사로의 편법적 활용을 지양하고 본래 논술고사의 긍정적 효과 기대
- 아울러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 확산과 이로 인한 고교교육 정상화 저해 방지

#### ▣ 추진경과

- 2005. 7. 부총리 8월 말까지 논술고사 기준설정 및 사후 심의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
- 2005. 7. ~ 8. 논술 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 관련 기관 의견 제출, 교육발전협의회, 전문가 협의회 등
- 2005. 8. 최종안 마련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 2. 기본방향

- 대학별 고사로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범위를 사전에 포괄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큰 방향을 제시
- 개별적, 구체적 문제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판단
  - 심의 결과를 판례적 기준으로 축적함으로써 대학 자율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갈 수 있도록 유도

### 3. 논술고사 기준 설정

#### ▣ 논술고사의 개념

-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  
-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

#### ▣ 논술고사 여부의 판단기준

- 답안 유형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가?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가?
-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단순히 (국, 영, 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가?
- 논리추론 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단순 암기 위주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답이 가능한 것인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인가?
- 주제에 대한 주장, 의견 진술의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가?  
지식의 숙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가?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예시)

- 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 ②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 ③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 ④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 4.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안

### ▣ 위원 구성

- 교사, 교수, 논술 및 대입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
  - 고교, 대학 입장의 균형적인 반영을 위해 교사, 교수 동수로 구성
- 위원 구성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

### ▣ 심의 절차 및 조치

- 심의 대상
  - 논술고사 기준 발표 후 시행된 대학별 논술고사
  - 각 대학에서 매 모집시기 전에 예고하는 대학별고사 문제 등 대학이 논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
- 심의 시기 및 조치
  - 각 대학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의 경우, 당해 대학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견으로 제시
  - ※ 대학에서 수시2학기 전형 전에 2005학년도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등 기실시한 논술고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도 심의하여 의견 제시
  - 매 모집시기 전형기간 종료 후 당해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의 개요 및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
  - 심의 후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 요구, 개선 요구 및 제재 등 두 유형으로 해당 대학에 통보

### ▣ 행·재정 제재

- 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제재 대상대학에 대해 위반 유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유형 및 수준을 결정
  - ※ 반복적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제재 가능
-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유형 및 수준을 최종 결정



- 행정상 제재 :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 재정상 제재 : 예산지원액 삭감,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 등

#### ▣ 심의결과와 전형결과의 관계

-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한 결과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도,
  - 이는 대학이 준수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대학 입학 전형의 효력 자체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대학이 논술고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정부가 해당 대학에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 대학이 이미 확정·발표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 예시>

### 1]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문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 )이라 한다.

- ① 셋바람 ② 높새바람 ③ 하늬바람 ④ 된바람

문제) 전 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모음 3가지를 쓰시오.

### 2] 특정 교과에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문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 노동 3권을 설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 3]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문제)  $x$ 에 관한 이차방정식  $x^2 - 2ax + 2a^2 - 8 = 0$  이 적어도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 조직에서 필요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호흡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거나 호흡이 억제되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소하면 혈중 pH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pH의 변화를 인체는 호흡을 통해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가 조직으로부터 폐로 운반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

3. 만약 심한 호흡곤란으로 폐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억제될 때, 인체는 어떤 방법으로 산-염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4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문제) 다음 제시문을 서술(직역) 하시오.

People volunteer in order to help other people in need. They also volunteer in order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y want to help the people in their community who need help. However, volunteering is not only good for the community and those in need, but it is good for the volunteers, too.

문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A] A basic principle applicable to all scientific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and medical science, states that correl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causation. That movement of one variable is linked to another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one variable causes the other. Suppose, for example, you notice that wherever criminal activity abounds, more police patrol the street. Should you conclude from this evidence that police patrols cause criminal activity and recommend pulling police off the street to lower the crime rate? The answer is clearly no, because police patrols do not cause criminal activity; criminal activity causes police patrols. This situation is called reverse causation and can produce misleading conclusions when we interpret correlations. ....(후략)

[B] 아직 완전한 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보통 사람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과학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경제논리는 가끔 왜곡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기보다는, 경제논리를 막연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중략) 잘못 사용된 경제논리의 또 다른 유형은 원인과 결과의 혼동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착각의 예는 물가의 불안정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금시장의 투기자만을 탓

하는 정책집행자의 단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금시장의 투기자들이 정책집행자에게 현행 경제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암시를 종종 전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인과 결과의 혼동에 기인하는 경제논리의 오용은 평화의 사자(使者)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할 만하다.

## <질의 · 응답>

[문1]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답]

-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지난 6월 대학들이 2008년 이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한 이후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과 논술고사 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하여 논술고사가 본고사 형식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논술고사가 본래의 형태로 활용되어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교육혁신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논술고사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육발전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대학별고사의 하나로 실시되는 논술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학교에서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이와 병행하여 추진될 것임

[문2] 기준 설정 시 논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논술고사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고,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움
- 논술고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편법적인 본고사 형태로의 활용을 억제하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문3]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외국어(영어) 제시문 사용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 논술고사에서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술고사는 외국어의 해석능력 없이는 실제로 학생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논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고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 학생의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여 전형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 시험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외국어 교과 성적을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문4]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기준 설정 이전에 실시된 논술고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 [답]

-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금년 수시2학기 전형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부터 적용됨
- 2005학년도나 금년 수시1학기 전형의 경우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대학에서 기실시된 문제 또는 사전에 예고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임

## [문5] 논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한 것인가?

## [답]

- 논술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논술고사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와 교사는 동수로 구성하였음
- 또한, 논술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12개 단체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음
-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대해 개선 요구 및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게 될 것임

## [문6] 논술고사가 본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 [답]

- 매 모집시기 전형이 끝나면 바로 대학들로부터 논술고사의 개요와 출제한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를 실시할 계획임
- 심의는 대학들로부터 논술고사의 개요와 출제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되,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위원회가 해당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임

[문7] 심의 결과 본고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답]

- 논술심의위원회가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개선 요구나 개선 요구 및 제재 등 두 가지 형태로 통보하게 됨
- 다만, 대학에서 전형이 진행되는 중에 매 모집시기마다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전형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정원이나 재정지원 등도 학년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 유형이나 수준은 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그간의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 부과할 계획임

[문8] 적성·인성검사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가?

[답]

- 적성·인성검사가 전형과정에서 Pass/Fail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 그 결과가 점수화되어 전형요소로 포함될 경우 그것이 본래 의미의 적성·인성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임

[문9] 구술이나 면접고사에 대해서도 심의하는가?

[답]

- 원칙적으로 구술이나 면접고사의 경우도 본고사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

### 야 함

-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논술고사와 달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대면 및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사전에 대강의 질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시험개요나 출제문제 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곤란함
-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구술·면접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음



## 만들어 주신 분들

### 기획 위원

김성기(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고봉주(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양재길(경기도교육청 중등장학담당장학관)

김형석(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영창(중등교육과 장학사)

안창성(중등교육과 장학사)

박선중(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용주(중등교육과 장학사)

박재희(중등교육과 장학사)

### 지도 위원

김용태(천천고등학교 교감)

송수현(수성고등학교 교감)

성은주(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개발 위원

#### • 영역별 팀장

인문 반채용(수지고등학교 교사)

사회 류민권(영덕고등학교 교사)

수리 임선순(과천고등학교 교사)

과학 유재준(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예술 양일석(관양고등학교 교사)

#### • 집필 위원

오지수(군포고등학교 교사)

박미숙(천천고등학교 교사)

박대열(백양고등학교 교사)

김평환(수성고등학교 교사)

성미영(현암고등학교 교사)

이현주(청학고등학교 교사)

조영돈(불곡고등학교 교사)

이은옥(수리고등학교 교사)

권윤호(풍덕고등학교 교사)

윤성채(소사고등학교 교사)

김태국(광주고등학교 교사)

조정길(수원고등학교 교사)

김명환(성안고등학교 교사)

이명선(수성고등학교 교사)

이인숙(용호고등학교 교사)

이미선(남한고등학교 교사)

## 사과의 실타래 풀어 주기

- ▮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조원동495)  
T E L : (031) 2490-580  
F A X : (031) 2490-430  
홈페이지 : <http://www.ken.go.kr>
- ▮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 ▮ 발행일 ▮ 2006년 4월 일
- ▮ 인 쇄 ▮ 2006년 4월 일
- ▮ 편집·인쇄 ▮ 범신사 TEL : 503-8737